

2021년 제21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2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 Asian Humanities Society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역할

The Role of Humanities in the Post-Corona Era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00~15:30
- 장소 : 모산학술회관 (대면 / 비대면 진행)
- 주최 : 모산학술재단
- 주관 : 동아인문학회
- 방법 : 1부 - 개회사 및 기조강연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2부 - 분과발표 (대면진행)
- 후원 : 현대석재, 한국구조안전연구원

2021년 제21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역할

The Role of Humanities in the Post-Corona Era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00~15:30
- 장소 : 모산학술회관 (대면/ 비대면)
- 주최 : 모산학술재단
- 주관 : 동아인문학회
- 방법 : 1부 – 개회사 및 기조강연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2부 – 분과발표 (대면 진행)
- 후원 : 현대석재, 한국구조안전연구원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요란한 시국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22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 여러 회원님과 학회의 발전과 지원에 물신양면으로 애써주시는 홍우흠 모산학술재단 이사장님, 심원필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아인문학회는 금년 학술지 평가에서 94점을 넘은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지의 자격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일신우일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앞서 새 모습으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극성도 우리의 학문적 열정을 가로막지 못하여 우리는 오늘 모산 선생님의 수택이 서린 모산학술회관에 모였습니다.

이번 학회도 튼실한 결실을 맺으며 무탈하게 마무리 되리라 믿으며 기조 발표를 해주실 강릉원주대학의 박영주 교수님, 중국 무한대학의 고문강 교수님, 미국 마셜 대학의 홍효창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 학자의 섭외에 큰 도움을 주신 최환 교수님, 구사회 교수님, 이승우 교수님, 남기수 교수님, 이행철 교수님 등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학회지 출간은 물론 학회의 대소사를 솔선수범하여 도맡아 해주시는 홍성희 교수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회가 열린 학술교류는 물론 정보와 친교의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학운 왕성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동아인문학회

회장 최 한 선

격려사

오늘 본 동아인문학회 제2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여 오신 학회장 최한선 박사와 편집간사 홍성희 박사를 비롯한 신규임원 및 국내외 회원 여러분, 그간 우리 다 함께 겪어온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19란 역병의 망령으로 인해 공포와 부자유 속에서 기식엄엄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고 원천이 깊은 우리 동아인문학회는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부단한 연구 활동을 통해 그 지루한 어둠의 터널을 매우 지혜롭게 지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형식상 약간의 제약은 있었으나 매년 이어져 온 국제학술대회를 줄기차게 개최함과 아울러 연간 네 번 학회지 <동아인문학>을 간행하여 계속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받게 되었음은 그 상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회원 여러분, 創業도 어렵지만 守成이 더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동아인문학회는 고 慕山 沈載完 박사님의 인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학회로서 20여 년간 명실상부한 학술활동을 전개,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文, 史, 哲의 學際를 융합하고 국제간의 소통을 전제로 한 학술활동은 동아인문학회의 본질이며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동아인문학회를 결성하고 후원해온 본 모산학술재단은 앞으로도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학운 형통을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대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동아인문학회
명예회장 홍우흠

2021년 제21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 학술행사 일정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00~15:30

일정	내용	발표자	시수(분)
09:30~9:50	등록		(30)
10:00~10:10	개회사	최한선 (회장) (전남도립대학교)	(10)
10:10~10:20	축사	홍우흠 선생님 (모산재단 이사장)	(10)
10:20~10:30	시상식	공로패 및 우수학술상	(10)
	휴식		(10)
10:40~11:00	[기조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역할	박영주 (한국, 강릉원주대학교)	(20)
11:00~11:20	[기조강연] Discourse and Social Change: Lessons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Hong, hyo-chang & Kaneso, Yuya (Marshall University, U.S.A & Toyo Gakuen, University, Japan)	(20)
	휴식		(10)
11:30~11:50	[주제발표] 佛教智慧与人类生态 —后疫情时代人文学之社会意 义再思考	高文强 (中國, 武汉大学文学院)	(20)
11:50~13:00	점심식사		
13:00~14:30	분과발표	3분과	(90)
14:40~15:00	종합토론		(20)
15:10~15:30	윤리교육 및 폐회사		(20)



【기조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역할

박영주
(한국, 강릉원주대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역할

박 영 주

(한국, 강릉원주대학교)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란 코로나-19(COVID-19)로 통칭되는 세계적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 사회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일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글로벌 시대를 실감케 하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같은 해 3월 최고 단계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격상시키면서 지구촌이 위기에 휩싸였음을 실감한 지 어느 사이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근래의 추세적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여전한 위기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담론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부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만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고, 사태 종식 이후 새롭게 전개될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말미암는다.

그동안의 팬데믹 사례로는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만 명을 몰살시킨 페스트를 비롯해, 1918년 유럽 대륙에서 확산하여 전세계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희생된 홍콩 독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그야말로 세계적 감염이 이루어진 데다, 여전히 진행중인 2021년 11월말 현재만도 2억 6,000만 명의 확진자에 500만 명을 훌쩍 넘긴 사망자를 낼 만큼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중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19는 인류사에 가장 혹독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언택트 국면이 일상화될 것임을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다. 이렇듯 언택트가 일상화된 뉴 노멀 국면이 과연 그대로 전개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에 불과하며, 예측은 다만 예측일 따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와 함께 전 세계가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할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변화를 바람직한 모습과 내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언택트 기술과 개인화된 삶

언택트 국면의 확산은 예컨대 챗봇(chatbot)의 기능적 확장과 광범위한 적용에서 특징적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은 대화를 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즉 채팅 로봇으로서, 일종의 대화형 인공지능(AI)이다. 음성이나 문자를 매개한 대화를 통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므로,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신속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우리 자신 메신저를 통한 대화와 각종 일 처리를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사실 챗봇은 이미 우리 일상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자리잡고 있다. 챗봇처럼 실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피하는 기술을 ‘언택트 기술’이라 부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같은 언택트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된 생활 환경이 뉴 노멀이 될 것을 전세계가 지극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힘입어 공공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 기술은 이제 ‘집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지탱하는 기술이 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주목받은 언택트 기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낸 분야는 ‘화상’을 통한 업무 수행과 교수-학습이다. 재택 근무와 원격 교육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문화는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적잖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재택 근무 체계를 갖추어 굳이 날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 화상회의 업체인 줌(ZOOM)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교육은 교수-학습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실시간 화강강의든 녹화된 영상강의든, 코로나 사태로 이제 거의 모든 학령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리하여 비대면 교수-학습은 초기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점차 긍정적이며 효용도가 높은 수업 방식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이와 같은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들어 특히 ‘개인화된 삶’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변화상을 초래하고 있다. 언택트 기술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것은 당연하다. 개인 유튜브(YouTube)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대면 미디어가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컴퓨터나 모바일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세상의 거의 모든 곳을 구경할 수 있고, 온갖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눈으로일망정 다양한 음식까지도 맛볼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다.

디지털 미디어 가운데서도 특히 스마트폰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처리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로 부상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포노 사피엔스(Pono Sapiens)’로 지칭되는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인류는 특히 정보 선택권을 활용해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을 갈무리해 가면서 점차 개인화된 사고와 정서의 소유자로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넘나드는 문명인으로 자처하며 책 한

줄 읽지 않는다. 그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언택트의 코로나 사태가 일종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말미암은 이와 같은 몇몇 국면을 염두에 둘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기술이 뉴 노멀로 자리잡아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지 사회 전반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방식은 아닐 터다. 예컨대 재택 근무나 원격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선호해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폭넓게 갖추어져 있을 따름일 것이다. 개인화된 삶만으로는 결코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언택트 기술이 우리 현실의 삶을 지탱해 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삶은 비대면을 통해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인문학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적용

코로나 사태는 지식과 정보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글·페이스북·네이버·다음 등과 같은 온라인 소통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다 큰 영향력과 막대한 재화를 축적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화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문을 장악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콘텐츠가 인간사 전 부문에 걸쳐 더욱 정교해진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날 지식이나 정보는 재화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하다. 20세기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지식이나 정보를 사고 판다는 것은 마치 정신적 가치나 품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여겨 가당치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정신적 가치나 품위는 물질적인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나 품위마저도 매매가 성립할 경우 얼마든지 재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인문학은 본질적 국면에서 인간의 정신적 가치나 품위에 직결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인문학도 재화로 환산 가능한가?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런 시대에 와 있다. 따지고 보면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자 줄기이기에, 모든 지식정보의 뿌리이자 줄기이기도 하다는 논리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은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진원지이자 그 자체의 가치와 적용을 성찰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20세기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은 예컨대 교육서비스와 같은 가치재(merit goods)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재는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특정 소비자 이외의 다른 소비자를 해당 재화나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공

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 공공재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문학은 과거와 견주어 볼 때 생산보다는 소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가치재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던 인문학이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은, 뿌리깊게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속성, 즉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로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 탐구 및 실천 문제라는 것이 인간사 모든 국면에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문학은 통섭(統攝・consilience)의 기치 아래 재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문학의 공공재적 속성과 통섭의 국면을 수용하는 태도와 방식에 있다.

사실 인문학은 본디의 속성 자체가 통섭적이다. 문사철(文史哲)을 인문학의 요체로서 함께 추구해 온 동양의 전통이나, 우주의 질서를 논리적 성찰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하나로 추구해 온 서양의 전통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전통시대 동양이나 서양은 이러한 통섭적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인류가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념이나 경계를 넘어설 경우에도, 대립하면서도 의지하는 관계, 즉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상호의존의 대대적(對代的)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유기적 연관과 상호의존적 질서를 대대공존(對待共存)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문학 역시 대대공존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 인식과 가치의식에 기반한 역할을 지향할 경우해야 비로소 바람직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재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인문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기능한다면, 자본의 논리에 토대를 둔 산업화가 아닌, 통섭과 대대공존의 논리에 입각한 공동선의 추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우리 삶에 어떤 이치가 있다면 그것은 ‘지속 속에서의 변화’일 것이다. 이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사회에도 역사에도 적용되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개념을 든다면 ‘변화’일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존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속’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이다. 무언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야 그 이전의 것과 차별되는 변화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속성상 ‘지속’의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인문학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글로벌’이라는 말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문제도 협소한 시각이나 단순한 접근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다양한 관점, 폭넓은 이해, 유연한 해결 방법이 요구되고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능력은 사고력·판단력·가치분별력과 같은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갖추어질 수 있다. 인류가 각 시대마다 삶과 문화를 일구어 오는 과정에서 ‘지속’의 역할을 한 인문학은 이와 같은 소양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첨단 과학기술을 수반한 지식정보와 디지털 콘텐츠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산업화한 형태의 재화 생산에 골몰할 때, 인문학은 예컨대 모바일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모바일을 성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작업을 더욱 예각화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인간답게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끄는 학문이다. 첨단기기에 실린 지식정보와 디지털 콘텐츠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된 생명공학의 성과가 사회적 논의를 간단없이 제기하는 오늘날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정체성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끊임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인문학에 종사하는 이들로서도 이를 유념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도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문학이 정신적 백신 역할을 하여,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인문학은 언택트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며, 공동체 속에서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더욱 고양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추상적인 발언이지만, 인문학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언택트 기술이 우리 현실의 삶을 지탱해 줄 궁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데다, 인간의 삶은 비대면을 통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존속될 수 없기에, 오히려 포노 사피엔스의 사고와 정서를 진단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장악한 시대 인간의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보다 만족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각자의 체험과 고통에서 얻은 교훈을 자양분으로, 예의 인문학적 소양과 같은 우리 삶에서 정작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현실로 다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2진법의 단순명료한 논리가 10진법의 복잡다단한 세상을 깔끔하게 제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들 시대에 적응하면서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는 것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진법의 논리는 이제 필수교양을 넘어서서 일반상식이 되었다. 사유가 언어를 만들어내고 지배하던 시대에서, 전자기기 기호가 사유를 만들어내고 지배하는 시대에 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손바닥에 놓인 성능 좋은 액정 하나면 세상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점점 다채로운 빛깔이 아닌 흑백으로 물들어 가는 듯싶다.

오늘의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러한 흑백의 세상에 색깔을 입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색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입혀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가 돌게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시선만큼은 늘 인간의 내면을 향해 있어야 한다.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물질로 환원시키는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은 눈물의 의미를 묻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

Role of the Humanities in the Post-COVID Era

Park, Young-ju
(Gangneung-Wonju Univ.)

< Abstra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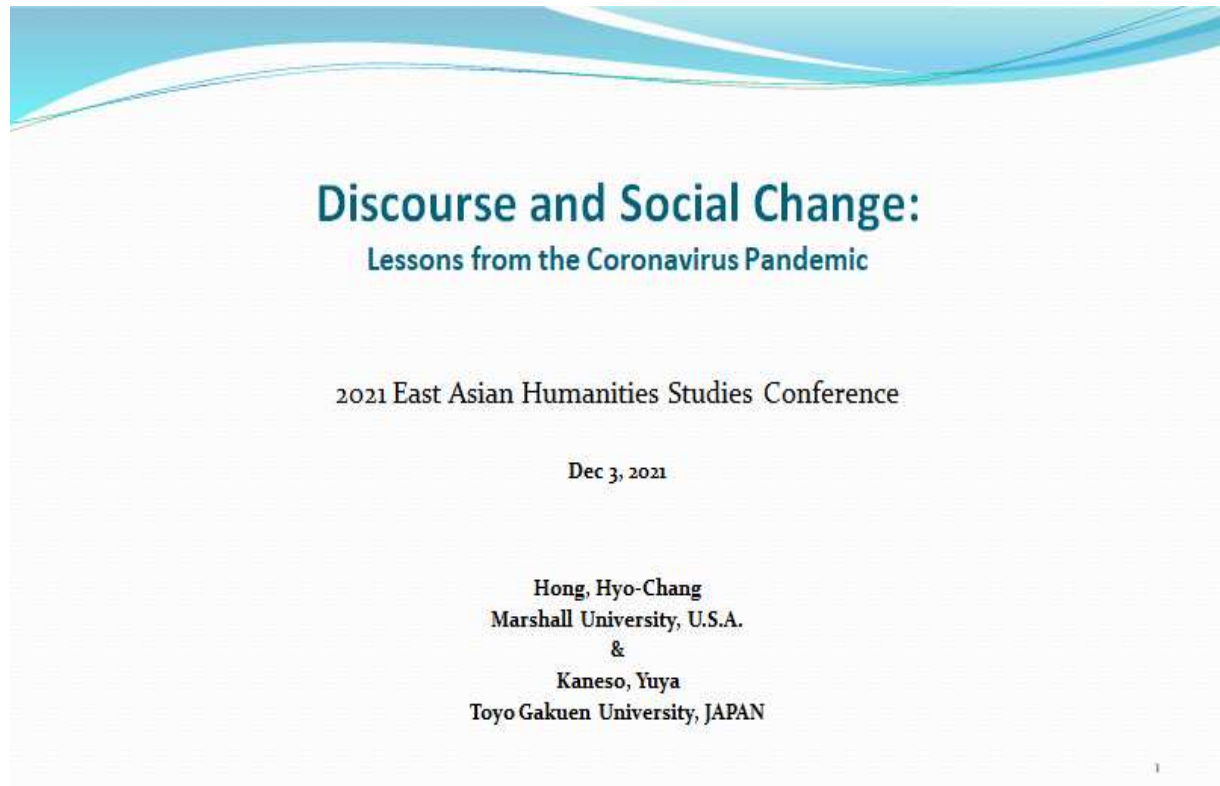
Now that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from COVID-19, post new normal is becoming a global hot topic. This study investigates social status and role of the humanities in corona era and post-corona era. In the new normal era, new standards foreshadow revolutionary changes in almost all areas, including society and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art and education, beyond the detailed actions of our daily lives.

Before the 20th century, the humanities was seen as merit goods, but nowadays, it is seen as a type of public goods. This is due to real-time sharing of a wide arra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 devices, the dismantling of inter-disciplinary barriers in academics driven by mega capital, and globalization within the academic realm.

These days all academic disciplines demand practical usefulness. However, the humanities is a study that cultivates a possibility of such usefulness and lays foundations to make knowledge useful at any time, instead of pursuing instant usefulness. This esoteric nature of the human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highly productive and eventually practical value. In this era when scientific technology has profound influence on human life, debates over identity of the humankind arise constantly.

Accordingly, social value and role of the humanities are repeatedly highlighted. People engaged in works related to the humanities need to become freshly aware of the need to constantly explore how to maximize social utility of the humanities.

Key Words : Humanities, Post-COVID era, Public Goods, Merit Goods



Corona Virus and its Impact

Worldwide

Total cases as of Nov 25, 2021:
261 M (261,000,000)

Deaths as of Nov 25, 2021 :
5.19M (5,190,000)

Corona Virus and its Impact

In the U.S.

Total cases as of Nov 25, 2021:
48.1 M (48,100,000)

Deaths as of Nov 25, 2021 :
approx. 777k (777,000)

Corona Virus and its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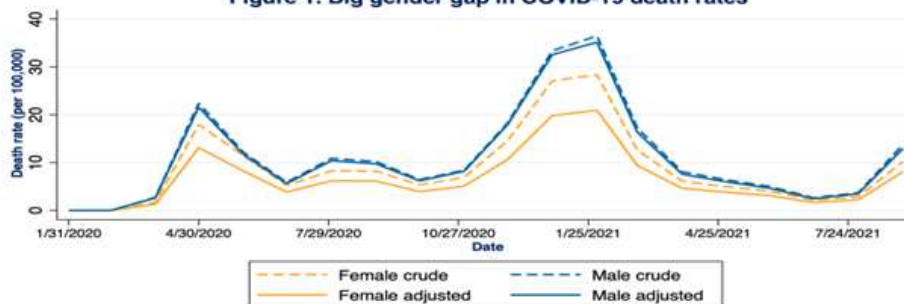
The U.S. as one of the highest cases and deaths from the Covid:

Total Covid Cases
 $48.1 \text{ M} / 261 \text{ M} * 100 = 18\%$ of all Covid cases worldwide

Covid Deaths:
 $777 \text{ k} / 5.19 \text{ M} * 100 = 15\%$ of all Covid deaths worldwide

Deaths Caused by Covid-19 by Gender

Figure 1. Big gender gap in COVID-19 death rates



Note: Author's calculations. Age standardized COVID-19 death rates, using the same U.S. 2000 population weights for men and women. Number of deaths reported as of September 15, 2021.

Source: Provisional COVID-19 Deaths by Sex and Age; U.S. Census Bureau, 2015-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BROOKINGS

Report from the Brookings Institution
(from February 2020 to August 2021)

5

Deaths Caused by Covid-19 by Gender

Deaths caused by Covid-19 by August 2021 divided by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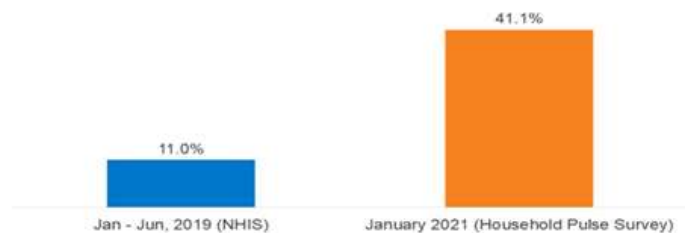
Males: 362,187 vs. Females: 296,567.

6

The Pandemic and Mental Health

Figure 1

Average Share of Adults Reporting Symptoms of Anxiety Disorder and/or Depressive Disorder, January-June 2019 vs. January 2021



NOTES: Percentages are based on responses to the GAD-2 and PHQ-2 scales. Pulse findings (shown here for January 6 – 18, 2021) have been stable overall since data collection began in April 2020.
SOURCE: NHIS Early Release Program and U.S. Census Bureau Household Pulse Survey. For more detail on methods, see <https://www.cdc.gov/nchs/data/nhis/earlyrelease/ERmentalhealth-5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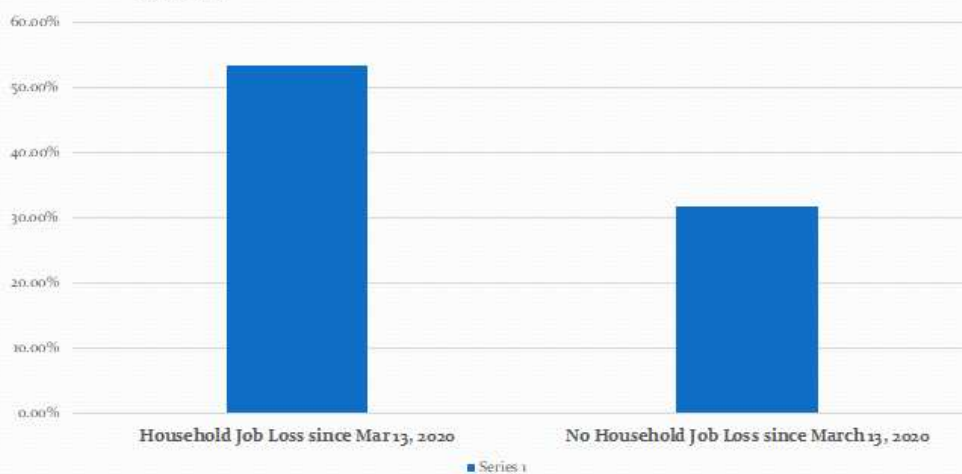
KFF

% of adults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7

Figure 2

Adults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during the Pandemic, by Household job Loss Status



■ Series 1

8

Lessons from the Coronavirus

The pandemic has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umans as a system of closely knit networks bound by strong relationships and common interests because:

1. Nature and its forces do not discriminate.
2.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s of nature and its forces.

Therefore:

1. Being in harmony and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is crucial in maintaining both natural and social order and systems.
2. New ways of conceptualizing individuals as constituting a system of interlocked networks may be needed in the future.

9

Current Research

Assuming that a) new ways of thinking about social, cultural, and international changes are needed in the post-pandemic world, and b) language is a direct reflection of social contextual phenomena:

- What is the nature of the pre-pandemic world like as represented in various discourses?
- How are people with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s represented in various discourses?
- What discursive changes can be envisioned to reflect a different world after the pandemic?

10

Data for Linguistic Analysis

Data:

Texts published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that represent different (minority) groups of people with various power inequ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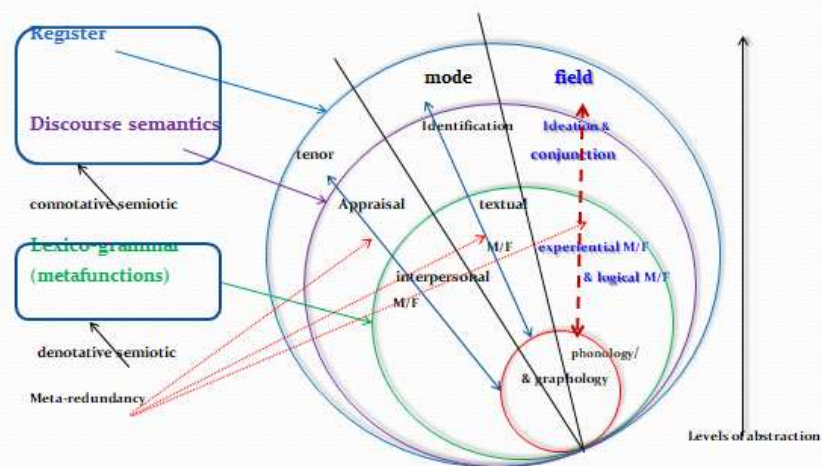
Frames of analysis:

- 1) System of transitivity based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 2) Social actor representation analysis based 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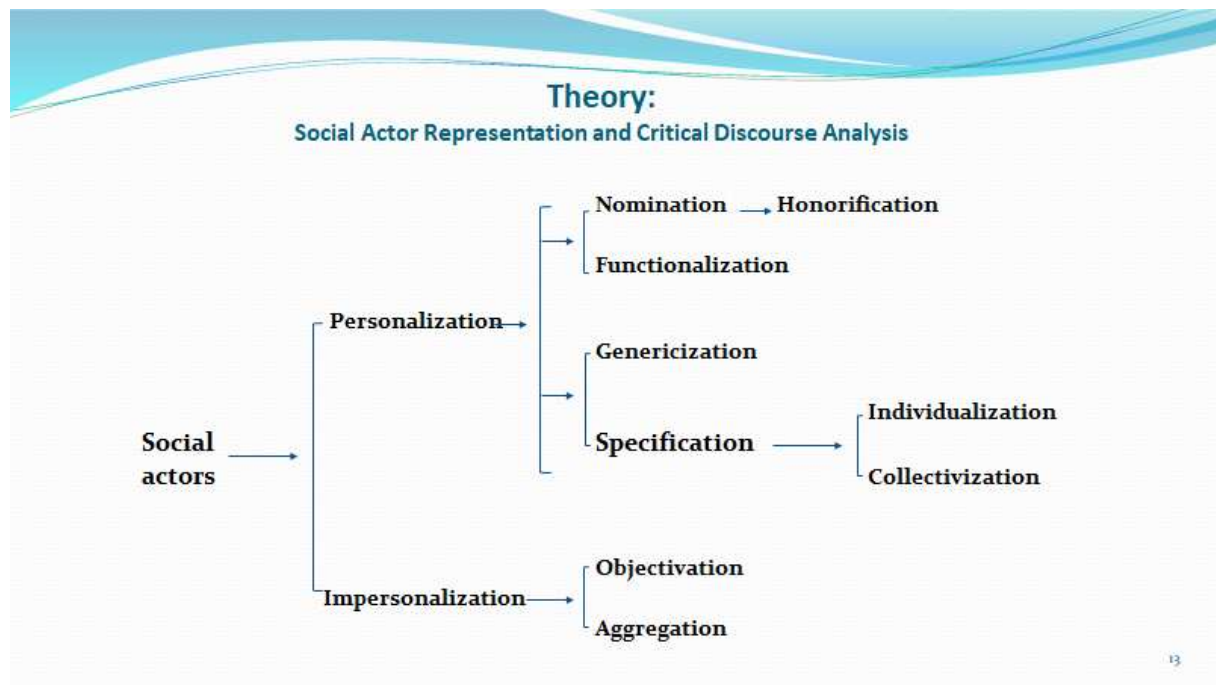
11

Theory: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Context



12



Sample Data (1)

Newspaper article about *us* and *them* (source: tabloid newspaper *The Sun*)

British commandos launched a devastating blitz on the Taliban – as the evil terrorists held a party to celebrate Benazir Bhutto’s murder... Royal Marines crept into position as the fanatics partied the night away just hours after Ms Bhutto was killed in Pakistan... Ragtag Taliban sentries tried to hit back with machine gun fire – but stood no chance against the heroes of 40 Commando’s Charlie Company... Two bloodthirsty revelers trying to creep towards Our Boys in a trench were spotted by thermal-imaging equipment – and targeted with a Javelin heat-seeking missile...

14

Sample Analysis of Data (1):

Connotative Meanings

Representation of **Our** side

- British commandos;
- Royal marines;
- Heroes of 40 Commando's Charlie Company;
- Our boys;
- etc.

Implied meanings:

- **we** are professional and well organized;
- **we** are decisive and well trained.

Representation of **Their** side

- The Taliban;
- Evil terrorists;
- Fanatics;
- Ragtag Taliban sentries;
- Bloodthirsty revelers;
- etc.

Implied meanings:

- **they** are disorganized and unprofessional;
- **their actions** are inappropriate and incompetent

15

Sample Data (2):

Social Actor Analysis

Newspaper article about **us** and **them** (source: tabloid *The Daily Mail*)

Scores of Muslim inmates... to launch... a claim for compensation... They say their human rights were breached when they were given.. a menu by officers at HMP Leeds last month... More than 200 Muslim inmates.. are believed to have been offered the meat... The prison denied that any Muslim prisoners had been given...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It comes at 16 Muslim inmates at Leeds Prison prepare to... Kate Maynard... who is representing some of the men... Last year the Prison Service was forced to apologize to Muslim inmates...

16

Sample Analysis of Data (2):

Social Actor Representation Analysis

Representation of **Our** side

- officers at HMP Leeds
- The prison;
-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of Justice;
- Kate Maynard;
- etc.

→ Representational strategies of **Us**:

Anonymization;
Functionalization;
Objectivation and nomination

Representation of **Their**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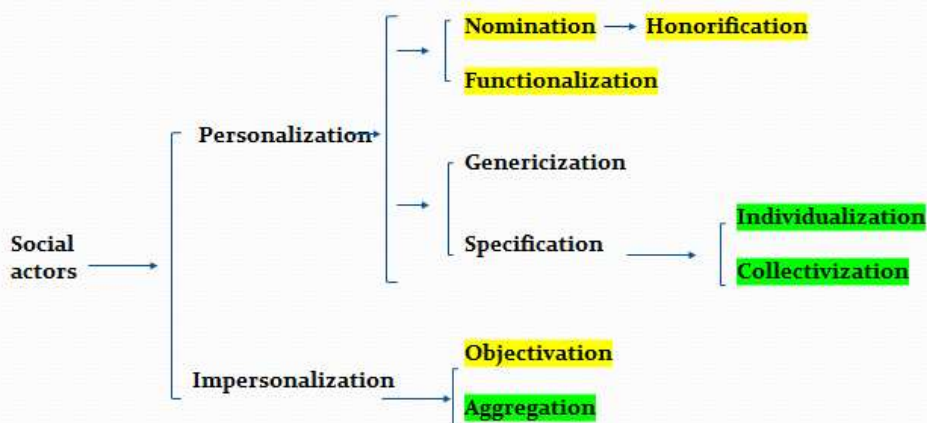
- Scores of Muslim inmates;
- More than 200 Muslim inmates;
- any Muslim prisoners;
- Muslim inmates;
- etc.

→ Representational strategies of **Them**:

Collectivization;
Individualization;
Aggregation and overlexicalization

17

Sample Analysis of Data (2): Social Actor Representation Analysis



Dominant Groups: **yellow**, Powerless groups: **Green**

18

Sample Data (3)

Source: **Novel** *Twilight* by Stephanie Meyer (**Edward**: male character, **Bella**: female character)

[His hand] was suddenly gripping the body of the van, and something [Edward] was dragging **me**, swinging my legs around like a rag doll's, till **they** hit the tire of the tan car. "Bella" Are you alright?" "I'm fine." **My voice** sounded strange. **I** tried to sit up, and realized **he** was holding **me** against the side of his body in an iron grasp. "Be careful," **he** warned as **I** struggled. "I think you've hit your head pretty hard." **I** became aware of a throbbing ache centered above my left ear. "Ow," **I** said, surprised. "That's what I thought." **His voice**, amazingly, sounded like **he** was suppressing laughter. "How in the ..." **I** trailed off, trying to clear my head, get my bearings. "How did you get here so fast?" "I was standing right next to you, Bella," **he** said, **his tone** serious again. **I** turned to sit up, and this time **he** let **me**, releasing **his hold around my waist** and sliding as far from me as **he** could in the limited space. **I** looked at his concerned, innocent expression and was disorientated again by **the force of his gold-colored eyes**. What was I asking him?

19

Sample Analysis of Data (3):

Transitivity Analysis

Processes		Actor	Goal
Material	grip	Edward	the body of the van
	drag	Edward	me (Bella)
	swing	Edward	my legs (Bella)
	hold	Edward	me (Bella)
	suppress	Edward	laughter
	let	Edward	me (Bella)
	release	Edward	his hold around my waist
	slide	Edward	o
Material	hit	they (Bella's legs)	the tire of the tan car
	(tried to) sit up	Bella	o
	struggle	Bella	o
	(trying to) clear	Bella	my head (Bella's)

20

Result of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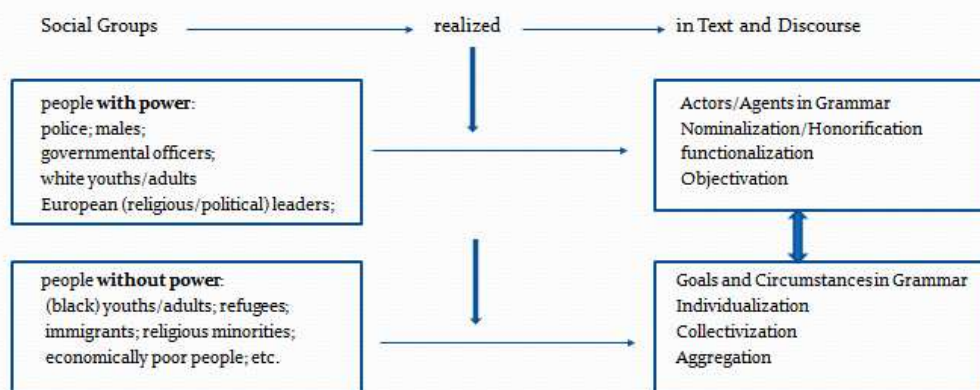
Despite different genres of texts analyzed for our purpose, our analysis shows that:

- 1) texts implicitly represent a world where people without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power are stigmatized and/or denigrated;
- 2) By the same token, texts implicitly represent a worldview where people with polit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power are represented as positively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readers, and hence, the world;
- 3) That is, texts and discourses before the pandemic represent a world where only powerful and socially prominent participants, their actions and voices control and dominate powerless, weak, and passive participants.

21

Social Actors Represented in Various Discourses: General Summary

People Represented in Texts from the pre-Pandemic Era: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From the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 that discourses are reflective of socio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phenomena, th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in the pre-pandemic area is one wher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nequalities are represented and justified as normal, taken-for-granted, and natural.

If there is one lesson that our current pandemic has taught us, it is that there are more commonalities among people than differences, and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losely knit community than we typically have assumed.

If we are to imagine and strive to create a new and different world that will emerge from this pandemic, (our analysis provides some suggestive evidence that) the primary humanities studies area at the forefront of such changes will have to be in how discourses are created, maintained, and transmitted as a reflection of the interpersonal and social world.

In this regard, general humanities studies in the post-pandemic era, it might be argued, should be centered around examinations of text and discourse as a way into making our world a more just, fair, and equal place for all to live and contribute to no matter what their gender, skin color, origin, and religious preference might be.

佛教智慧与人类生态

——后疫情时代人文学之社会意义再思考

高文强

(中國, 武汉大学文学院)

【发言提纲】

一、问题的提出

所谓人类生态，是人类与生存环境相互作用的一个结构系统。在这个系统中，一方面环境会以各种方式影响和控制人类活动；另一方面，人类活动又不断地改变和改造着环境。这两方面互相作用又相互制约，组成一个复杂的以人为中心的生态系统。

无论是中医还是韩医，都有这样一种认识：人若生病，一定与其身体系统的某种平衡被打破相关。人类社会面临的许多问题亦复如是，一定与人类生态系统的某种平衡被打破有关。2020年1月以来的新冠疫情，同样是这样一个问题。比如，人类认为新冠病毒是人类的敌人，但若换一个角度看，或许地球认为人类才是地球的病毒，因为正是人类破坏了地球的生态系统，才激发了地球释出新冠疫情以抑制人类活动。

后疫情时代，我们该如何正确面对我们的生态系统？这是一个全人类都应深入思考的问题。对这一问题许多学科都可以给出自己的看法，但在多年科学至上观念影响下而对人类生态造成巨大破坏的今天，人文学反倒可以发挥尤为重要的作用。本文将从佛教智慧的视角出发，谈谈后疫情时代我们应该如何与我们的生态系统相处。主要分三个层面：一是我与自然，二是我与生命，三是我处自我。

二、我与自然：我们该如何与宇宙自然相处

现代社会流行的是“人类中心主义”观念，人类为“万物之灵”，面对大自然，人类是改造者。这一观念确实推动了人类科技和社会的发展，但也带来了众多的灾难。新冠疫情或许也是众多灾难中的一个。对于这一问题，佛教智慧或可给予我们一些启示。

缘起论是佛教对世界的根本认识方法。这一方法强调一切事物和现象的生灭变化都毫无例外地是因缘和合的结果，以此来说明因果关系的普遍性和绝对性。以佛教缘起论的方法来观看世界，在生态意义上可以给予我们两方面启示。

一是有机整体论的世界观。天台宗的“一念三千”和华严宗的法界缘起等缘起思想所阐述的都是这种思想。天台宗的“一念三千”主要揭示众生一念心乃至任一具体事物与三千世间之间存在的本然的整体性关联。从世界观意义上说，“一念三千”实际上是从具体事物的角度揭示了现象事物与存在整体之间相即互融的有机整体性联系。法界缘起论主要揭示的是事物整体与部分之间，每一具体事物与其他所有事物及存在整体之间对立统一的关系。因此人与世界万物之间具有整体性关联，人的思想行为是整体世界的一部分。

二是人的思想行为与生态系统之间的因果关系。佛教缘起论揭示了人及其所生存的生态环境的性质、状态是由人自身的思想行为所决定的。根据缘起论可知，世界万物是由无尽的因缘相互作用所构成的存在，我们只是网络中的一个环节。如果以自我为中心，就会因贪欲的极度膨胀而扭曲这个网络，无数人的我执，就会导致网络的破裂，造成鱼死网破的局面。因此，必须去掉我执，以如实的心态来对待世界，才能使人类社会与自然界和谐相处

三、我与生命：我们该如何与其他生命相处

保护其他生命（如动物）是人类生态保护中一种普遍的观念，但其出发点更多还是以人类为中心的。在这一方面，佛教对其他生命的思考同样可以给予我们一些启示。

首先是“众生平等”观念。所谓“一切众生皆有佛性”，是说一切众生均具有修行成佛的可能，这其中蕴含着生命平等观。佛教因果报应思想强调的一个重要内容是戒杀护生。之所以强调戒杀护生是因为：一是动物可能是我们过去生的亲人；二是人若戒杀护生、去恶修善，必能得善报，投生三善道；三是众生杀生的共业会导致战争。佛教因果报应观从人的血缘关系、从人对自身前途命运和社会生存环境等的关注出发，劝诫世人关爱生命，与其他生和谐相处。

其次是“慈悲为怀”的理念。慈悲是一种慈爱、怜悯他人及一切生命的情感。正因为“众生平等”，所以要尊重一切生命、包括动物生命，以慈悲之心面对一切生命，为他们带去快乐，助他们消除烦恼，正如《大智度论》中所说：“大慈与一切众生乐，大悲拔一切众生苦。”如此才能创造一个和谐的世界。

四、我与自我：我们该如何与自我相处

人类生态系统的状况如何，很大程度上与“我”有很大关系。所以，我与自我如何相处，也是决定生态系统的重要因素。人类生态系统的破坏，与“我”的欲望与执著的膨胀不无关系。而佛教净土智慧对解决这一问题可以给予一定的启示。

佛教净土思想所描绘的西方净土世界，其实是净化自心、教化众生的一种方法。《维摩诘所说经》说“随其心净，则佛土净”，这一观念对于人类生态建设的启示在于，一方面净土观念突出净化人心对于“净佛国土”的意义，实际上是提醒人们，克制物欲、转变自我中心主义价值观、转变主客对立的思维方式，是人类生态建设的重要方向；另一方面，净土观强调“佛土净”必须建立在“众生净”基础上，这实际上肯定了教化民众、转变大众消费主义价值观、克制物质贪欲等对于生态环境建设的价值。由此可见，佛教净土观对清静无染的精神追求，对于我们今天认识理想生态环境与人的精神品质的内在联系，突出克制贪欲对于理想生态环境建设的价值等，都具有多重启示。

综上所述，佛教智慧中包含着许多现代生态文明的文化资源，对于我们认识人与自然万物的有机整体性关联，树立尊重生命、关爱生命的伦理观念，认识理想生态环境与人的精神追求的内在关联、道德教育对于生态文明建设的价值等，都具有多方面的启迪意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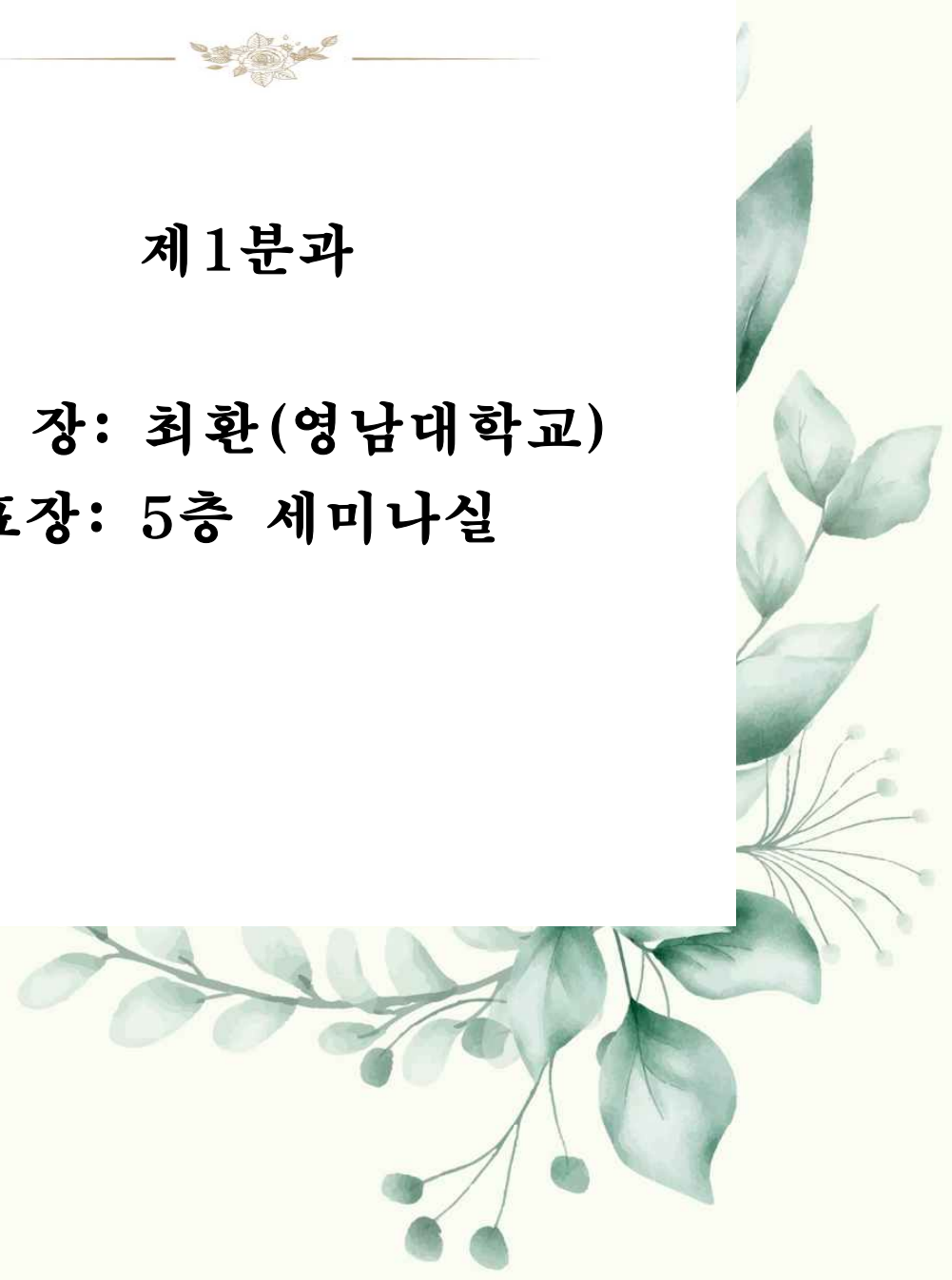
【분과 발표】



제 1 분 과

좌 장: 최 환 (영남대학교)

발표장: 5층 세미나실



제1분과		좌장: 최 환(영남대학교)	발표장: 5층 세미나실
1	조선의 베스트셀러 類書 《史要聚選》의 가치에 대한 再考	최 환 / 영남대	
2	劉震雲 소설에 나타난 사회계층 문제	김현주 / 영남대	
3	浅谈体验式文化教育节目对旅行汉语课程教学的启示 —以《跟着书本去旅行》为例	肖冰心 / 中國. 西安石油大學	
4	“会”类惯常句的分类与特性	姜梦(中國). 郭兴燕 青岛科技大学外国语学院 계명대	
5	20세기 초 한국의 중국어 교재 속 ‘着’고찰 - 《支那語集成》을 중심으로	신미섭 / 영남대	
6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이합사 활용 오류 분석 및 교육 전략 고찰 -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一詞彙表》를 중심으로 -	맹 유 / 경북대	
7	현대 중국어 ‘行’부가의문문 연구	권부경 / 영남대	
8	코퍼스 기반 현대중국어 방향보어 ‘下來/下去’의 의미·용법 연구	이갑남 / 영남대	
9	同义复合词研究对《汉语大字典》释义校补	张程 / 中國. 成都大学文学 与新闻传播学院	
10	ТРАНСПОЗИЦИЯ ХОДИСАНИНГ ВОҚЕЛЛАНИШИ	나자로바 샤хло (Назарова Шахло)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 대학교	
11	Phenomena of Konglish and its peculiarities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aymatova M.A., Uzbekistan, Samarkand	

조선의 베스트셀러 類書 《史要聚選》의 가치에 대한 再考

최 환
(영남대학교)

一. 들어가는 말

옛날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類書 형식을 빌려 초학자 학습용 교재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유서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자료의 검색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학문에 막 발을 들여놓은 초학자들에게 자료의 검색은 매우 중요한 공부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유서 중에는 童蒙 및 초학자를 위한 학습용 교재로 만들어진 유서가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검색에 간편한 유서의 형식이 교재 편찬에 援用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유서의 분류 체계 및 기존 자료의 수집과 집중 또한 교재 편찬에 유리함을 제공하였다.¹⁾ 이를테면 중국의 《蒙求》·《幼學故事瓊林》·《白眉故事》·《黃眉故事》 등과 한국의 《蒙諭編》·《兒戲原覽》·《幼學須知》·《訓兒遊覽》·《蒙語》·《蒙語類訓》·《學語》 등²⁾이 바로 그러한 책이다. 조선 때에 간행된 《사요취선》이라는 책 역시 유서의 형식을 빌려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데 편리하도록 편찬된 책이라 할 수 있다.³⁾ 이 책은 조선에서 편찬된 얼마 되지 않은 중국 역사책⁴⁾ 중의 하나로 간행 후에 대단히 유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유서의 형식과 특성을 고려하는 기본적 바탕 위에서 《사요취선》의 체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 책이 조선에서 유행한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단순히 ‘중국 사서 발췌본’ 내지 ‘중국 역사책’이라는 규정과 ‘紀事本末體’ 내지 ‘別史類’에 속한다고 著錄돼 있는 사실을 뛰어넘어 종합적 가치 평가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유서로서의 문헌적 가치, 坊刻本으로서 민간에 유통된 수용적 가치, 중국 인물의 검색으로서 사전적 가치 그리고 초학자 역사 공부로서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⁵⁾

1) 최환, 《한·중 유서문화 개관》(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112쪽 참조.

2) 이처럼 민간에서의 동몽 및 초학자 교육용 유서의 활용에는 중국 유서보다 한국에서 직접 편찬한 유서들이 더 많았다. 중국 유서 중에서는 《故事成語考》(일명 《幼學故事瓊林》)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3) 중국에서도 역사 교육을 위해 유서 형식으로 편찬한 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新編分類歷史揭要》(12권 4책, 謄寫本)와 같은 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奉天 廣寧縣 公學堂 校長 蕭雨春이 宣統 2년(1910)에 학생들의 역사 교재용으로 편찬된 것이다. 이 책에 관해서는 최환, 위의 책, 123-127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4) 孫衛國은 <朝鮮王朝所編之中國史書>《史學史研究》2002年 第2期)라는 논문에서 조선에서 편찬한 중국 역사 책을 모두 40여 종으로 보고 있다.

5) 본고는 중국어로 발표한 졸고 <朝鮮時期中國歷史學習用類書《史要聚選》研究>《東亞人文學》제29집, 2014년 12월)를 기본으로 삼아 그 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다시 우리말로 작성한 것이다. 동시에 종합적 가치 평가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목에다 ‘再考’라는 말을 붙였다.

二. 《사요취선》의 편자와 판본

이 책을 보면 安東 사람인 權以生이 ‘崇禎後己未’⁶⁾에 쓴 서문이 붙어 있다.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사가의 지류여파가 아님이 없기에 드디어 제목을 《사요취선》이라 하였다. 이미 이 책이 있어 천지간의 만물이 모두 사람에게 갖추어졌다. 그래서 《사문유취》를 대략 抄錄하여 3권으로 만들어 그것의 뒤를 이었다.

(……則此莫非史家之支流餘波, 故遂名曰《史要聚選》. 既有是編, 則天地間萬物, 皆備於人, 故略抄《事文類聚》, 以爲三編, 繼之於後.)

여기서 권이생이 《사요취선》을 편찬한 이후에 《事文類聚抄》 3권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宋나라 祝穆이 편찬한 《古今事文類聚》는 전형적인 유서인 類編類書에 속하며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친 유서라고 할 수 있다.⁷⁾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민간에서 한국 유서로서는 《사문유취》, 중국 유서로서는 《고금사문유취》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권이생이 《사문유취》의 抄本을 편찬한 사실은 그 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책의 체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권이생이 적어도 유서의 체제와 형식이 공부에 편리함과 수월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이생에 대한 더 이상의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사요취선》은 상업적인 민간 출판 도서인 坊刻本으로 출판되어 당시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어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방각본을 보면 유서 등과 같은 공구서가 적지 않다는 점이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사요취선》도 역사 관련 유서로서 인물 사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권이생의 서문을 보자.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마침 전이채·박치우 두 사람이 문단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재산을 모아 책을 판각하여 세상에 내어놓으려고 나에게 초고를 잡도록 청했다.

(此非余意也. 適夫田以采·朴致維兩人, 爲詞林萬一之助, 鳩財割剝, 欲以行于世, 請余起草.)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전이채와 박치우 두 사람이 우선 《사요취선》의 간행을 시도하고 권이생에게 초고를 부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泰仁에서 간행되었는데, 태인의 옛이름이 武城이어서 武板이라고도 한다. 이 책이 크게 유행하여 그 뒤 九曲齋·由洞·武橋·西溪 등지에서 重刊되었다. 由洞本(1856)·武橋本(1865) 그리고 新舊書林本(1913)은 서울의 京板에 속하며, 西溪本은 全州의 完板이다. 가장 뒤인 1917년에 간행된 全州七書房本은 武板 계열이다.⁸⁾ 1918년에 간행된 京城翰南書林本도 경판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책의 유행 기간이 길었음

6) 金命壽는 <泰仁坊刻本《詳說古文眞寶大全》과《史要聚選》>《書誌學研究》第5·6合輯, 1990년)에서 ‘崇禎後己未’를 ‘崇禎後三己未’로 보고 이 己未年은 1799년(正祖 23년)이라고 고증하였다.

7) 이 책의 한국 유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환, 앞의 책, 51-54쪽 참조하기 바람.

8) 김명수, 앞의 논문 참조. 중간된 4본에 대해서도 김명수 논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을 나타내고 있다.

三. 《사요취선》의 체제

《사요취선》의 체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유서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分類’와 ‘資料 滙編’이라는 유서의 기본 속성을 지니고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의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모두 9권 5책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類編類書의 형식을 취하면서 역사 관련 유서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권1 帝王上

권2 帝王下, 公族, 附吳越

권3 后妃, 妖姬, 妓妾, 列女, 相國

권4 將帥, 直臣, 節義

권5 聖賢

권6 異端, 文章, 隱逸

권7 休退, 替僞, 篡逆, 奸凶, 嬖行, 閹宦, 賢宦, 外戚, 良吏, 酷吏, 辯士, 節俠, 名筆, 富客

권8 列傳上

권9 列傳下

이상의 분류 체계를 보면, 모두 30개의 類目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덧붙였음을 알 수 있다.

四. 《사요취선》의 유행과 그 내용 특징

《사요취선》은 출간 이후 조선에서 매우 유행하였는데, 특히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상업성 도서인 방각본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하여 활용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방각본 중에서 실용성을 강조했던 제1기⁹⁾에 출간되었다. 이 시기의 방각본 책들을 보면, 《攷事撮要》가 가장 먼저 출간되었으며 이 밖에도 《事文類聚抄》·《사요취선》 등 類書類를 비롯하여 《明心寶鑑抄》·《古文眞寶大全》·《大明律詩》·《農家集成》·《新刊救荒撮要》 등 대부분 문장 학습용 도서 내지 실용성이 높은 도서들이다. 물론 방각본 출판업자들은 먼저 수요를 고려하여 책을 출간하였으며, 출간 후에도 방각본 책들은 학습 내지 실용적 목적으로 많은 수요자에 의해 넓은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중국 역사 관련 학습 유서인 《사요취선》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지역에서 출간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몇몇 도서관의 이 책 소장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奎章閣에 5건(零本 포함), 영남대학 중앙도서관

9) 이해경은 방각본 출판의 시기 구분을 방각본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 방각본의 출현기: 1576년(선조 9년)부터 1686년(숙종 12년), 제2기 방각본의 전성기: 1725년(영조 1년)부터 1909년(순종 3년), 제3기 방각본의 쇠퇴기: 1910년부터 1920년대.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서울: 서울출판미디어, 2003), 32쪽 재인용.

에 81건(영본 포함), 계명대학 중앙도서관에 11건(영본 포함), 성균관대학 중앙도서관에 3건이 소장되어 있다.¹⁰⁾ 또한 筆寫本과 袖珍本¹¹⁾ 《사요취선》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유행과 유통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의 이 책 소장 상황을 보면, 한국 유서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탁받은 민간의 문중 소장 고서들 중에서 유서 소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 유서 중에서는 《사요취선》이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¹²⁾ 판본도 목판본·활판본(전주류씨 근암고택, 안동권씨 정남문고)·석인본(평산신씨 송곡종가, 예안 이씨 상리종택, 영월신씨 경상공파)·필사본 등 다양하였으며, 《史要選》(고성이씨 팔회당 종택)·《史要抄》(달성 서씨 낙동정사)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 選本과 抄錄本(필사본)도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부 이상(零本 포함)의 《사요취선》을 소장하고 있는 문중도 적지 않았는데, 영양남씨 영해 난고종택, 재령이씨 존재파 면운재문중,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후손가, 진주하씨 충열공파(하건식), 영월신씨 경상공파, 영양 주곡 호은종택,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영해 대흥백씨 성암공파 인량종택, 의성김씨 평장사공파 삼대종택, 영천이씨 자암후손 이영가, 동래정씨 석문공파 두산고택 등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요취선》이 적어도 민간에서는 조선의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봉화김씨 색포정주손가, 영해 안동권씨 송천문중, 전주이씨 송월재종택, 평산신씨 우촌택, 순흥안씨 갈전 노암종택, 풍산류씨 유천파 농학당, 유일재공후 서계가,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동래정씨 기산고택, 진성이씨 대곡파 백운재고택, 연안이씨 별좌공파, 순천김씨 충효당 도은문중 등등에서는 唐板本¹³⁾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책이 중국에 전입된 이후, 중국에서 새로 간행된 책을 한국으로 역전입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 책의 유행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중국 유서 《白眉故事》가 한국에 전입된 이후, 한국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고 유행하였으며 또한 한국에서 그 책을 간행하여 중국으로 역전입된 사실¹⁴⁾과 정반대 방향의 서적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책 모두 초학자 학습용 유서이면서 문장 짓기를 위한 과거시험 준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서라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시대나 현대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할 것 없이 초학자 학습 내지 시험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미래 과거시험을 위한 준비 단계에 놓여 있는 초학자들로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책들이 공구서로서의 역할은 물론 詩文 짓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서지학자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¹⁵⁾ 중 <史書部·中史類·類書 抄錄>에서도 《史要》와 《사요취선》 두 책을 著錄하였는데, 여기서의 《사요》는 그 서지사항을 보아

10) 여기서는 몇몇 도서관의 예를 들었을 뿐, 기타 도서관의 소장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생략하였다.

11) 전주문화재단, 《전주의 책》 완판본 백선(전주: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2012)에서 完板本 《사요취선》과 완판본이면서 수진본으로 간행한 《사요취선》을 소개하였다.

12) 한국국학진흥원 편,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중 2002·2003·2004·2005·2006·2007·2018년도 판을 조사하였음.

13) 민간에 소장된 《사요취선》 당판본의 간행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앞으로 고증이 필요하다.

14) 《백미고사》의 한국 유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환, 앞의 책, 141-164쪽 참조.

15) 모리스 꾸랑 原著·李姬載 翻譯, 《韓國書誌》(修訂翻譯版)(서울: 一潮閣, 1994), 520쪽 참조.

당연히 《사요취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또 중국에도 전입되었는데, 중국의 復旦大學圖書館과 浙江圖書館, 臺灣의 國立中央圖書館(現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¹⁶⁾ 한편 《中國古籍善本書目·子部》卷19之類書類에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저록하였다.¹⁷⁾

《史要聚選》□卷(明刻本) 存六卷(二至七).

趙含坤도 《中國古籍善本書目》에 의거하여 《中國類書》라는 유서 목록에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중국 유서로 저록하였다.¹⁸⁾

《史要聚選》明, 不著撰者姓名. 不明全書卷數, 存6卷, 明朝年間刊刻.(《中國古籍善本書目》列入類書類.)

위의 두 책에서는 《사요취선》을 중국 유서로 간주하였는데, 최근에는 또한 중국 유서로 간주하고 영인본¹⁹⁾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중국 전입 및 이 책 著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중국 전입 후에 중국에서도 이 책은 일정 정도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요취선》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책 전체에 걸쳐 중국의 역사 인물을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유서나 한국 유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드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학습용으로 중국 역사 인물을 위주로 유서를 편찬한 것인데, 이는 바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역사인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왕을 비롯하여 왕족·정치인·장수·변사·문학자 심지어 당시 조선에서는 異端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道家 등등의 인물들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은 한국과 중국에서 비교적 早期에 출현한 종합적 중국 역사인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五. 나가는 말

《사요취선》은 조선시대에 방각본으로 출간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활용된 중국 역사 학습용 유서이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책 전체에 걸쳐 중국의 역사인물을 표제어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유서나 한국 유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드문 형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학습용으로 중국 역사인물을 위주로 조선왕조의 정치적 기본 철학인 유교적인 관점을 기본적 바탕으로 삼아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바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역사인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이 책과 현대의 인물사전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韓·中辭典學史 상에서 인물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응당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사전 역사상에 마땅히 추가되어야 할 책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또 유서의 형식을 빌려 모두 30개 類目으로 분류를 하여 역사 인물들을 수록한 점도 학습상에 있어 수월성을 제고하였다고

16) 黃建國·金初昇 主編, 《中國所藏高麗古籍綜錄》(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68쪽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사요취선》이 중국의 인터넷 고서 판매 사이트에서도 경매에 붙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책의 중국 전입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7) 《中國古籍善本書目》編委會編纂, 《中國古籍善本書目·子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18) 趙含坤, 《中國類書》(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5), 358쪽 참조.

19) 1987년에 영인(平裝, 32開, 500쪽)한 《사요취선》이 인터넷 서점 孔夫子舊書網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당시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과거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유서-공구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을 평가하면서 역사서라는 관점에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이 책을 분류와 자료 회편이라는 유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부터 확실하게 유서라고 간주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초학자를 위한 중국 역사 인물 정보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儒生들을 위한 작문용 검색 기능을 지닌 학습용 유서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A study on the Value of Leishu *Sayochwiseon*, the Best Seller of the Chosun Dynasty

Choi, Hwan
(Yeungnam Univ.)

<Abstract>

Sayochwiseon is a leishu, a xerographically produced text in the Chosun Dynasty. It was widely distributed and used for the education of Chinese history.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book is that Chinese historical figures are presented as entries throughout the textbook. This is an unprecedented form, which is hardly found in Korean or Chinese leishus. Furthermore, the textbook is organized as a book on education, mainly dealing with Chinese historical figures, based on a Confucian point of view, which was the fundamental political philosophy of the Chosun Dynas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book is a dictionary of Chinese historical figures from a modern viewpoint. In addition, this book shows little difference from modern dictionaries of figures. This book is worthwhile gaining its value as a dictionary of figures in the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lexicography, and should be the one to be added to the history of lexicography. This book takes the form of leishu and the historical figures are recorded according to 30 sub-classes, which would raise the efficiency of learning. This book can be evaluated as playing a role as a very useful tool for those who studied Chinese history and those who studied for imperial examination,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Chosun Dynasty.

劉震雲 소설에 나타난 사회계층 문제

金玄珠
(영남대학교)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계층간의 갈등 양상
- III. 계층 문제와 모멸감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중국 당대 소설가 류전윈의 소설 《핸드폰(手機)》(2003), 《나는 류웨이진이다(我叫劉躍進)》(2007),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我不是潘金蓮)》(2012), 《방관시대의 사람들(吃瓜時代的兒女們)》(2017)을 대상으로, 중국 현대 사회계층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사회 계층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즉 제도적 구사(驅使)와 빈부격차, 그리고 인권 방면에서, 계층 간의 소통과 불신, 그리고 갈등과 단절 문제를 통해 현재 중국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계층간의 갈등 양상

류전윈의 소설 중 신역사소설을 제외한 <타푸>(1987) 이후의 대부분의 소설에는 개혁개방 이후 현대 중국의 사회계층이 시기별로 잘 반영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소설을 통해 계층간의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과 계층별 인물을 제도적 구사와 빈부격차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계층별 단절과 소통 상황도 살펴본다.

1. 제도적 驅使

《나는 류웨이진이다》에는 상관이 하관의 자리를 결정하고, 하관이 상관에게 선물을 보내는 관행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승진을 하려면 직장 내에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했다. 활동을 잘하려면 뒷선에 돈을 보낼 줄 알아야 하고, 돈을 보내 누군가 또 받게 되면 금방 처장과 국장이 되고 라오싱(老邢)의 상관이 되었다.”²⁰⁾ 경찰이자 흥신소 조사원경찰인 라오싱은 일과 승진은 별개인 불공평한 승진제도에 불평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도의 관행이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결국은 인민

20) “要想升遷，得會在單位活動人。會活動者，會給上頭送錢者；送錢，人家又收者，很快就當了處長、局長，成了老邢的上司。” 劉震雲，《我叫劉躍進》，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1，p.201.

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됨을 보여준다. 소설에는 리쉐렌이 친위허를 고소하는 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안일한 행태가 묘사되어 있다.

사건 담당인 자(賈) 법정장은 ‘법률절차를 전혀 모르는 농촌 여인’에게 사건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 처리보다 더 골치아프다고 느끼고는, 몰래 법률에 문외한인 동료에게 일을 미룬다. 시정부 앞에서 며칠째 앉아서 시위하던 리쉐렌이 유치장에 갇힌 이유는 차이푸방(蔡富邦) 시장의 승진 계획인 ‘정신문명도시’ 건설에 리쉐렌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지방 관리들에 실망한 리쉐렌이 베이징행을 택하자 이들은 리쉐렌의 집을 포위하거나 버스 검열 및 베이징 공안들과 협력하면서 백방으로 리쉐렌의 고소를 저지하는 데 혈안이 된다.

리쉐렌이 민원을 제기하며 시도한 관료 계층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계층 간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은 하층 계층을 무시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기인한다. 정치의 최종 목적은 사회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거나 덜어주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의 주체인 관료와 그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 관료들은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중국사회 관료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작가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2) 관료의 부패 문제

중국의 부패 중 가장 심각한 권력형 부패는 이질화된 권력의 극단적인 표현방식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²¹⁾ 고위관료인 리안방(李安邦)과 자(賈) 주임 주위에는 권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리안방과 아내 강수펑(康淑萍)이 관료들과 사업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에는 현금과 선물 이외에도 유가증권도 있는데, 권력과 돈의 거래에서 검은 돈은 사영기업주를 통해 돈세탁을 거쳐 관료에게 전달된다.

소설 속 관료 계층과 사영기업주 계층은 서로 밀접히 교류한다. 《나는 류웨진이다》에서 엔거(嚴格)와 자 주임은 정보와 특혜 제공 및 기업확대와 사례금으로 서로 결탁한다. 심사 비준권은 자 주임에게 큰 재부를 쌓을 수 있게 해 주었다. USB에는 엔거가 자 주임과 라오린에게 건네는 수십 개의 돈가방과 보석과 그림, 그리고 열 차례가 넘는 성접대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본 류웨진은 엄청난 뇌물을 받는 관료를 사람 잡아먹는 늑대, 거대한 탐관오리라며 분노한다. 자 주임이 체포된 후 그의 배후를 추적해 나가던 라오싱은 돌연 상부로부터 수사 종결 지시를 받는데, 이는 자 주임과 윗선 관료들의 조직적 부패 가담을 암시한다.

소설 속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의 축적을 위해 부패를 일삼고 범죄자와 결탁해 살인도 행하는가 하면, 대민업무까지 태만히 하며, 승진을 위해 인민을 기만하기도 하는데, 작가는 고질적인 관료제도의 병폐를 꼬집는 한편, 부패한 관리들이야말로 사회의 조화를 저해하며 사회에 가장 유해한 계층임을 입증하려 하였다. 또한 자오핑판(趙平凡)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관료 계층의 심각한 부패 상황 및 중국의 정경유착 구조를 폭로하였다.

21) 최환·남민수·박명진, 《현대중국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년 개정, p.239.

2. 빈부의 격차

개혁개방 후 중국은 전대미문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 본절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지역적 격차와 개인적 격차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지역간의 격차

중국의 지역적 상황을 보면 재부가 편중된 대도시의 경제는 매우 번영한 데 비해, 농촌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의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한데, 《방관 시대의 사람들》에는 번영한 도시와 농촌 산간벽지의 빈곤한 상황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혁명의 근거지나 소수민족 지역 혹은 변방 지역이나 빈궁한 지역의 처녀들은 모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로 몸을 팔러 나가므로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서는 처녀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빈곤에 처한 지역의 젊은 여성들의 생계형 매춘을 보여준다. 1949년부터 廢娼운동으로 농민 계층에 흡수됐던 매춘녀는 198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빈곤지역의 생계수단으로서의 매춘 유행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유약진이다》의 양위환(楊玉環)과 쑤순칭(蘇瞬卿), 미용실 안마사, 간수성 3인조 강도 장단단(張端端) 등은 농촌 지역 출신의 젊은 여성들로 대도시에서 매춘을 한다.

《나는 류웨진이다》에서 농촌에서 올라온 수백 명의 농민공들은 공사장 안에서 같이 먹고 자며, 조리사 류웨진(劉躍進)은 공사장 식당 담벼락에 임시로 벽돌을 쌓아 만든 작은 방에서 기거한다. 도시로 몰리는 수많은 농민공 물결 및 빈곤지역 젊은 여성들은 도농간의 소득격차의 심화와 농촌의 극심한 빈곤상황 및 농촌의 위기를 말해준다.

2) 개인적 격차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빈부격차가 선명히 대비된다.

《나는 유약진이다》의 엔거는 십억 위안이 넘는 자산가이며, 《방관 시대의 사람들》의 라오푸(老傅)와 자오팡판은 몸값이 수백억 위안이 넘는다. 《나는 류웨진이다》의 류웨진이 육 년 전 조리사로 일할 때의 한 달 급여는 칠백 위안, 홀에서 서빙하던 아내 황샤오칭(黃曉慶)은 삼백 위안이었으며, 《방관시대의 사람들》의 쑹차이샤(宋彩霞)는 자신의 몸값을 십만 위안, 주취화(朱菊花)는 7만 위안으로 흥정하여 팔려온다(시집온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금전을 대하는 규모와 소비 형태도 다르다.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주거환경과 음식을 통해 빈부격차를 더욱 부각시킨다. 엔거는 베이징 동쪽 교외의 마장에서 거주하며, 아내 취리(瞿莉)가 거주하는 호화스런 별장식 빌라는 한 채가 오백 평방미터가 넘고 경비까지 삼엄하다. 빌라 곳곳에 놓여 있는 값 나가는 물건들을 본 청면수 양즈(靑面獸楊志)는 부자는 도둑들의 벗이라며 기뻐한다. 엔거는 큰 돈을 번 후 필사적으로 고기와 해산물과 상어지느러미를 먹어대다가 물리게 되자 다시 가난한 시절에 먹던 무와 배추를 먹기 시작한다. 그런가 하면, 공사장의 수백 명의 농민공들은 매일 먹는 무배추찜에 질려 신물이 날 지경이다.

《방관시대의 사람들》에서 리안방 상무부장이 몇 년 간 식사 때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급 호텔음식점에서 먹은 음식값은 한 테이블에 ‘수만 위안’에 달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인 리안방은 “수만 위안에 달하는 한 끼 밥은 한 농민 가정이 일 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과 맞

먹는데, 이건 그야말로 범죄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²²⁾ 작가는 농민에서 고위관료로 계층상승한 리안방을 통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고위관료가 농민 가정의 일 년치 수입을 한끼 식사로 날려버리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관료들의 재산 획득 과정과 재산 정도는 불투명하며, 고위관료의 부패와 부당이윤 추구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대 중국 사회에서의 농민공은 사회 계층 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농민공 내지 농민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고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가의 풍자이자 용기라고 할 수 있다.

Ⅲ. 계층 문제와 모멸감

류전원은 관료들의 부패와 맹목적 부의 추구 및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 인민의 존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의 리쉐렌은 명예 훼손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친위허로부터 ‘반금련’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리쉐렌은 마치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만약 손을 뻗어 벽을 짚지 않았다면 리쉐렌은 하마터면 기절하여 땅바닥에 쓰러졌을 것”²³⁾인데, 당시 그녀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친위허가 사실을 날조하여 리쉐렌을 탕부의 상징인 반금련으로 모욕한 데 이어, 지역 관료 자충밍((賈聰明))은 승진을 위해 자오다터우(趙大頭)와 공모하여 리쉐렌을 진짜 반금련으로 만들어 버린다. 진짜 반금련이 된 그녀는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쓰러지며, 친위허의 죽음으로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없게 되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리쉐렌의 上訪은 기본 인권의 범주에 속하며, 인민의 인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경로이다. 상방에는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조장하는 인권 유린 사태와, 나태한 관리들의 관료주의 등이 감춰져 있다. 하층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사회에 켜켜이 쌓여있는 억압과 모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리쉐렌의 저항은 중국 인민들이 관료들에 복속된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행위이다.

류웨진은 가난 때문에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계층 상승을 위해 황샤오칭(黃曉慶)이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부유한 남자를 따라간 일로 인해 전 縣城의 웃음거리가 됐을 때, 그리고 ‘6년 전 아내와 맞바꾼 6만 위안’의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할 뻔했다.

이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극도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수치심이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²⁴⁾ 류웨진을 부딪쳐 쓰러지게 한 고급차 車主는 초라한 행색의 류웨진이 농민공임

22) “覺得幾萬元吃一頓飯，等於一個農民家庭在地裡忙活一年，簡直是犯罪。” 劉震雲，《吃瓜時代的兒女們》，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7，p.130.

23) “李雪蓮如五雷轰頂。如果不是伸手能扶着牆，李雪蓮會暈到地上。” 劉震雲，《我不是潘金蓮》，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2，p.68.

24) 김찬호, 《모멸감》，서울: 문학과학사, 2014., pp.57-58.

을 알고는 그를 욕박지르고 모욕한다. “타인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풍토에서 모멸감이 만연하게 된다.”²⁵⁾

무시와 모멸의 사회구조 속에서 농촌 여성 리쉐렌이나 농민공 류웨진처럼 힘도 없고 돈도 없는 하층민들은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무시되고, 더 나아가 이유 없이 짓밟혀 모멸감을 받기 일쑤이다. 중국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모욕과 모멸을 받아와서 그 감정에 무뎠졌지만 권력과 빈부에 의한 모멸은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IV. 나오는 말

류전원은 소설 속에서 비록 수많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관련 있는 계층을 비교적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를테면 상위계층으로는 관료와 사영기업주를, 하위계층은 농민공과 농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현대 중국 사회 속에서 여러 계층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부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상호간에 복속과 해방, 억압과 저항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호대립적 관계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들 문제 중에서 작가는 관료주의,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중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고발과 다름없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넘어 작가가 이들 계층을 통해 인간의 가장 처참한 감정 중의 하나인 모멸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모멸감은 계층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사회계층간의 상호대립적 관계에서 야기하는 모멸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작가는 중국 사회의 이러한 인간의 모멸감 문제에 대해 비교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설 속에서 주로 두 계층간의 대립적 서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가의 인간 존엄, 더 나아가 인권 문제에 대한 용기 있는 주장이다.

【參考文獻】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최환·남민수·박명진, 《현대중국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년 개정.

劉震雲, 《我叫劉躍進》,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1.

劉震雲, 《我不是潘金蓮》,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2.

劉震雲, 《吃瓜時代的兒女們》,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7.

25) 위의 책, p.138.

A study of social class issues in Liu Zhenyun's novels

Kim Hyunjoo
(Yeungnam Univ.)

< 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odern social class and exploring Chinese social hierarchy issues. The study looked at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Chinese society currently has through bureaucracy,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nd human dignity, communication and mistrust between classes, and conflicts and disconnections.

In the novel, Liu Zhenyun puts forward the social problems he wants to reflect relatively clearly, although he did not deal with numerous diverse social classes. For example, bureaucrats and business owners are the upper class, while peasant workers and farmers are the lower clas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y are the biggest class that causes multiple class problems in modern Chinese society.

Their mutual opposite relationship actually derives several problems. Among these problems, the author deals with relatively many issues such as bureaucracy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hich is a critical mind and accusation of the artist's Chinese society. The important fact is that beyond the perception of social issues, the author deals with the sense of humiliation, one of the most devastating emotions of humans, through these classes.

The problem of humiliation caused by mutual confrontation between social classes in China has already reached a serious level, which has developed into an important problem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human dignity. The author has a relatively deep interest in this problem of human humiliation in Chinese society and is clearly revealed in the novel through confrontational narratives between the two classes. This is the author's courageous argument for human dignity and, furthermore, human right issues.

Key Words : Liu Zhenyun, social class, bureaucracy,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sense of humiliation, human dignity

浅谈体验式文化教育节目对旅行汉语课程教学的启示

——以《跟着书本去旅行》为例

肖冰心
(西安石油大學)

摘要

本论文围绕韩国岭南大学中语中文系本科生课程——旅行汉语进行研究。课程前期笔者在搜集相关资料的准备阶段中，找到了与该门课程高度相符的体验式文化教育节目——《跟着书本去旅行》。在授课阶段时尝试将其应用到该门课程的教学环节中，通过课堂实践后得到学生认可，在期末学生评价课程系统中获得高分，达到良好教学效果。基于笔者在该门课程的前期备课阶段中发现的系列问题，如：旅行汉语课程相关教材少、相关教学研究少，可供参考借鉴资料少等局限，在此试图提出解决方案；结合笔者在授课过程中的创新尝试，在此进行浅谈总结。希望本次研究能够有助于丰富该门课程的教学研究，有利于学部更好地开展旅行汉语课程教学。

关键词：旅行汉语、体验式文化教育节目、教材、教学应用、课程研究与教学

I. 绪言

在韩国岭南大学中语中文系本科生开设的汉语系列课程中，除了基础性课程如初中高级综合、阅读、听力、会话等基础课程以外，还有如旅行汉语、文化汉语、媒体汉语、时事汉语、商务汉语、文化文本阅读汉语等特色科目。课程设置具有系统性、全面性、科学性、实用性、趣味性相结合等特点，课程分类丰富且系统、涵盖面广且实用。现将其中特色代表课程——旅行汉语的课程设置介绍如下：

旅行汉语授课对象为具有一年以上或 300 个学时以上汉语学习者，要求中文词汇量基础为具有 600 个常用词汇及其以上的学习者，难度适合等级为 HSK3 级及以上水平学习者。授课目标旨在让现阶段的汉语学习者一了解中国各地区风景、民俗、饮食文化；二能够运用中文在中国实地旅游、体验感受中国景物、民俗文化、品尝中国美食；三掌握旅行相关技能如如何确定旅行目的地；如何线上、线下多方式购票；如何乘坐交通工具；如何线上、线下多方式预订酒店；如何问路等一系列旅行相关技能。旅行汉语的课时安排为每周 4 课时，每学期 15 周。旅行汉语的授课教材由授课教师筛选指定。

II. 开展旅行汉语课程面临的系列问题与解决方案

在旅行汉语前期备课阶段，筛选教材是该门课程面临的核心问题。笔者最初把筛选教材的选项聚焦在中韩两国市面已出版的纸质教材中，经过筛选对比，发现以下问题。

1. 中国境内旅行汉语相关教材问题

中国境内的旅行汉语教材存在的问题如下。目前，旅游汉语教材的编写普遍体现了语言和专业内容的结合，但是存在缺乏系统性、难度控制不当、可操作性与针对性不强等问题。²⁶⁾教材数量少且缺乏经典之作、对教材适用对象定位不准确、教材内容缺乏规范性和系统性、教材中旅游文化体现较少。²⁷⁾多数教材是以地区性旅行文化为核心内容编写的。如面向来西安的汉语学习者《旅游汉语》Chinese for Tourism²⁸⁾，面向来上海的汉语学习者的《游学上海》以及面向来广东的汉语学习者的《广东文化》²⁹⁾等地域文化色彩浓厚的旅行教材。专门国别类旅行汉语教材更是少之又少，且绝大部分教材默认的注释语为英语。

2. 韩国境内旅行汉语相关教材问题

韩国境内的旅行汉语教材存在如下局限。目前韩国市面上的旅行汉语教材如雨后春笋般增多，其大背景是近几年赴韩旅游的中国游客人数激增，为解决语言沟通问题，各大出版社针对在韩国从事导游或销售、医疗、医美等各行各业的人编著出版了对应的观光汉语速成教材，以便接待中国赴韩观光游客。教材内容多数以韩国国内旅游相关指南为核心内容。³⁰⁾而专门针对在韩国大学接受本科教育的汉语学习者的教材少之又少，这是其一。其二就是针对本科学生授课用的教材都只以掌握旅行技能为教学目标，以旅行指南为教材核心，例如旅行过程中如何问路、购物等相关的教学内容，教材中旅游文化相关内容体现较少，实用性虽高、趣味性不足，内容设置偏向短期出国游的韩国观光客，并不适合且不能够支撑本科学生一个学期的学习教材。

3. 针对旅行汉语教材问题的解决方案

由于市面上已有教材与该门课程授课目标、内容适配度低，给该门课程的开展带来了一定难度。另外，该门课程相关先行研究普遍聚焦在短期培训，旅游在职人员汉语速成等几个特定领域，目前针对大学本科生的旅游汉语课程教学先行研究寥寥无几，可供借鉴与参考的资料较少。

鉴于此，笔者将教材的筛选范围不再局限在单一的书本教材中，尝试借助多媒体平台，扩

26) 刘静莹. 基于 ESP 理论研究旅游汉语教材问题 [J]. 辽宁师范大学, 2011.63.

27) 姚顺善. 旅游汉语教材编写中的文化因素研究 [J]. 辽宁师范大学, 2013.38.

28) 《旅行汉语》Chinese for Tourism 董洪杰、白晓丽编著. 暨南大学出版社. 丝路汉语系列教材.

29) 刘雨晴. 基于地域文化的旅游汉语教材对比研究[D]. 湖南师范大学, 2020.

30) 洪多閤. 面向在韩国旅游从业人员的旅游汉语教材分析[D]. 浙江大学, 2019.

大至影视层面，期待从影视材料范围能够筛选出展示旅行文化的内容进行讲授与教学。筛选影视材料有两个原则，客观方面要求多媒体资源画质清晰、语音语调规范（小范围的展现地方方言特色）；主观方面要求多媒体资源内容能够详尽展示中国名胜古迹、地区民俗特色、人们衣食住行文化等，方便让学生多维度了解多元化的中国。在此原则下，笔者通过央视影音软件中的科教频道筛选出《跟着书本去旅行》体验式文化教育节目和《中国缘》等纪实栏目。以影视资源为核心展示旅行文化内容，以韩国市面上现有的旅行汉语课本为核心展示旅行技能内容，将影视资源展示的旅行文化与课本教材展示的旅行技能相结合，在此基础上，设计每课教学目标、教学重点、教学内容包括生词、语言点、语言表达、练习题等等。同时制作教学PPT，开展本门课程教学。

III. 体验式文化教育节目的简介与使用该节目进行旅行汉语教学的原因

1. 体验式文化教育节目——《跟着书本去旅行》节目简介

《跟着书本去旅行》这档节目是由中央广播电视总台央视科教频道倾力打造的一档体验式文化教育节目。这档节目以中小学课本或经典名著为线索，在“读万卷书”的同时“行万里路”。以旅游体验方式，带领学生走近文化古迹，实地实景讲故事，使学生身临其境受教育，触摸历史、感知文化。³¹⁾《跟着书本去旅行》通过读文、走访、记录的形式，让经典文学、历史名著“新”起来，让书本“厚”起来，让陈列在广阔大地上的遗产“活”起来。³²⁾

该节目作为一档原创节目自2019年12月开播至今，好评如潮。节目一开始，先是老师带领学生在教室里大声诵读课本内容，通过师生简短提问互动，让学生用想象力描述文字背后的风景民俗，学生们透露出对现实景物深切的探知欲望。紧接着，老师请出本次旅行导游兼主持人，带领学生抵达课本中的目的地。在当地民俗专家陪同讲解下，学生们进行实地参观、沉浸式体验，同时学生们也能随时随地提问，与当地人民积极友好互动。播出至今，节目组带领师生沿着河西走廊向西寻访新疆吐鲁番，探秘世界屋脊青藏高原，北去内蒙看辽阔草原，路回西安寻迹古都长安，历经春夏秋冬四季三回轮番，师生们的足迹遍布中国大好河山。

2. 使用体验式文化教育节目——《跟着书本去旅行》节目进行旅游汉语教学的原因

笔者决定使用该节目为旅游文化展示环节的核心教材有以下原因：首先，通过该节目，学生可以生动全面了解中国风景概貌，了解人文、民俗等各个方面文化。既具有实用性又具有趣味性，使学生身临其境，达到沉浸式体验学习效果。其次，该节目设定的旅行地点出自中小学语文课本，相较于其他旅行或美景美食的相关视频，该节目的旅行规划在设定方面更富有目的性、科学性、逻辑性、教育性。第三，该节目中有课文诵读环节，师生提问互动环节等等。有利于学生学习和跟练规范、标准的普通话的同时，开动脑筋，进行思考。第四，该节目走访了大量当地群众，学生们还有机会感受当地群众各具特色的方言文化，了解当地人民的生活样貌。第五，面对真实的旅游环境，真实的游学团员，听课的学生更容易将自己代入节目中

31) 跟着书本去旅行.央视网. <http://tv.cctv.com/lm/gzsbqlx/index.shtml>

32) 王永利.《跟着书本去旅行》行万里路，走进万卷书里的“诗与远方”[J]. 广电时评,2020(Z1):27-28.

的角色，产生共情效应，跟着游学团员一同旅行，探索未知，思考问题，更容易激发学生的求知欲与去当地一探究竟的梦想。第六，视频长度适中，每期视频在二十分钟以内，方便对视频进行切分，方便教师教学。第七，视频内容与教学内容高度相符，方便在视频中提炼出相应教学知识点，方便学生学习。

IV. 体验式文化节目——《跟着书本去旅行》在旅行汉语课程中的应用简介

1. 体验式文化节目——《跟着书本去旅行》的教学方案简介

要将该节目应用到旅行汉语课程教学中来，首先就要详细设计教学方案。大致分为以下几步：

第一步，反复观摩视频，深度了解视频内容；

第二步，梳理视频中旅行流程的环节，进行切分，类似于将文章分段那样将视频分段化处理，再根据每段视频内容进行教学设计。

第三步，将视频分段处理后，从每段视频中提炼出要讲解的生词、语言点、句子等知识点，作为该环节的重点教学内容。

第四步，先将此段视频相应的知识点对学生进行讲解，带领学生操练。在学生了解了相关生词、语言点后，带领学生准备观看视频。

第五步，在学生观看视频前，类似于学生做文章阅读理解那样，先设置本段视频的思考问题，告诉学生问题后让学生带着问题去观看视频，在视频中找到答案。

第六步，学生看完此段视频后，师生通过互动提问回答，教师判断学生对本段视频内容的理解程度。接着，带领学生反复操练视频中重点语句。

第七步，以此思路为基准，设计每段视频的教学内容、思考练习题、教学流程等。

第八步，最后完成所有教学内容后，将分段化视频整合起来，设计出该堂课相应的练习题，如问答题、判断题、选择题等等，加深学生学习程度。

为便于读者理解，笔者将通过实际教学案例来展示该节目在旅行汉语课程中的应用。（实际教学案例在发表中展示，此处略。）

2. 体验式文化节目——《跟着书本去旅行》的教学内容简介

以上节内容所展示的案例为标准，笔者制定出了本学期旅行汉语的教学方案。通过节目视频向同学们展示了沙漠、草原、雪山、河流等自然风光；沿着古丝绸之路，从展示陕西西安开始，向学生们分别展示了宁夏、甘肃、新疆等自然、人文景观，看美景，品美食，讲风俗，感文化；接着带领学生感受中国四个直辖市的独特魅力，坐在具有各式风格的万国建筑里听地道的天津相声、闻着从北京的胡同里飘出的烤鸭香气，看着冒着烟火气的老北京铜锅涮；走在人流簇拥的外滩，感慨着上海百年历史的巨变；吃着重辣老汤的火锅，赞叹着山城重庆的魔幻。同时，教会学生赞叹山川河流、各地美景、特色美食、不同建筑的不同表达方式；与学生分享

各地风俗文化、礼仪禁忌如献哈达的礼仪与禁忌、中国南北差异、特色方言表达等内容。学生亦从老师的讲解、PPT展示和视频的展示中多维度了解了中国各地人文、历史、自然风光等多元化文化，丰富了学生的见识，增长了学生的语言表达，提高了学生学习的兴趣，唤醒了学生去中国实地旅行的兴致。

3. 体验式文化节目——《跟着书本去旅行》的教学反馈与反思

通过一学期的学习实践，笔者发现，利用类似文化体验节目——《跟着书本去旅行》为旅行风俗文化展示教材具有积极作用。但在应用过程中需要注意应用方式，由于视频受众是以中国中小学生为主，因此对现阶段的韩国学生来说难度较高，所以在设计教案初期就要进行重点词句、语言点的讲解、操练铺垫，不建议直接观看视频或反复观看视频，因学生容易紧张，在观看过程中会带来压力；如果不带着问题去观看视频，容易让学生产生迷茫的感觉，失去学习兴趣，产生排斥反应。

其次，鉴于该视频教材为个人主观筛选，在知识点的把控方面缺乏科学性、系统性、全面性，所以在教学过程中需充分关注学生反馈，调整课程内容的难易程度，调整知识点的讲解方式，以学生学习为中心，寻找让学生最容易理解、最乐于学习的教授方式。

第三，通过单一的节目展示旅行风景、风俗等方面的文化是远远不够的，除了《跟着书本去旅行》这一栏目外，还有央视打造的科教频道纪录片——《中国缘》节目等备用资源，该类节目是各国留学生在中国各个地方生活体验的纪录片，可以作为补充资源进行教学设计。网络上的相关视频资源丰富，但是筛选过程中要注意视频画质的清晰度，语言表达的规范性等，展示方言文化除外，因此推荐央视制作的人文、科教等栏目等正规节目制作下的视频资源。

第四，旅行汉语课程中，如仅单一地展示旅行风俗、风景文化也是不足的，还需结合旅行技能、旅行指南方面的内容向学生进行讲授。笔者该学期在旅行技能方面，给同学分享如何确定旅行目的地、如何选择合适的旅行方式；如何线上搜索旅行攻略及制作自己的旅行攻略三部分内容。详细地向同学们介绍了目前中国境内出行可选择的交通方式及乘坐方式，并通过视频案例详细生动地展示外国人在中国如何订票、取票；同时，给同学们讲解网上预订旅店、宾馆、民宿的详细流程；提醒同学们注意，作为外宾预订酒店时需要注意该酒店是否有接待外宾资格；教授学生相关问询的常用表达；最后，向同学推荐实用性较高的APP如穷游网、携程旅行等等，方便学生预订机票、酒店的同时，亦可搜索他人分享的旅游攻略做参考，来制作自己的旅游攻略等等，确保学生们将来有机会能够顺利通行，提高学生们的实践应用能力。

V 结语

通过以上内容，本学期的旅行汉语教学圆满结束。在期末学生的评价反馈系统中，获得将近 97 分的高分，得到了学生的认可与好评。但由于教材、教学等诸多原因，本课程在开展过程中遇到了非常多的困难。尤其是深度分析视频、切分视频；提炼切分好视频中的生词、语言点并制作相应PPT课件这一环节，由于要考虑内容的全面性、科学性、实用性、趣味性等综合因素，在制作过程中需要投入大量的时间与精力。且由于课程中需要的教材、教案、课件、视频这四个关键内容都需笔者从零开始设计、策划、筛选、制作，所以备课阶段时常感到焦虑与疲惫。但是从学生对课程的理解度、接受度、认同度与趣味度来看，该学期教学取得了非常积

极有效的成果。所以如果有可能，期待不久的将来有幸与更多志同道合的同行一起制作相关教材，探讨相关教学方法，制作相关教学设计，共同攻克旅行汉语课程方面遇到的难关。

<参考文献>

- 1) 刘静萱. 基于 ESP 理论研究旅游汉语教材问题 [J]. 辽宁师范大学 ,2011.63.
- 2) 姚顺善. 旅游汉语教材编写中的文化因素研究 [J]. 辽宁师范大学 ,2013.38.
- 3) 《旅行汉语》Chinese for Tourism董洪杰、白晓丽编著.暨南大学出版社.丝路汉语系列教材.
- 4) 刘雨晴. 基于地域文化的旅游汉语教材对比研究[D].湖南师范大学,2020.
- 5) 洪多閤. 面向在韩旅游从业人员的旅游汉语教材分析[D].浙江大学,2019.
- 6) 跟着书本去旅行.央视网. <http://tv.cctv.com/lm/gzsbqlx/index.shtml>
- 7) 王永利.《跟着书本去旅行》行万里路，走进万卷书里的“诗与远方”[J].广电时评,2020(Z1):27-28.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an undergraduate course—Tourism Chinese in the Yue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Literature. In the preparatory stage of collecting relevant information, the author found the experiential cultural education program, *Traveling with Books*, which is highly consistent with the course. During teaching period, the author tried to apply it into the course. Through the classroom practice, it was recognized by the students, and high scores were obtained in the course system of the students' evaluation at the end of the semester to achieve a good teaching effect. Based on the series of problems found by the author in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course, such as limited Tourism Chinese related teaching materials and relevant teaching research can be used for reference, the author is attempting to propose solutions. Combining with the author's innovative attempts in the course of teaching, here is a brief summar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enrich the teaching and research of this course and help the Department to better develop the teaching of Tourism Chinese

Key words: Tourism Chinese, Experiential cultural education program, materials, Teaching application, Curriculum research and teaching

“会”类惯常句的分类与特性

姜梦 · 郭兴燕
(青岛科技大学外国语学院)
(계명대학교)

1. “会”类惯常句的分类

根据句子中是否存在明确的时间、条件框架, 可将“会”类惯常句大致分为有标和无标两类。根据现有的相关类型学研究成果, 无标简单句是惯常范畴的一种倾向性选择, 因为惯常体是现在时的一个基本的或者默认的解读, 所以更倾向于用零形式吸收社会和物理现象的固有意义。

“会”类无标惯常句可以分为两种。一种是阐述一般规律或经验总结的惯常, 此时多为谓词性成分充当主语、话题或“会”位于分句句首。规律往往不存在明确的时间边界(temporal bounds), 因此对这一事况进行描述既依赖于事件的实际发生, 即现实世界中的已然(realized)事态, 同时也暗含着对将来的预测, 即可能世界中的潜在(potential)事态。下面结合实例具体来看。

- (1) a. 茶叶中含有一种尚不明白的物质, 对降血糖有较好的疗效, 且无副作用。但该物质耐热性差, 遇热会失去效力。因此, 必需用冷开水浸泡茶叶方可奏效。
- b. 谁要是违反规定, 会被罚款1000加元。

在上面例(1a)中, “遇热会失去效力”是一个紧缩句, 根据文意, “会”蕴含茶叶中含有的某物质遇热失效的情况反复发生过, 由此形成了“遇热失效”的一般规律, 因为是普遍规律, 所以在未来遇热便失效的情况也将发生, 说话人由此总结出泡茶叶的正确方法。而另一方面, “会”表示规律惯常时, 条件的发生和结果的确认是一定存在时间差的, 如上面例(12a)中“遇热”在前, “失效”在后, 例(1b)中, “违反规定”发生在前, “被罚款”发生在其后, 此时“会”还表达相对将来时制义。可见, 助动词“会”体现将来时制功能的同时也可标记规律惯常。

另一种“会”类无标惯常句是描述某一类事物的特征或者习性的, 此时多为类指名词充当主语。类指主语可以实现参与者复数化, “会”将某事件或状态在不同个体身上的惯常表现概括为主体特征, 因为是特征惯常, 所以陈述的有效性也同样可以延伸至实际说话时刻之后。如下面例(13a)中, “珍惜自己的信用”在“汕头人A、B、C……”等多个个体身上反复发生过, 这一个个片段连接起来, 可以被概括为“汕头人”这类群体惯常的特征, 即汕头人大多重视自己的信用。同理, 例(13b)中“石头A、B、C……”都“不用言语冲撞你”, 可以总结出“石头”这类事物的特质。此时, 这种概括体现了说话人而非句中主语的主观想法, “会”还体现出认识情态语法功能。可见, 助动词“会”编码认识情态义的同时也可标记特征惯常。

- (2) a. 汕头人会像爱护自己的眼睛一样, 去珍惜自己的信用。
b. 你跟他辩驳, 还不如和石头说几句好话呢; 石头是不会用言语冲撞你的。

“会”类有标记惯常句指存在显性条件框架, 反映一般规律或主体特征的句子。如下面例(3a)、(3b)和(3c)中, “会”位于“一……就……”结构、频率副词、时间成分后, 句子描写的事态都是反复发生的。再如例(3d)中, “会”出现在标记过去惯常的“就会/只会/专会/惯会”等固定结构中, 借惯常行为标注描述对象的主体特征。另外(3e)的句子中, 表“善于”义的“会”可受程度副词修饰, 而善于做的事情多为反复做过且做得好的事情, 通过练习而形成某项技能必是经年累月的惯常行为, 这时“会”也可以得到惯常的解读。语料调查结果表明, 在实际应用中, 相比于无标惯常句, “会”类有标惯常句更为普遍。而有意思的是, 有标惯常句中的助动词“会”往往不仅仅只标记惯常行为, 还同时兼备其他语法功能, 如例(3a)中“一……就……”结构更接近时间先后或者条件结果关系, 因此强调相对时间差, 故“会”还具有标记相对将来时制的功能。例(3b)、(3c)和(3d)均体现说话人对主体特征、习性的看法, 故“会”还表达认识情态的意义。例(3e)中后面动作是前面主语的内部能力, 故“会”同时表达施事指向的动力情态意义。

- (3) a. 我只要稍一走开, 阮琳就会跑过来占我的位置。
b. 偶然地, 她也会感到奇怪的酸涩: 他对女儿这么耐心, 对我从来也没这样过!
c. 那些年里, 我飞快地在懂得事情, 我只知道贺叔叔是爸爸最好的朋友, 常会同爸爸一同回家来。
d. 她专会听风儿, 钻缝儿的套小坡的话, 然后去报告母亲。
e. 美国人很会享受生活。

由此可见, “会”的惯常标记功能与其动力情态、将来时制和认识情态的语义语法功能均有重叠。³³⁾而这一现象的深层动因可以从语言类型学的研究结果中得到解释: 世界多数语言中, 惯常是一个语法化和专门化程度较低的概念范畴, 标记惯常事态的语法语素也常兼表某种时体意义或者情态意义³⁴⁾。换句话说, 惯常范畴的意义更多的是通过一个更为概括的语法语素进行表达, 而非具有独立的专门的功能。由此, 我们提出假设: “会”类惯常句中, 表达惯常事态并不是“会”本身固有的功能, 而是其在一种认知机制作用下的“语境浮现义”, 是靠语境意义的吸收(absorption)将时间基点转到泛指、不确定的时间。这样的分析方式有两个好处。一是有助于解释为何“会”所标记的惯常意义总是分布于其时制用法和情态用法之中, 但又很难判定某种特定用法只表达的惯常意义。如上面的例(2)各句中的“会”都具有惯常标记功能, 同时也体现认识情态; 二是可以说明为何同一个句子在不同的语境中会产生不同的解读, 如下面的例(4a)更倾向于获得相对将来功能的解读, 但例(4b)则倾向于获得主观认识情态和标记惯常事态的解读。通过例(4a)和(4b)的对比, 可以更清晰地反映出“会”类惯常句解读的关键是靠语境浮现。即“会”本身很难单独表达惯常, 不能靠与之搭配的句法规律来一概而判, 而应依据上下文语境和是否指示复数性事态来判断其是否在实现惯常功能, 失去必要的语境, 惯常功能常常也就无从显现。

33) 陈振宇(2020)也提出了“会”演变为相对将来标记时表示的即为惯常标记相对的观点, 陈文的研究打通了惯常范畴与时态范畴的连通脉络, 为“会”的多维度成体系研究提供了新的思路。

34) 相关论述参见Comrie(1976), Bybee et. al(1994), Palmer(2001)等。

- (4) a. (爸爸说他找到工作,) 他会省吃俭用把钱省下来给孩子们。
b. (爸爸一向很爱自己的家人,) 他会省吃俭用把钱省下来给孩子们。

3.2 “会”类惯常句的特性

“会”类惯常句有其自身的显著特征, 通过与惯常义助动词“容易”的对比可以更清楚地反映“会”的惯常特性, 因此在本节中将结合“容易”对“会”进行分析。下面例(5a)阐述的是在说话前不确定的时间段里, 多个夏天中, “水果变质”的情况曾多次发生过或被反复观察过, 这一个个片段性(episodic)事态连接起来就被总结成“水果”这一事物的特征。同样, 例(5b)中说话人之所以能得出对事态倾向性的判断, 也一定是根据已有的多个疲劳驾驶造成交通事故的直接或间接经验。

- (5) a. 夏天水果容易变质。
b. 疲劳驾驶容易发生交通事故。

与“会”相比, “容易”含有较具体的词汇意义, 不需要语境的协助, 本身就是高频标记, 而大部分“会”本身的词汇意义较为空灵(除了语法化程度较低的“能力”义“会”), 往往需要语境的配合才能明确关联到复数化事件从而体现惯常意义。最具代表性的例证是个指名词做主语且无显性条件框架时, “会”脱离语境无法体现惯常, 甚至不能独立成句。如下面例(6a)中单独说“妈妈会激动”不能用来描述妈妈的特征, 也很难体现惯常事态, 单用时甚至不太自然。只有在例(6b)这样有具体的语境说明时才能把“妈妈激动”描述为惯常性的行为。与此相比, 单独说“妈妈容易激动”不仅句子可以成立, 也可以说明妈妈的特征, 即只依靠“容易”也能向听话人传达“过去不确定时间段内妈妈很激动的情况反复发生过”这样一种惯常倾向, 可见“容易”本身即蕴含惯常意义。

- (6) a. ?妈妈会激动。/ 妈妈容易激动。
b. 妈妈遇事会/容易激动, 感情常常走在理智前面。

“会”之所以本身无法单独体现惯常, 是因为它不具有“反复性”的内在特质, 需要外界协助才可关联复数化事件。即“会”单独使用时只能表明事态的结果性, 与频率无关, 只是标记某事态的实现, 故句法表层结构上可与例(7a)中表示分配意义的“每次”搭配体现无例外地出现某种事态³⁵⁾; 相反“容易”本身就是高频标记, 本身就具有“反复性”内在特质, 故单独使用能标记事态的高频反复出现, 但这种高频反复是一种间歇、不确定次数的反复, 不具有周遍性的特点, 因此和例(7b)中体现全称量化的“每次”连用时会出现语义上的矛盾, 导致句子不成立。另外, 如下面例(7c)和(7d)所示, “容易”可任意受程度副词修饰, 但除了保留动词实义的“善于”义“会”, 典型的助动词“会”不能受程度副词修饰。而对副词的选择制约关系的差异也与“会”本身不具备反复性的特点有关。“会”只强调动作的发生, 从空间和时间的角度来看, 有“点”的特点, 语义内不存在伸缩性和程度性, 因此大部分助动词“会”不能受程度副词的修饰; 而“容易”本身所具有的反复性导致事态具备间歇延续性, 有“段”的特点, 反复的程度有强弱之分, 不同的程度体现在语义上就是量级性, 故“容易”可以受程度副词修饰。

35) 如上文所述这种事态的出现可以只限于说话以前的某个时段, 也可以从说话前的某事件到未来没有特定终点的时段。

- (7) a. 他每次放假都会感冒。
b. *他每次放假都容易感冒。
c. 他一放假就很容易感冒。
d. *他一放假就很会感冒。

正因为“会”自身不含反复性特质，所以可以自由和“总是”、“通常”、“常常”等搭配表示高频或者常规惯常，也可以和“偶尔”、“很少”等搭配表示偶发惯常，如下面例(8a)和例(8b)。但“容易”由于本身已经具有高频反复的特征，故对可连用的副词的强度会有一定要求，只能与高频副词连用，与低频副词连用时会出现语义矛盾，如下面例(8c)。

- (8) a. 炒菜时，锅内的油常常容易/会溅出来。
b. 他偶尔会生病。
c. *他偶尔容易生病。

如果按照命题为真的可能性的认知程度差异可构成一个情态量级(modal scale)，作为主观性的量化，可能性程度的主观估测可量化为可能、较大可能和确信三个等级。“会”位于确信等级，“容易”则位于较大可能等级，因此在用于描述一种事态的倾向性时，说话人会选择使用“会”来表达该事态确定会发生，选择“容易”来描述事态的发生具有较高的可能性。如下面的例(9a)表达说话人认为“吃甜食”造成“发胖”的可能性极高，也就是认为“发胖”会发生，而例(9b)表达的是较有可能会“发胖”，在说话人的认知世界里，允许吃了甜食但是没发胖的事件偶然存在，而使用“会”的例(9a)则不可以。因此，两个句子在可能性的量级上存在差异。

- (9) a. 吃甜食会发胖。
b. 吃甜食容易发胖。

总体来看，“会”无法像“容易”一样单独使用时也可以表达惯常，这是因为“会”本身不具有反复性特征，也正因此，“会”类惯常句受语境的制约，故其惯常义在不同的语法功能的基础上都有可能伴随着语境浮现。

< Abstract >

In Mandarin the modal verb 'hui' has several functions: expresses agent-oriented dynamism, future tense, speaker-oriented epistemic modality, and subjunctive mood. Besides these usages, 'hui' can also mark the habitual aspect. When its explanation is the habitual aspect marker,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sentence describes should be the plural events or states. Habitual sentences that are marked with 'hui' may be divided into two types: without any other marker or with dominant conditional constructions. Compared with another habitual marker 'rongyi', 'hui' can't express habitual aspect without proper context. It is because 'hui' itself doesn't have the property of repeatability and express the habitual aspect isn't its inherent meaning. The habitual reading only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absorption and coexist with other basic usages.

Key Words: Habitual, 'hui', pluraction, context-absorption, marked.

20세기 초 한국의 중국어 교재 속 ‘着’고찰

- 《支那語集成》을 중심으로

신미섭
(영남대학교)

1. 연구 목적과 범위 및 선행 연구

현대중국어에서 주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나 목적 달성이거나 결과의 발생 등의 의미를 지닌 결과보어로 사용되는 ‘着’이 일제강점기 교재에서는 그 통사적 용법이나 의미가 현대중국어 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교재 속에서 ‘着’은 현대중국어에서 나타나는 형태 이외에 ‘형용사+着’, ‘개사+着’, ‘대사+着’, ‘부사+着’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술어구 뿐 아니라 주어구, 관형어구 및 부사어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의미도 동작의 진행 혹은 상태의 지속을 비롯하여 동작의 완성, 명령의 어기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중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일제강점기 교재에 나타나는 ‘着’에 대한 연구는 ‘着’의 문법화 과정 탐구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着’의 문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着’은 王力(1958), 曹廣順(1995)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착’, ‘접촉’의 본의를 가진 ‘著’가 허화되어 후에 ‘着’으로 쓰이면서 현재의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중국어에서 ‘着’은 크게 진행상과 지속상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와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着’의 문법적 특징에 관한 논의는 그 후 太田辰夫(1957), 李納·石毓智(1997) 陸儉明(1999), 張黎(1996), 蔣紹愚(2006) 등에 의해 계속되었고, 국내에서도 최규발(2011), 김미성(2014), 박정구·유수경·강경구(2019)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세기 전후의 ‘着’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錢乃榮(2002)는 19세기 말 上海에서 출간된 중국어교재 《官話指南》(1881)에 나타나는 ‘着’에 대해, 당시 ‘着’은 아직 진행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존속상(存續相), 방식, 완성상 및 보어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태조사로 사용된 ‘着’은 보어의 용법에서 허화되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着’의 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 허화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宋金蘭(1991)은 조사‘了’와 ‘着’의 혼용현상 및 의미의 복잡성과 기능의 다양성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王繼紅·陳思佳(2019)은 宋金蘭(1991)의 견해를 참조하여 清代八旗子弟가 만든 통속 講唱 문학서인 《子弟書全集》에 나타나는 ‘了’와 ‘着’에 대해 고찰하면서 ‘着’의 동작의 완성 의미는 만주어와 중국어의 접촉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着’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아직도 용법과 의미 및 문

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여지가 충분한 분야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着’ 역시 ‘부착’과 ‘접촉’이라는 의미가 여러 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의미를 생성했고 앞으로 또 변화할 것이다. 그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교재에서 ‘着’의 출현 빈도는 매우 높다. 그 어떤 자료보다도 20세기 초 중국어 口語의 사용 정황을 살피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굴된 10여종의 일제강점기 교재는 양이 방대하고 내용의 중복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초반의 교재이면서 편폭이 비교적 길고 대화문이나 서술문 등 다양한 문장이 나타나며, ‘着’과 관련된 예문이 211개 나타나고 있어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宋憲奭저(1921), 《自習完璧支那語集成》(京城: 德興書林)(이하 《支那語集成》)을 대상으로 ‘着’을 고찰하고자 한다. 《支那語集成》속 ‘着’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여 당시 ‘着’이 가지는 문법적 지위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통사적 특징

《支那語集成》에 나타나는 ‘着’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법 설명 부분에서 ‘着’은 현재의 시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 저자 宋憲奭은 <제26장 동사> 편에서 동사의 활용을 설명하면서 ‘着’을 현재의 시제표시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三) 着(現在) (P. 352)

站着[잔쥬] 서있다 聽着[팅쥬] 듣는다 坐着[쥬쥬] 안진다

《支那語集成》에서 ‘着’은 모두 211차례 나타나고 있다. 《支那語集成》의 체제는 위와 같이 한자가 나오고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구할 자체 한글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교재를 통해 당시 중국어의 음을 유추할 수 있고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재에는 ‘着’는 [zhe], [zháo], [zhuó], [zhāo] 등으로 읽히면서 어느 정도 품사와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支那語集成》에서 ‘着’은 술어동사([좌])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쥬]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음으로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어렵고 통사형태와 저자의 번역을 통해 당시 ‘着’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술어동사로 쓰인 ‘着’은 제외하고 나머지 ‘着’을 대상으로 각각의 통사 형태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를 고찰하여 당시 ‘着’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를 결정하고자 한다. 먼저 술어동사로 쓰인 ‘着’을 제외하고 나머지 ‘着’의 통사적 출현 형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支那語集成》 중 ‘着’의 통사적 출현 형태 >

출현 형태	대표예문	비고
동사+着	我在椅子上 <u>坐着</u> 。	
동사+着+목적어	<u>吃着飯</u> 哪。	
동사 ₁ +着+(목적어) +동사 ₂ +(목적어)	1) <u>坐着</u> 哭。 2) 他還 <u>扎挣着</u> 來到山房~。	
동사+着+(목적어)+조사	1) 若是叫他 <u>撈着</u> 了，斷沒有經放過去的。 2) 正 <u>想着</u> 的時候兒~。	了, 的 등과 결합
동사+着+어기사	1) 天短沒有空兒，事情得 <u>擱着</u> 罷。 2) ~，我都 <u>帶着</u> 呢。	罷, 哪, 呢 등과 결합
동사+着+기타성분	1) 你嚇着怎麼樣? 2) 我看着很羨慕他。	着이 得혹은 起의 의미를 가짐
동사+得/不+着+(목적어)	1) 他的真假那兒 <u>摸得着</u> 呢。 2) 至今還 <u>摸不着</u> 一點兒頭緒兒呢。	
부정부사+동사(형용사)+着	1) 若不 <u>趕着</u> 取去~。 2) 總沒 <u>借着</u> 沒法兒~。 3) 你起來，別 <u>擋著</u> ³⁶⁾ 道兒。	不, 沒, 別 등
형용사+着	這種人可 <u>小心着</u> 。	
형용사+着+동사+(목적어)	這兩天連陰 <u>着</u> 下雨。	
형용사+着+기타성분	1) 往西 <u>偏着</u> 點兒的，那就是進京的了。 2) 比我好的 <u>多着</u> 的呢。	수량구, 어기사
개사+着	<u>由着</u> 你們欺侮我，你就錯了主意了。	向着, 按着, 順着, 依着 등
대사+着	與其這麼 <u>着</u> ，還不如那麼 <u>着</u> 。	怎麼着
부사+着	他纔 <u>趕忙着</u> 去了。	

위와 같이 교재 안에서 ‘着’은 다양한 통사형태를 보인다. 현대 중국어에 비해 그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11개의 예문의 출현 양상에 대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교재 안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백분율로 제시하여, 20세기 초 ‘着’은 주로 어떤 통사적 형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6) 교재 안에서 ‘着’은 ‘著’로도 쓰였다. 본 연구는 같은 의미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

3. 의미적 특징

대표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주로 ‘동사+着+(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다.

- 1) 吃着飯哪。밥을 먹소. (P.356)
- 2) 我步行兒走着。나는 보행으로 가오. (p.358)
- 3) 我在椅子上坐着。나는 의자 위에 앉혔소. (p.359)

예문 1)의 경우 진행상의 의미를 보인다. 당시는 아직 ‘在’를 사용한 진행상이 출현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동작동사+着’이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부사 ‘正’이 더해져 ‘正喝着的時候兒~’와 같은 구문은 나타나고 있다. ‘哪’역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3)의 경우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동작이 진행되고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미항을 분류할 때 동사에 대한 분류작업도 진행하여 각종 동사와 결합된 ‘着’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한다.

2. ‘동사₁+着+동사₂’ 혹은 ‘동사₁+着+목적어+동사₂’의 형식으로 두 동사 사이에 ‘着’이 들어가서, 앞 동사가 뒤 동작의 방식 혹은 조건을 나타내며, 앞의 동작의 정태적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뒤의 동작을 수반함을 나타낸다.

- 1) ~, 就在墳前坐着喫喝起來了。무덤 앞에 앉혀서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습시다. (P.426)
- 4) 穿着渾身的衣裳睡着了。옷 입은 채 잤더니. (P.431)

3.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는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미 없어져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您聽着這房錢彷彿是太多。您不知道那房子可是頂好，院子又大，地勢又好，離不可也近買東西也很方便。 로형이 듯기에 이 집세가 너무 만흔 듯 하나 노령은 그집이 미우 조코 썬이 썬 크고 디세? 썬 조코 문 길에 가기가 썬 갓갑고 사기도 미우 경편함을 모르시오. (p.368)
- 2) 我看着價錢多點兒沒給。 내 소견에는 갑시 조금만 허셔 주지 아니 했습시다. (p.374)
- 3) 這心裡纔覺着鬆快些兒。 마음이 겨우 조금 시원했습시다. (p.431)

이런 용법에 대해 陳偉武(1996)은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着₂’라고 설명하며, 근대중국어에서 ‘了’와 ‘着’이 아직 분명하게 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錢乃榮(2002)은 唯補詞補語 구문으로 설명했다. 이러 용법이 《支那語集成》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着’의 문법화 단계를 짐작할 수 있다.

4. ‘동사+ 着 + (목적어)+罷’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2) 天短沒有空兒，事情得攔着罷。헝가 째으면 겨를이 업서 일을 다 치여 바랍니다. (p.360)

3) 你來幫着我罷。 로형이 와서 나를 방조헝여 주시오. (p.401)

4) 好好的養着身子，快好了罷。 잘 몸을 조절하시게. 곳나으시리. (P.430)

5. ‘동사+着+(了)’의 형태로 결과의 발생, 목적의 달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錢乃榮(2002)은 동작이 발생한 후 그 상태가 연속된 존속상(存續相)이라고 설명했다.

5) 如今回家歇着了? 지금은 집에 도라와서 노는게 아닌가? (p. 382)

5) 怎麼，那個走私是叫官場中察着了。 웃더케 그리케 몰내 나갓든가요 그래서 관인들 에게 조사를 당흠이올시다그려. (p.388)

6. ‘형용사+着’의 경우 ‘상태의 지속’이나 ‘정도의 심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목적어’구문이 후행하거나 ‘~點兒’과 같은 수량구나 여기서와 같은 기타성분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6) 這兩天連陰着下雨。 이두어 놀 련헝야 그늘지며 비가 옵니다. (p.363)

6) ~往西偏着點兒的，那就是進京的了。 조금 서북으로 치우쳐 가면 그것이 곳 서울로 드러가는 것이올시다.(p 398)

7) 比我好的多着的呢。 나보다 나흔 이가 만흔데요. (p.410)

7. ‘개사+着’의 형태로 개사의 구성성분이 된다. 현대중국어에서 일부 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着’없이 사용되는 개사가 일제강점기 교재에서는 대다수가 ‘着’이 부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着’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아직 개사의 고정적인 형태가 완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사에 사용된 ‘着’은 그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7) 那總得按着字數兒算的。 그것은 도모지 글췌 슈를 짜라서 회계는 것이오. (p.370)

8) 那麼依着你納的主意，叫我怎麼辦呢? 그러면 로형의 주의 갓틀진 디 나다려 엇더케 헝라 헝심이오? (p. 374)

8. 대사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며 ‘這麼着’, ‘那麼着’, ‘怎麼着’ 등이 나타난다. 지시대사 속에서는 방식의 의미를 나타내며, ‘怎麼着’는 교재에서 주로 동사 ‘是’뒤에 사용되어 ‘어찌 된 것 인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9) 與其這麼着, 還不如那麼着。 이리케 함이 저러케 함만 못호오.(P.354)

10) 你們是怎麼着, 又這樣弄性打架起來了? 로형들은 왜 또 이리케 심술을 부리고 야단을 치시오(P.408)

9. ‘동사+得+着’ 혹은 ‘동사+不+着’의 형태로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1) 他的真假那兒摸得着呢。 저의진가를 엿지 헤아릴 슈 잇겟소. (P.412)

2) 至今還摸不着一點兒頭緒兒呢。 지금 아즉 조금도 두서를 모르오. (P.413)

10. ‘동사+着’의 형식이지만 동작의 의미가 없고 정태의 객관적 진술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형식에서 일부 ‘着’는 ‘起(來)’혹은 구조조사 ‘得’의 의미를 가진다.

11) 已經長成了大漢子的, 說着也是這個樣, ~. 발서 자라 큰 놈이 되여가지고 말하는 것도 이 모양이라 말이나! (P.415)

12) 看着容易做着難. 보기에나 용이하나 헉기에는 어렵소. (P.422)

8) 你嚇着怎麼樣? 로형은 왜 그리 놀라시오? (p.404)

11. ‘부사+着’으로 부사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어 주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9) 他纔趕忙着去了。 저는 그제야 빨리 갑습니다 (P.422)

13) 哎, 可怎麼樣呢, 如今已經買定了, 將就着養活罷咧, ~. 아이 웃더겟소. 지금 괴워 샷스니 곳 길너 보겟소.(P.424)

12. 관용어 안에 사용되었다.

10) 我是說著玩兒呢, 來的是刻字匠要錢來了. 나는 작난의 말슴을 헉엿습니다. 온 스름은 이 각자장이가 돈 바드러 온 것이올시다. (p.391)

이와 같이 다양한 통사형태와 의미로 나타나는 ‘着’에 대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당시 교재에서 나타나는 ‘着’의 문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당시의 ‘着’과 현재의 ‘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박재연·김아영 편 (2009), 《漢語會話書》, 서울: 學古房

〈참고서적 및 논문〉

王力(1958), 《漢語史稿》, 上冊, 中冊 北京: 中華書局

曹廣順(1995), 《近代漢語助詞》, 北京: 語文出版社

太田辰夫(1957), 《中國歷史文法》(蔣紹愚, 徐昌華 譯 (2005)), 北京: 商務印書館

李納·石毓智(1997), 〈論漢語體標記誕生的機制〉, 《中國語文》 第二期

陸儉明(1999), 〈“着”字補議〉, 《中國語文》 第五期

張黎(1996), 〈“着”的語義分布及漁法意義〉, 《語文研究》 第一期

蔣紹愚(2006), 〈動態助詞“着”的形成過程〉, 《周口師範學院學報》 第二十三卷, 第一期

최규발(2011), 〈현대중국어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 《中國學論叢》

김미성(2014), 〈중국어 결과보어 ‘着(zhao)’의 허화성 유무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57, 중국인문학회

박정구·유수경·강경구(2019),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방언의 결과상/진행상 표지의 변이 유형과 발전기제〉, 《중어중문학》75, 한국중국어문학회

錢乃榮(2002), 〈20世紀初上海話和北京語中的體助詞“着”〉, 《東方語言文化》(潘悟雲主編), 上海:東方出版中心

宋金蘭(1991), 〈漢語助詞 “了”、“着”與阿爾泰語言的關係〉, 《民族語文》 第六期

王繼紅·陳思佳(2019), 〈清代子弟書時體助詞“了”“着”及其混用現象〉, 《人文叢刊》 第二十輯

陳偉武(1996), 〈車王府曲本中的清代漢語若干語法成分〉, 《語文研究》(1)

Thomas Francis Wade(1886), 《語言自邇集》 (Yu-Yen Tzu-Erh Chi : A progressive course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 of Colloquial Chinese,), Kelly and Walsh, limited. Shanghai

A Study on “*zhe*(着)” in the Chinese Language Materials in Korea During Early 20th Century

-Focusing on *Jinauh Jipseong* (《支那語集成》)

Shin, misup
(Yeungnam Univ)

< Abstract >

In modern Chinese, the character ‘着’ often denotes the progress of an action or the continuation of a state. Nevertheless, the word could deliver the meaning of a completion, or a consequence, when it is used as a result complement. However, what could be found in Chinese textbooks that had been 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more diversity in the syntactic usage and meaning of ‘着’ comparing it to modern Chinese.

In the Chinese textbooks, ‘着’ written as combined forms of ‘adjective + 着’, ‘preposition + 着’, ‘pronoun + 着’, and ‘adverb + 着’, which is not common in modern Chinese. In addition, the format had used in the subject, the adjective, and adverbial phrases without a limitation to predicate phrases. And each combination is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indicating the progression, a continuation of the state, completion of the movement, or a violation of the command.

Therefore, the study on the character ‘着’ used in Chinese textbook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is distinctive from modern Chinese, will provide a clue to the study and an assist to standardize and verify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着’ in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manner among various views are being raised.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이합사 활용 오류 분석 및 교육 전략 고찰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詞彙表》를 중심으로 -

맹 유
(경북대학교)

I. 머리말

이합사(離合詞)는 현대 중국어 어휘 중 문장 속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특별한 어휘이다. 이합사는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의 회화 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중국어 교재에서는 이합사를 어법 단어로 간주하지 않아 해석과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교수자는 자주 사용하는 몇몇 이합사의 용법만 간단히 설명하고, 체계적으로는 가르치지 않는 실정이다.³⁷⁾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합사가 무엇인지, 이합사가 일반 동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개별 이합사의 용법을 배운다고 하여도 일이관지(一以貫之)로 이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이 기존의 이합사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이합사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종종 한계에 부딪힌다.

실제로 중국어 교육을 할 때 이합사에 대한 오류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 그치지 않고, 중급·고급 수준의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³⁸⁾에 수록된‘詞彙表(一~九級)’에 나온 이합사를 모두 정리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고, 둘째, HSK 동태 작문 코퍼스(HSK動態作文語料庫)³⁹⁾ 내의 한국 학습자들의 이합사 활용 오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이합사들을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셋째, 이합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왜 오류를 범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 후 넷째, 이합사 사용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어 이합사,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 詞彙表, 한국 학생, 오류 분석, 교습 전략

37) 孟國,《對外漢語十個語法難點的偏誤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303쪽.

38) 教育部中外語言交流中心 著,《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21, 36-169쪽.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GF0025-2021)은 중국 국가 언어위원회 언어 규범 표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근에 중국 교육부, 국가 언어문자 공작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언어문자 규범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웹사이트 www.moe.gov.cn, 2021년 3월 31일)

39)“HSK動態作文語料庫”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고급 중국어 수평 시험 (HSK고급) 작문 시험에 참가한 응시자의 답안지 코퍼스로 1992-2005의 일부 외국인 응시자의 작문 답안지를 수록하고 있다.

사이트 주소: hsk.blcu.edu.cn

Ⅱ. 詞彙表 1~9급의 이합사

현행 HSK 어휘는《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修訂版)》⁴⁰⁾(이하《國際通用大綱》으로 함)에 수록된‘常用漢語詞語表(一~六級)’의 어휘로 되어 있고 모두 5,000개이다. 앞으로 9급 체계⁴¹⁾로 실행될 HSK 어휘는《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이하《標準》)》에 수록된 ‘詞彙表(一~九級)’의 어휘로 모두 11,092개이다. 《國際通用大綱》에 수록된 이합사는 모두 195개에 그치지만, 《標準》에 수록된 이합사는 550개에 달한다. 등급별 이합사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과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의 등급별 이합사

이합사개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9급	합
《國際通用大綱》	개	1	8	20	27	57	82	0	195
	%	0.5	4.1	10.3	13.8	29.2	42.1	0.0	100.0
《標準》	개	43	32	35	49	39	46	306	550
	%	7.8	5.8	6.4	8.9	7.1	8.4	55.6	100.0

《標準》에서는 위와 같이 등급별로 550개의 이합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시할 점은 《國際通用大綱》과 《標準》에서는 왜 이합사를 이렇게 따로 표시하여 두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합사가 현대 중국어의 특별한 언어 현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더 나아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 역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이합사에 관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합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標準》에 수록된 550개의 이합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교수법도 교수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이합사의 유형 및 특징

이합사는 현대 중국어 중 주로 이음절어로(感兴趣, 爱面子, 看样子, 晒太阳 등 삼음절어도 있음), 확정된 의미가 있고 중간에 기타성분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분리할 수

40) 孔子學院總部, 國家漢辦編制,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修訂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57-114쪽.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은《國際漢語能力標準》을 참조하여 만든 교육 과정의 참고 근거이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웹사이트 www.moe.gov.cn, 2008년 3월 30일)

41)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지만 HSK 조정을 시작하는 시간은 아니다. 《標準》에 근거하여 HSK 7-9급을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일정한 과정이 필요해서 2021년 12월에 시범 시험을 치르고, 2022년 3월에 정식으로 시험을 출범할 예정이다. (출처: 国际中文教育人才网官网, <http://zhaopin.jiaohanyu.com>, 2021년 4월 22일)

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⁴²⁾ 현재 학계에는 이합사의 성질에 대해 주로 ‘단어’, ‘구’, ‘단어와 구 사이에 있음’, ‘합치면 단어, 분리하면 구’ 등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져 이합사에 관한 이견이 있다. 확정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합사를 일정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어휘로 보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標準》에 수록된 550개의 이합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합사는 구조적으로 ‘동빈(VO)식 이합사’, ‘동보(VC)식 이합사’, ‘주술(SP)식 이합사’, ‘연합(VV)식 이합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형별 어법 특징은 다음과 같다.

IV. 한국인 학습자 오류 분석

중국어의 이합사는 대부분 동사의 품사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수 이합사는 형용사의 품사도 가지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합사의 분리 형식은 종종 뒤섞여 사용되는 복잡한 특징을 드러낸다.⁴³⁾ 이합사를 합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은 한국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대두된다. 모국어의 부정적인 이전과 목표 언어의 지나친 일반화 등의 요인으로 한국 학생들은 중국어 이합사를 학습할 때 여러 유형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 중·고급 단계에서도 규칙적인 오류를 여전히 발생시킨다.

한국 학생들의 이합사 활용 오류는 주로 동빈식 이합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데 크게는 분리 오류, 중첩 오류, 도치 오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오류 예문은 주로 HSK동태 작문 코퍼스와 가르치는 학습자의 작문에서 수집한 문장이다.

1. 분리 오류

(1) 목적어 사용 오류

한국 학생들은 이합사를 동사로 보는데 실은 이합사의 대부분 앞에는 동사성 성분, 뒤에는 명사성 성분이라는 동빈(VO)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합사들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올 수 없는데 이런 특징을 모르면 문장을 만들 때 오류를 범하게 된다.

11) ① * 我今天下午去见面朋友, 和他商量去上海旅游的事情。

12) ② * 爸、妈, 女儿快要毕业大学了。

예①과 예②의 ‘见面’과 ‘毕业’은 동빈식 이합사이므로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둘 수 없다. 따라서 예①은 전치사 ‘和’, ‘跟’, ‘同’ 등으로 ‘见面’의 대상을 끌어내거나 대상을 동사인 ‘见’ 뒤에 오게 하여 ‘我今天下午去跟朋友见面’ 혹은 ‘我今天下午去见朋友面’으로 고쳐야 한다.

42) 范晓, <動賓離合詞及其構成的語式>, 《山西大學學報》, 2014年第6期.

43) 劉順, <論現代漢語的“離合詞”>, 《齊齊哈爾大學學報》, 1999年第5期.

(2) 보어 사용 오류

1) 방향보어가 이합사 뒤에 위치한 오류

13) ④ * 他们高高兴兴地跳舞起来。

14) ⑤ * 他话太多，聊天儿起来没完没了。

예④와 예⑤ 중의 ‘跳舞’와 ‘聊天儿’는 모두 동빈식 이합사이므로 방향보어 ‘起来’는 목적어 뒤에 오면 안 되고 동사인 ‘跳’와 ‘聊’ 뒤에 와야 한다. 따라서 예④와 예⑤는 각각 ‘他们高高兴兴地跳起舞来。’와 ‘他话太多，聊起天儿来没完没了。’로 고쳐야 한다.

2) 시랑보어가 이합사 앞 혹은 뒤에 위치한 오류

15) ⑦ * 以前我身体不好就住院几个月。

16) ⑧ * 为了回国治病，他两个星期请假了。

예⑦과 예⑧ 중 시랑보어가 각각 이합사 ‘住院’의 뒤와 ‘请假’의 앞에 온 오류이다. ‘住院’과 ‘请假’는 동빈식 이합사로 앞의 ‘住’와 ‘请’은 동사의 어법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랑보어+O’는 그 뒤에 와야 한다. 따라서 예⑦과 예⑧은 각각 ‘以前我身体不好就住了几个月院。’와 ‘为了回国治病，他请了两个星期假。’로 고쳐야 한다.

3) 동량보어가 이합사 앞에 위치한 오류

17) ⑨ * 不过一次抽烟以后他们就不能停止抽烟。

18) ⑩ * 他们一回吵架，就分手了。

예⑨와 예⑩ 중 동량보어 ‘一次’와 ‘一回’가 ‘抽烟’과 ‘吵架’의 앞에 온 오류이다. ‘一次’와 ‘一回’는 각각 동사성 성분인 ‘抽’와 ‘吵’의 뒤에 와야 한다. 따라서 예⑨와 예⑩은 ‘不过抽一次烟以后他们就不能停止抽烟。’와 ‘他们吵一回架，就分手了’로 고쳐야 한다.

4) 결과보어가 이합사 뒤에 위치한 오류

⑪ * 考试完以后，我打算跟朋友一起去旅行。

⑫ * 妈妈汇款完，就给我打了一个电话。

예⑪과 예⑫ 중 결과보어 ‘完’은 이합사인 ‘考试’와 ‘汇款’ 뒤에 온 오류이다. 결과보어 ‘完’은 동사성 성분인 ‘考’와 ‘汇’의 뒤에 와야 한다. 따라서 예⑪과 예⑫는 ‘考完试以后，我打算跟-朋友一起去旅行。’과 ‘妈妈汇完款，就给我打了一个电话。’로 고쳐야 한다.

(3) 동태조사가 이합사 뒤에 위치한 오류

⑬ * 我以前在一家书店打工过。

⑭ * 我睡觉了七个小时。

예⑬과 예⑭ 중 동태조사 ‘过’와 ‘了’가 명사성 성분인 ‘工’와 ‘觉’의 뒤에 온 오류이다. ‘过’와 ‘了’는 동사성 성분인 ‘打’와 ‘睡’의 뒤에 와야 한다. 그리고 예⑭에는 ‘了’의 위치 오류와 시랑보어 위치 오류를 같이 범했다. 따라서 예⑬과 예⑭는 ‘我以前在一家书店打过工。’과 ‘我睡了七个小时觉。’로 고쳐야 한다.

2. 중첩 오류

⑮ * 天气真好，我们去江边散步散步吧。

⑯ * 我们晚上一起跳舞跳舞。

예⑮와 예⑯ 중 ‘散步’와 ‘跳舞’는 모두 동빈식 이합사인데 중첩할 때 일반동사의 중첩처럼 ‘ABAB’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동사성 성분만을 중첩하여 ‘AAB’식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예⑮와 예⑯은 ‘天气真好，我们去江边散散步吧。’와 ‘我们晚上一起跳跳舞。’로 고쳐야 한다.

3. 도치 오류

동보식 이합사의 내부에서 의미 표현상 필요에 따라 명사성 성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를 동사성 성분과 위치를 바꾸어 도치 구조로 쓸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학습자들이 이합사 도치 구조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 오류는 주로 이합사 도치 구조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⁴⁴⁾

⑰ 她的心被你伤透了。

⑱ 话都说完了，你看着办吧。

예⑰과 예⑱ 중 ‘伤心’과 ‘说话’는 모두 동보식 이합사이고 도치 격식을 사용하여 목적어 성분인 형태소 ‘心’, ‘话’를 동사성 형태소 ‘伤’, ‘说’의 앞부분에 당겨와 도치하였다. 의미 표현의 변화에서 보면 도치는 어기를 강조하고 감정적 색채를 강화하여 표현을 더 정확하고 생동적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국어에서 종종 사용되는 수사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합사의 도치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어법 수단을 빌려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을 포함한 모국어 사용자가 아닌 학습자들에게는 확장 연습(‘睡觉——睡不好觉——觉也睡不好’ ‘报名——报上名——名报上了’)을 통해 이런 도치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오류 원인

위와 같은 이합사의 오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
- (2) 교재 속 이합사 설명 부족
- (3) 중국어 어법 규칙의 지나친 일반화

44) 趙炎, <對外漢語離合詞教學初探>,《遼寧市轉學報(社會科學版)》, 2017年第6期.

V.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이합사 교육 전략

- (1)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하기
- (2) 이합사 교습과 관련된 어법 교육과 결합하기
- (3) 비교를 통해 이합사 교습 강화하기

VI. 맺음말

이합사는 현대 중국어의 특별한 품사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포인트이면서 익히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는 이합사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王力은 일찍이 1944년에 출판된《중국어현대어법(中國現代語法)》에서 최초로 이합사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1980년대부터 李淸華는 <談離合詞的特點和用法>라는 논문에서 이합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였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교육에서도 이합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 후 이합사가 독립적인 언어 현상으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합사를 활용할 때 여전히 많은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에 본 논문은《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詞彙表》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어 이합사를 ‘동빈(VO)식 이합사’, ‘동보(VC)식 이합사’, ‘주술(SP)식 이합사’, ‘연합(VV)식 이합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어법 특징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4가지 유형을 토대로 살펴보면 동빈(VO)식 이합사가 약 92%(507개)로 가장 많고, 동보(VC)식 이합사는 약 7%(41개)이고, 주술(SP)식 이합사는 ‘心慌’과 ‘心酸’ 2개 밖에 없고, 연합(VV)식 이합사는 《標準》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숫자 다시 확인하세요.→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게 이합사를 가르칠 때 동빈식 이합사를 중심으로 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합사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학생들의 이합사 활용 오류는 동빈식 이합사를 사용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 분리 오류, 중첩 오류, 도치 오류 등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오류들의 원인으로는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 교재의 이합사 설명 부족, 중국어 어법 규칙의 지나친 일반화 등으로 귀결된다.

요컨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 교육, 이합사 교육과 관련 어법 교육과 결합, 비교를 통한 이합사 교육 강화, 상황 훈련을 통한 이합사 활용 강화 등의 교육 전략을 통해 한국 학생에 대한 이합사 교육을 강화하여 이합사 활용 오류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Separable words are a special linguistic phenomenon in modern Chinese. For foreigners, including Korean Chinese learners, Separable words are always a difficult and important point. Up to now, in the teaching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although teachers have put a lot of efforts into the teaching of Separable words, there are still many mistakes in the use of Separable words by foreign stude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show you the 550 Separable words in the 《Chinese Proficiency Grading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Vocabulary, we will research the deviations in the use of Separable words to know how the students have learnt them and find out why the deviations happen to make some teaching strategies to avoid the deviations in the use of Separable words.

Keywords: Chinese Separable words, Chinese Proficiency Grading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Korean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deviations, teaching strategies

현대 중국어 ‘行’부가의문문 연구

권부경
(영남대학교)

I. 연구 목적 및 방법

중국어 부가의문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풍부한 의미와 용법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현대한어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주로 화용적 기능, 의문의 정도 및 문법화 측면에서 다루어왔고 그 중에서도 ‘是’, ‘對’과 ‘好’에 대한 논의가 많고 ‘行’으로 구성된 부가의문문⁴⁵⁾에 대해서는 주제로 삼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보다 ‘好’자의 의미와 기능을 다룰 때 언급되었으며 화용적 기능에 있어서도 주로 ‘동의 요청’ 기능만 나타내고 셋 가지 변형(變形)의 기능과 용법이 같다고 생각한다. ⁴⁶⁾

- (1) 你幫我一個忙行嗎?
- (2) 你幫我一個忙不行嗎?
- (3) 你幫我一個忙行不行?

위의 세 예문은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써 ‘나 좀 도와줄래?’로 해석할 수 있고 서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거나 전달하는 화용적 의미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他不敢正視李雲章的眼睛，低下頭去說：“大哥，我也隨你去南洋，行嗎？”

그는 감히 李雲章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형님, 南洋에 같이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였다.

- (5) 周生泉一聽有任務，就對妻子葉紅說：“情況緊急，我先去，等我回來再送你去醫院檢查！” 葉紅擔心地說：“你不去不行嗎？”周生泉說：“我是民兵連的指導員，這麼重要的任務，不去怎麼能行呢？”

周生泉이 임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 아내 葉紅에게 ‘상황이 급하니 내가 먼저 가 봐야 한다. 내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자’ 라고 하였다. 葉紅은 불안한 마

45) 邵敬敏(1990)에서는 ‘X嗎’ 및 ‘X吧’를 ‘X不X’로 형성한 부가 의문문의 긍정적인 ‘변형(變形)’으로 간주하고, ‘不X嗎’ 및 ‘不X吧’를 부정적인 ‘변형(變形)’으로 간주한다. 서술의 편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行嗎’、‘不行嗎’와 ‘行不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6) 高華，張惟(2009)에서는 ‘行嗎’、‘不行嗎’와 ‘行不行’는 모두 “可以”의 뜻을 나타내고 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들이라고 하였다. 閔亞平(2015)에서는 ‘好’、‘行’、‘成’으로 구성된 부가의문부는 주로 서술문과 명령문 뒤에 덧붙여져 허락이나 동의를 요청하는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음으로 ‘안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했다. 周生泉은 ‘내가 민병련의 지도원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6) 陳亞平自然明白弦外之音，也很幹脆地說：“給你1萬行不行？”

陳亞平은 말 속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만원 드릴게요. 되죠?’

예(4)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감히 李雲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같이 南洋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형님에게 허락을 구한다. 선행문을 보면 화자가 형님께서 동의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보니 용기를 내서 말 했다는 ‘行嗎’를 통해 전달되었다. 즉 ‘行嗎’부가의문문은 화자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5)의 앞 절에서 우리는 周生泉이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葉紅는 남편 周生泉이 마음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남편에게 안 갈 수 없냐고 부탁을 한다. 즉 ‘不行嗎’는 화자가 확신이 없다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6)에서 陳亞平은 청자와 흥정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시원스럽게 상대방에게 서로가 받아드릴 수 있는 값을 제시한다. ‘行不行’은 일반적으로 ‘怎麼樣’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예문을 살펴보면 화자가 본인의 제안이나 주장을 들어내고 있다. 이때의 ‘行不行’는 화자가 청자에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4-6)에서 볼 수 있듯이 ‘行嗎’, ‘不行嗎’, ‘行不行’가 모두 동의·허락요청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각기 출현하는 상황이 다르고 화자의 의도와 심리가 다르다. ‘行嗎’는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不行嗎’는 화자가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들어낸다. 반면 ‘行不行’은 화자가 제안을 제시할 때 사용되고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들어낸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선행서술문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동의·허락 요청 기능 이외에 실제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명령, 반박, 불만 감정 표현하기 등 다양한 기능도 지니고 있다. 불만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7) “你知道隔壁的楊揚考了多少分嗎？”

‘옆집 楊揚은 몇 점 받았는지 아니?’

“好像是90分吧。”婷婷有點兒不高興地回答道。

‘90점인 것 같아요.’

母親似乎並沒有察覺，接著說：“怎麼又比她考得差？你努點力行嗎？”

어머니께서는 눈치 채지 못하고 이어서 말했다, ‘어째서 또 그녀보다 시험을 못 치지? 너 좀 힘을 써도 되겠니?’

(8) 可難道找他幫忙都不行嗎？

하지만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안 되나?

(9)你們安靜下來行不行？

너희들 좀 조용하면 안 되겠니?

예문(7)에서 어머니께서 딸 婷婷이 이웃집 楊揚보다 점수가 낮다는 얘기를 듣자 婷婷에게 좀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의를 준다. 선행문에서 화자의 불만과 바람이 명령문의 형식으로 이미 표현되었다. 뒤에서 추가된 ‘行嗎’ 의문부는 청자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뜻이 전달되었다. 이 때 화자의 불만 강도는 ‘行嗎’와 선행문에서 사용된 ‘點’에 의해 약화되었다. 예문(8)에서 부가의문부 ‘不行嗎’ 자체가 반어문 형식으로 반박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행문에서 ‘難道’와 ‘都’가 추가되면서 반박의 의미가 더 강해졌다. 예문(9)를 살펴보면 화자가 아이들에게 조용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行不行’부가의문부의 사용으로 비교적 부드럽게 나타냈다. 冏亞平 (2015)에 의하면 ‘行不行’이 부가의문부로 사용되었을 때 어기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예문의 선행문을 살펴보면 화자가 술어 ‘安靜’뒤에 방향보어 ‘下來’를 덧붙여 본인의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 ‘行不行’의 사용도 화자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行不行’은 어기를 완화시키면서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가의문부 ‘行不行’, ‘行嗎’와 ‘不行嗎’가 모두 화자의 불만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어기의 강약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선행문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 분석을 거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문(8)처럼 선행문에서 어기를 강화시키는 기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예문(8)(9)과 같이 어기를 약화시키는 기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의문부의 어기조절 기능이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行不行’, ‘行嗎’와 ‘不行嗎’가 나타내는 다양한 화용 기능에 관한 설명과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行不行’, ‘行嗎’와 ‘不行嗎’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문의 구조와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통사론, 의미론과 화용론 분석을 병행해서 ‘行不行’, ‘行嗎’와 ‘不行嗎’의 기능과 세부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문의 구조와 의미 특징이 부가의문부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들이 사용되는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결과

‘行嗎’、‘不行嗎’와 ‘行不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아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모두 상대방에게 허락이나 요청을 구할 때 사용된다.

(10)你幫我一個忙行嗎？

(10)'你幫我一個忙不行嗎？

(10)''你幫我一個忙行不行？

‘行嗎’、‘不行嗎’와 ‘行不行’이 추가되면서 공손하게 요청한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그러나 ‘行嗎’의 사용은 화자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전달되고 ‘不行嗎’는 화자가 확신이 없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行不行’은 청자에게 요청을 구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

둘째, 모두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不行嗎’와 ‘行不行’이 사용되었을 때 불만이나 책망의 감정이 내포된다.

(11)你小點兒聲行嗎?

(11)'你小點兒聲不行嗎?

(11)''你小點兒聲行不行?

셋째, 모두제안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이때 모두 ‘這樣’과 같이 사용된다.

(12)這樣行嗎?

(12)'這樣不行嗎?

(12)''這樣行不行?

이외에 ‘行嗎’와 ‘不行嗎’는 각각 부정문과 긍정문 뒤에 사용되어 반문 어기를 나타낸다.

(13)政治要以經濟做基礎，基礎不堅固還行嗎?

(14)我笑也不行嗎?

‘行不行’은 화자가 부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에는 명제 부분에서 서술한 내용이 일반적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하는 의미가 명백하다.

(15)真正打起仗來，三天三夜不睡覺行不行啊?

중국어 부가의문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풍부한 의미와 용법을 나타낸다. ‘行’부가의문문의 화용 연구에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行不行’에 대해서만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行嗎’、‘不行嗎’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行嗎’、‘不行嗎’와 ‘行不行’이 같은 동의·허락 요청 기능이나 불만 감정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분석을 통해 ‘行嗎’、‘不行嗎’와 ‘行不行’의 화용기능과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로 분석하였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에게 허락이나 요청을 구할 때 사용된다.

둘째,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

셋째, 제안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이외에 ‘行嗎’와 ‘不行嗎’는 각각 부정문과 긍정문 뒤에 사용되어 반문 어기를 나타낸다. ‘行不行’은 화자가 부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에는 명제 부분에서 서술한 내용

이 일반적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하는 의미가 명백하다.

‘行嗎’와 ‘行不行’과는 달리 ‘不行嗎’는 타협과 양보한다는 뜻에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行嗎’、‘不行嗎’와 ‘行不行’ 부가의문문에 대해 통사론과 의미론의 관점에서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1 ‘行嗎’ 부가의문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자료 분석을 통해 ‘行嗎’ 부가의문문의 명제 부분이 평서문과 사역문 두 가지 형식이 있고 또 긍정과 부정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據說保安公司喜歡要當過兵的，我沒當過兵行嗎？

(14) 我們想了解你一些問題行嗎？

(15) 請你獨立思考行嗎？

(16) 請你不要再模仿小徐的口音，行嗎？

예문 (13) (14)의 명제 부분은 평서문이고 각각 긍정과 부정 형식이다. 예문 (15)(16)의 명제 부분은 각각 긍정식 사역문과 부정식 사역문이다. 위 예문이 모두 ‘行嗎’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 전달하는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行嗎’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같이 살펴보면서 ‘行嗎’의 화용적 기능을 고찰하겠습니다.

2.1.1 의문을 나타냄

예문 (13)에서 ‘行嗎’가 문장 ‘我沒當過兵’ 뒤에 나타나므로 형식상 부가의문문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전체의 뜻을 살펴본다면 명제부분 ‘我沒當過兵’의 뜻을 보면 화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의문부 ‘行嗎’은 이로 인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제 조건을 나타내는 ‘沒當過兵’이 주어 ‘我’와 ‘行嗎’ 사이에 있는데 이를 ‘我沒有當過兵，我行嗎’처럼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行嗎’는 술어 용법에서 허사화로 인해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허사화 과정에서 주어부분이 단어에서 구로 확대되고 ‘行嗎’의 의미와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고도 할 수가 있다. ‘行嗎’가 허사화되면서 더 다양한 문장에 나타나게 되었다.

2.12 허락을 구하거나 부탁을 한다는 것을 나타냄

화자가 ‘行嗎’를 추가하므로 허락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낸다.

(17) 洗完澡再吃行嗎？6點半吃。

(18) 我要寄一筆錢到北京，行嗎？

(19) 他不敢正視李雲章的眼睛，低下頭去說：“大哥，我也隨你去南洋，行嗎？”

예문(17)은 부가의문문 뒤에 바로 명백한 식사 시간을 제시하여 화자가 상대방이 허락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 전달된다. 예문(18)에서 조동사 ‘要’, (19)의 ‘不敢’ 등을 사용하므로 화자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行嗎’가 평서문에서 허락을 구한다는 뜻 외에 사역문에서도 사용되어 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0)我彎下身子撿起一個瓶子，盡量想辨清那些小小的鉛字。“請你給讀一下說明，行嗎？”我請求道。

(21)周大勇說：“老人家，請你給我們帶帶路，行嗎？”老漢冷冷地瞅了周大勇一眼，說：“有什麼不行，我的腿又沒壞！”

(22)我對他說：“這玩具恐怕是破碎了。” “這個我知道。請你把它修好行嗎？”他帶著顯然不耐煩的口氣說。“我不會修。” “你當然會修。” “不，我不會。對不起。”

예문(20)(21)의 명제부분은 모두 사역문 형식이므로 어느 정도 명령의 어기가 포함되어 있다. ‘行嗎’가 추가되면서 부탁한다는 뜻이 전달되고 어기가 훨씬 완화되었다. 예문(22)는 ‘請’을 사용하여 화자가 상대방에서 어떻게 해줄길 바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만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

위 부분의 분석을 통해 ‘行嗎’는 평서문과 사역문에서 모두 허락을 구한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사역문에서는 때로 화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낼 수 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1.3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람

상대방이 어떻게 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낼 때 명제부분이 일반적으로 사역문인데 긍정과 부정 형식 모두 가능하다.

(23)母親似乎並沒有察覺，接著說：“怎麼又比她考得差？你努點力行嗎？”

“你憑什麼說我沒努力？比上次提高了10分，老師還表揚我進步了呢，就你總是不滿意。”

(24)一天上午，日本友人犬養毅來訪孫中山，兩人就中國國內局勢密談之後，換了一個輕鬆的話題。“迅速答我，不要猶豫，不要拖泥帶水，是什麼就直接說什麼，行嗎？” 孫中山點頭應允。

예문 (23)(24)에서 화자가 명백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길 요구를 했고 이에 청자가 각각 반박하거나 따르겠다는

뜻을 표현한다. 여기에서도 ‘行嗎’가 어기를 좀 부드럽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2.1.4 반문의 어기를 나타냄

명제 부분에서는 화자가 먼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고 이어서 이와 상반되는 행동 등을 제시해 부정하거나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

(25) 寒蟬의特定背景下, 敢於獨抒己見, 沒有點“獨立法大無畏精神”能行嗎?

(26)...召, 不俟駕”, 餘英時卻有這樣的表現, 做讀書人竟然沒身份如此, 行嗎?

2.1.5 ‘這樣行嗎’의 용법

명제부분의 내용이 좀 긴 경우 이 부분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고 그 다음 ‘這樣行嗎’로 앞 부분의 내용을 가리켜 청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묻는다.

(27)現在我告訴您我的決定: 告訴您兒子別再上這兒來了, 至於今晚的事嘛……就讓它過去吧。您看這樣行嗎, 希金斯太太?”

(28) “那我們全廠提這麼一個口號: 爲減少斷頭率而鬥爭! 梅廠長, 這樣行嗎?”

이외에 ‘這樣行嗎’는 명제 부분에서 표현한 내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들어내기도 한다.

(29) “現在患者上醫院看病, 有的醫生還沒了解清楚患者的症狀, 就大筆一揮開出一大堆檢查化驗單, 這樣行嗎?” 葡仲寬委員說。

(30)範方木然地說: “這樣行嗎? 這不是冒險嗎?” 周朗說: “事到如今只能這樣擔點風險總比坐以待斃要好吧?” 袁捷獨坐家中。

2.2 ‘不行嗎’ 부가의문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자료 분석에 따르면 ‘不行嗎’ 부가의문문의 명제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서문과 사역문이다.

(31)也有人從飯店出來, 招手坐上“火的”, 等表快滑字的時候, 停, 改乘“面的”了。於是, 夏利出租司機主動和顧客劃價, “我們按‘面的’的價不行嗎?” 每公裏 2 塊錢的出租車司機有人在車內備了一個小木牌, 上書: “1 . 6”元。這一切都是悄悄的。“的哥”說, 我多收錢管我,

少收錢也管我？

‘不行嗎’ 자체가 반문문의 형식이므로 평서문에 사용되었을 때 위 예문처럼 문장 전체에 반문의 어기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반문문은 어기를 강화시키고 반문의 형식으로 긍정의 의미를 갖는데 ‘不行嗎’는 부가문에서 반문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2.2.1 부가의문문의 형식으로 반문 어기를 나타냄

‘不行嗎’는 형식상 명제부분과 부가의문문을 구성하지만 ‘不行嗎’ 자체가 반문문 형식이기에 때문에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강조되고 때로는 불만과 책문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때 명제부분은 긍정문의 형식이고 ‘難道’、‘也’ 혹은 ‘都’를 사용하여 어기를 강화시킨다.

(32)他用不太熟練的漢語說：“你們爲我們做了那麼多好事，我們洗幾件衣服都不行嗎？”

(33)他們說，日軍能在南京殺死那麼多中國人，難道畫幅畫表達一下憤怒都不行嗎？！”

(34)段莉娜說：“的妮獲了大獎，想給她父親打個電話都不行嗎？你把手機一直關著，公司所有人都不知道你住在北京的哪一家飯店。...

예문 (32)은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반면 예문 (33)(34)는 분노와 불만의 태도를 나타낸다.

2.2.2 의문을 나타냄

‘不行嗎’는 부정형식이므로 긍정 형식인 ‘行嗎’보다 어기가 약하고 화자가 명제 부분의 내용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전달된다.

(35)可是，自古苧麻只適合南方種植，我國多產於長江流域。尤洪寶忽發奇想：南麻北移，讓它爲沂蒙山的鄉親們造福，不行嗎？尤洪寶帶上人去香港考察市場。

예문(35)를 보면 沂蒙山에서 마를 재배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없어기에 尤洪寶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게되었다. 성공할지 확신이 없기에 ‘不行嗎’가 추가되었다.

(36)“那你天天都在冒險嘍？不做不行嗎？（非做不可嗎/一定得做嗎——提出質疑）

(37)這是何苦呢？不喝不行嗎？不行。據說，能喝是一種本事。（質疑）

예문(36)(37)은 명제부분이 부정 형식이고 ‘不行嗎’와 함께 이중 부정문을 구성하게 되는데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들어낸다. 여기에서 ‘非~不可嗎’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2.2.3 表示請求

‘不行嗎’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전달된다. 이때 ‘行嗎’로 바꿔 사용해도 되지만 확신이 없다는 어기가 더 강하다.

(38)周生泉一聽有任務，就對妻子葉紅說：“情況緊急，我先去，等我回來再送你去醫院檢查！”葉紅擔心地說：“你不去不行嗎？”周生泉說：“我是民兵連的指導員，這麼重要的任務，不去怎麼能行呢？”

예문(38)를 보면 葉紅이 周生泉에게 있어주길 부탁한다. 그러나周生泉이 이미 떠나기로 결정했으므로 자신의 부탁이 거절될 거라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어서 周生泉은 葉紅에게 안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2.2.4 제안하기

‘不行嗎’는 화자가 청자의 행위와 상반된 제안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데 화자가 자신의 제안이 시행가능한지 확신이 없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39)旅遊旺季，服務業正在用人。我問爲什麼一定要上門去跑，打電話聯系不行嗎？

(40)魯豫：可是你那時候即便不拍戲了，去找一份別的工作不行嗎？比如去辦公室當一個文員？一個白領？

2.2.5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不行嗎’가 사역문의 뒤에 부가되면서 불만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41)“你不知道不該打小孩的屁股嗎？你幹嗎大聲嚷嚷，慢慢說不行嗎？”

(42) 吵吵吵吵，一天到晚就知道吵，叫人耳根清靜一會兒不行嗎？

(43) 有事說事不行嗎？

평서문에서는 ‘難道’ 혹은 ‘就’과 함께 반문문을 구성하여 어기를 강화시킨다.

(44) 難道你不用蠟燭就不行嗎？

(45)“請你不要再提到她，永遠不要想著她。不行麼？”“我偏要提到她：孫舞陽，孫舞陽，孫舞陽……”

2.2.6 타협의 뜻이 전달됨

부사‘還’와 함께 사용되어 화자가 양보하거나 타협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때 ‘行了吧’로 대체할 수 있다.

(46)“中央的財政從哪兒來，說破了還不是靠地方的支持。實在沒辦法了。不然，廣西的稅收全部歸你還不行嗎？”

(47)“今天確實是怪我火氣太大，我不該拍他的耳光。我承認錯誤還不行嗎？”

2.3 ‘行不行’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2.3.1 상대방에게 찬성 여부를 물을 때 사용

(48) 秦王要是答應了最好，要是不答應，就把他刺死。您看行不行？”

(49)已平定，只有東晉不肯聽從我的命令。我準備親率大軍滅晉，你們看行不行？”文官武將都表示反對，連他的弟弟苻融和他寵愛的張夫人都勸他...

‘行不行’의 사용은 화자의 태도가 명제 부분에서 표현한 자신의 제안이 찬성해주길 바란다는 뜻이 전달된다.

2.3.2 가정의 기능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는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이에 대해 설명해 본인의 관점을 제시한다.

(50)不能真正地把這幾類詞劃分清楚，那麼換幾條分布特征作為分類標準行不行呢？ 我們做了各種嘗試，結果是：不管你選用什麼分布特征作為分類標準，都很難做到真正地把屬於同一類的詞都劃進來，把屬於不同類的詞都劃出去。

(51)從縣長、書記到一般老百姓，幾乎一人一副土箕，輪流一堤挑土，誰也沒有特殊。在安鄉，汛期每年不少於5個月，全縣56萬人口，這5個月就圍著堤打轉轉。這個堤可不容易挑。不挑行不行？不行！洞庭湖區能搬走嗎？1000萬畝富得流銀的的耕地，能捨得下嗎？

2.3.3 간절히 바라거나 부탁한다는 뜻을 나타냄

명제 부분인 사역문에 ‘行不行’이 사용되므로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부가된다.

(52)實在忍不住了，就對外婆說：“整塊的給外公吃，我只吃一點渣渣，行不行？”可是，外

婆還是搖了搖頭。女孩也就真的沒有伸手。

(53)杯水裏的茶葉可不是什麼好茶葉，再來審我的時候給我帶點好茶葉泡行不行？我一向喜歡喝茶，每天要大量地喝的。

2.3.4 주의를 환기시킴

사역문 형식의 명제 부분 뒤에 ‘行不行’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거나 불만의 어기가 부가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답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 ‘行嗎’ ‘不行嗎’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54) 你說話老是那麼大聲大氣，調門兒放低點兒行不行？

2.3.5 앞 절을 이어서 화자의 관점을 제시함

형식상으로는 청자에게 명제 부분의 내용이 시행 가능한지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곡하게 본인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55)不打這麼深行不行呢？

(56)用行政手段加以壓服行不行呢？

(57) 真正打起仗來，三天三夜不睡覺行不行啊？

위 예문을 살펴보면 명제 부분에서 서술한 내용이 일반적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하는 의미가 명백하다. 이러한 서술법이 직접적으로 관점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 때 ‘行不行’ 뒤에 어기조사 ‘啊’나 ‘呢’가 추가됨으로 어기가 더 부드럽다.

2.3.6 ‘這樣行不行’이 어떤 제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나타냄

(58)陳元厚說，這樣行不行，張春華她無論住院時間多長，生活費用由我個人承擔，我盡全力給你...

(59)他亮出底牌，“這樣行不行，我年底賣了魚一次性還清本息，還不了你先變賣我私人的房產，用我...

위 예문을 살펴보면 화자가 먼저 ‘這樣行不行’으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이어서 본인의 제안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명제 부분의 내용이 긴 경우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코퍼스 기반 현대중국어 방향보어 ‘下來/下去’의 의미·용법 연구

이갑남
(영남대학교)

I. 머리말

현대중국어의 보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위치하여 보충 설명하는 성분을 가리키는데, 방향보어는 동작을 통해 이동하는 방향을 표시한다.⁴⁷⁾ 방향보어는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는데, 의미와 분포가 다양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 방향성과 이동성을 가진 기본의미에서 문법화 과정을 통해 생겨난 다양한 파생의미와 문장에서 유동적으로 출현하는 목적어의 어순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방향보어 구문 중 의미적 대칭관계인 ‘VA下來/下去’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들 구문이 의미 대칭쌍 중 사용빈도가 높고⁴⁸⁾ 의미와 용법이 복잡하여 학습자의 사용 오류율이 높기에 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코퍼스 용례 분석을 통해 현대중국어 방향보어 ‘下來/下去’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한 구문의 의미와 용법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의미 분류 방법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기존 연구에서 ‘下來/下去’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 분류를 현대중국어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와 결합하여 다시 의미별로 분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획득하고 중국인 언중의 사용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중국어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국어 코퍼스 중 중국 내 최대 코퍼스라 할 수 있고, 검

47)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 《現代漢語》(重排本)2004, 326-332 참조.

48) 弓月亭(2008:69)에 의하면, ‘現代漢語研究語料庫’에서 복합방향보어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 출현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상위 6개만 표시).

起來>出來>下來>過來>下去>回來

반면 필자가 BCC 코퍼스 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복합방향보어의 출현빈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상위 6개).

起來>出來>下來>下去>過去>回來

위의 결과는 2가지의 다른 코퍼스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어의 복합방향보어 중 의미적 대칭쌍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下來/下去’의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갖춘 BCC 코퍼스를 주요 검색 대상으로 삼았다. BCC 코퍼스는 고대 한어를 포함해 약 150억 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현대중국어 중 문학(文學) 영역과 신문잡지(報刊) 영역에서 ‘VA下來/下去’ 구문을 검색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검색조건을 ‘V下來’로 할 경우, 이 결과의 단어 분리와 품사 표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품사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연구할 때 다시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V下來’로 검색한 결과를 근거로 일정 범위의 동사를 각각 검색한 결과를 반영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V下來’로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동사를 재검색한 결과로, 문학 영역에서 ‘V下來’로 검색 후 상위 16개를 재검색하여 5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표 1〉 ‘下來’와 결합하는 개별 동사 검색

순번	V下來	용례수
1	停下來	3785
2	坐下來	3680
3	掉下來	1088
4	生下來	878
5	跳下來	583

‘V下來’로 검색한 것과 개별 동사를 검색한 결과 대부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坐下來’는 ‘V下來’로 검색한 결과 450개였는데, 개별 동사로 검색한 결과는 3680개로 아주 많은 차이가 났다. 이상의 문제점에 유의하여 코퍼스에서 추출한 ‘VA下來/下去’ 구문의 용례는 우선 기존의 의미 분류를 참고하여 살펴본 다음, 의미 유형과 용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Ⅲ.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의미와 용법

1.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의미

방향보어 구문에서 주요동사와 방향보어의 결합 관계는 다음과 같다.

- A. V1+V2+V3 : 跳下來/跳下去
- B. V1+V2 : 跳下
- C. V1+V3 : 跳來/跳去

위에서 V1은 주요동사이고 V2와 V3는 방향보어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대상은 A유형 복합방향보어 구문으로 ‘형용사(A)+下+來/去’ 구문도 포함된다.

방향보어의 의미는 방향의미·결과의미·상태의미로 나누기도 하고, 기본의미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생겨난 파생의미로 나누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로 나누고, 방향보어 ‘下來/下去’의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는 어떤 것이 있고, 이들과 결합하는 동사·형용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방향의미는 방향보어의 기본의미로 ‘V下來/下去’ 구문에서, ‘下來/下去’의 ‘下’는 이동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來’는 이동을 보는 기준점이 아래에 있고 ‘去’는 기준점이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來’와 ‘去’는 한 쌍의 반의어로 일반적으로 화자의 현실적 공간 위치를 기준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來’와 ‘去’의 사용은 화자의 주관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⁴⁹⁾ 다음 예문은 방향보어의 기본의미로 사용된 ‘V下來/下去’ 구문이다.

(1) 吳民生氣地說着，就在一把椅子上坐下來。（巴金，《愛情的三部曲(霧雨電)》）

(2) 金太太倒是很自在了，就向旁邊一張椅子上坐下去。（張恨水，《金粉世界》）

(1)은 ‘坐’와 ‘下來’가, (2)는 ‘坐’와 ‘下去’가 결합되었다. 두 문장에서 동일한 동작을 각각 ‘來’·‘去’로 구별한 것은 화자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도 방향보어의 기본의미도 사용되었지만, 이들의 의미관계는 위의 기준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3) 母親跳下炕去，翻箱倒櫃，終於把那張借據找了出來。（莫言，《四十一炮》）

(4) 她就跳下地去，瞪着眼睛，張着嘴，連哭帶叫的，那力氣比牛還大，那聲音好像殺豬似的。

（蕭紅，《呼蘭河傳》）

(5) 他不肯上炕來坐，底下又沒有凳子，我便也跳下炕去。（丁玲，《我在霞村的時候》）

(6) 可是小團圓息婦睡得朦裏朦朧的，她以為她的婆婆可又真的在打她了，於是她大叫着，從炕上翻身起來，就跳下地去，拉也拉不住她，按也按不住她。（蕭紅，《呼蘭河傳》）

(3),(4)는 동일한 구조인 ‘V+下+O+去’로 일반적으로 화자의 기준점이 위에 있고 이동체가 높은 곳에 있는 기점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4)의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 ‘地’는 종점으로 해석해야 한다.⁵⁰⁾ (3)의 ‘炕’은 한국어로 ‘온돌’이지만 한국의 온돌과는 다른 구조로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온돌에서 내려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즉 ‘炕’은 기점이 되는 것이다. 예(5),(6)의 앞뒤 문장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복합방향보어 구문에서 파생의미는 의미의 다양성과 문법적 복잡성으로 이해가 어렵다. 어떤 경우 같은 구조인데, 문장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

49) 高順全(2001), p.12 참조.

50) 杉村博文(1983), pp.104-105에 의하면, ‘V+下+O(장소목적어)’ 구문에서 장소목적어는 종점으로 혹은 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로 ‘跳下地’와 ‘跳下炕’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는 복합방향보어 구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겨 ‘V+下+O(장소목적어)+來/去’ 구문 검색을 통해 해당 예문을 추출하였다.

- (7) a. 一席話說得譚功達站起來又坐下去，坐下去又站起來，欲申斥，又無言。
(格非，江南三部曲)
- b. 他們坐了一天了，他坐了十多年，幾十年了。他們還要坐下去。(余華，《一九八六年》)
- (8) a. 他慢慢地走到樓梯口，踏着樓梯走下去。(巴金，《家》)
- b. 可是他們這輩子一定要做成這件事，一定要走下去。(張煒，《你在高原》)

(7),(8)은 각각 동사 ‘坐’와 ‘走’가 ‘下去’와 결합했지만, a는 기본의미로 b는 파생의미로 사용되었다. (7a)의 ‘坐下去’는 ‘站起來’와 반대 동작으로 아래로 ‘앉다’로 해석하고, (8a)의 ‘走下去’는 걷는 동작을 통해 내려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7b),(8b)에서 ‘坐下去’와 ‘走下去’는 지속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부사나 조동사와 공기하는 특성이 있다.

2.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통사적 용법

방향보어 ‘下來’는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이 완성됨을 나타내는데,⁵¹⁾ 이 경우 ‘下去’와 결합할 수 없고 ‘下去’와 결합한다면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다.

- (9) a. 她還常常無緣無故地發笑，隨後就突然停下來。(劉斯奮，《白門柳》)
- b. 全場的視線都立刻集中到像上，發出了雷動般鼓掌聲，畫像舉得更高，掌聲也就更加熱烈，好久好久才漸漸停下去。(馬峰，《呂梁英雄傳》)
- (10) a. 有兩個肩打魚叉的人走過，她對他們奇奇怪怪的裝束和獵魚的家巴什很好奇，又一次站下來。(張煒，《你在高原》)
- b. 要是這樣一直站下去，就糟了。(畢淑民，《紫花布幔》)
- c. 從唐代就站到今天而且還要永遠站下去的有名的“三塔寺”，被尊稱為“三文筆”。
(人民日報海外版 2001年10月30日)
- (11) a. *請你們把今天的作業記下去。(黃玉華:2007)
- b. 今天日記寫下了許多，象這樣記下去，到年底真會有頗厚的一本了，也是可喜的事。
(沈從文，《一個婦人的日記》)

(9),(10)의 ‘停’·‘站’은 동사 자체에 정지의 의미가 있는데, ‘下來’와 결합하여 동작이 완성됨을 나타낸다. ‘下去’와 결합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9b)의 ‘停下去’는 일정 과정 후 완성되는 비교적 짧은 지속이다. (10b),(10c)의 ‘站下去’는 종점을 알 수 없는 지속인데, ‘一直’·‘永遠’ 등의 지속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사용되었다. (10c)는 이러한 용법을 잘 드러내 주고 있어,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11)의 동사 ‘記’는 행위의 결과가 어느 곳에 보존됨을 나타내는데,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려면 (11a)의 ‘下去’는 ‘下來’로 써야 한다. (11b)의 ‘記下去’는 종점이 예상되는 지속의미로 쓰였

51) 劉月華(1998)는 ‘停下來’의 ‘下來’를 동태에서 정태로의 상태변화로 해석하고, 呂叔湘(1999)은 ‘停下來’의 ‘下來’를 동작의 완성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停·站’처럼 정지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下來’·‘下去’와 결합했을 경우 각각 다른 의미로 쓰임을 설명하기 위해 呂叔湘(1999)의 해석을 따랐다.

다.

일반적으로 ‘V下來’와 ‘V下去’ 구조가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쓰일 때, ‘V下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됨을, ‘V下去’는 동작이 미래까지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한다. 徐靜菡(1985:1)은 ‘下來’·‘下去’가 시간의 지속을 표시할 때, 진정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來’와 ‘去’이다. ‘下’는 다만 시간의 자연적 추이를 나타내고, ‘來’는 동작이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됨을 나타내고, ‘去’는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의미가 단순히 ‘V下來’·‘V下去’에 의해 표시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12) a. 我總算活下來活到了今天。

b.*我總算活下去活到了今天。

(13) a. 今後，我要堅強地活下去。

b.*今後，我要堅強地活下來。⁵²⁾

(14) 問題在你並非注定要死，現在應該做的不是去死，而是繼續活下去。(大仲馬，《蒙梭羅夫人》)

(12a),(13a)의 ‘活下來’·‘活下去’가 각각 ‘살아오다’와 ‘살아가다’로 쓰인 것은, ‘活下來’·‘活下去’와만 관계된 것이 아닌 시간명사 ‘今天’·‘今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³⁾ 검색 결과 (14)처럼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繼續’가 ‘活下來’(1개)에 비해 ‘活下去’(93개)와 결합하는 용례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V下去’에 지속의 의미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형용사와 방향보어가 결합하여 동사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문법책에 의하면 ‘下來’는 어떤 상태가 출현하여 지속됨을 나타내는데 상태의 출현을 강조하고, 소극적 의미의 형용사만 온다. ‘下去’는 어떤 상태가 출현하여 앞으로 계속됨을 나타내며 계속 발전됨을 강조한다. 형용사는 대부분 소극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다.⁵⁴⁾ 형용사와 ‘下來’·‘下去’가 결합할 때 용법에 차이를 보인다.

(15) 倒霉的是，我即使是光喝凉水，也依然日新月異地胖下去。(人民日報 2001年11月01日)

(16) a. 實際上，我看他的身體也一天一天的瘦下去了。(郁達夫，《微雪的早晨》)

b. 今年冬天我身體欠佳，食欲不振，啥也不想吃，還鬧失眠，一下子就瘦下去了。

(左琴科，《請保重》)

c. 她們光着腳，披散了頭髮，脫去了外套而緊窄的內衣使身體該瘦的地方瘦下去，該胖的地方都胖起來。(賈平凹，《獵人》)

(17) 可是，從此碧螺春姑娘却一天天瘦了下去，得了重病；沒過多久就離開了人間。⁵⁵⁾

(18) 他眼看着自己一天比一天瘦下來，他最擔憂的就是這一點。(張愛玲，《秧歌》)

(19) 這還遠遠不夠，最好能繼續瘦下去，一直瘦到躺倒在病床爬不起來，“病態之美”可就是美的極品了。(人民日報 2002年04月11日)

52) 예문(12), (13)은 徐靜菡(1985), p.1에서 나옴.

53) 高順全(2001), p.12에서는 ‘下來’·‘下去’가 시간 의미로 쓰일 때, 이러한 시간 의미는 ‘V下來’·‘V下去’ 자체로만 표시할 수 없고, 문장의 기타 요소 중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54) 呂叔湘(1999), p.570 참조.

55) 예문(17)은 馬慶株(1997), p.21에서 나옴.

형용사 ‘胖’은 적극적 의미의 형용사로 ‘下去’와만 결합할 수 있고, ‘瘦’는 소극적 의미의 형용사로 ‘下來’·‘下去’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16)은 동일한 ‘瘦+下去’ 구조인데, (16a)를 제외하고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16a)‘瘦下去’ 앞의 ‘一天天’과 (16b)의 ‘一下子’가 이 두 문장 의미 차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馬慶株(1997:21)는 (17)과 같은 문장에서 변화가 화자가 바라는 바를 나타내려면 ‘下來’를 써야 하는데, 다이어트 결과가 바라던 결과면 ‘瘦下來’를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18)처럼 ‘瘦下來’가 바라지 않는 변화로, (19)처럼 ‘瘦下去’가 바라는 변화로 쓰인 예문도 있는데, 이는 변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다음으로 목적어를 가지는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복합방향보어 구문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방향보어 ‘下來/下去’ 구문을 목적어 위치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 A. V1+O+V2+V3
- B. V1+V2+O+V3
- C. V1+V2+V3+O
- D. 把+O+V1+V2+V3

朱德熙(1982)는 복합방향보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문에 목적어가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목적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적어가 일반적 목적어인지 아니면 장소 목적어인지라고 하였다. 목적어가 장소인 경우에는 B식만이 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劉月華(1998:42)와 賈鈺(1998:43)는 복합방향보어 구문에서 목적어가 복합방향보어 중간에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위의 목적어 위치에 따른 복합방향보어 구문 유형에 기초하여, 현대중국어 코퍼스 검색을 통해 추출한 유형별 예문이다.

- (20) a. 每當學員結合我國的實際談想法感舉中國的例子時，老師馬上拿筆記下來。
(人民日報 2003年11月24日)

- b. 不要緊！在這裏不要動，等一會我來背你下去！（吳強，《紅日》）

- (21) a. 等了半天，劃船的來了，他問明了路徑，說定了遊湖的次序，便跟了那半老的船後，走下樓來。（郁達夫，《蜃樓》）

- b. 當他開車正要超過一輛帶拖車的拖拉機時，突然從拖車上跳下一個人來。

(人民日報 1979年04月07日)

- c. 姚佩佩胡亂地從書架上拿下書來隨意翻看。（格非，《江南三部曲》）

- d. 克明恭敬地跟在後面，把他一直送上轎子，還深深地彎下腰去。（巴金，《春》）

- (22) a. 很容易的，他掰開錢先生的嘴（因為已經沒有了門牙），灌下去一片藥。

(老舍，《四世同堂》)

- b. 但等兩人進樓道剛要上樓，從樓上走下來一個人。（劉震雲，《一地雞毛》）

- (23) a. 把藥灌下去以後，約有十分鐘，孩子忽然呱得哭出聲來了。（沈從文，《爹爹》）

- b. 是你們把我擡舉上臺的，怎麼事到關口上，又把我推下來呢？（人民日報 1949年07月26日）

(20)은 A유형으로 목적어가 복합방향보어 앞에 위치한 문형이다. (21)는 B유형으로 목적어가 복합방향보어의 중간에 위치한 문형으로, 목적어가 장소사인 경우에는 이 문형만 가능하다. (22)은 C유형으로 목적어가 복합방향보어의 뒤쪽에 위치한 문형이다. (23)는 D유형으로 목적어가 把자 뒤, 복합방향보어 앞에 있는 문형이다. (21a)는 장소가 목적어이고, (21b),(22b)는 행위자가 목적어이다. (21d)는 신체 부위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彎’이 ‘腰’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23b)는 인칭대명사 ‘我’가 목적어인데, 이 문장에서 ‘推下來’는 높은 직위에서 비교적 낮은 직위로 강등됨을 나타내는 비유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은 ‘V下來/去’ 구문에 나타나는 목적어를 유형별로 살펴본 것으로, 기본의미에 한정하여 추출한 결과이다. 향후 연구 과정에서는 검색조건을 다양하게 하고 파생의미까지 검색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형별 빈도분석을 하고, 각 구조별로 결합하는 동사와 목적어 및 구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A Corpus-based Study on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下來)/Xiaqu(下去)' in Modern Chinese

Lee Kapnam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VAXialai/Xiaqu" sentences with relative meaning in the complement sentences of modern Chinese are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because these sentences are used frequently in a symmetrical pair in meaning, the meaning and usage are complex, and the learners' use error rate is high, so different types of research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usage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Xiaqu" combined with verbs or adjectives, and analyz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Xiaqu" sentence, let's understand the explanation of "Xialai/Xiaqu" in the existing research. The meaning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will be combined with the search results of modern Chinese corpus to re classify according to meaning.

In order to obtain objectivity and reflect the language use of Chinese people, this study adopts the analysis method of modern Chinese corpus. Among the Chinese corpus that can be used online at present, it can be said to be the largest corpus in China. The main search objects are BCC corpus with search convenience and various convenience functions. The meaning of directional complement is divided into basic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and the basic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of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Xiaqu" are analyzed,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compound directional complement sentences, the extended meaning i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of the diversity of meaning and grammatical complexity. In some cases, the structure is the same, and different explanation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different articles. The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 refers to combining with some verbs to complete the action. In this case, it cannot be combined with "Xiaqu". If combined with "Xiaqu", the action will last until the future. In compound directional complement sentences, the position of the object is very diverse. The sentence of directional complement "Xialai/Xiaqu" can be summarized into four kind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object.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basic meaning, and makes a classified analysis of the objects in the "VXialai/Xiaqu" sentence. In the future research process, the search conditions will be diversified and the search scope will be expanded to extend the meaning.

Keyword: Directional Complement, "VAXialai/Xiaqu" sentences, BCC corpus, Meaning, Usage

同义复合词研究对《汉语大字典》释义校补

张 程

(成都大学文学与新闻传播学院)

摘要：同义复合词是古汉语里一种重要的语言现象。现阶段有多种命名，如同义连文、复语单义、同义复合词，这其实是语言发展多层次的客观反映。根据同义复合词考察《汉语大字典》对字的释义存在释义错误、义项疏失、缺乏书证、书证放错义项、过度解释等五方面的问题。

关键词：同义复合词、汉语大字典、汉语大词典

一、何为同义复词

同义复词是两个或两个以上意义相同、相近或相关的词连在一起共同表达一个更为清晰的义项的现象。如《尚书·多方》“克堪用德，惟典神天”中的“克堪”，《诗经·齐风·东方未明》“东方未明，颠倒衣裳”中的“颠倒”。此种现象在《左传》中数量就多达475个^[56]。

晋代杜预在注释《左传·成公十三年》“虔刘我边陲”时，指出“虔、刘，皆杀也。”唐孔颖达在《正义》中提出：“刘，杀。《释诂》文；《方言》云：虔，杀也。重言杀者，亦圆文耳。”首次指出此现象为“重言”，归其成因为“圆文”。自清以降，诸多训诂学家都对这一现象提出了自己的看法，但在其是词还是词组的归属上意见并不统一，因此命名也就有“重言”、“复字”、“复语”、“连文”、“复用”等多种称呼。今人仍然有多种称呼，如：“同义词连用”、“复语单义”、“同义连文”、“同义字复用”、“同义并行复合词”、“同义字连用”、“同义复词”、“同义复合词”^[57]。

二、《汉语大字典》释义和例证指瑕

《汉语大字典》作为一部大型的、历史性的汉语语文字典，《汉语大词典》在编纂之初，编委会即一致确定了“古今兼收，源流并重”的编辑方针。因此其释义必须尽量包含所有语言现象，这随着计算机语料库的不断发展将会边得更加完善。本文通过我们对《汉语大词典》同义复合词研究成果的搜集，整理出《汉语大字典》释义的不足之处，以期能为其重新修订时提供一些参考（鉴于篇幅有限，本文所引《汉语大字典》（第二版）中的例句只用和本文有关的部分，且全部用简体字）。

56)^[1]

黄志强：《关于〈左传〉复合词的几个问题》中的统计。《研究生论文选集·语言文字分册（一）》江苏古籍出版社，1985年。

57)^[1] 朱诚：〈同义连用浅论〉，《古汉语研究》1990年第4期。

（一）释义错误

基：谋划；经营。《尔雅·释詁上》：“基，谋也。”《尔雅·释言》：“基，经也；基，设也。”王引之述闻：“《康诰》曰：周公初基作新大邑于东国洛。郑注以‘基’为‘谋’。”

该例句的上下文为：“惟三月哉生魄，周公初基作新大邑于东国洛，四方民大和会。”按此释义，则全句该翻译为：三月十六日的那一天，周公开始谋划在东国洛地建立新的大都邑，四方百姓纷纷赶来响应会集。我们知道，在西周四期，“民”的地位非常低下，决定建立都邑之事，绝用不着百姓集会，何况非一民也，而是四方之民，所以此解释有误。

在《汉语大词典》中收录词条“初基”，郭春环详尽地论证了此处的“基”应解释为“始”义，和“初”构成一个同义复合词^[58]。那么该句可译为：三月十六日的那一天，周公开始在东国洛地建立新的大都邑，四方百姓纷纷赶来集会商议。

（二）义项疏失

假：（五）xiǎ《集韵》何加切，平麻匣。魚部。通“遐”。远。《吕氏春秋·下贤》：“假乎其轻俗诽谤也。”《礼记·曲礼下》：“告丧，曰天王登假。”《法言·寡见》：“吾寡见人之好假者也，通文之视，通言之听，假则偈焉。”李轨注：叹人皆好视听诸子近言近说，至於圣人远言远义则偈然而不视听。”

首先是注音，《汉语大字典》（第一版）注“假”的音为“xiá”，《汉语大词典》也注为“xiá”，根据广韵的注音“平声麻韵”，应当是“xiǎ”，因此第二版的拼音注释有误。其次，上面的书证2“登假”在《现代汉语大词典》翻译为“犹言仙去”，即去世、升天的意思。再如“假”字。《汉语大字典》作如下注释：

假：xiǎ《集韵》何加切，平麻匣。同“遐”。远。《集韵·麻韵》：遐，或从彳。”《汉书·礼乐志》：“沈沈四塞，假狄合处。”颜师古注：“假狄，远夷也。假即遐字耳。”《西嶽華山廟碑》：孝武皇帝修封禪之礼，思登假之道。”

根据句意“假”和“假”注释为“远”义，显得过于牵强。《尔雅》：登、假：升也。因为古代汉语可以同义词连用组合为合成词，所以可以在“远”义项下引申出“升”义，注释出“登假”为同义复合词，这样对读者阅读则更加清晰。

戴：在《现代汉语大词典》义项释④曰：“引申指感恩。《三国志·吴志·朱桓传》：‘桓分部良吏，隐亲医药，殮粥相继，士民感戴之。’宋王安石《上徐兵部书》：‘戴执事之赐，此时为重。’且也收录了同义复合词“感戴”，但注释为“感激爱戴”，所引书证和前面“感恩”义项一样，这自相矛盾。是因为编辑者忽略了“戴”可以表感激义，而误释为“爱戴”。“感戴”一词表感激义在其他文献中也多有出现。如，敦煌写卷伯3451号《张淮深变文》：“感戴鸿恩终不忘，永清河陇献天颜。”《金史·太宗诸子列传》：“今忘此施，欲绝我宗祀，于义何如也，倘蒙惠顾，则感戴恩德，何有穷已。”

综上，在《汉语大字典》的义项③尊奉、推崇处应当增加“感恩、感激”义，并引合适的书证。

（三）缺乏书证

忙：《汉语大词典》将“惊忙”释为“犹言惊慌急忙”。此释有误。

58)¹ 郭春环：《〈尔雅〉与同义复合词研究》，古汉语研究，2000年第4期。

首先，从其引用的文献来看，“忙”译为急忙，显得文意不通。如：宋范成大《夏日田园杂兴》诗之十：家人暗识船行处，时有惊忙小鸭飞。唐白居易《论重考试进士事宜状》：“昨重试之日，书策不容一字，木烛只许两条，迫促惊忙，幸皆成就。”第一例“小鸭”碰到人显然会吃惊害怕，不会急忙。第二例“迫促”和“惊忙”形成对文，表达急促惊慌的意思，不可能表“急促惊慌急忙”，这样则显得重复臃肿。

其次，“忙”表“惊慌”义，《汉语大字典》⑤同“忙”，忧。《玉篇·心部》：“忙，忧。忙，同忙。”字条“忙”有书证，“忙”无书证。《广韵·唐韵》：“忙，怖也。”《乐府诗集·横吹曲辞五·木兰诗》：“出门看火伴，火伴皆惊忙。”《古文苑》作惊惶，也可证惊忙有惊惶义。“忙”作惊惶义还可与“怕”、“惧”构成同义复词。敦煌写本斯6836号《叶净能诗》：“（净能）见五百人拔剑上殿，都不忙惧。”伯2794号《伍子胥变文》：“鱼鳖忙怕攒泥，鱼龙奔波透出。”江蓝生、曹广顺主编的《唐五代语言辞典》和蒋礼鸿主编的《敦煌文献语言词典》将“惊忙”解释为“害怕、惊惶”。

综上，“忙”可引用《木兰诗》、《伍子胥变文》中的一些书证。

谈：《汉语大字典》列出了义项“戏谑、嘲弄”，《玉篇·言部》：“谈，戏调也。无例句。可以引入书证：“忧心如惔，不敢戏谈。”

“谈”表戏谑义，和“戏”同义连文合用为“戏谈”。如：《诗·小雅·节南山》：“忧心如惔，不敢戏谈。”王引之《毛诗述闻》：谈，亦戏也。《孟子·告子篇》：“越人开弓而射之，则已谈笑而道之。谈笑者，调笑也。调笑一声之转耳。戏而嘲之谓之调。亦谓之谈，故以戏谈连文，戏谈，犹戏谑也。嘲谑所以为乐，祸将及己。忧心如焚，则不敢为乐矣。^[59]”

王引之认为“谈”和“调”一声之转，“戏”谓之“调”，亦谓之“谈”。故以“戏谈”连文。《汉语大词典》收录了词条“戏谈”和“谈调”，都属于同义复合词。

（四）书证错放义项

《汉语大字典》出现了一些所引书证不能解释相应义项的例子，此种情况要么和已有的义项合并，要么应该独立增加一些义项。

佩：《汉语大词典》收录了佩的义项：铭记，铭感。并引以下书证。

佩：④铭记，铭感。《素问·气调神大论》：“圣人之行，愚者佩之。”三国魏曹植《谢妻改封表》：“銜佩弘惠，没而後已。”南朝刘勰《文心雕龙·铭箴》：“铭实宝器，箴惟德轨。有佩于言，无鉴于水。”明张居正《谢赐勒谕并银记疏》：“天雨春恩，时佩推心之爱。”（《汉语大词典》第1卷1341）

上述文献中的“佩”用“铭记、铭感”去注释是合理的，是正确的，且“銜佩”在《汉语大词典》释为“牢记、铭感”。在《汉语大字典》中，无“铭记”义项，将《素问·气调神大论》《谢妻改封表》两句归入到了“钦佩、敬仰”的义项里。此乃有误。“佩”还和表铭记义的“铭、刻”组成同义复合词“铭佩、佩铭、铭刻”都表铭记义。

综上：“铭”应当增加义项“牢记在心”，并把错误的书证抽取出来。

扞：《汉语大字典》释“扞”为：发声。《字汇·手部》扞，聲也。”《法言·先知》：“边豆不陈，玉帛不分，琴瑟不铿，鐘鼓不扞，則吾无以見圣人矣。”《子华子·虎会问》：“鐘鼓祝圉，日以扞考，而和声不闻。”

汪荣宝：不扞，于粉切。天復本作“聒”，音云，耳中声也。《广韵》：‘聒，耳中声。’即《音义》所本，《集注》从之。然鐘鼓不扞，义疏未协。……按《子华子·虎会》云：“鐘鼓祝圉，日以扞考，而和声不闻。”扞考连文，义当相近，正合《法言》此文语意。因此“扞”应当有

59) 王引之，《经义述闻·中》，江苏古籍出版社，2000年，P147。

“敲击”之义。《汉语大词典》收录词条“扞考”释义：敲击。且引书证《子华子·虎会问》：“鐘鼓祝圉，日以扞考，而和声不闻。”这更说明“扞”和“考”是同义复合词。

综上，《汉语大字典》应当为“扞”增加“敲击”义项。

（五）增字为训

委：《汉语大字典》将“委”解释为“确知”，即为“确实知道”。此为增字为训，不应有“确”字。首先，“委”有知道义，《汉语大字典》的例句皆可作为旁证，再如：敦煌写本伯5039号《孟姜女变文》：“（劳）贵珍重送寒衣。未委将何可报得？”斯133号《秋胡变文》：“暂请娘子片时在于怀抱，未委娘子赐许以不？”^[60]《汉语大词典》收录了同义复合词“知委”，并解释为“犹知道”。这更可证明“委”解释为“知道”即可。

参考文献：

[1]郭在贻，训诂丛稿[M]，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

[2]周掌胜，同义复词研究与辞书编纂[M]，浙江：浙江大学出版社，2015.

[3]许慎，说文解字[M]，北京：中华书局，1980.

[4]杨家骆，中国学术类编·说文解字诂林[M]，台北：鼎文书局，民国七十二年。

<Abstract>

Synonymous compound words are an important linguistic phenomenon in ancient Chinese. At present, there are many kinds of names, such as synthetics, synthetics and synthetics, which are the objective reflection of the multi-level development of language. The study of The Chinese Dictionary shows that there are five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Chinese characters, such as wrong definition, careless meaning, lack of documentary evidence, wrong meaning in documentary evidence, and excessive interpretation.

60)¹ 蒋礼鸿先生《敦煌变文字义通释》，上海古籍出版社1981年版，第223页。

ТРАНСПОЗИЦИЯ ҲОДИСАНИНГ ВОҚЕЛАНИШИ

Назарова Шахло
Самарқанд давлат чет тиллар институти
Узоқ Шарқ тиллари кафедраси катта-ўқитувчиси

Аннотация. Мақоладан транспозиция ҳодисасининг рўй бериш кўлами, унинг турлари ва улардаги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 ҳақидаги фикрлар ўрин олган. Муаллиф иборалар таҳлили мисолида транспозиция ҳодисасининг турлари ва ҳосил бўлиш жараёнини тавсифлаган.

Калит сўзлар. транспозиция, синтактик транспозиция, транспозитив деривация.

Умумий тилшуносликка доир манбада транспозиция ҳодисаси учун умумий бўлган хусусият, яъни функционал кўчиш икки асос билан боғлиқ ҳолда юза бериши қайд этилади: 1) тўлиқсиз ёки синтактик транспозиция, 2) тўлиқ ёки морфологик транспозиция. Биринчи ҳолатда, асос структуранинг туркуми ўзгармайди ва нутқ талаби асосида синтактик функциянинг ўзгариши кузатилади. Иккинчи ҳолатда, транспозитор ва транспозит ўртасидаги муносабат орқали янги сўз туркуми ҳосил қилиниши орқали функционал ўзгариш содир бўлади (ЛЭС. 1990:519.)

Ана шу икки жиҳатга кўра, транспозиция синтактик деривация термини билан, шунингдек, конверсия ҳодисаси билан ҳам синоним ҳисобланади. Бирок, транспозиция термини замирида деривацияга олиб келувчи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 яъни кўчиш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Е.С. Кубрякова транспозицияни деривация ҳодисасининг воқеланиш усулларида бири сифатида баҳолайди. Сўз ясалиш орқали кузатиладиган транспозицияни эса конверсия деб юритишни тавсия қилади (Е.С. Кубрякова. 1974:64.)

Ушбу олиманинг бошқа бир ишида қайд этилишича, транспозиция таъсирида асос структуранинг функционал ўзгариш ёки ўзгармаслиги билан боғлиқ параметрлар бу ҳодисаларнинг туб моҳиятига кириб бориш учун етарли шароит ярата олмай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транспозиция жараёни ва деривация ўртасидаги муносабат масаласига бошқачароқ ёндашмоқ лозим. Хусусан, транспозиция соф ҳолатда (чистая транспозиция), яъни асос структурага хос синтактик функцияни ўзгартириш асосида ва мураккаблашган ҳолатда (осложненная транспозиция), яъни маънони янгиллаган ҳолда воқеланишини эътиборга олиш керак (Е.С. Кубрякова. 1980:120-121).

Дарҳақиқат, транспозициянинг бугунги талқинлари уни биргина лексик *деривация* жараёнида содир бўладиган категориал ўзгаришлар доираси билан чегаралашга имкон бермайди. Зотан, мазкур жараённинг воқеланиши барча деривацион ҳодиса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 ҳолда кузатилади. Шунга кўра, транспозицияни деривациянинг хусусий кўринишларидан бири сифатида эътироф этиш мумкин. Ана шу хусусиятлар транспозицияни сўз ясалишига олиб келувчи ҳодисалар билан, шунингдек, нутқий дериватларнинг воқеланиши билан боғлиқ ҳолда ўрганиш имконини яратади.

Г.Г.Соколованинг кузатишида ҳам транспозиция фразеологизмларнинг ҳосил бўлишига олиб келувчи кўп босқичли ҳодиса сифатида талқин этилади. Унинг фикрига кура, бирламчи транспозиция эркин бирикмаларни образли ва барқарор ифода сифатида ташкил топишини таъминласа, иккиламчи транспозицияда эса ушбу образли ифодалар фразеологик бирликлар сифатида шаклланади. Бу жараёнлар бирикманинг метафорик ва метонимик маъноси асосида амалга ошади (Г.Г Соколова. 1987:8-10; 58-64).

Умумий тилшуносликка доир манбада конверсия тарнспозициянинг ички кўринишларидан бири аффикслар иштирокисиз сўз ясалишига олиб келувчи ҳодиса сифатида қайд этилади (ЛЭС.1990:235). Ўзбек тилшунослигида бу ҳодисага биринчилардан бўлиб эътибор қаратган олим А.Ғуломовдир. Унинг фикрига кўра, конверсия: “Бир лексик-грамматик категориядаги сўзнинг бошқа категорияга ўтиши сўз яшашнинг, янги сўз ҳосил қилишнинг бир кўринишидир. Бу морфологик-синтактик йўл билан сўз яшашдир. Бунда сўзнинг туркуми ўзгаради, бу ўзгариш, одатда, контекстда-синтактик ҳолатнинг, гап ва сўз бирикмаларининг кучи билан юзага келади”, -деб эътироф этилади (А. Ғуломов 1973:46-47).

Келтирилган бу фикрлар транспозиция ҳодисасининг таъсир кўлами анча кенг эканлигидан далолат беради. Бу ҳодисанинг лисоний деривацияга муносабати, биринчидан, сўз ясалиш жараёнида асоснинг категориал кўчиши, иккинчидан, гап, сўз бирикмаси, сўз шакллариининг функционал-семантик жиҳатдан ўзгариши натижасида фразеологик, грамматик-семантик бирликлар ҳосил қилиши орқал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Тўғри, транспозицион ҳодисалар, айниқса, ўзбек ва корейс тилларида сўз яашга нисбатан каммаҳсул, бироқ уларни ўрганмай туриб, инсон, борлиқ ва тил муносабатидаги ўта мураккаб, айтиш пайтда нозик қирраларни англаб бўлмайди. Зеро, инсон лисоний ва когнитив фаолиятининг беқиёс имкониятга эгалигини белгиловчи тил ижодкорлиги ҳам ана шу андозалар асосида намоён бўлади.

Е.С Кубрякова томонидан эътироф этилганидек: Ҳар бир сўз ўзининг референциал майдонига эга бўлади. Ана шундай сўзлар воситасида вужудга келган дериватлар, айтиш мумкинки, асос сўзнинг нисбий ўзлашишини, яъни транспозициясини тақозо этади. Ана шу асосда, транспозиция орқали икки ментал майдон, яъни 1) донорлик, 2) мақсад (целевой) майдонлари ўзаро кесишади. Масалан, инглиз тилидаги salt ва to salt сўзларидан биринчиси, яъни salt

предметлик майдониға мансуб бўлиб, унинг to salt шаклидаги транспозицияси натижасида асос сўз предметлик майдонидан ҳаракат майдониға кўчади. Бу жараённинг воқеланишида эса, инсоннинг ушбу нарсадан фойдаланиш тажрибаси, яъни тузнинг тузлаш учун ишлатилишига доир билими муҳим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ади. Ана шу асосда ҳосил бўлган дериватлар замирида икки категорияға мансуб тажрибалар уйғунлашади ва бунинг натижасида гибрид структуралар вужудға келади (Е.С. Кубрякова. 2005:344).

Шундай қилиб, транспозитив деривация бошқа турлардан фарқли равишда, десемантизация, лексиколитация каби ҳодисалар ҳамкорлигида амалға ошади. Бу ҳамкорлик натижасида нутқ бирликлари ўзи мансуб бўлган асосдан узилади ва бошқа бир ассоциатив гуруҳ аъзосига айланади.

Қўшма сўзларда бўлгани каби лексик-фразеологик дериватларнинг вужудға келишида ҳам икки вазиятнинг ўзаро узвийлиги кузатилади. Хусусан, улардан биринчиси эркин бирикма орқал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ган семантик вазият бўлса, иккинчиси ана шу вазиятға прототип, яъни ўхшаш бўлган вазиятдир. Ана шу хусусиятиға кўра бу турдаги семантик дериватлар замирида Е.С.Кубрякова томонидан эътироф этилган референциал майдонлар, яъни 1) донорлик, 2) мақсад (целевой) майдонларнинг кесишув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Масалан, *катта оғиз // оғзи катта* бирикмасида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ган бевосита маъно орқали «оғизнинг одатдаги ўлчамдан катта»лик белгиси ифодаланади. Ушбу бирикмадаги моҳиятнинг “ҳаддан ортиқ мақтанишни хуш кўрадиган” кишиларға хос белги билан метафорик қиёси натижасида фразеологик маъно вужудға келади.

Бу семантик деривация жараённинг воқеланишида иштирок этган вазиятлар ўртасида прототипликнинг вужудға келишида “*оғизнинг одатдаги ўлчамдан катта*”лиги ҳамда “*ҳаддан ортиқ мақтанишни хуш кўриши*”, яъни “*катта гапли*”лик белгиларига хос ўхшашлик асос бўлади. Ана шу вазиятларнинг деривацион оператор, яъни метафорик тасаввур асосида синтезланиши натижасида фразеологик маъно ҳосил бўлади. Шу асосда сўз бирикмаси базасида ўзаро шаклдош бўлган нутқий эркин ва фразеологик боғлиқ маънолар юзаға келади.

Катта оғиз // оғзи катта ибораси аслида сифат туркумиға мансуб бўлиб, унинг воситасида «*ҳаддан ортиқ мақтанишни хуш кўрадиган*», «*катта гапли*» каби белг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Шуниси характерлики, ушбу иборанинг отлашиши, Г.Г.Соколованинг таъбири билан айтганда, «*конверсив транспозиция*» таъсирида амалға ошади (Г.Г. Соколова. 1987:126) ва бунинг натижасида “имтиёзли мавқега эга” бўлган шахсларнинг кинояли ифодаси юзаға келади: *У киши илғари “Мен Қамишқапаннинг устуниман”,- деб чиранган оғзи катталардан* (П.Турсун, Ўкитувчи., Раҳматуллаев Ш. 1978:292).

Н.Ф. Алефиренконинг фикриға кўра, (знаков косвенно-производной номинации) билвосита номлашнинг мураккаб типларини вужудға келтирувчи асос

сифатида УПК, яъни универсал предмет коди ва бевосита номлаш бирликлари иштирок этади. Тил жамоасининг тасдиғидан ўтган ва турли вазият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 бўлган стереотип структуралар эса бу жараён учун ўзига хос қиёсий майдон вазифасини ўтайди. Бу лингвистик жараёни ҳаракатга келтирувчи субъект эса ифода имкониятларининг ҳақиқий соҳиби бўлган шахслар ҳисобланади (Н.Ф Алифиренко. 2002:72-79).

Дарҳақиқат, тилнинг алоҳида луғавий бирлиги бўлган фразеологизмларнинг вужудга келиши, лексик ва бошқа турдаги дериватларга нисбатан анчагина мураккаб қонуният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дир. Шу боис бундай лингвистик имкониятларни ишга солиш ҳамманинг ҳам қўлидан келвермайди. Бинобарин, фразеологизм ва умуман тилнинг барқарор бирликлари замирида яширинган моҳият ташкил этувчиларнинг бевосита йиғиндисидан эмас, балки “яхлитлигича маълум бир образ асосида, кўчириш йўли билан” вужудга кела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фразеологик иборалар уларни ташкил этувчи “лексемалар маъносига нисбатан маҳраж маъно, яъни устама маъно сифатида гавдаланади” ва шу асосда “ибораларнинг ифода ва мазмун плани ўртасида узилиш содир бўлади” (Раҳматуллаев Ш. 1978:4).

Бунинг ўзига хос далилини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иборасининг таҳлили мисолида кузатамиз. Ушбу иборанинг дастлабки асоси аниқловчи вазифасидаги эргаш бирикма бўлиб, унинг бош сўз билан бириккан шакли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гўдак ёки боладир*. Бу мураккаб бирикмадаги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эргаш компонент, *бола ёки гўдак* эса ҳоким компонентдир.

Ушбу мураккаб бирикманинг бирламчи транспозицияси натижасида эргаш компонент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отлашган ҳолда яхлитланади ва бош сўз вазифасини ҳам ўз зиммасига олади. Ана шу асосда эргаш бирикма ўзининг дастлабки образли ифодасига эга бўлади. Бироқ эргаш бирикманинг отлашиши фразеологик бирликнинг тўла шаклланганлигидан далолат бермайди. Чунки, унинг фразеологик ибора мақомига эга бўлиши учун устама маъно вужудга келиши лозим.

Транспозициянинг иккинчи босқичда айнан ана шу устама маъно, яъни фразеологик маъно ҳосил бўлади. Бунда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бирикмаси замирида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ган “ҳали ўз ҳаракатини онги равишда идора эта олмаслик” белгисининг катталар хатти-ҳаракатида кузатиладиган укувсизлик, тажрибасизлик, гўрлик белгилари билан қиёсланиши ва метафорик асосда кўчирилиши орқали устама маъно ҳосил бўлади. Ана шу асосда, *она сути оғзидан кетмаган* бирикмаси ёши жиҳатдан катта бўлган шахсларнинг хатти-ҳаракатида кузатиладиган тажрибасизлик, гўрликнинг образли ифодаловчисига айланади. Бунинг натижада, иборанинг ташқи ва ички структуралари ўртасида ўзига хос номутаносиблик ҳам вужудга келади. Бундай

номутаносибликни транспозитив дериватларнинг деярли барча турида кузатиш мумкин.

Демак, ушбу семантик дериватларнинг вужудга келиши орқали қуйидаги ментал операция кузатилади: эркин бирикма орқал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ган вазият бирламчи бўлиб, ана шу вазиятга ўхшаш (прототип) вазият эса иккиламчи вазиятдир. Бу икки вазиятни чоғиштириш асосида ҳосилани вужудга келтирувчи оператор эса қиёсий тасаввурдир. Чунки, айнан ана шу оператор воситасида бирламчи ва иккиламчи вазиятларнинг қиёси орқали фразеологик бирлик вужудга келади.

Келтирилган бу фактлар орқали Н.Ф. Алефиренко томонидан билвосита (знаков косвенно-производной номинации) номлаш бирликларини вужудга келтирувчи асос сифатида қайд этилган УПК, яъни муайян бир вазият асосида юзага келган ички мушоҳаданинг универсал предмет коди ва номлаш воситалари ўртасидаги муносабатнинг ўзига хос тасдигини қўришимиз мумкин. Бинобарин, УПК моҳиятан умуминсоний характердаги когнитив маҳсул бўлиб, инсон ана шу гидрокий қобилят туфайли: «тушунча, ҳукми яратади, воқеликни тасвирлаш ва инсон фаолиятининг сабабини кўрсатиш учун зарур бўлган турли хулоса ва мулоҳазаларга келади» (Ш. Сафаров 2006:16). Демак, УПК қиёсий тасаввурнинг ҳаракатга келишида муҳим бўлган прототип вазиятларни аниқлаш ва қиёсий мушоҳадани ташкил этиш асосда янги-янги ментал структураларни вужудга келишига олиб келади. Бу ботиний структураларнинг лингвистик ифода топишида эса предикат ва аргументлар муносабати муҳим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ади.

АДАБИЁТЛАР

1. Кубрякова С.Е. Деривация, транспозиция, конверсия. В.Я.1974.№5.
2. Кубрякова С.Е. Характер семантических сдвигов при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й // Аспекты семан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М.,1980.
3.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М. 1990.
4. Ғуломов А. Сўз ясалиши // Ўзбек тили грамматикаси. -Т., 1973.
5. Кубрякова СЕ. Язык и сознание. - М., 2005.
6. Соколова Г.Г. Фразеобразование во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е. - М., 1987.
7. Раҳматуллаев Ш. Ўзбек тилининг изоҳли фразеологик луғати. -Т.,1978.
8. Алифиренко Н.Ф. Протовербальное порожд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концептов и их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ая репрезентация, //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2002.№5.
9. Сафаров Ш. Когнитив тилшунослик. -Жиззах, 2006.

품사 전형성에 대하여

나자로바 샤홀로(Назарова Шахло)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 대학교

본고는 품사 전형성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고찰로 현상의 유형과 형성 과정에서 관용어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키워드. 자리이동, 통사적 전성, 파생법.

Phenomena of Konglish and its peculiarities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aymatova M.A., Uzbekistan, Samarkand
(Senior teacher of Korean, Samarkand
State Institute of FL)

Annotation: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o-called borrowed words in Korean from the English language, their adaptation to both phonetic and morphological. The origin of these words in Korean is analyzed.

세계화의 영향 중 하나는 전 세계의 영어 단어의 사용입니다. 한국어에서 영어 어휘는 한편으로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또는 일본어를 통해 파생된 실제 영어 단어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비 영어 단어로 구성되는 단어로 미국 영어나 영국 영어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대해 말하면 한국어는 서양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많은 영어 (주로 미국 영어)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한글 이중 언어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어 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기사는 널리 알려진 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만 고유하고 한국어 사용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고 한국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단어 또는 의미를 차별화하고 때로는 변환한 단어를 분석합니다.

Keywords: *adaptation, loanwords, transliteration, hybrid terms, truncated terminology, substitution, pseudo-loanwords.*

Every nation has its own history, culture which has been formed for ages and the main uniqueness of the nation is in its language. Language reflects all changes that the nation undergoes during its evolution. As a result of interaction and intercommunication of countries and nations loan-words appear in the vocabulary. Words are generally 'loaned' when two different cultures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This might happen because of immigration, trade, fashions or foods, travelers tales, the arts (paintings, books, poetry or film), technologies, wars or colonization. New objects or attitudes need new words, and often the loaners adopt the original word as their own. The borrowing of words from donor languages is not unique to only the Korean language. All languages, unless isolated from any outside contact, borrow and lend, at least, words from and to other languages.

One of the influences of globalization is the usage of English (American) words all over the world. English vocabulary in the Korean language comprises a word-stock that consists, on the one hand, of real English words derived either from the US and British English or via Japanese and, on the other hand, of the so-called pseudo-English words that have no equivalents in US or British English. Together with culture, more and more new

phenomena, concepts that were not known until now burst into our everyday life. We need to nominate these concepts, and we borrow the defini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or rather its American version. We change our style, monitor our face, chat, send an e-mail, flood and post offtopic messages in our virtual forums, fill our heads with content in the university, enter into discussions, install and crack various firewood and Windows programs in the computer, we ask the DJ to put a new hit at a disco in a nightclub, among us appeared laurels, users, hackers, doomers ... So whil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meet one interesting phenomenon called Konglish. The result of it that many learners become confident about their communication in Korea. The phenomena of Konglish is difficult to not only understand but also to explain and teach. Speaking about the first group, the Korean language imports many English (mostly US English) words that reflect various aspects of Western culture. However, this active use of English by Koreans does not imply mass Korean-English bilingualism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English proficiency. This article analyzes not only widely known adapted words but also those which are peculiar only for the Korean language and not understood outside the borders of Korean speakers. The words having meaning only for Koreans or those which differentiated and sometimes even converted their meaning.

English, by nature, is a language of confusion; it has absorbed borrowings from thousands of languages of the globe. Starting with Native American chocolate and ending with Japanese sushi. But what happens with English if IT borrows a different language and tries to adapt for itself, regardless of either grammar or even phonetics? And as a result: you can often see incidents of using English.

Korean is one of the thousands of languages in the world. By the number of speakers, Korean takes 12 ~ 13 places in the world. Now it is spoken by about 90-100 million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Korean communities of modern China, Japan, America, and the CIS (mainly Kazakhstan, Uzbekistan and Russia).

When Korean words are quoted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they are transcribed in various ways, as can be seen from the spelling for the popular Korean surname: I, Yi, Li, Li, Ri, Ri, Ri, Ri, Ni, and so on. For native English speakers, the most popular transcription is the McCune-Reischauer system, which spells words more or less the way they sound for the American ear. Despite its clumsiness, McCune-Reischauer is the system used in this description, and after this system, the common last name is spelled Yi; it sounds like the English name for the letter E. When quoting sentences, many linguists prefer Yale Latinization, which more accurately reflects Korean spelling and avoids the need for diacritics to indicate vowels.

Language, as an important soci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cannot lag behind society, rather, on the contrary, sometimes it is even ahead of some social layers in its development. Just as a country cannot live in isolation, so a language cannot live in isolation from its speakers. The vocabulary of the language is constantly replenished, and if this

replenishment does not occur in the internal ways, then it occurs in the external ways, i.e. through borrowing foreign vocabulary. The huge vocabulary in Korean is Sino-Korean vocabulary, which enriched the Korean language until the twentieth century. But recently, enrichment of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going through the languages of Europe and America. Although borrowing, along with enrichment, also pollutes the Korean language.

Nowadays, not only in commerce and culture but also in politics and the military, Western words are used. It is difficult for media speeches to be examples of public speaking because they are swept up by the government's stiff policies and sloppy details of corporations.

Dozens of new terms are spilled out every day through newspapers, broadcasts and the Internet. It is impossible to deliberate and change all the foreign languages into Korean.

Ex. 그 슈퍼마켓 (supermarket) 에서 모던 (modern) 한 뷰티 살롱 (beauty salon) 은 오픈 (open) 되었습니다. All borrowings, in our opinion, in this proposal, except for 슈퍼마켓, are used unjustifiably.

Three large lexical layers are distinguished in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native Korean vocabulary, Sino-Korean lexical layer and borrowings from various, mainly European, languages.

In the dictionary meaning, a 외래어 is a word that is borrowed from a foreign country and used like the Korean language, a word borrowed from a language other than nativ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Brittanica World Encyclopedia), or a word from a foreign language is written into the Korean language. Word, that is, the nationalized foreign language (Dong-A Chinese Dictionary). Foreign language is a vocabulary that arises from frequent exchanges with other linguistic systems following contact with foreign cultures.

The number of words borrowed from the English language and widely used in the modern Seoul standard is very large. They are in the vocabulary of any sphere of life: politics, economics, culture, science, culture, art and everyday life. Especially a lot of borrowings in terminology. To understand how many there are, it's enough to remember what words we use when talking about a computer and everything else that is connected with it: a monitor, laptop, scanner, printer, toner, processor, Internet, email, etc.

And as a separate subgroup in the layer of the borrowed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Konglish acts as a gradually developing new layer in the lexical composition of the Korean language.

So what is Konglish?

In Korea, a cocktail of English (and not only) and Korean words and word forms, implanted in the social and linguistic systems, is known by the name (term) of KONGLISH. The Konglish deeper and deeper takes root in the Korean language and is widely used in modern society. Konglish is a typical result of a mutation that can occur with any language

in the country where it is second or foreign after the mother tongue.

The concept of Konglish refers to two phenomena:

- 1) Korean-English lingua franca rich in grammatical and other errors;
- 2) English borrowings in the Korean language, naturalized by the grammar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history of the appearance of Konglish in the Korean language originates in the periods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Civil War of the North and South (1950-1953). But it seems to us that the history of Konglish has deeper roots and begins with the era of the Japanese colonial yoke in Korea, when American culture began to come to Korea, being refracted by Japanese "lenses." Of course, the influence of America was veiled, and probably that is why it was the post-war period that was fixed in consciousness as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the Konglish.

A large number of English and not only borrowings in the 20th century came to the Korean language through Japanese. Many note the fact that many words from Konglish are also found in Japanese. Therefore, in the beginning, they had a sound close to the Japanese phonetic system, and only then eventually began to be pronounced closer to the original language (English).

Ex. 와이 셔츠 = "shirt; dress shirt", from the English "white shirt", Japanese waishatsu >> 와이 셔츠; 아파트 = "apartment", jap. apa; to >> 아파트; 미싱 = "sewing machine", jap. mishin, in standard Korean it is customary to use Sino-Korean 재봉틀; 텔레비 = "television", jap. terebi => 텔레비전; 아르바이트 = "part-time job", from the German Arbeit, "work", jap. arubaito.

Words from English were previously borrowed from Korean through Japanese. These are such words as truck (truck), skate (skates), drum (drum), nut (tech. Nut, clutch), suspense (uncertainty, anxiety), cup (cup), etc., which were originally pronounced in the Japanese manner: 토라 꾸, 스게 토, 도라 무, 닛토, 사 스펜스, 고뿌.

In modern Korean, they sound differently - closer to the phonetic shell of the original language: 트럭, 스케이트, 드럼, 너트, 서스펜스, 컵.

In its turn, the Konglish branches as follows:

- 1) Directly borrowed words - words borrowed from English with the same meaning as in the original language, i.e. they denote the same phenomenon.

바이 바이 Bye-bye

스태미너 Stamina

타이밍 Timing

커피 Coffee

머플러 Muffler

팬츠 Pants

체크 Check

소파 Sofa

다이어트 Diet

스토브 (electric) stove

와인 Wine	recorder
아이스 크림 Ice cream	모텔 Motel
컴퓨터 Computer	호텔 Hotel
모니터 Monitor	프로젝트 Project
하드 드라이브 Hard drive	엠시 MC
시디 CD	디제이 DJ
키보드 Keyboard	캔버스 Canvas
플로피 디스크 Floppy disk	인터넷 Internet
바겐 세일 Bargain sale	웹 사이트 Website
비디오 Video, videotape, videotape	홈 페이지 Homepage

As you probably noticed, this category mainly includes definitions of material concepts, borrowed together with reality or professional terms related to a particular area of human activity.

2) Fabricated concepts: such concepts that consist of words that have lost their original meaning under the influence of a new borrowing culture and have acquired a new meaning that does not exist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is formed by the native speakers themselves.

애프터서비스 Free of charge Service	킥 카드 "The pick of the litter"
아메리칸 스타일 커피 Black coffee	라이트 콜라 Diet coke
오토바이 Motorcycle	리브 잉글리쉬 Real-life English
백 미러 Rear-view mirror	멤버 아이디 Username
백 넘버 Jersey number	모닝 콜 Wake-up call
캐시 커너 ATM	오일 방크 Gas station
더즈 페이 더즈 페이	엠티 First club meeting for freshmen
아이 쇼핑 Window shopping	네임 카드 Business card
게임 룸 (video) arcade	원피스 Dress
골든 볼 Sudden death (in game)	오픈 카 Convertible car
헤어 밴드 Headband	팬츠 스타킹 Pantyhose
핸드폰 Mobile phone, cellular phone	셀프 카메라 Home video
하이퍼 마켓 Grocery store	샌드위치 데이
아이스 바 [US] Popsicle, [UK] Ice Lolly	트랜스젠더 Transsexual
인터폰 Intercom	컴섹 (Computer + sex) Virtual sex

3) Reduced borrowings, i.e. such that under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are reduced for ease of pronunciation.

에이에스 After service	에이컨 Air conditioner
--------------------	---------------------

아파트	Apartment building	도큐	Documentary
백 뮤직	Background music	더블재킷	Double-breasted jacket
백 싱거	Backup singer	에로	Erotic movie
볼펜	Ball Point Pen	플래시	Flashlight
밴드	Bandage	프라이팬	Frying pan
카세트	Cassette player	헬스	Health-club
센치	Centimeter	미션	Transmission
시피	Commercial film	나이트	Night club
디카	Digital camera	노트	Notebook
클래식	Classical music	오프라이스	Omelet rice
클립	Paper/head clip	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코팅	Plastic coating	리모컨	Remote control
콤비	Combination	레지	Register (다방같은 곳에서 차를 나르는 등 손님을 대접하는 여자)
크레파스	Cra(yon) + pas(tel)	셀프	Self-service
크림 샌드	Cream sandwich	에스피	Science Fantastic
디비	Database	스테인	Stainless steel
디시	Discount	트랜스	Transformer
데모	Demonstration	화이트	Whiteout (correction pen)
랩	Laboratory		

4) Hybrid vocabulary - one that is formed from a combination of Korean (or Sino-Korean) and English. Etc. Vinyl + 봉투 = 비닐 봉투, 휴대 (용 + tele) phone = 휴대폰, swap + 去來 = 스왑 거래, install + 하다 = 인스 털 하다, box + 圈 = 박스권, 몰래 + camera = 몰래 카메라, combination + 하다 = 콤비 하다, 麥酒 + hall = 맥주홀, 휴게 (실 + ho) tel = 휴게텔, 백색 (白色) + terror = 백색 테러, wrecker + 차 (車) = 레커 차, 오 (五) + T (echnology) = 오티, team + 員 = 팀원.

5) Tracing papers - literally translated into Korean or Sino-Korean English concepts. Etc. 불 >> lighter (lighter), the English expression “shoot” - “shoot” used in basketball, is also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verb “쏘다”, wherein the phrase '정상 회담 (頂上 會談)' 정상 (頂上) defines the heads of countries, negotiating, this concept was formed by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English concept of “summit meeting”, in which “summit” means “산 꼭대기” and translated using Sino-Korean vocabulary. There are not many cripples in Korean.

6) Phonetically changed words - words due to their adaptation to the phonetic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that has changed their phonetic form beyond recognition. Ex. 버전 >> version, 비자 >> visa, 런츠 >> lunch, 럭스 >> lux; or on the lips of Koreans they found homonyms that are heard by a foreigner's ear that is not used to Korean pronunciation and impossible in the original language.

백: bag[bæg] ≠ back [bæk],

코드: cord [kɔ:d] ≠ code [kəud],

러브: love [lʌv] ≠ robe [rəʊb],
소스: souse [saus] ≠ source [sɔ:s],
라이트: light [lait] ≠ right [rait],
파이프: wife [waif] ≠ pipe [paip],

커피: coffee ['kɒfi] ≠ copy ['kɒpi],
진: gin [dʒin] ≠ jeans [dʒi:n],
랩: lap [læp] ≠ rap [ræp]

And also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nglish, exactly the Konglish, and not English borrowing, has invested in Korean television. Television, as popular culture, has great potential in influencing society.

Not only complete words are borrowed, but also abbreviations (abbreviations). For example, 엠 에스 - M.S.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I.D. 카드 - I.D. card (Identity card) - identity card; 티 에스 알 - T.S.R. (Trance Siberian Railway) - Trans-Siberian Railway. Such words, even a foreigner who knows English well, hardly recognize them at their first meetings with a Korean interlocutor. But not only such abbreviations are difficult to "decipher", but also the simplest words. An untrained ear for Korean 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 hearing the word "waiphi (와이프)" is unlikely to immediately understand that it is "a wife".

After Korea freed itself from the Japanese yoke, in August 1947, in the American manner, television began to rapidly develop in Korea. This was the deployment of American troops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The trend of Americanization of Korean television has been observed to this day. Already at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post-occupation television, the names of the programs contained many English, often useless, words. For an example we will give some: 'TV 그랜드 쇼', '국악 버라이어티', '제스처 게임', '가요 퍼레이드', '유머 클럽', 'KBS 시네마' and many others.

Let us look at one article in newspaper:

(all the borrowed words will be in red bold, except titles)

경향신문

방탄소년단이 온다, 'ON'으로..새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20곡 구성...

타이틀곡 '온'은 세계적 가수 시아 피처링 버전도

컴백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정규 4집 **타이틀곡**은 '온(ON)'이며, 세계적 가수 시아가 **피처링한 버전**도 공개된다.



방탄소년단은 17일 0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타이틀곡** ‘온’을 포함해 총 20개 **트랙**으로 구성돼 역대 정규**앨범** 중 가장 많은 **트랙** 수를 자랑한다. 이 중 신곡은 15곡에 이른다.

지난달 17일 먼저 발매한 선공개곡 ‘블랙 스완’(Black Swan)과 **컴백 트레일러**로 공개한 ‘인터루드 : 새도’(Interlude : Shadow) 및 ‘아우트로 : 에고’ ‘필터(Filter)’ ‘시차’ ‘라우더 댄 밤즈(Louder than bombs)’ ‘옥(UGH!)’ ‘00:00(Zero O’Clock)’ ‘이너 차일드(Inner Child)’ ‘친구’ ‘문(Moon)’ ‘리स्पек트(Respect)’ ‘위 아 불릿프루프 : 디 이터널(We are Bulletproof : the Eternal)’ 등이 새로 선을 보인다.

지난해 4월 발매된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에서도 ‘**인트로**: 페르소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메이크 잇 라이트(Make It Right)’ ‘자메 뷔(Jamais Vu)’ ‘디오니소스(Dionysus)’ 5곡이 실린다.

특히 마지막 20번째 **트랙** ‘온(Feat. Sia)’은 **타이틀곡** ‘온’의 또 다른 **버전**으로, ‘샹들리에(Chandelier)’ 등을 부른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가 **피쳐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협업은 방탄소년단의 제안에 시아가 흔쾌히 수락하며 성사됐다”고 전했다.

시아가 피쳐링한 ‘온’은 실물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디지털 트랙**으로 북미 **프로모션**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오는 21일 먼저 공개된다. 한국에서는 28일 공개된다. 이밖에 **팝** 가수 트로이 시반도 신곡 ‘라우더 댄 밤즈’ 곡 작업에 참여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자아 찾기’를 화두로 한 <맵 오브 더 솔>(영혼의 지도)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이다. 새 **앨범**은 21일 오후 6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이유진 기자 yjlee@kyunghyang.com

입력 : 2020.02.17 20:59

Culture is also forced to be flooded with foreign languages. In particular, articles related to clothing (fashion) are flooded with foreign languages. There are many times when it is difficult to realistically lack an alternative, but there are also articles that seem to ignore the purified Korean language.

And what about the situation on television today?

In 2003, Professor Im Kyuhon (임규홍) of Gyeongsang University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blished a report on the topic “Linguistic analysis of the names of television programs consisting of borrowed words on Korean television” (한국 텔레비전 방송 의 외래어 프로그램 이름 에 대한 언어 학적 분석) where practical studies on the names of Korean television programs were also placed. Five channels of Korean television were selected as objects of research: Korean Television 1 (한국 방송 1), Korean Television 2 (한국 방송 2), Culture Channel (문화 방송), Seoul Television (서울 방송) and Seoul and Incheon Television (경인 방송). Below we will present a table of the percentage of programs with names such as “borrowed (Sino-Korean) word + Sino-Korean (borrowed) word”, “native Korean (borrowed) word + borrowed (original Korean) word” and only “borrowed word”.

The result was that the total percentage of programs with names from borrowed words is 61.2% of the total number of television programs. Looking at these data, one cannot help but be concerned about the language situation on Korean television. Since the med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ers and informants in society, which has a huge impact on it.

It was on the “Culture Channel” that the first movement for the purification of the mass media language was noticed. At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television, new programs appeared on the screens almost every month, and on February 7, 1974, the administration of the Culture Channel made a statement that it was beginning to fight foreign language in the names of programs on its channel. Measures were taken and 'MBS 페스티벌' was renamed to 'MBS 대향연', '가요 스테이지' to '가요 선물', 'MBS 그랜드 쇼' to '토요일 토요일 밤 에', '일요일 모닝 쇼' to '이주일 의 화제 'and others. But this trend did not last long.

The next wave of pur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you know, was under President Park Jong Hee, who issued a decree in the government on the purification of Korean television from the foreign vocabulary. Then the Culture Channel came forward again and again began in a hurry to rename the programs. This movement, again, was short-lived and repeated again only in the 1990s.

In economics, of course, appear a lot of economic terms. It is mainly foreign. In everyday life, we know that 'to drive a car, you have to start it and then release the handbrake and press the accelerator pedal before the car starts to roll.' Vocabulary such as "hand brake" and "acceleration" appear in the life context of automobiles. By the way, everyone uses the vocabulary, but it is not so refreshing. 'Accelerator' is expressed in terms of 'accelerator' and 'accelerator'. 'Silencer' is used in the same way as 'muffler' and 'mafura'. If there is a substitute for us, the economic side is to actively use it. If you don't write it, you can overflow with articles that are half-filled with foreign languages. Articles of the same content pour out similar foreign words from any newspaper.

The English language, being a mediator in cultural and linguistic contacts, reflects, like a mirror, the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of the contacting peoples, including the peoples of the East and West. The main problem is to determine whether the changes that a language undergoes under the influence of borrowing are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language of the host; whether the language will lose its individuality and historical heritage.

Looking at how fast and in what quality English is entering the life of Koreans, one cannot help but be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course, in the context of modern globalization, one cannot stay away from such economic and political powers like America, England, China, etc. But at the same time, one must not forget that the people are alive, not even as long as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is nation exists, but as long as the language in which history, originality, and self-awareness of the people live.

Sources:

1. Jeffrey Miller. “ A Word by Any Other Meaning: Konglish (*the version from the monthly webzine of the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Magazine*)”. Issue 5, March 2003.
2. David Doms. Dissertation “A Text analysis of a newspaper article about Konglish taken

from ‘The Korea Herald’”. University of Birmingham. Module 5, February 2003. 18 p.

3. 임규홍.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외래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한글 263, 2004년 3월.
4. 안주호, 임소영. 「대학생의 외래어 사용 양상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글263, 2004년 3월.

【분과 발표】



제 2분과

좌 장: 이승우(대구한의대학교)

발표장: 4층 세미나실

제2분과		좌장: 이승우(대구한의대)	발표장: 4층 세미나실
1	다산 정약용의 공사론: 성기호설과 덕론을 중심으로	김우진 / 대구한의대	
2	이백 <정야사> 판본에 대한 一考	남기수 / 대구한의대	
3	순자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배다인 / 영남대	
4	장자의 놀이론	주동진 / 영남대	
5	중국학계의 SF소설 연구동향과 쟁점	이승우 / 대구한의대	
6	문학이 바라본 팬데믹 ‘이후’	강민희 / 대구한의대	
7	晚明民間의 文學生活樣態實錄 — 綜合性日用類書中的 文學門類	苏 航 / 成都大学	
8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所載) 한시와 그 의미	김미선 / 전남대	
9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고 현 / 조선대	
10	코로나 환경과 베트남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Tô Minh Tùng / 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	

다산 정약용의 공사론: 성기호설과 덕론을 중심으로

김우진
(대구한의대)

1. 문제제기

유교 윤리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시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 『순자』 등 사서(四書)와 그외 다수의 경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주석을 단 대부분의 판본들이 모두 유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학 및 유교라는 이름으로 통칭된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특징과 비판 연구가 적지 않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중에서 특히 공과 사에 관한 연구, 그리고 민주주의와 유교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고, 그 연구들은 대체로 유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차이를 짚어내지 않은 채 공과 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상적 측면에서 유교의 다양한 스펙트럼만큼이나 그것에 해당하는 공사론 또한 다양하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유교가 다루어질 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유교를 연속성 안에서 다루는 연구들과 그 반대의 입장에서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다루지 못한 내용이다.

유학이 현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주로 유학이 천리(天理)나 형이상학적 원리로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주로 유학을 성리학적으로만 해석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성리학적 해석이 유학의 전체는 아니다. 비록 그러한 해석처럼 조선 500년을 관통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만, 성리학만이 한국인의 유교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단서는 『論語古今註』나 『大學公議』, 『孟子要義』, 『中庸自箴』, 그리고 『心經密驗』 등, 다산 정약용의 성론(性論)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학 원리 핵심을 인(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산은 인(仁)을 본성이라고 보지 않고 동시에 천리(天理)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仁)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덕이라고 본다. 다산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살펴보건대, ‘인(仁)’이란 (선천적인) 본심(本心)의 온전한 덕(全德)이 아니라, 또한 이는 (후천적인) 사공(事功)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⁶¹⁾는 그의 주장은 성리학의 성론(性論)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의 윤리적 체계는 여전히 형이상학적 체계를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산이 장기간 유배 가기 전 주자학적 체계에서 벗어난 입장을 정립하기는 했다. 유배 동안 작성된 많은 저작에서는 주자학적 체계에서 거의 완벽하게 벗어나는 철학을 구축하기는 했지만⁶²⁾, 여전히 그는 마음을 영체라고 규정하고 그 영체의 성을 기호로 규정했다. 다산은

61) 『論語古今註』 4권 이지형 역, 129쪽. 이외에도 다수의 구절에도 찾아볼 수 있다.

62) 정소이, 「정약용 심성론의 변천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 3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와 「퇴계

성(性)을 리(理)로 간주하지 않았고 심(心)을 허령불매(虛靈不昧), 허령본체(虛靈本體)로서 간주했으며 맹자가 말한 대체(大體)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산이 여전히 도덕적 선의 근원을 사회나 공동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근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의 핵심 원리는 하늘(天)과 이치(理)가 일치하고 그 하늘이 도덕적 원리의 하늘(義理天)이고 그 이치(所以然)가 도덕적인 원리(所當然)라는 것이다. 이에 다산은 도덕적인 하늘(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인, 즉 자연적 하늘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자연적인 하늘을 주재하는 것은 상제(上帝)라고 말하고 있다.⁶³⁾ 이는 그가 비록 성리학적 체계를 비판했더라도 그의 철학이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점으로 보여준다.

다산의 성론(性論)은 성기호(性嗜好)로 알려져 있다. 다산이 말하는 성(性)은 하늘의 원리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맹자가 언급한 대체(大體)를 따르려는, 즉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체를 따르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리학의 성론(性論)에 대한 그의 비판과 그 비판의 원리를 중심으로 성기호설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다산의 성기호설로 설명되는 성(性)과 덕(德)의 관계와 그에 따른 공사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공사론이 성리학의 도덕 형이상학적 공사론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하는 것이다.

2. 성(性)과 덕(德)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과 공사론(公私論)

유학의 핵심적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사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전에는 그 경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사상들이 있고, 유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전 중에 유학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라면 『논어』이다. 공자 이전의 경전들은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면에서 유학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무결한 유학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어』는 공자가 직접 언급한 유학의 총체이다. 『맹자』와 『순자』는 공자를 계승하고 그의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 경전이다. 성리학은 북송오자(北宋五子)와 주희가 이전의 유학 경전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사서를 높이고

이황,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심선론의 연속성과 차이에 대한 연구, 『인간환경미래』 10,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3을 참조할 것.

63) 『孟子要義』, 卷2, 「盡心上」, “天之主宰, 爲上帝. 其謂之天者, 猶國君之稱國, 不敢斥言之意也. 彼蒼蒼有形之天, 在吾人不過爲屋宇帡幪, 其品級不過與土地水火平爲一等, 豈吾人性道之本乎? 〈太極圖〉上一圓圈, 不見六經. 是有靈之物乎, 抑無知之物乎? 將空空蕩蕩, 不可思議乎? 凡天下無靈之物, 不能爲主宰. 故一家之長, 昏愚不慧, 則家中萬事不理, 一縣之長, 昏愚不慧, 則縣中萬事不理. 況以空空蕩蕩之太虛一理, 爲天地萬物主宰根本, 天地間事, 其有濟乎? 《詩》云: “明明在下, 赫赫在上.” 《詩》云: “蕩蕩上帝, 下民之辟.” 《詩》云: “昊天上帝, 則不我遺.” 《詩》云: “天之牖民, 如壘如簍.” 《詩》云: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 《詩》云: “畏天之威, 于時保之.” 《詩》云: “敬天之怒, 無敢戲豫.” 先聖言天, 若彼其真切分明, 今之言天, 若是其渺茫恍惚, 豈可知耶?”

그것을 해석한 체계이다. 비록 조선성리학자들이 그런 정주학을 유학의 정통이라고 규정했지만, 성리학만이 유학을 이해하는 바른 길은 아니다. 성리학은 오히려 유학 경전들, 특히 사서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재창조 또는 오독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창의적으로 해석한 내지 오독한 가장 두드러진 유학의 핵심 원리가 성(性)과 사단(四端)의 관계, 그리고 덕(德)에 대한 해석이다.

성리학적 체계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이고, 그것이 도덕적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단(四端)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義)의 단서,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예(禮)의 단서, 그리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智)의 단서이다. 인간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거는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이고, 그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을 주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성리학은 유학의 주요 개념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맹자가 인간의 성(本性)이 선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통해 네 가지 마음을 언급했다. 인의예지가 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함을 나타내는 덕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에게는 선한 마음과 성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희는 선한 마음을 선한 본성(인의예지)을 알 수 있는 단서로 간주하고, 마음과 본성 사이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근거지움을 단행했다. 주희에게 인간 본성의 선함은 하늘의 원리(天理)가 그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모든 마음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인간 본성의 선함을 선한 마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본성과 마음은 같은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 따르자면, 성리학에서 인의예지라는 것이 도덕적인 본성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전제하더라도 하늘의 원리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 하늘마저 도덕적인 선 그 자체로 간주해버렸다. 이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내는 오류를 넘어서, 오히려 당위의 원리가 곧 하늘의 원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늘의 원리(天理)는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리학적 체계에서 하늘의 원리는 인간의 도덕적 선함을 외화시켜 상정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성이 하늘의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어쨌든 성리학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이면서 동시에 공공성(公共性)의 기준이 된다. 인간이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늘의 원리와 본성에 따르는 태도로 마음을 유지하고 일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의예지라는 성은 하늘로 주어진 성을 잘 보존하고 마음의 부중절(不中節)을 극복하여 사회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면 덕이 된다. 결국 성으로서의 인의예지는 시작점이고, 덕으로서의 인의예지는 도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성리학적 체계에서 규정된 공공성은 하나의 절대적 원리를 상정한 상태에서 그 원리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형성하고 그 도덕적 본성에 맞게 마음을 먹고 그러한 태도로 사안에 임하는 것이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체계나 덕이 아니다.

3. 성과 덕에 대한 다산의 해석

다산 정약용은 본성과 인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論語古
今註』에서 『論語』의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성은 서로 멀다. 오직 상지와 하우는 변화시
킬 수 없다(性相近也, 習相遠也. 唯上知與下愚不移).”는 구절부터 분석한다. 사실 『論語』에
는 성(性)에 대한 내용이 이것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다산은 성(性)을 성향(性
向)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는 “‘성(性)’이란 본심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好惡)이고, ‘습
(習)’이란 보고 듣는 데서 버릇으로 익혀진 것(慣熟)이다.”⁶⁴⁾라고 해석한다.

다산에게 인간의 성(本性)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즉 성은 곧
기호(嗜好)⁶⁵⁾라는 것이다. 다산이 성을 기호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성의 도덕성이 인간 내부
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간을 신(神)과 형(形)이 결합한 존재로
보고⁶⁶⁾, 이를 다시 맹자의 용어를 빌어와 대체(大體)와 소체(小體)⁶⁷⁾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
체에 해당하는 영명(靈明)은 영묘한 판단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판단능력이 바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이다. 다산이 성을 두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한 것은 바로 대체에 해당하는 영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체는 영명의
본체(本體)이면서 스스로 존재 가능한 것이고, 성은 본체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는
‘영명의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은 ‘영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중 하나이다.⁶⁸⁾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산이 비록 주희의 성론을 부정하면서 성을 기호로 규정했지만, 인
간의 도덕성을 외부에서만 찾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그는 도덕의 근거, 기준을 성리학에서 규정하는 하늘(天)을 원리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제(上帝)로 규정하고 있다. 상제는 섬겨야 할 대상이다. 다산 또한 여전히
도덕의 기준을 상제에 두고 있다는 면에서 증명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근거를 가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다산의 입장과 성리학과 확실한 차이는 실천성에 있다. 비록 다산의 입장에서
상제라는 것이 상정되었지만, 도덕은 실천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성기호라는 것은 단순히
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성을 기호라는 한 것
은 도덕이 실천하는 것에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산은 이와 같은 성을 따라야 인(仁)에 머물 수 있고 의(義)에 말미암을 수가 있으며, 인
의가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기에 덕성(德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⁹⁾ 성과 덕의

64) 정약용, 『논어고금주』, 良貨.

65) 정약용, 『心經密驗』, 「心性總義」, “性之爲字 … 本以嗜好立名.”; 『大學講義』, 권2, “性者, 人心之嗜好也.”

66) 정약용, 『心經密驗』, 「心性總義」, “神形妙合, 乃成爲人.”

67) 정약용, 『孟子要義』 권2, “鑄案: 大體者, 無形之靈明也, 小體者, 有形之軀殼也.”

68) 전성건, 「‘영지(靈知)’개념의 분석을 통해 본 성기호설(性嗜好說)의 의미」, 『철학연구』 제37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13쪽 참조.

69) 정약용, 『心經密驗』, 「朱子尊德性齋銘」, “原夫性者, 樂善恥惡之所由然也. 率此本性, 可以居仁, 可以由義. 仁義之所由性, 故名之曰德性也.”

관계에 대한 다산의 생각은 『논어고금주』에도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仁은 心德도 아니고 天理도 아니다. 중략. [仁이란 人倫의 지극한 것이고, 小人은 人倫에 돈독한 실심이 있지 않은 자이다. 만약 인을 심덕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논의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 이른바 군자와 소인은 구양수의 <붕당론>에서 말한 것과는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만약 바로 악인을 소인으로 하면 이 경문의 뜻은 도리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⁷⁰⁾

다산은 인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본다. 즉, 덕은 어떤 특정 사람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다하고 잘 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仁은 性이고, 그 성은 바로 천리(天理)에 기반한 것이라는 성리학의 근본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산은 바로 이 대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仁’이란 (선천적인) 本心の 온전한 덕(全德)이 아니라, 또한 이는 (후천적인) 사공(事功)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⁷¹⁾

다산은 인(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仁)이라는 글자는 인(人)과 인(人)이 중첩된 글자이다. 손(孫)자가 자(子)와 자(子)가 중첩된 글자인 것과 같다. [고전(古篆)에 손(孫)자는 ‘𠂔’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했고, 자신을 선하게 하는 것을 의(義)라고 했다. 동중서(董仲舒) 선생의 말은 근거가 있다.⁷²⁾

결국, 다산은 인의와 같은 덕은 그 자체가 본성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결과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직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자가 밝힌 정명(正名)은 인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덕이라는 것이다.

4. 다산의 공사론

다산은 마음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감동(感動)의 방식과 외부접촉과는 무관하게 내적 판단으로서 사려(思慮)를 구분한다. 또한 영지의 전체로서의 마음과 심장은 각각 하나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감동과 사려가 발한 것은 수천수백 가지로 다양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간단한 것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사단과 칠정을 리기론적으로 해석하다가 소모적인 논쟁만 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인심과 도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⁷³⁾

다산은 형구(形軀)의 기호와 영지(靈知)의 기호를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연결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다투는 것은 형구의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특징 때문이다. 그

70) 정약용, 『論語古今註』, 4권 이지형 역, 45쪽.

71) 같은 책, 129쪽.

72) 『孟子要義』, 卷1, 「梁惠王」 第1, “仁者, 人人之疊文也. 如孫字爲子子之疊文. 【古篆, 孫作𠂔】 人與人之盡其分謂之仁. 故古人謂愛人曰仁, 善我曰義. 董子之言, 有所本矣.”

73) 안영상, 「토미즘과 비교를 통해서 본 정약용의 인심도심론」, 『한국실학연구』 9집, 2003년 참조.

는 ‘도심’이 있기에 능히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덕을 좋아하며 악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며 마침내는 살신성인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⁷⁴⁾

도심은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⁷⁵⁾ 이 도심은 비록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인간이 도덕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악한 일을 하면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다산은 이러한 도심의 경고를 상제의 명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다른 사람이 이 명을 들을 수 없지만 자기자신만은 홀로 들을 수 있다고 보았다.⁷⁶⁾

결국 다산은 공과 사의 기준을 최종적으로 상제에 둔 것이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본래 주어진 성 때문이고 그러한 성은 우리 몸이 아닌 정신에 기인한 것이며 그 정신은 상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구조는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성리학과의 차이는 이법적인 천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상제의 명과 그것을 따르려는,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 때문이라는 점이다.

74) 정약용, 『論語古今註』, 권9, 「良貨第十七」, “以其有道心, 故能明別善惡, 又能好德而恥惡, 終以至於殺身而成仁.”

75) 정약용, 『心經密驗』, 「心性總義」,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斯之爲道心也.”

76) 정약용, 『中庸自箴』 권1, “道心之所敎告, 皇天之所命戒也. 人所不聞, 而已獨諦聽.”

Dasan Jeong Yagyong's theor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ory of Human Nature as Preference(性嗜好說) and Virtue

Kim Woo-jin
(Daegu Haany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analyzing the principle of 'theory of Human Nature as Preference(性嗜好說)' focusing on Dasan Jeong Yak-yong's critique of the theory of nature in Neo-Confucianism,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virtue explained by 'theory of Human Nature as Preference(性嗜好說)' and his theor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s is to investigate how his theor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relations based on 'theory of Human Nature as Preference(性嗜好說)' is different from the moral metaphysical theor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Neo-Confucianism.

이백 <정야사> 판본에 대한 一考

남기수
(대구한의대)

一. <정야사> 판본 종류

1) 판본 1 : 日本藏宋蜀刻版

“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

복송 곽무천의 《악부시집》，강희 44년(1705년)에 편찬한 《전당시》，일본 소학 어문교과서

2) 판본 2 : 明萬歷版

“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

명나라 고병이 편찬한 《당시품회》

3) 판본 3 : 淸康熙版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

강희 연간에 심덕잠이 편찬한 《唐詩別裁》

4) 판본 4 : 淸乾隆版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明月，低頭思故鄉”

건륭 28년(1763년)에 청조 문인 孫洙가 편찬한 《당시삼백수》와 중국 소학 어문교재

5) 기타 1 《萬首唐人絕句》

“床前看明月，疑是地上霜，舉頭望明月，低頭思故鄉”

송 洪邁가 편찬한 것을 명 趙宦光 등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당시》와 《당시삼백수》보다 빠름

6) 기타 2 일본 중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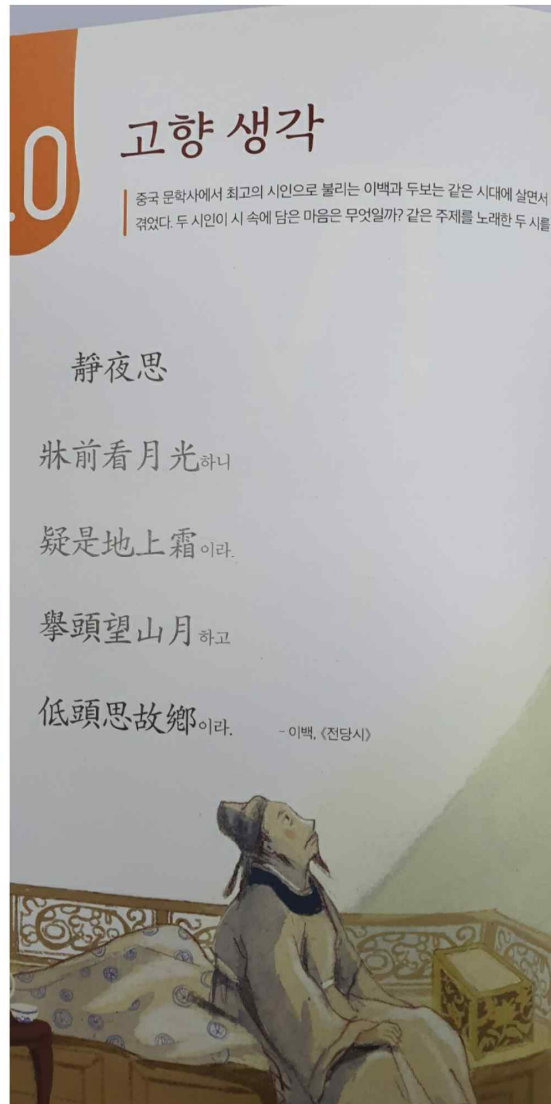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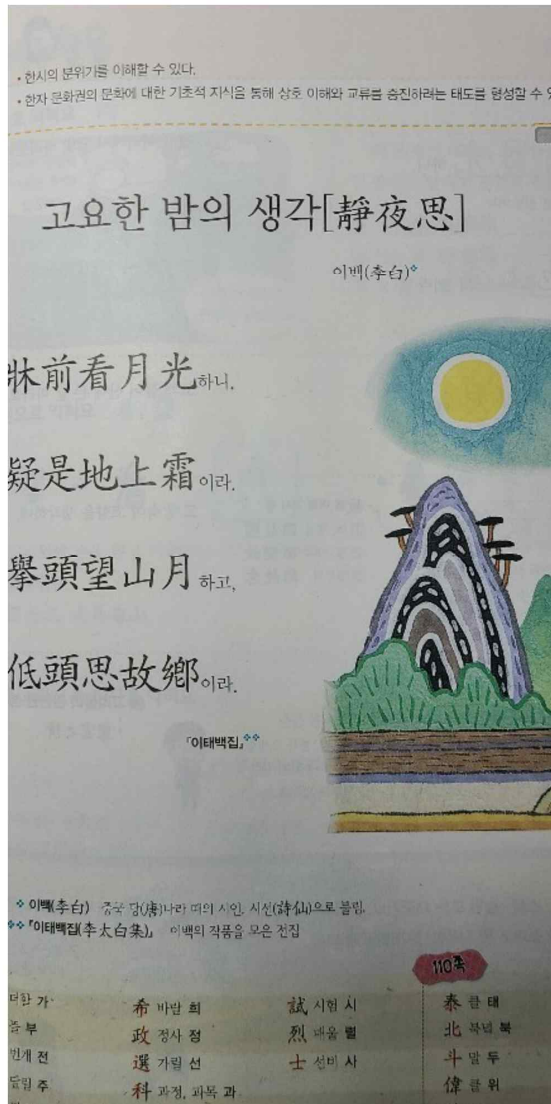
“牀前看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

7) 기타 3 한국 중·고등 교과서

“牀前看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

8) 기타 4 한국 두산백과

“牀前明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明月，低頭思故鄉”



二. <정야사> 판본고

일본 靜嘉堂文庫 소장의 宋蜀刻版 《이태백문집》(卷六), 북송 곽무천이 편찬한 《악부시집》에는 “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으로 되어 있다. 이후 강희 44년(1705년)에 彭定求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전당시》와도 동일하며, 현재 일본 소학 어문교과서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宋蜀刻版 《이태백문집》은 현존하는 최초의 판본으로 원래 李白集刻本이라 할 수 있다. 판본학 입장에서 보면 이백의 <정야사> 원작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일본 견당사신이 일본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나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연유로 良質이 아닌 목판본 대신 그때 유행한 필사본으로 베껴 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당나라 필사본이 다수 발견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몇 가지 자료가 있어 대조해 보았다면 원본과 차이가 없었겠으나, 당나라 때 찍은 인쇄본이 없고 고증할 자료도 부재한 이유로 지금도 서로 다른 판본의 <정야사>가 전해지고 있다. 송나라에 오면서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 같은 글자를 중복해 사용할 수 있

고, 그로 인해 대량의 서적들이 보급됨으로써 일본에 宋蜀刻版 《이태백문집》이 있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淸乾隆版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전당시》나 《당시삼백수》보다 시대가 빠른 송 洪邁가 편찬하고, 후에 명나라 趙宦光 등이 수정·보완한 《萬首唐人絕句》에는 “床前看明月，疑是地上霜，舉頭望明月，低頭思故鄉”으로, 이후 강희 연간에 심덕잠이 편찬한 《唐詩別裁》에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山月，低頭思故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대 《당시삼백수》를 편찬하면서 수정·보완한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舉頭望明月，低頭思故鄉”을 현재 중국 소학어문교재에 실고 있다. 당시 《당시삼백수》의 영향 아래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판본이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첫 구 床을 이체자 牀으로 바꾸어 통용되었다.

三. 마무리 말

전해오는 <정야사>의 여러 판본 중, 중국과 일본 교과서에 실린 <정야사>는 어떤 판본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 한문 교과서에 실린 <정야사> 판본은 일본과 동일한 宋蜀刻版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2종에서 《이태백문집》을 출전 표기한 <정야사>를 수록하였으며,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전체 17종 중 1종에서 《전당시》를 출전 표기한 <정야사>를 수록하였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것과 같은 판본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판본의 선후 관계로 보면 시기적으로 당나라와 가장 근접한 宋蜀刻版을 근거해 실을 수 있으나, 詩意의 전개 과정을 보면 ‘月光’은 無形의 사물이라 어찌 볼(看) 수가 있으며, 보았다면 어찌 서리(霜)와 혼동했겠는가? 또 형식을 보면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은 두 구 모두 □□-□□-□, 그러나 “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은 □□-□-□□, □□-□□-□으로 對가 맞지 않다. 그런 연유로 이전 판본을 수정·보완한 淸乾隆版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은 장소를 보면, 開元 14년(726년) 작가 나이 26세에 촉나라를 떠나 강소성 일대를 유람하다가 揚州의 한 여관에서 지었다고 한다.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秋夕旅懷>도 같은 날 지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宋蜀刻版에 나오는 ‘舉頭望山月’ 즉, 양주에서는 머리 들어 달과 함께 볼 수 있는 높은 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舉頭望明月’로 바꾼 것은 아닌지? 암튼 판본의 선후를 따지든 아니면 시의 내용을 보든, 우리 한문 교과서 집필진도 이 점을 고려해서 판본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생들이 많이 검색하는 네이버에는 다른 판본의 시가 실림으로써 야기되는 학생들의 혼란함을 없애 주는 것도 교과서 집필자의 또 다른 책임은 아닐까!? 중국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우리 중·고등 교과서에 실린 <정야사> 모두 이백의 원작이라고 할 수 없을 터.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은 《오늘의 가사문학》 2021년 겨울호에 ‘중국 명절과 함께하는 명작 탐방’이란 글 가운데 소개될 예정이다.

A Study on the edition of Li Bai's<靜夜思-Thoughts on a Silent Night>

<Abstract>

.Among the many editions of <Thoughts on a Silent Night>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e edition of <Thoughts on a Silent Night> in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textbooks in Korea is based on the same edition 宋蜀刻版 as Japanese textbooks. <Thoughts on a Silent Night> from <Li Bai's anthology> is listed in 2 out of 12 Middle School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textbooks, and <Thoughts on a Silent Night> from <Complete Tang Poems 全唐詩> is listed in 1 out of 17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textbook in Korea. Considering the temporal order of the editions, <Thoughts on a Silent Night> based on the 宋蜀刻版, which is closest to the Tang Dynasty in time, can be listed in the current text books. But in terms of the poetic sentiment, "Moonlight" is an intangible thing. How can you see it? How can it be confused with Frost?

In addition, from the form of the poem, both 床前明月光 and 疑是地上霜” are □ □-□ □-□, but 床前看月光(□ □-□-□ □) and 疑是地上霜”(□ □-□ □-□) are not a rhyming couplet. Perhaps because of this, the Qianlong edition of the Qing Dynasty which revised and improved the previous edition appeared.

In the 14th year of Kaiyuan (726), the writer left Shu at the age of 26 to visit Jiangsu and wrote poems in an inn in Yangzhou. <秋夕旅懷>, which is said to be a sequel, was also written on the same day. Interesting fact that there is no high mountain that can be seen with the moon in Yangju and possibly that's why 舉頭望山月 was changed to 舉頭望明月.

In short, whether it is based on the time order of the editions or the contents of the poem, <Thoughts on a Silent Night> in the current textbooks should be unified into the same edition even though none of which is not the original work of Li bai's. This article published today will be introduced in an article titled <Visiting Masterpieces with Chinese Festivals> in the Winter 2021 issue of <<Today's Lyrics and Literature>>.

중국 유학사 속 순자 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배다빈
(영남대학교)

<국문초록>

본고는 중국 유학사에서 순자의 철학이 이단의 오명을 쓰기 이전부터 그것을 탈피할 때까지, 각 시기의 그 사상적 영향력과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순자 철학의 영향력이 반영하는 일종의 ‘변증법적 특징’을 확인해볼 것이다. 당대 ‘맹자승격운동’부터 송명 이학(理學)의 성립, 청대 유가의 순자 재조명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사상적 전환과 이로부터 성립된 주류 사조는 일견 ‘비순(非荀)’ 혹은 ‘존순(尊荀)’의 양면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변증법’의 시각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면, 순자의 철학은 끊임없이 유가 학술 사조와의 일종의 변증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곧 순자의 철학이 유학사상 줄곧 주류 철학의 전개와 발전에 있어 일종의 ‘반테제(antithesis)’의 역할을 취하였음을 표명한다.

키워드 : 변증법, 반테제, 순자, 인성론, 유학

1. 들어가는 말

중국 유학사를 조망해보면, 순자의 철학은 그의 생전 학술적 영향력과 업적에 비하여 끊임없는 비판과 배척을 겪었다. 이러한 굴곡은 특정한 두 시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당(中唐)기 한유(韓愈)로부터 비롯된 존맹(尊孟) 사조와, 이윽고 발생한 소위 ‘맹자승격운동’의 대립자, 즉 비맹(非孟) 관점이 대두된 시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그 학술 지위가 격감하게 된 것이 첫 번째이다. 이 시기는 곧 송대 신유학 이후 ‘존맹비순(尊孟非荀)’ 관념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학(理學)의 성립과 더불어 순자의 지위는 맹자 아래로 격감하였는데, 주지하다시피 그 주요 요인은 맹자와 순자 간에 인성(人性)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송-명대에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유가 철학의 주류 지위를 장악하였고, 명 가정(嘉靖) 연간에 이르러 순자는 공묘(孔廟)에서 퇴출당하고 만다. 이러한 국면이 또다시 전환되는 것은 명-청 교체기이다. 당시 명나라 유민으로 구성된 유학자들이 실학 사조 및 경학 중심주의를 주도함과 더불어, 순자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가치조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당-송 및 명-청이라는 두 시기는 모두 왕조가 교체됨에 따라 불안해진 유학의 정체성과 지위를 재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철학 체계가 요청되었던 시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순자는 극단적으로 배척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유학사상 순자가 단순히 중시되거나 배척

당했다는 사실 배후에는 그 철학이 끊임없이 다른 유학 사조와 대립, 영향, 지지 관계를 취하였음을 논증하는 데에 있으며, 그 논리적 정당성을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획득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순자 철학 내부의 변증법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 중국철학의 변증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특정한 철학 이론구조 내부에서 핵심 개념들의 상호 변증적 작용 관계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유학사상 사상적 과도기 혹은 당시 유학 사조의 전환 가운데, 순자 철학이 어떻게 이해되고, 운용되었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반테제(antithesis)” 혹은 ‘반사조’로서, 그 성립 및 발전에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파악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당(漢唐) 이래로 점차 배척되어 ‘이단화(異端化)’된 정형적 시각에서 벗어나, 순자의 철학이 그 역사적 퇴보와 부재, 부흥 과정에서도 줄곧 유학사의 주류 사조와 상호작용을 실현하고 있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⁷⁷⁾

2. ‘변증법’ 개념의 의미 범주에 대한 정의

‘변증법’이라는 개념은 현대 철학에 매우 친숙한데, 이는 원래 서양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 발전되었다. 최초에는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운동과 변화, 대립자들의 조화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변증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제시하였고, 플라톤은 대화 혹은 토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진리(이데아) 인식의 방법으로 변증법을 정의한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에 의해서 변증법은 비교적 경시되거나 그 유용성을 부정당하였지만, 근대에 이르러 변증법은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변증법 사유를 제시한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헤겔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변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칸트에 이르기까지의 논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논리학을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그가 보기에, 개인의 사유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전개와 발전은 이러한 변증법적 형태, 즉 ‘자기동일성’의 구축과 그 내부에 잠재된 ‘모순성’과의 대립을 통해 전개, 발전하는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철학에 기원을 두는 본 개념을 엄밀하게 운용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 번째,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인식과 건립은 인간의 논리적 인식이라는 개념론의 범주에서 기획되었다.⁷⁸⁾ 두 번째, 소위 “변증법”이 의미하는 정-반-합

77) 물론 이러한 연구 논제는 본질상 매우 넓고 풍부한 역사적 식견을 요청한다. 특히 유학사상 순자 철학을 논한 수많은 학자의 관점을 모두 포섭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목적 없는 ‘사상사의 서술’에 그칠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시론(試論)적 성격을 가지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시기 ‘주류 사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 토론 범위를 특정하려 한다.

78) 사실 헤겔은 변증법을 사유의 논리적 방법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실 존재의 운동법칙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정신 자체(주관정신), 그리고 정신이 창조해낸 ‘제2의 자연’인 사회와 역사(객관정신)는 절대이념의 현실 양태인 절대정신의 내재적 질서에 따른 변증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헤겔이 엥겔스처럼 물리적 자연의 영역에서 작동한다고 여겨지는 ‘자연변증법’까지도 주장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므로,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김준수,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제7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314쪽 참고.

(thesis-antithesis-synthesis)이라는 도식에 대해, 헤겔은 명확하게 그것의 범위를 제시하지도, 정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도식은 오히려 헤겔 사후 샬리베우스(H.Chalybaus)라는 인물에 의해 최초로 제시, 통용되기 시작했다.⁷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토론할 유학사의 흐름 속에서의 변증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특정한 철학 체계들과 그 사이의 갈등, 영향을 역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헤겔의 변증법을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많은 개념적, 논리적 문제에 대면할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 위에서 최종적으로 표현된 그의 역사철학은 절대정신(absoluter Geist)과 자유로운 이성에 근거한 발전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역사관은 절대정신의 무한한 자유에 대한 추구와 자기동일성의 주체적 개선에 의한 발전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일종의 낙관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아도르노에게 논리적으로 비판받는다. 이처럼, 비록 헤겔의 변증법은 현상세계의 흐름을 설명하는 기초 논리로서 기획되어 있지만, 그것의 헤겔 철학 내부에서의 역할은 특수하며, 결국 학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 및 지식을 수반한 고유한 주장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개념의 운용 범위를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한정해두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다른 역사 양상 속에 구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유학사의 어떤 측면은 변증적이며 이는 발전적이다/아니다”와 같은 경솔한 가치판단의 초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헤겔 변증법 체계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절대정신 혹은 발전적 역사관을 배제하고, 변증법의 언어적 정의 자체가 함의하는 정-반-합의 기초 구조에 대한 인식만을 활용한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주류적 지위를 점하였던 어떠한 기존 철학(태제)과 그에 대한 반사조(안티태제)의 갈등과 종합을 통해, 주류 철학이 자기동일성을 보존(Aufheben)⁸⁰⁾하면서도 안티태제의 사상을 받아들여 합의 형태(진태제)를 갖추는 구조를 가리킨다. 물론 전통 유학사의 흐름에 대하여 변증법을 주요 프레임으로 삼으면서, 순자 철학 일체를 완전히 부차적인 역할로 규정하는 것은, 순자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논의들을 선택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일종의 확증편향 혹은 건강부회의 의심을 살 공산이 크다. 그러나 유학사상, 순자는 몇몇 중요한 사상적 과도기 속에서 주류 철학의 지위를 점유하지 못했음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며, 이 글에서는 그 거대한 흐름을 주도했던 유학자들의 순자에 대한 긍정, 비판, 배척, 재조명, 흡수 작업들이 주류 철학의 이론적 개선과 보강, 성립에 필수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할 인물들의 학술적 영향력은 이미 공인되었으며, 여기에 어떤 사실(史實)에 대한 악의적 취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당 이후 유학사 속에서 순자의 철학적 지위가 어떠했으며, 그로부터 성립된 ‘합’의 철학- 즉 이학 체계의 변증법적 성격을 검토해봄으로써, 기존의 맹자학을

79) H.M.Chalybaus, 『Historische Entwicklung der spekulativen Philosophie von Kant und Hegel』 1837年, 김준수,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제7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재인용

80)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있어 ‘아우프헤벤(Aufheben)’은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동시에 세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즉 ‘지양’, ‘보존’, ‘고양’으로 형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은 ‘합’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을 ‘지양’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립된 ‘합’은 반드시 본래 ‘정’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 양태여야만 한다. 동시에 ‘합’의 의미는 더 이상 본래의 ‘정’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일정한 ‘고양’된 바가 수반되어 있어야만 한다.

주로 삼고 순자학을 이단으로 삼는 시비 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립자들의 철학적 공헌 및 결합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토론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재평가와 순자 철학에 대하여 일대 ‘순자학풍’을 조성한 청대 유가의 관점을 통해, 순자 철학이 재차 청대 유학 학술 사조의 구조와 의의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한다.

3. 존맹비맹(尊孟非孟) 사조와 순자

중국 당송(唐宋) 교체기는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사상적 변혁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사상 변혁의 도전을 받은 것은 관학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행하던 유학자들이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오늘날 잘 알려진 송대 신유학이 완전히 성립되기까지 일단의 사상적 과도기를 겪었는데, 이 변화에는 사상적 변화와 학술적 변화라는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사상적 변화를 살펴보면, 중당(中唐) 시기 이미 유가 철학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유(韓愈)이다. 한유는 유가의 ‘도통(道統)’을 입설하면서 맹자야말로 비로소 공자의道を 계승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것이 내가 말한 도(道)이니, 일찍이 말하던 노장(老莊), 불교의 도가 아니다. 요 임금은 이로써 순에게 전하였고, 순 임금은 이로써 우 임금에게 전하였으며, 우 임금은 탕에게, 탕은 문, 무, 주공에게, 문, 무, 주공은 공자에게, 그리고 공자는 이를 맹자에게 전했다. 맹자가 죽고 나서, 도(道)가 전해지지 못했다.⁸¹⁾

한유의 맹자에 대한 추종은 이후 송, 명대 이학자들의 도통(道統) 관념으로 전승된다. 이에 반해, 한유는 양웅과 순자에 대해서는 “크게는 순수하나 작은 흠결이 있다.”라고 말하며 비교적 부정적 견해를 남겼다.⁸²⁾ 사실 한대부터 당초에 이르기까지, 유가 내부에서 맹자와 순자의 지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순자가 더욱 경학의 시조로서 추종받았다. 하지만 한유를 기점으로, 유가 내부에서는 선진시대의 선유(先儒)에 대한 가치판단에 일련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학술적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 당말-북송 초기의 유학은 여전히 한당 장구(章句), 주소(註疏)의 학문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다. 안복평의 이해에 따르면, 이는 동시대 불교, 도가의 마음 수양과 세계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주로 삼는 의리학(義理學)에 비하여 어떤 사상적 깊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대 초기만 하더라도 학술적 주류는 불교, 도가였지 유학이 아니었다. 유가의 생존 공간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 학술적 지위의 정통성이 존망 위기에 처해 있었다.⁸³⁾ 여기에는 유학 자체는 비록 국가의 정치

81) “斯吾所謂道也，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堯以是傳之舜，舜以是傳之禹，禹以是傳之湯，湯以是傳之文、武，周公，文、武，周公傳之孔子，孔子傳之孟軻。軻之死，不得其傳矣。”中國古典文學基本藏書『韓愈文集匯校箋注』，中華書局，2010年，4쪽.

82) “大醇而小疵.”中國古典文學基本藏書『韓愈文集匯校箋注』，中華書局，2010年，111쪽.

83) 顏復萍，「北宋疑孟思想的探究」，『名作欣賞』，2012年，第五期，98쪽.

구조와 법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불학, 도학에 비하면 그 내용 차원에서 주어진 도덕 규범과 질서 체계에 대해 충분한 내재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즉 인간 행위와 사회 질서에 대한 법칙, 혹은 형이상학적 근거의 결여가 당시 유학과 불-도학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하여 송대 신유학의 성립을 기점으로 유학 사상 체계의 근거에는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체계의 논리적 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인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한유로부터 당송 교체기, 송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맹자승격운동’에 이어 발생한 신유학의 건립 사이에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즉 한유가 제시한 맹자의 도통 편입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가 내부에서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발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존맹비맹(尊孟非孟, 혹은 尊孟疑孟) 사조이다. 이 분열된 입장은 당시 학자들의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논쟁’은 아니나, 분명 유학자 내부에서 뚜렷하게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학술 논제이자 논변 사조로 꼽힌다.

맹자를 추존하느냐, 혹은 비판하느냐는 입장의 차이를 두고, 당말송초의 유가들은 맹자, 순자, 양옹 세 사람을 주요 토론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입장 또한 다양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견해의 차이는 바로 맹자, 순자, 양옹 가운데 “누구의 심성론이 유가의 정통성에 적합한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학자들의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존맹 관념은 한유로부터 발단하였으며, 왕안석, 이정 등의 송대 유가에 의해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한유가 맹자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면서 양옹과 순자는 흠결이 있다고 보았지만, 반면에 왕안석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맹자가 성에 대해 말하기를, 인간의 성은 선하다 하였다. 양옹이 성에 대해 말하기를, 인간의 성은 선악이 혼재한다고 하였다. ……맹자, 양옹의 도는 서로 다르지 않았으니, 두 선생의 설에 다름이 없다. 그 다른 바는, 그 지적인 바가 다른 것일 따름이다. 이는 공자가 말한 것의 일단(一端)일 따름이며, 각기 타당한 바가 있다.⁸⁴⁾

이처럼, 왕안석은 비록 맹자와 양옹의 심성론은 그 본질상 동일한 뜻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동소이하다고 여겼다.

이와 달리 의맹의 입장에서 맹자의 지위 승격에 회의를 표명한 학자들로는 사마광(司馬光), 이구(李購)가 있다. 우선 사마광은 맹자보다는 양옹의 심성론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맹자는 인성이 선하며, 그 불선함은 외물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다. 순자는 인성은 악하며, 그 선함은 성인이 교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모두 그 한 부분만을 얻어 대체(大體)를 잃은 것이다. 무릇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품수하여 생겨난 것이다. 선

84) “孟子之言性，人之性善。揚子之言性，人之性善惡混。……孟揚之道未嘗不同，二子之說非有異也。其所以異者，其所指者異耳。此孔子所謂言豈一端而已，各有所當者也。”王安石，『王文公文集』，上海人民出版社，1974年，313-314쪽.

과 악은 반드시 겸하여서 있는 것이니, 이런 고로 비록 성인이라도 악함이 없을 수 없으며, 어리석은 이라도 선함이 없을 수 없으니, 그 품수된 많고 적은 바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⁸⁵⁾

이처럼 사마광은 맹자와 순자의 심성론이 각기 편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웅과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유가의 주류 관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한유, 사마광 등의 인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은 모두 당시 ‘심성론’이라는 논제가 선유들의 사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었음을 반영한다. 이로부터 당시 유가 심성론이 새로운 주류 철학의 성립에 있어 초석 역할을 취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인물은 이구(李觴)이다. 한당(漢唐)의 경학 패러다임을 보수했던 이구의 비맹 의식에서 맹자 성선설에 대한 반사조적 경향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가 판단한 맹자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맹자의 성선설 자체에는 결함이 있다. 두 번째, 맹자는 욕경을 배척하였다. 세 번째, 맹자는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위배하였다. 우선 첫 번째 지적을 살펴보자.

성인은 그 성(性)에 근거하는 자이다. 현인은 예(禮)를 배운 이후에 능한 자이다. 성인은 인, 의, 지, 신의 성을 거두어 모아 예를 완성하고, 예가 완성된 후에 인, 의, 지, 신이 드러나게 된다. 인, 의, 지, 신은 성인의 본성이다. 현인은 인, 의, 지, 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를 배움으로써 그것을 추구하는 자이다. 예가 얻어진 후에 인, 의, 지, 신이 또한 드러나게 되니, 성인과 현인의 그 끝은 하나이다. 그 시작이 다른 것은 본성과 배움을 이르는 것이다.⁸⁶⁾

이구는 인, 의, 지, 신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춘 덕성이 아니라, 오로지 성인만이 타고난 것이라 말한다. 성인 이하의 사람은(비록 여기에서는 현인만 거론하지만) 반드시 후천적 교화, 즉 ‘예’의 학습을 통해 비로소 인, 의, 지, 신을 깨닫고 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인성론을 순자의 그것과 비교해본다면, 양자 간에는 인, 의, 예, 지, 신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혹은 욕구의 성으로 보았고, 나머지 덕은 모두 인위, 즉 후천적 교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인 또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이구의 “인, 의, 지, 신”으로 예를 드러내는 소위 ‘중례(重禮)’사상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외왕’의 도로써 ‘내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외에서 내로 이르는 사유방식이다. 이 명제는 최소한 성인만이 어떠한 내재적 도덕성으로 실천을 이루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외재적 교육

85) “孟子以爲人性善，其不善者，外物誘之也。荀子以爲人性惡，其善者，聖人教之也。是皆得其一偏而遺其大體也。夫性者，人之所受於天以生者也，善與惡必兼而有之，是故雖聖人不能無惡，雖愚人不能無善，其所受多少之間則殊矣。司馬光『司馬文正公傳家集』，商務印書館，1937年，821쪽.

86) “聖人者，根諸性者也。賢人者，學禮而後能者也。聖人率其仁義智信之性，會而成禮，禮成而後仁義智信可見矣。仁義智信者，聖人之性也。賢人者，知乎仁義智信之美而學禮以求之者也。禮得而後仁義智信亦可見矣。聖與賢，其終一也。始之所以異，性與學之謂也。”李觴，『李觴集』，中華書局，1981年，11쪽.

을 거쳐야만 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통해 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구는 일견 순자와 유사한 측면이 엿보인다.

두 번째 지적은 그의 저작 『상어(常語)』의 저술 목적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학자들의 뇌동(雷同)이 심각하니, 이는 맹자가 육경(六經)을 배척하고 왕도에 노닐며 천자를 잊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하에 맹자가 없어져야 하며, 육경이 없어서는 안 되고, 왕도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고로 『상어』를 지어, 군신지의(君臣之義)를 바로 잡고, 공자의 도를 밝히며, 후세의 환란을 방지코차 할 따름이다.⁸⁷⁾

이처럼, 이구는 한대 육경(六經) 체제를 보수함과 동시에, 맹자의 왕도정치관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본 맹자는 왕도를 부르짖고 성선을 말하지만 사실 제후들이 도덕적으로 바뀌어 천자가 되도록 권면하는 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⁸⁸⁾

세 번째, 잘 알려져 있듯이, 공자는 일찍이 군신의 상하 구분과 그 역할의 명실 합치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맹자의 “의를 해치는 것을 일러 잔이라 하고, 잔적(殘賊)하는 사람을 일러 한 사내라 한다(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孟子·梁惠王』)”라는 말은 공자 언명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군주의 내재적 도덕성에 대한 중시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소위 ‘왕도’ 관념으로부터 “타인에 의한 정권 교체”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 전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공자의 도는 군주가 군주다우며, 신하가 신하다운 것이다. 맹자의 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인과 의는 그 원래 의미가 같지 않으니, 그 천하를 혼란하게 함이 한결같다.⁸⁹⁾

위와 같이 맹자는 공자의 사회 질서에 대한 분명한 확립을 위배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 이구의 생각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즉 이구 자신의 심성론과 공-맹 정명론의 상충으로 보았을 때, 그가 ‘공맹(孔孟)’ 명칭을 거부하고 ‘주공(周孔)’의 명칭을 지키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구가 맹자를 비판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순자를 추종했다는 의미는 아니

87) “嗚呼，今之學者雷同甚矣。是孟子而非六經，樂王道而忘天子。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不可以無六經，無王道可也，不可以無天子，故作常語。以正君臣之義，以明孔子之道，以防亂患於後世耳。”李觀，『李觀集』，中華書局，1981年，11쪽.

88) “맹자가 말하기를,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 내가 보기에 맹자는 오패의 죄인이다. 오패는 제후들을 거느려 천자를 모셨고, 맹자는 제후들이 천자가 되도록 권하였다. 만약 인성(선함)이 있다면, 분명 그 위배됨과 따름을 알 것이다. 맹자는 주 현왕(周顯王) 때 살았는데, 그 후 백 년이 지나기도 전에 진나라가 검병하였다. 오호! 잔인한 사람이로다.”, “孟子曰，五霸者，三王之罪人也。吾以爲孟子者，五霸之罪人也。五霸率諸侯事天子，孟子勸諸侯爲天子。苟有人性者，必知其逆順耳矣。孟子當周顯王時，其後尚且百年而秦並之。嗚呼，忍人也。”李觀，『李觀集』，中華書局，1981年，512쪽.

89) “孔子之道君君臣臣也，孟子之道人皆可以爲君也。……孟子之仁義，其原不同，其所以亂天下，一也。”李觀，『李觀集』，中華書局，1981年，512쪽.

다. 특히 심성에 대한 분석에서 이구는 예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지만, 그가 받아들였던 이론은 한유의 ‘성삼품설(性三品說)’이다. 게다가 순자를 거의 논의하지 않는 양상은 존맹, 의맹을 주장한 이들 모두에게서 엿볼 수 있다. 이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도통(道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심성론이었으며, 여기에서 순자의 인성론 자체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송 교체기로부터 송대 신유학 성립에 이르기까지, 순자의 지위는 별다른 영향력 없이 하락하였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순자의 사상은 오히려 이 학자들의 사유체계 건립과 더불어 더욱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존맹’ 사조는 이를 위한 필수적 토양이 되었다.

4. 송대 신유학과 순자 철학

당송시기 존맹-비맹 논의를 살펴보면, 순자의 사상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구의 비맹 관념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 즉 정명 및 예교(禮敎)에 대한 숭상이다. 이것은 맹자가 공자의 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작용이자, 그가 순자에 의해 정립된 예치 질서관에 찬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구는 결코 자신의 논리 속에서 순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대를 좀 더 내려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송대 이학(理學) 또는 신유학(新儒學)이라 불리는 사상 체계의 건립 과정에서 드러나는 순자 사상의 흔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선진(先秦), 한당(漢唐) 유학과 비교하여 보면, 주류학술 사조로서의 송대 신유학의 특징은 바로 심성론과 우주론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일종의 ‘상호 해석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만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이로부터 정의된 형이상적 이론구조가 일체 도덕 규범의 정당성과 사회 질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사유체계는 전무(前無)한 종합성, 체계성, 그리고 엄밀성을 갖추게 된다.

이학의 성립에 거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 즉 정이천과 주자의 순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존맹비맹 논쟁 속 유자들의 심성론에 대한 이해보다 분명 더욱 긍정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색채를 드러낸다.

‘생(生)을 일러 성(性)이라’고 한다. 성은 기(氣)이며, 기는 곧 성이다. 생을 이르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에 구애됨이 생기고, 리(理)에 선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안에 원래 이와 같은 두 물질이 있어 그것들이 상대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선하거나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기의 구애로부터 그리된 것이다. 선함은 진실로 성이나, 악함 또한 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⁹⁰⁾

성을 논하면서 기를 논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못하다. 기를 논하면서 성을 논하지 않으면

90) “‘生之謂性’, 性即氣, 氣即性, 生之謂也. 人生氣稟, 理有善惡, 然不是性中元有此兩物相對而生也. 有自幼而善, 有自幼而惡, 是氣稟有然也. 善固性也, 然惡亦不可不謂之性也.”程頤, 『河南程氏遺書』, 『二程集』, 中華書局, 1981年, 61쪽.

명확하지 못하다.⁹¹⁾

정이천의 사상 체계에서 뚜렷한 특징은 ‘성(性)’ 개념이 두 가지 속성, 즉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품수받은 소위 ‘천성’이 바로 ‘리’이며, 이것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으로, 본연지성 혹은 의리지성(義理之性)이라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물적 본성(生)’으로부터 타고난 ‘기질지성(氣質之性)’도 있는데, 이는 신체의 물질성 및 그 욕망에 근거한 본성이다. 이것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으며, 전자와 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이천은 기질지성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고, 병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러한 관념이 바로 송명리학의 이원적 사유구조의 기초가 되어, 이후에 주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된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맹자의 논의는 대개 성선을 말하고 있다. 불선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빠져드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처음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이후에 곧 불선함이 생긴다고 말한 것일 따름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오히려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은 것이니, 완비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⁹²⁾

순자와 양옹은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성을 논하지 않았다.⁹³⁾

소위 천명과 기질은 또한 서로 얽매여 있는 것과 같다. 천명이 있으면, 곧 기질이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만일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곧 생물은 살 수 없게 된다.⁹⁴⁾

이처럼, 주자는 과거 인성론의 다양한 개념들의 일장일단을 파악하고, 맹자가 말한 악을 완전히 후천적 사육의 누적으로 되돌리며, 성선설은 오직 본연지성에만 착목하고 기질지성을 논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여 완벽하지 않다는 관점을 드러낸다. 이처럼 송명 신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 체계를 건립하는 가운데 선대 유가의 인성론을 종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전통 유학 주류로는 맹자, 정이천, 주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는 위와 같은 사유체계가 함의하고 있는 주요 계승 맥락과 그 역사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려로부터 도출된 인식이다. 그러나 어떤 학술 사조가 계승된다는 것은 각 시대의 요구에 따른 대응이며, 또한 그 과정에는 대립자에 대한 비판, 흡수와 같은 작업이 수반된다. 즉 신유학자들은 결코 맹목적인 선유 추종을 하지 않았고, 선대 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 위에 자기 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컨대, 주자는 맹자와 순자, 양옹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 평가를 내린다.

91) “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程頤，『河南程氏遺書』，『二程集』，中華書局，1981年，132쪽.

92) “孟子之論，盡是說性善，至有不善，說是陷溺。是說其初無不善，後來方有不善耳。若如此，卻似論性不論氣，有些不備。”朱熹，『朱子語類』卷四，崇文書局，2018年，第48-49쪽.

93) “若荀揚則是‘論氣而不論性’，故不明。既不論性。” 같은 책.

94) “所謂天命之與氣質，亦相羈同。才有天命，便有氣質，不能相離。若闕一，便生物不得。” 같은 책.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은 것은 맹자이며,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작은 결함일 따름이다. 기를 논하며 성을 논하지 않은 것은 순자와 양옹이다.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큰 해로움이다.⁹⁵⁾

이 언명은 곧 맹자를 주로 삼고 순자와 양옹을 그 부차의 지위에 두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주자는 ‘천리’, ‘성’이야말로 비로소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맹자는 비록 기질지성은 논하지 못했지만, 인성에 있어서 더욱 근원적 인식을 해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이를 변증법적 시각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맹자의 심성론에서 주자의 심성론은 정-합의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전 장에서 확인해본 바와 같이, 당송 교체기의 유가의 정통성 문제상에서 발생했던 존맹비맹논쟁 속에서는 순자의 반사조로서의 면모가 미약했던 반면, 송대의 이학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순자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게 토론, 흡수, 비판된다. 즉 주자는 맹자와 순자의 심성론을 모두 취하면서도 맹자의 그것을 자기 철학의 기초로 채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주자의 맹자, 순자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인 평가 이외에도, 순자의 철학이 신유학 도처에 스며들어 있거나, 사상적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황갑연은 순자와 주자의 마음(心)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양자 모두 심의 인지기능, 지각기능을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심의 불완전성에 대해 인정⁹⁶⁾하였으며, 인간의 일체 행위(선악을 막론하고)에 대한 심의 주재성 등, 심의 ‘지각작용’ 및 ‘인지기능’에 기초한 여러 방면에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양론 차원에서도 심(心)-리(理) 혹은 예(禮) 학습은 인지뿐만 아니라 자기성찰, 자기반성 활동을 공통점으로 삼는데, 이것이 바로 순자의 허일정(虛一靜)과 주자의 거경(居敬) 공부의 공통분모라는 것이다.⁹⁷⁾ 이러한 비교는 주자의 사유체계가 맹자, 순자의 사상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이 외에도, 혜길흥(惠吉興)은 순자의 예론과 송대 유가의 예치 사상에 많은 계승 관계가 나타나며, 그들이 순자의 중례(重禮) 사상, 법치 관념을 다양하게 수용했음을 논증하였다.⁹⁸⁾ 하지만 그는 예교(禮敎)와 외치(外治) 측면에서, 송대 유가가 적극적으로 순자를 긍정, 비판하거나 혹은 계승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어쩌면 그러한 사상적 유사성은 그저 한, 당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교(禮敎) 전통의 연속선에 불과할

95) “論性不論氣，孟子也。不備，但少欠耳。論氣不論性，荀揚也；不明，則大害事！”朱熹『朱子語類』卷六十二，1121쪽.

96) 『荀子』解蔽：“故人心譬如槃水，正錯而勿動，則湛濁在下，而清明在上，則足以見鬚眉而察理矣。微風過之，湛濁動乎下，清明亂於上，則不可以得大形之正也。心亦如是矣。”

『朱子語類』卷十一：“心不定，故見理不得。今且要讀書，須先定其心，使之如止水，如明鏡。暗鏡如何照物！” 위의 책 133쪽.

97) 당연히 순자와 주자의 심에 대한 이해 또한 각기 다른 이론적 기초와 목적을 갖추고 있다. 이에 관하여 황갑연은 그 이론 체계, 수양 방법, 학문 목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미 분석한 바 있다. 황갑연, 「순자와 주자 도덕의식 구조의 유사성 - 일심론(一心論)과 공부론(工夫論)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28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3, 291-292쪽 참고.

98) 惠吉興, 「荀子對宋代理學的影響」, 『邯鄲學院學報』, 2012年, 第四期, 136쪽.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예학 방면에서는 순자와 송대 유가 간의 직접적인 변증 관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송명 이학은 태생적으로 순자 사상의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직접적인 측면은 그 심성론에 집중되어 있다. 진래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자의 학설은 표현 형식상에서는 비록 장재, 이정과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리와 기라는 두 차원에서 인성을 설명하고 있다. 진한 이후 유가 인성론 발전의 추세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정도와 방식으로 자연적 속성(氣)이 인간 본성의 일부분임을 긍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본성은 선함을 주로 삼으나 선과 악이 혼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줄곧 자연적 속성을 악행의 근원으로 간주하여, 그것의 본성으로서의 의미를 폄하하였다.”⁹⁹⁾ 즉, 송대 이학의 건립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다양하게 논의되어 대립 관계를 이루었던 심성 이해에 대한 종합적 사고로부터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주자의 철학이 맹자를 골간으로 삼되 순자 또한 비판, 수용했음이 명백하다면, 이는 순자 철학의 반철학적 면모를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正, 맹자)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정설’로 채택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사유 주체가 인식하는 세계와 인간을 전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기에 자기모순 혹은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발전, 개선하려면 반드시 반(反, 순자)과의 충돌 혹은 결합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합에 도달한 새로운 합(理學)은 정으로서의 본래 정체성과 목적성을 보존(aufheben)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을 부분 수용하여 더욱 개선, 보완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5. 청대 유가의 순자 재조명

당송시기에 순자 철학은 적극적인 사상적 영향력을 끼쳤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특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필자는 비록 송명 이학과 순자 철학 간에 일련의 필수적인 결합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송-명대를 거치면서 유학자 집단 내에서 순자의 학술적 지위는 점점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 가정(嘉靖 9年)에 이르러서는 공묘(孔廟)에서 배출되었다. 이는 순자 철학이 이학 체계의 건립에는 일련의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이후 송명 이학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는 또다시 적극적으로 토론되지 못했거나, 심지어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비하여, 명말 청초 유학자들의 순자 철학에 대한 인식은 매우 극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양상을 띤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청대 학술 사조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대 유학의 주류는 고증학, 훈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잡은 뒤에도 여전히 많은 이학자가 활동했지만, 명 유민으로 구성된 몇몇 유학자들은(그들 또한 이학을 배웠음에도) 망국의 원인을 송명이학 특유의 공담무실(空談無實)의 소치로 귀결하였고, 동시에 고대로 돌아가 유가 사상의 본의를 정밀하게 탐색하려는 소위 경학(經學) 중심주의

99) 陳來『朱熹哲學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180쪽.

가 재차 부흥하였다. 이 학술 사조는 다양한 방면에서 학술 풍토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술 사조의 전환과 순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영시(餘英時)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대의 고증학은 최초에는 경학, 사학에 미쳤으며, 이후에 제자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선진고적으로 고정, 훈고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경(經)들은 곧 제자(諸子)들(의 서적)이었기 때문이다.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당연히 『순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¹⁰⁰⁾ 즉 경학 사조는 선진제자백가 사상에 대한 탐구로 그 시야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경시되었지만 동시에 여타 제자들(노자, 묵자 등)과는 달리 유가의 일원인 순자에 대한 재평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기점으로 청대 전반에 걸쳐 유가의 순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줄곧 출현하였는데, 심지어 유월(俞越)과 같은 학자는 맹자를 낮추고 순자를 더욱 추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순자』 자의(字意)에 대한 교정으로부터 순자 철학의 의미 조명에 이르기까지, 청대는 그야말로 ‘순자학’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본문의 목적은 순자가 유학사 속에서 안티테제로서의 영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에 있으므로, 청대 유가의 다양한 순자 인식 가운데, 비교적 순자 철학의 시대적 영향력을 대표하는 관점에 주목하려 한다. 이에 해당하는 관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1) 공자를 표준으로 삼고 맹자와 순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 조화하여 그 지위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2) 이학의 이론 가운데 순자 철학의 요소를 발굴, 그 업적을 주장하거나, 3) 당대 주류 사조로서의 경학사 속에서 순자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순자 철학을 일종의 타자로 상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유학 발전사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종합적인 시각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관점, 즉 공자를 기준으로 맹자와 순자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은 사옹(謝壘)과 학의행(郝懿行)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맹자는 성선(性善)을 말했는데, 대개 사람이 선함에 힘쓰도록 한 것이 이 말이다. 순자는 성악(性惡)을 말했는데, 대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미워한 것이 이 말이다. 요약컨대 공자의 ‘서로 가깝다’는 말을 이은 것이니, 모두 편향된 논법이다. 성악만을 이르면 상지(上智)가 없게 되며, 성선만을 이르면 하우(下愚)가 없게 된다.¹⁰¹⁾

맹자, 순자의 뜻은 본래 합해지지 않음이 없다. 다만 주장하는 논지가 각기 편향된 것이다. 성인의 말씀에 근거하면, 본성이 서로 가깝다는 것은 선악을 겸하여 말하는 것이며,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는 것은 곧 배움이 달라 나뉘게 된다는 것이니, 후대 유가(맹자, 순자)가 이 뜻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¹⁰²⁾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추존하여 환공, 문공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맹자의 논변을 바로잡아 위급한 세상을 구휼하고자 하였다. 맹, 순의 뜻은 하나로 귀결된다.¹⁰³⁾

100) 餘英時 『中國近代思想史上的胡適』, 聯經出版公司, 1984年, 78-79쪽.

101) “孟子言性善, 蓋勉人以爲善而爲此言. 荀子言性惡, 蓋疾人之爲惡而爲此言. 要之, 繩以孔子相近之說, 則皆爲偏至之論. 謂性惡, 則無上智也, 謂性善, 則無下愚也.” 謝壘, 『荀子箋釋序』, 王先謙 『荀子集解』 考證上 13쪽 참고.

102) “孟荀之指, 本無不合, 惟其持論, 各執一偏. 準以聖言, 性相近即兼善惡而言, 習相遠乃從學染而分. 後儒不如此義.” 郝懿行, 『與王引之伯申侍郎論孫卿書』, 王先謙 『荀子集解』 考證上, 16쪽 참고.

이상의 언급들은 모두 맹자와 순자를 모두 공자의 뜻을 계승한 인물로 간주하고, 그들의 이론(異論)이 사실 공자 사상에 대한 편향된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의 행은 맹자와 순자의 시간적 거리를 고려하여, 순자가 맹자의 이론적 보완을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신유학 이론 속에서 순자 철학의 요소를 발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이학과 순자의 관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대진(戴震)과 전대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자가 예의를 말한 것은 곧 송유(宋儒)가 말한 리(理)이다. 순자가 말한 성은 곧 송유가 말한 기질이다.

송유가 세운 학설은, 맹자와 같은 듯하나 그 실체는 다르다. 순자와 다른 듯하나 그 실체는 같다.¹⁰⁴⁾

맹자가 말한 성선은 사람이 본성을 다 하여서 선에 노닐기를 바란 것이다. 순자가 말한 성악은 사람이 본성을 변화시켜 선에 힘쓰도록 바란 것이다. 그 입설이 각기 서로 다르나,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선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다. 송유가 성을 말한 것은 맹자를 주로 하였으나, 의리와 기질 둘로 나뉘었으니, 이미 맹자, 순자의 뜻을 겸하여 취한 것이다.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순자의 화성(化性)설을 암용(暗用)한 것이다.¹⁰⁵⁾

우선 대진의 말을 살펴보자. 그가 주목한 순자와 송유의 공통점은 예(禮)-리(理)와 성(性)-기질(氣質)의 유사성이다. 예와 리는 순자와 송유에게 있어서 모두 수양을 통해 획득해야 할 가치 속성인 동시에, 사회 질서의 근거로 작용한다. 성과 기질의 관계 또한 내재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순자가 본성의 내용을 자연 욕망 그 자체로 삼았다는 점에 대비하여 보면, 송유가 말한 기질지성 또한 이에 상당하는 내용적 정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 리라는 두 개념의 서로 다른 기원과 그 개념적 함의에 대해 엄밀하게 고찰한다면 그 차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순자의 예는 선왕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인간 도덕행위의 외적규범이자, 사회질서의 표준으로 작용한다. 그는 본성을 오로지 욕망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예의 발생 또한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질서와 혼란에 대응하는 마음의 결정(心之所可)으로부터 조성된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에서는 어떠한 초월적, 관념적 근거도 상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리는 도덕의 규범성이라는 외재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천적 선한 본성을 규정하는 형이상적 개념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

103) “孟遵孔氏之訓，不道桓文之事，苟矯孟氏之論，欲救時勢之急。孟荀之意，其歸一耳。” 같은 책, 15쪽.

104) “荀子之所謂禮義，即宋儒之所謂理，荀子之所謂性，即宋儒之所謂氣質。”，“宋儒立說，似同於孟子而實異，似異於荀子而實同也。” 戴震, 『孟子字義疏證』, 『戴震全書卷六』, 黃山書社, 1995年, 190쪽.

105) “孟言性善，欲人之盡性而樂於善，荀言性惡，欲人之化性而勉於善，立言雖殊，其教人以善則一也。宋儒言性，雖主孟氏，然必分義理與氣質而二之，則已兼取孟荀義。至其教人以變化氣質爲先，實暗用荀子化性之說。” 『跋荀子』王先謙, 『荀子集解』, 中華書局, 1988年. 15쪽.

는 당연히 도덕의 달성 방법(개인 수양과 치세)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유 흐름들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대진의 논법에 대하여, 어쩌면 우리는 이론구조 차원에서는 양자의 유사성을 긍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학은 맹자의 정신을 주로 삼는다는 점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전대흔의 논지 또한 사실 대진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는 특이하게도 ‘(송유가)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순자 화성설(化性說)의 암용(暗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 또한 ‘변화기질’과 ‘화성기위’ 간에 존재하는 의미함축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사실 견강부회하는 면이 있다.¹⁰⁶⁾ 그러나 전복미(田富美)는 청대 유가의 이러한 작업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청대 유가의 이 ‘화성기위’ ‘변화기질’의 해석 배후에는 하나의 전제가 존재한다. 바로 실천 행위로부터 덕을 이루는(成德) 경향이다.”¹⁰⁷⁾ 즉 당시 청대 유가의 이러한 순자인식은 선진 유가 특유의 ‘실천지학(實踐之學)’ 정신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유가의 심성론 구조의 차이는 세대마다 상이하지만, 그들이 심성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와 공부법으로부터 도달하려 했던 ‘성덕(成德)’은 도덕 가치의 실현과 사회 질서의 확립에 있었다. 그러므로 ‘화성기위’이든 ‘변화기질’이든 막론하고, 현실의 무질서와 혼란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긍정하고 이것의 개선을 수양의 중점 목표로 삼는 것은 순자의 유가 철학 본질에 대한 구현이며, 동시에 이학 건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포함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청대 유가는 경학사 차원에서 순자의 업적을 조명하였다. 이것은 청대 경학의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가운데 순자의 고유한 공헌을 조명함으로써, 그의 학술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예컨대 왕중(汪中)은 『순경자통론(荀卿子通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경의 학문은 공자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여러 경전에 더욱 공이 있다. ……무릇 칠십 제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한대 여러 유학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 전국시대와 진(秦)의 폭정과 혼란을 거쳤다. 육예(六藝)의 전수를 끊이지 않게 한 것은 순경이다. 주공이 육예를 짓고, 공자가 서술하였으며, 순경이 전수하였으니, 그 법도가 하나이다.¹⁰⁸⁾

여기에서 왕중은 유가 경전 전수라는 맥락에서 공자의 후계로 순자를 꼽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원의(胡元儀) 또한 『순경별전(荀卿別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대(漢代)의 『역』, 『시』, 『춘추』 연구는 모두 순경에 기원한다.¹⁰⁹⁾

106)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배다빈, 「清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호, 한국동서철학회, 2021 참조.

107) 田富美, 「“化性起偽”與“變化氣質”」, 『邯鄲學院學報』, 2016年, 第三期. 31쪽.

108) “荀卿之學，出於孔氏，而尤有功於諸經。……蓋七十子之徒既沒，漢諸儒未興，中更戰國，暴秦之亂，六藝之傳賴以不絕者，荀卿也。周公作之，孔子述之，荀卿子傳之，其揆一也。” 王先謙 『荀子集解』 考證下, 21-22쪽.

109) “漢之治易詩春秋者，皆源出於荀卿。” 胡元儀, 『荀卿別傳』, 王先謙 『荀子集解』 考證下, 39쪽.

이와 같은 순자의 한대 경학에 대한 공헌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왕종과 호원익의 언명은 송명이학의 의리(義理)중심적 사상 체계를 탈피한 청대 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순자 사상의 가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경학을 기치로 삼는 청대 유학과 순자가 상보(相補)적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대에도 여전히 이학은 관학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학과 경학, 그리고 청 중기 이후 흥성한 한학(漢學) 사조가 어우러져 비교적 다면적인 학술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순자 사상은 결코 주류 혹은 ‘정(正)’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학술 흐름 조성에 교각을 담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청유의 순자 연구로부터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 학문의 주요 목표는 송명이학 자체가 가지는 ‘결함’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극복한, 좀 더 개선 발전된 새로운 유가 학술 풍토의 성립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연구 방식, 즉 경학, 훈고학에 대한 중시는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순자의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당 이래 최초로 행해진 순자 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였으며, 마침내 ‘순자학’은 당시 학술계의 일각을 차지하게 된다.

6. 나가는 말

역사적 차원에서 소위 ‘변증법’ 개념은 두 가지 전제를 함의한다. 첫 번째, 정은 합에 대하여 불완전한 자기모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타자(반)과의 결합을 통해, 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갖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유학사의 전체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한당 이래로 순자와 그의 철학은 맹자승격운동과 이학의 성립 이래로 줄곧 주도적 지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이학의 건립 과정에서, 그리고 청유들의 재평가를 통해, 순자 철학은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당대 주류 사조와 내재적으로 긴밀한 영향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유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역사의 한 단락에서 순자가 이단으로 배척당하였다 할지라도, 이처럼 순자 철학 내부에 어떤 ‘대립자’로서 마땅히 존재해야 할 풍부한 철학적 함의와 사유체계가 없었다면, 유학사의 흐름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순자 철학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풍부하게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과거 유학사에서 순자 철학 자체가 줄곧 행사하였던 고유한 영향력 및 철학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程頤, 『二程集』, 中華書局, 1981年
戴震, 『戴震全書』, 卷六, 黃山書社, 1995年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商務印書館, 1937年
李覲, 『李覲集』, 中華書局, 1981年
王安石, 『王文公文集』, 上海人民出版社, 1974年
王先謙, 『荀子集解』, 中華書局, 2012年
張載, 『張載集』, 中華書局, 1978年
朱熹, 『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2011年
朱熹, 『朱子語類』卷四, 崇文書局, 2018年

항갑연, 「순자와 주자 도덕의식 구조의 유사성 - 일심론(一心論)과 공부론(工夫論)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28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3.

김준수,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제7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陳來, 『朱熹哲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年
田富美, 『清代荀子學研究』, 花木蘭文化出版社, 2011年
餘英時, 『中國近代思想史上的胡適』, 聯經出版公司, 1984年
中國古典文學基本藏書, 『韓愈文集匯校箋注』, 中華書局, 2010年
趙松, 「辯證法的歷史形態: 從樸素辯證法到實踐辯證法的發展」, 『學習與實踐』, 2018年
惠吉興, 「荀子對宋代理學的影響」, 『邯鄲學院學報』, 2012年, 第四期.
田富美, 「“化性起偽”與“變化氣質”」, 『邯鄲學院學報』, 2016年, 第三期.
顏複萍, 「北宋疑孟思想的探究」, 『名作欣賞』, 2012年, 第五期.
鄭開, 「作為中國古代哲學範式的心性論」, 『中國社會科學報』, 2018年

The dialectic characteristics of Xunzi's philosophy in the history of Confucianism

Bae, Dab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alectic status of the philosophy of Xunzi in history of Confucianism. Through the "Elevation movement of Mengzi" and "Zunmeng-Feimeng argument" of Tang-Song period, the status of Xunzi as the Confucianism master and his philosophical influence have been on the decline. Until the revaluation of Qing dynasty's Confucian and the transformation of academic thought took place, Xunzi was rejected as "The heretic" and did not have any of academic influence in Neo-Confucianism of Song dynast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of it that have been contorted that Xunzi cannot be fused in the development of Confucian change overly. This was stereotyped from the "Dao-tong(main line of descent)" that presented by Han Yu,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hilosopher of the Tang Dynasty, and moreover, it was strengthened by the continuation of following the Mengzi of mainstream thought.

Therefore, through the dialectic frame, I prove that the Xunzi actually exist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utual change with mainstream though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Neo-Confucianism, and to argue that the philosophy of Xunzi ha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philosophical paradigm for Confucians in Qing Dynasty.

Keywords: Dialectic, Antithesis, Xunzi, Human nature theory, Confucianism

논어에 비춰본 스포츠경기의 승패관과 장자의 놀이론

주동진
(영남대학교)

1. 序

동양에서는 하늘(天)을 그리기 위해 산(山)을 그립니다. 그러면 산 위의 빈 공간은 자연스럽게 하늘이 됩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달리 그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달(月)을 그리기 위해 주위의 구름을 그립니다. 달을 더 밝게 그리기 위해서는 주위의 구름(雲)에 덧칠을 합니다. 이를 동양 선비들의 아마추어 예술, 즉 문인화(文人畵)에서는 홍운탁월(烘云托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학(無學)과 절학(絶學)의 주장한 도가(道家), 즉 老子(BC 6세기경)와 莊子(BC365경-BC270경)의 사유방법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합니다. 그리고 인위(人爲)에 의한 것보다 무위(無爲)로 生을 즐기라는 노자와 장자의 생철학(生哲學)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天)을 그리지 않았지만 하늘이 생겼고, 달(月)을 그리지 않았지만 달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노자와 장자는 인생(삶)을 배움이라는 인위(人爲)의 피곤과 거친 학습(學習)으로 살지 말며, 또 하고 싶은 것을 즐기다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위(無爲)의 삶을 택하여 인생을 자유(自由)로 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장의 삶 철학이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양의 다양한 문화 중 스포츠는 오늘날 인류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를 멀다 않고 열리는 스포츠경기의 국제대회는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화제가 日의 뉴스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문화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산업은 물론 교육과 보건·의료와도 관련됩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오늘날 스포츠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만 따지는 승리주의, 건강에도 해로운 금지약물복용, 부적절한 편파판정(부정심판), 이기적인 승부조작, 금권으로 선수매수 등이 그것입니다.

스포츠팬들도 결과에 만족하며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을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 손흥민의 스포츠맨십이 이번 경기에 어땠나? 손흥민의 아마추어리즘은 어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나? 몇 골을 넣었는가가 관심입니다.

자본주의나 과학문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리와 스포츠산업화가 잘못 된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과유불급(過猶不及, 『論語』, 先進)”,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인권유린, 승부조작, 도핑(금지약물복용) 등, 즉 휴

머니즘 부재는 체육과학과 체육철학의 불균형이 틀림없습니다.

과학일변도로 발전한 현대스포츠에 대하여 인문학(역사철학)적 연구를 통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철학의 균형 및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동양에서 2,000여 년 동안 인간주의를 외쳤던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응용하여 오늘날 시대에 맞게 스포츠철학을 재단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사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달고 맛있는 단술(甘酒)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단술은 부패한 음식이 아니라 발효음식입니다. 삭히는 시간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동양의 고전은 단술과 같이 삭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소화를 돕기 위해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서둘러 먹거나 급하게 삭히면 체하거나 부패합니다.

유가의 ‘학습’에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도가의 ‘버림’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버리는데도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가의 인위적(人爲的) 학습도 중요한 교육방법이지만 도가의 인간의 자유(自由)와 무위(無爲)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양의 정신문화 유산이며 사상체계입니다.

스포츠에서 승리는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우승자의 월계관은 행운의 여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승리는 결코 주사위를 던져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지-승리’를 위해 부정판정과 승부조작, 선수매수와 약물복용, 폭력과 인권탄압 등 수많은 非-選手精神(Non-sportsmanship)이 스포츠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연구는 먼저, 성실한 자율자각(自律自覺)의 학습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야기한 공자-『論語』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가진 특권인 절대 자유(自由)를 통해 즐기는 인생, 유희(遊戱-놀이)하는 인간을 역설한 장자-『莊子』의 이야기, 즉 인위(人爲)와 무위(無爲)의 스포츠철학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논어』와 『장자』의 스포츠철학(동양 사상)을 응용하여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대-자본(상업)주의와 승리주의에 대하여 보다 휴머니즘적인 스포츠를 지향하자는 메시지(message)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서양의 스포츠맨십과 동양식 스포츠철학의 믹스(mix) 혹은 통섭(統攝, Consilience)이 될 것입니다.

2. 유가(儒家)와 도가(道家) 사상

동주시대(東周時代), 즉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770-BC221)에는 다양한 학설을 가진 많은 학파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을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합니다. 모든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듯 많은 학자들이 동시에 각기 학설들을 펼쳤다고 하여 백화제방(百花齊放) 혹은 다양한 학설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의미로 백화쟁명(百花爭鳴)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동양철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사상은 크게 유가(儒家)와 도가(道家) 사상으로 나뉩니다. 儒家思想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 不亦說乎 : 『論語』, 學而)’으로 시작하는 『論語』에서 알 수 있듯이 배움을 강조하지만, 道家思想은 無爲自然(도상무위이무불위道常無爲而無不

爲, 道德經: 37장 · 도법자연道法自然, 『道德經』: 25장)이라는 독특한 자연주의가 존재합니다.

유가사상을 위정자(爲政者)의 사상에 비한다면, 도가사상은 민중사상 혹은 은둔의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사상은 열심히 배우며 스스로 성찰하는 자율자각(自律自覺)으로 ‘완전한 사람(全人)’을 추구하는 ‘충(忠)’의 측면(Education for the Whole Man)과 타인을 배려하는 ‘서(恕)’의 측면을 추구합니다. “忠恕사상은 東西思想의 黃金律(Golden Ru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충’과 ‘너에 대한恕’로 易地思之는 물론 상대를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는 東西 聖人の 지혜이자 訓戒(주동진, 2018 : 13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사상은 자유(自由)와 유희(遊戱)를 적당히 누리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족하며 살라고 종용(從遷)합니다. 즉, “教育보다 絕學, 人爲(秩序.法規)보다 無爲(自由.自然), 修養보다 遊戱 등을 외친(주동진, 이창수, 김성일, 2017 : 176)”은 노장(老壯)의 도가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기치(旗幟)아래 “절학(絶學, 道德經, 20)”과 “말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教 : 道德經, 43)”을 주장하며 “피아(彼我)를 초월한 無何有之鄉을 추구(김동규, 권오륜, 주동진, 2019 : 125)”합니다. 노장이 주장하는 “자유와 즐길 역시 스포츠의 절대적 실존양식(주동진, 김진형, 2017 : 88)”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유가와 도가, 2대 지배담론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사상입니다. 반면, 서양은 근대 이전에는 基督社會로서 神 중심의 종교이론이 지배담론이었습니다. 근대 이후는 합리적 이성과 기계과학이 사회의 중심이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은 그 지배담론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논어』에 비춰본 스포츠경기의 승패관 : 儒家-孔子

‘논어에 비춰본 스포츠경기의 승패관’의 사상적 근거를 충서(忠恕)로 정하였습니다. 즉, 충(忠)은 자신의 향한 배움과정의 도(道)로서 자신에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서(恕)는 충(忠)을 이루고 나서 사회에 나아가 타인에 대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논어의 충서론(忠恕論)은 서양, 기독교의 성경(聖經) 장구,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서사상의 황금률(黃金律,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논어의 충서론은 ‘무조건적 사랑(Unconditional Love)’인 기독교의 사랑과 자못 다릅니다. 즉, 논어의 충서론은 분별(分別)적 사랑이다. 예(禮)와 의(義), 도(道)와 덕(德)에 의한 사랑입니다. 스포츠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는 분별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논어의 충서론과 같은 사유(思惟)의 틀에 맞춘 승패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논어에서 찾아본 승패관은 첫째, ‘자신’을 향한 ‘과정(배움)의 道(忠)’로서 승리 에 대한 마음가짐과 둘째, ‘타인’을 향한 ‘결과(승패)의 道(恕)’로서 ‘진정한 승리’와 ‘아름다운 패배’를 인지(認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어에 기술된 스포츠 활동의 장구(章句) 4가지를 확인 및 응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신을 향한 ‘과정(배움)의 道(忠)’로서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 : 爲己之學과 忠恕

(1) 장구(章句) (1) : 활쏘기의 예 1, 스포츠경기에서 힘과 승리를 과시하지 말라

공자는 활쏘기에도 품격(品格)이 있고 기풍(氣風)이 있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활을 낼 때, 과녁 가운데 가죽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은 것은 활을 쏠 때 힘의 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전의 도이다(子曰 射不主皮 為力不同科 古之道也 : 論語, 八佾).”

공자의 사상을 높이 받던 순자(荀子)는 “禮는 내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禮者 所以正身也 : 荀子, 修身).”라고 하였다. 공자는 주나라의 예(禮, 예절)를 흠모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는 주례복원(主禮復元)을 꿈꾸었다. 과거 주나라 때는 활을 낼 때 가운데 정곡이 있었는데 이 정곡의 가죽을 뚫지 않고 맞추는 활쏘기 경기를 하였다. 뚫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거리가 멀고 또 사람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살이 과녁을 뚫는다거나 정곡의 가죽을 찢어버리면 그것은 정확성보다 힘의 과시를 뽐내는 무식한 모습이라고 여겼다. “스포츠 자체는 경쟁과 예법을 갖춘 총체적 문화 활동이다(이돈준, 2017 : 39)”, 즉 활쏘기는 다만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힘을 과시하는 과녁 뚫기(가죽 찢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 한다. 이는 힘의 과시하는 품격이 없는 것이며 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자(군자)시 스포츠경기의 승자는 승리를 과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장구(章句) (2) 활쏘기의 예 2,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위로하라

논어에는 활쏘기 장면이 여러 곳에 실려 있다. 이것은 논어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전에는 활쏘기가 최고의 스포츠이자 레저이며 또한 심신수련의 활동으로 기술되어 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君子)는 다투는 일이 없지만, 활쏘기 할 때는 꼭 있다. 읍(揖, 예의적 인사)하고 서로 사양(辭讓)하면서 먼저 쏘라고 예를 지키다가 올라가서 활을 쏘고 내려와서 마시는데, 이것이 군자의 다툼이다(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 論語, 八佾)”

* 공자가 군자의 다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군자의 다툼이란 활쏘기이다. 활쏘기를 할 때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양보하다가 결국은 사대(활 쏘는 곳)에 올라가 활을 쏜다. 그리고 활을 쏜 뒤에 내려와서 술을 마시는데, 이것은 군자의 다툼(활쏘기)이다. “이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미덕이다(김주화, 1995 : 150)” 군자는 활쏘기를 하는데 누가 잘 쏘았는가는 경기 중에만 있지 활을 다 쏘고 난 뒤에는 다투지 않고 오히려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즐긴다고 하는 내용이다.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는 스포츠 경기 도중에 있는 것이 끝나고 나면 승패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 군자의 모습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승리는 내용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승리지상주의(비정적인)로 이어져 비인간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학준, 1999 : 75).” 한편, 오히려 승자가 패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뽐냄을 없애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 술로써 모든 것을 잊고 서로 즐긴다면 스포츠는 영원히 즐기는 상생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조기축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축구시합을 즐긴 뒤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때 좀 전에 있었던 축구경기는 시나브로 사라지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운동 뒤에 술 마시는 것, 이것은 이제 프로에서는 당연하지만, 아마추어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

(3) 장구(章句) (3) 낚시와 주살질, 스포츠인의 자세(준비되지 않은 자와 겨루지 말고 기다려라)

“공자는 낚시를 하지만, 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활을 사용할 때는 졸고 있는 새를 쏘지 않는다(子釣而不綱 弋不射宿 : 論語, 述而).”

* 여기에서 공자는 직접 낚시도 하고 활을 냈다(활을 쏘는 활터의 말). 그런데 공자는 낚시를 하지만, 강(綱, 반두 같은 것 : 반두는 양쪽 끝에 긴 막대를 달고 그물론 만든 물고기를 잡는 도구) 같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비겁하게 반두를 사용하여 쉽게 고기를 잡지 않고 낚시로 고기를 잡는 레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활을 통해 새를 사냥할 때도 졸고 있는 새는 사냥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졸거나 혹은 새끼 뺨 짐승, 다친 짐승 등도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공자는 야비한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하고 바른 규칙 내에서 사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러한 논어의 장구에서 공자를 군자(君子)로 대입하고 다시 군자를 스포츠맨으로 대입하면 스포츠인의 자세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승리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는 단순히 신체적 경쟁이 아니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묻는 윤리적 실천이며, 이런 까닭에 ‘아름다운 패배’와 ‘치욕적인 승리’라는 모순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 행위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함축하게 된다. 승리를 추구하되 그 행위는 반드시 정정당당해야 한다(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 2018 : 42).”

* 결국 논어식 스포츠경기의 승자는 약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준비되지 않은 자(졸고 있는 새)와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임을 훈계한다고 볼 수 있다. “忠을 개인적 공부, 恕를 사회(타인)적 배려로 간주하는 것(주동진, 2018 : 139).”임을 상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와 경쟁하는 것은 충(忠)은 물론 여(恕)까지 무시하는 非君子的인 태도이다.

2) 둘째, ‘타인을 향한 결과(승패)의 道(恕)’ : 진정한 승리와 아름다움 패배

(4) 장구(章句) (4) 말 수레 물기, 자신의 잘못을 수궁하고 즉각적으로 고쳐라

“달향(마을)의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 당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박학하지만 특별히 잘하여 이름이 난 것이 없다. 이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전적으로 잘 하는가? 말 수레를 잘 모는가? 활을 잘 쏘는가? 나는 말 수레를 잘 몰 수 있다(達港黨人 曰 大哉 孔子 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 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 執御矣 : 論語, 子罕).”

* 공자는 마을 사람들의 놀리는 말을 듣고 반성하면서 그들의 말을 되새겨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다고 말 수레를 잘 몰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타인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확인하는 공자의 이야기이다. 공자는 논어의 여러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수궁하고 또 잘못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고치는 사람이었다. 스포츠에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고치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다. 공자의 모습처럼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거나, 혹은 스포츠경기에서 패배를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이다. 패배는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이학준, 2018 : 1).”

* 결국 논어식 스포츠경기의 패자는 자신의 잘못과 못함을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또 고치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침에 도(道)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 : 論語, 里仁).” 이것은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獲罪於天 無所禱也 : 論語, 八佾).”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자각하여, 스스로 충(忠)의 사상을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것이 논어의 훈계이다. 승리는 한 때이며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논어의 지침(指針)으로 오로지 정도(正道)의 길을 택하고 부정한 방법(도핑-금지약물복용, 반칙, 승부조작, 선수 매수, 부정 심판, 편파판정, 폭력 등)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4. 『장자』에 비춰본 스포츠의 자유와 놀이론 : 道家-莊子

인간의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평등을 역설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獨存的 自由人 莊子, 그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놀이(遊)를 力說한 사람입니다. 莊子の 個人主義와 自由主義는 놀이(遊)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통적인 동양철학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通念입니다. 동양철학은 개인철학이 아닌 사회철학, 즉 공동체(‘나’가 아닌 ‘우리’=大同社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양사회에서 莊子の 철학은 상당히 위험한 思惟입니다.

따라서 동양의 전통적인 ‘공동체 통념’과 莊子の ‘개인적 자유사상’은 피할 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결국 莊子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隱喩法을 선택하였습니다. 莊子の 책, 『莊子』가 ‘寓言, 重言, 卮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 입니다(『莊子』, 『雜編』 :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莊子는 이러한 선택(隱喩)을 통해 자신을 주장을 교묘히 그리고 무난하게 펼쳐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莊子는 당시 학문에 대하여 “옛사람의 찌꺼기(『莊子』「天道」: 古人之糟魄已夫)”라

고 하면서 당시 학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老子와 같이 自然-無爲의 教育(無學, 絶學 등)을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莊子は 自由의 눈으로 ‘세상을 놀이터’로 보고 ‘삶도 그렇게 노닐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非教育이며 反教育입니다. 이와 같은 莊子の 놀이(遊)사상으로 스포츠를 보면 새로운 局面이 생성됩니다.

莊子の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莊子は 인간의 자유(自由)와 유희(遊戱=놀이)를 논한 최초의 학자, 꿈(夢)의 분석과 정신(精神), 그리고 기(氣) 철학(哲學)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談論한 학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각(思惟 方法論)은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Jacques Derrida : 1930-2004)의 해체주의(解體主義)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莊子は 그의 삶에서 지식보다 지혜를 택했습니다. 莊子は 자기 자신의 自由를 위해 또 개인적인 즐거움(遊戱)을 위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매우 존중하여,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절대적 상대주의(絶對的 相對主義)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실한 타자’는 장자의 세상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기 속에 전체를 대동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탓입니다. 『道德經』의 내용은 매우 난해하며 신비스럽지만, 『莊子』는 다양한 예문, 특히 그의 寓話는 익살스럽습니다. 老子的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莊子は 그의 저서 『莊子』에 老子보다 오히려 孔子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사상가, 그리고 자연의 森羅萬象들이 그의 책속에서 거침없이 등장하고 또 童話처럼 전개됩니다. 그의 책, 『莊子』는 10만자나 되는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司馬遷은 『史記』에서 莊子를 매우 박식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장자는 몽지방 사람이다. … 그의 매우 박식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의 학설은 노자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10여 만 자나 되는 그의 저서는 대부분 우언(우화)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문장력이 뛰어나고 세상사와 인정을 잘 이용하여 유가나 묵가를 공격했다. 비록 당대의 대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비판에서) 피할 길이 없었다(莊子者, 蒙人也, … 其學無所不闢, 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 然善屬書離辭, 指事類情, 用剝剝儒·墨, 雖當世宿學不能自解免也 : 『史記』, 「老子韓非列傳」).”

1) 莊子の 놀이와 자유

놀이(遊)는 自由와 함께 莊子の 철학코드라고 할 수 있다. 莊子の 놀이(遊)論은 自由와 함께 개인의 상대성과 존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莊子は 人爲(인간사회문화)로부터의 속박, 즉 인간의 법과 도덕윤리 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절대적 自由를 추구했다. 즉, “장자는 노자가 욕심을 버리고(無欲) 만족할 줄 알고(知足), 인위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아야(無爲自然)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을 본받고 참된 것을 귀하게 여기되(法天貴眞),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거나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있다(이상은, 2018 : 54).”

莊子の 道는 ‘自然法則으로부터의 道’이며, 自由는 ‘人間的 自由’이므로 ‘自然法則으로부터 人間的 自由’이다. “人間的 자유 실현은 道の 合一로 이룰 수 있다. 人間的 자유를 실현

하기 위해 먼저 道를 인식하고 체현해야 한다. 道의 체현은 物化를 통해 드러난다(이봉호, 1999 : 179),” 여기서 物化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만물과 함께 끝도 없고 시작도 없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지냈다. 만물과 함께 변화한다면 한 결 같이 변화가 없는 자와 같다(『莊子』, 「則陽」: 與物無終無始 無幾無時日 與物化者 一不化者也).” 이 내용은 知北遊에서도 나온다. 그 의미는 ‘자연을 따르라.’ 또는 ‘자연의 변화에 맡기라.’는 뜻이다. 道가 體現되는 “體道의 상태에서 人間은 완전한 自由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완전한 自由는 소요유하는 경지이고, 완전한 自由의 추구는 窮極적인 自由의 추구이다. 體道의 상태인 獨에서 진정한 自由의 경지인 逍遙遊의 경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이봉호, 1999 : 180),”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봉호(1999)의 해석은 ‘逍遙遊의 境地’이며, ‘體道에서 진정한 自由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道와 自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물이 道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체계로서 道와 만물사이의 결합이다. 이러한 존재자 전체에 관한 이론은 道와 만물의 동일성을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서 만물은 자유가 허용되고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만이 만물의 자유와 그 자유의 체계로서 道를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도는 실체이며 자유에 의해 요구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체계는 도이다(이봉호, 1999 : 185).”

莊子에게 있어서 自由는 놀이(遊)와 함께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관된다. 또한 莊子の 個人主義, 相對主義와도 연관되는 핵심 주제이다.

학교 현장, 즉 체육교육에서 스포츠를 행할 때 자유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학교성적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 스포츠를 행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며, 스포츠의 自然性を 거스르는 것이 된다. 自然性を 역행하는 행위는 莊子の 의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학교성적을 위해 무리하게 하다보면 몸의 부상과 상해가 생겨날 수 있다. 또 남을 이기기 위해 스포츠를 하다보면 반칙과 폭력, 승부조작 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自然性を 역행하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체육교육에 있어서 장자식 수업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살리는 자율적인 수업이 필요하다. … 장자식 체육교육은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시간을 잘 할애하는 것이다(김성일, 2019 : 320).” 그러므로 莊子の 自由思想은 自然性에 따른 것이며 스포츠 현장에서도 자연스런 자유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업하기 싫어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던 ‘아나 공 수업’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응용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아나 공 수업’은 학생들이 싫지 않았던 교육이며 오히려 인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주입식(암기식)의 답답한 교실수업에서 해방된다. 자신(학생)들만의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遊) 수업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아나 공 수업’은 非教育的이었다. 教育은 의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잘 설계되고 의도가 분명한 아나 공 수업’, ‘성실한 아나 공 수업계획서’에 의한 스포츠교육은 莊子の 놀이(遊)教育方法論과 相通할 것이다. 학

생들의 스포츠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아나 공 수업계획서’가 필요하다.

2) 莊子の 놀이와 즐거움

宋代에 와서 莊子の 즐거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宋代 儒學者들은 『莊子』의 내용, 즉 ‘공자와 안연’, ‘공자와 증자’의 대화를 통해 ‘즐거움’에 대하여 담론하였다. 여기서 宋代의 儒學者들은 궁극적인 경지의 즐거움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감정’으로 보고 이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감정은 장자는 물론 유학자들에 있어서도 수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자는 “‘감정’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벗어날 수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가에서처럼 특정한 감정을 붙잡아 지녀야 할지(固執) 아니면 온전히 없애야 할지(未發) 연연해하지 않고 무(관)심할 것을 요구한다. 장자에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불가피한 현상이다. 알지 못하는 사이 일어났듯이 내버려두면[忘, 休]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김형석, 2015 : 422).” 莊子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란 “‘逍遙’하는, 즉 ‘마음속에 天에 노니는’ ‘遊’와 연관되면서, 『장자』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괴로움’으로 상정하며 ‘말없이 마음으로 기뻐하는(無言而心說) 진정한 ‘즐거움’인 ‘天樂’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경지로 등장한다(김형석, 2015 : 392).”

즐거움에 대한 莊子の 이론은 至樂(지극한 즐거움)편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천하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내 몸을 살릴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 萬若 그런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크게 근심하며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그의 몸만 위하는 어리석은 것이다(『莊子』, 「至樂」 : 天下有至樂 無有哉 … 若不得者 則大憂以懼 其爲形也亦愚哉).”

장자는 ‘궁극적인 즐거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無爲와 無心을 논하였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하여 “「천도」편과 「천운」편에서 ‘천락(天樂)’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러한 ‘궁극적 즐거움’은 … 逍遙‘遊’에서도 잘 드러난다. …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가장 잘 묘사한 것이 … ‘홍몽’의 ‘놀이’모습(김형석, 2015 : 418)”일 것이다. 김형석은 ‘홍몽의 놀이’를 통해 逍遙遊의 본질, 즉 놀이의 궁극적 즐거움을 논하고 있다.

“홍몽은 이에 상반된 태도로 그저 의미없이 하릴없이 생각없이 ‘놀고’있을 뿐이다. 홍몽의 놀이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놀이의 재미도 보이지 않는다. 게임, 영화감상, 스피드, 도박, 연애, 문화예술 활동 … 등등 우리가 삶 속에서 즐기는 취미나 ‘놀이’활동은 예외없이 ‘재미’가 개입되어 있으며, 깊이 있는 교양일수록 ‘성취감’과 같은 ‘의미’도 개입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극을 강화함으로써 놀이의 ‘재미’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몽의 ‘놀이’는 그저 꺽충꺽충 뛰면서 허벅지를 두드리는 무의미한 동작뿐이다. 갓난아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노자 식의 관점에서 보면, 말달리고 스피드를 즐기며 사냥하는 왜곡된 즐거움에 빠진 어른들과 달리, 자신의 손가락

을 보고 까르륵대고 발가락을 입에 물고 노는 갓난아기의 행복감이 보다 더 이상적일 수 있다. 홍몽의 놀이는 이처럼 의미없고, 목적없고, 재미마저 없는 놀이이지만,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놀이야말로, ‘소요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다(김형석, 2015 : 419).”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즐거움은 놀이에서 올까? 莊子の 주장대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은 無心, 無爲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갓난아기의 눈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여도 까르르 대는 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즐거움일까? 이러한 모든 물음을 체육현장에 대입한다면 어떤 것들이 체육(스포츠)현상이 나타날까?

때때로 우리는 야구 글러브를 들고 혼자서 공을 하늘로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는다’ 반복된 모습을 본다. 또한 넓은 운동장 모퉁이에게 혼자서 아이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혼자서 달리는 사람의 무표정한 모습을 본다. 이런 모습은 모두 無心の 얼굴이다. 싫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를 행하고 있다. 깊은 생각이 없고 하릴없는 것 같지만 無我之境과 연관된다. 莊子는 이러한 自己喪失의 놀이상황을 天樂이라고 하였다. 莊子가 의미하는 놀이의 궁극적인 즐거움은 자기를 상실하는 無我이며 無心이다. 이러한 놀이라면 욕심이 없는 상태이며, 승부욕도 과시욕도 성과물에 대한 욕심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칙과 차별, 폭력, 승부조작, 상금 등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莊子の 이러한 無慾의 상태, 즉 無我, 無心을 체육교육의 현장에 추구하면 逆說的으로 無限練習을 통한 自我實現과 연결될 수 있다. 나를 잃음으로 나의 발전을 추구하는 역설적 훈련(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莊子가 力說한 吾喪我式 교육이다. 나를 잃음으로 지극한 즐거움을 통한 훈련의 방법이다. 莊子에 의하면 ‘吾喪我, 坐忘, 心齋의 훈련(교육)’은 즐거움의 또 다른 모습이다.

3) 莊子の 놀이와 삶

莊子の 놀이(遊)論은 상당한 학문적 논의가 요구되지만, 한편으로 莊子는 생활노동의 達人을 통해 노년의 경지와 노동의 승화 및 해탈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莊子는 楚나라 威王이 王侯將相의 富貴榮華를 준다하고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고달픈 서민의 삶을 택하여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 莊子는 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보았다. 그 가운데 그는 SBS의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과 같은 경지에 이른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인하여 노동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노님(遊)의 경지’에 이른 達人(匠人)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여기서 莊子는 다양한 생활의 達人을 통해 삶의 노님(遊)과 인간의 自由 그리고 無爲(自然)을 주장한다.

학문적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상관이 없거나 불필요하다. 어쩌면 사치스런 것이다. 삶의 무게에 고달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똥히 사유하여야 하는 고급스런 학문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장자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노동)도 놀이처럼 하고, 이를 즐기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생활의 달인들은 삶

의 지탱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이종성, 2013 : 44)”되어 일상생활의 고달프고 힘든 노동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즐거움의 경지에 올랐다. 일이 노동이 되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그러나 일이 노님(遊)이 되면 삶은 즐겁다.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이다. 일이 즐겁다면 그 직장은 莊子가 말한 ‘노님의 터’이다.

김성환(2013)은 오늘날 산업사회가 인간의 순수한 놀이를 변질시켰다고 하면서, 莊子는 인생을 즐기고 인생 자체를 놀이로 살라고 하였다고 한다. 莊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일로 보지 말고 놀이로 보고 살아가라고 하였다. 이는 인생을 ‘소풍같이 왔다가 가라’는 것이다. 놀이는 일과 달리 강제적이지 않다. 놀이는 질서유지를 위한 구속의 규정이나 법이 아니며 자유로운 활동이다. 놀이는 즐겁고 만족스런 활동이다. 莊子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일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일들을 ‘어린이들의 놀이처럼’ 간주하며 살라고 한다. 축구선수가 축구하는 것이 지겹지 않고 즐겁다면 그것은 놀이(遊)이고, 축구장은 ‘노님의 장소’가 된다. 역도선수가 역도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역도는 노동이며, 역도장은 힘든 일터가 된다. 일반적으로 A종목의 스포츠 스타는 A종목 스포츠를 하는 것이 즐겁고, 또 연습 시간도 고통스럽지 않게 여긴다. 오히려 연습도 즐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포츠에 노니는 것’이다. 그렇게 노닐다보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몸에 배게 되고, 한편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술도 생겨난다. 연습장에서 노니는 만큼 ‘스포츠의 기술수준과 창의력’은 비례한다. 莊子가 생활의 達人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선수는 연습을 할 때도 노닐어야 하며, 경기할 때도 노닌다면 그것은 놀이(遊)이며 기쁨이다. 노니는 것은 즐거워야 하고 또 그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莊子에 나오는 達人처럼 스포츠에서도 達人이 될 때 그의 체력과 기술은 ‘높은 경지(=달인)’에 오를 것이다. 거침없고 쉽 없는 즐거움이 있고 또 운동장(경기장)은 끝없이 노니는 장소가 될 것이다.

5. 結

중국, 春秋戰國時代에는 수많은 사상가(諸子百家)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사상은 당시 혼란한 시대를 打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교육철학은 대부분 孔孟의 儒家思想과 教育方法에 근거합니다. 教育은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며, 꾸준히 노력함이 당연한 교육의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공자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심성교육을 위해 인위적인 교육, 즉 인의예지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莊子는 自由의 눈으로 ‘세상을 놀이터’로 보고 ‘삶도 그렇게 노닐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非教育이며 反教育입니다. 이와 같은 莊子의 놀이(遊)사상으로 스포츠를 보면 새로운 局面이 생성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과 ‘하면 즐겁고, 보면 신나는 스포츠’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승부조작으로 결과를 미리 알게 되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연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순간적인 타이밍에 절묘한 연기가 있어야 신이 나며,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 탁월한 스포츠맨입니다.

오늘날의 스포츠 현장(경기장)이 非倫理의 부도덕한 장소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닐이 아니라 결과, 즉 성과물인 우승, 메달, 상금, 명예 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칙과 폭력, 부정판정, 도핑, 차별 등이 존재하는 것은 노닐이 아닙니다. 원래 스포츠는 놀이(遊)였었습니다. 스포츠의 근원은 ‘인간의 자유로운 노닐의 문화’였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시간과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대중속의 고독)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섭리를 간과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莊子의 삶처럼 人爲的인 것, 즉 옛사람의 찌꺼기(古人之糟魄已夫)나 王侯將相의 富貴榮華를 물리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대로의 삶에서 노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인생의 길(삶)에 노닐는 것이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삶에 노닐는 것은 人爲的인 욕심을 버리고 ‘自然의 攝理에 따르는 것’, ‘노동을 놀이(遊)로 승화시킨 생활의 달인처럼 사는 것’ 이것이 ‘莊子의 삶의 遊(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유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규범에 따르는 질서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필요합니다. 현대 스포츠는 현장(경기장)에서 유가의 질서체계와 도가의 자유체계를 적절히 응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보다 멋진 경기를 즐길 수 있게 재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계문명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원래 가지고 있던 스포츠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여 혹은 즐기기 위한 스포츠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경기에서 노력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여 승리를 낚아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문명의 발달로 스포츠의 근원을 흔드는 e-sports의 스포츠화(이 연구자는 이것을 게임으로 간주함,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신체활동이 없기 때문), 인체에 기계를 부착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사이보그(cyborg)형 인간’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체 호르몬 조작, 생체이식(팔다리 근육의 이식과 접합 등), 남성의 신체에서 여성의 성기만 수술하여 성-전환한 운동선수의 등장 등은 향후 스포츠철학에서 다루어야 할 ‘뜨거운 감자’입니다. 장자가 말했던 인간이 타고난 특권인 ‘절대 자유’와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는 ‘절대 평등’을 공자의 ‘분별(分別)적 사랑’과 잘 융합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지혜롭게 통섭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論語 / 大唐西域記 / 道德經 / 史記 / 莊子 / 中庸

김동규, 권오륜, 주동진, 2019, 노장사상에 비춰진 스포츠-아마추어리즘의 의미와 적용, 인문과학연구소 36.

김성환(2013), 자유와 놀이의 철학자, 장자(莊子), 제15회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학술대회 2013년 5월, 1-16.

김시천(2012), 정신(精神)과 유희(遊戱)-『장자』(莊子)의 ‘유(遊)’와 삶의 복원, 道敎文化研究 37, 107-137.

김영범, 주동진, 2012, 고대 동양 弓道の 교육철학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4).

김주화, 1995, 스포츠의 도덕철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형, 주동진, 2017, 스포츠경기에 대한 노장사상(老莊思想) 담론(談論) : 『도덕경(道德經)』과 『장자(莊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30.

김형석(2015), 장자의 즐거움, 동양철학 43, 2015, 389-425.

방진하, 이성미(2015),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오우크쇼트의 놀이(play) 개념 비교 연구, 교육철학연구 37(3). 77-103.

申旻正(2004), 莊子の 自由精神, 한국 철학논집 14, 239-266.

윤천근(2016), 장자철학에서 무심함 또는 지극한 즐거움의 미학, 동서철학연구 79, 5-41.

이봉호(1999), 莊子에서 自然 과 自由 - 하이데거의 자유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 철학논집 7-8, 169-195.

이상은(2018), 장자, 영원한 자유인, 공업화학전망 21(5), 52-54.

이종성(2012), 장자철학의 지혜와 현대적 의의, 동서철학연구 64, 129-153

주동진, 2015, 『論語』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 퇴계학논집 16.

주동진, 2015, 論語에서 찾아본 體育의 道: sportsmanship, 동아인문학 33.

주동진, 2018, 孔孟思想이 지닌 體育의 道 : 忠.恕, 爲己之學.爲人之學, 인문과학연구 33.

주동진, 김동규, 2019, 荀子の 禮사상에 비춰진 스포츠교육론, 한국체육철학회지 27(4).

주동진, 이승훈, 김성일, 2017, 『論語』에서 찾은 孔子의 健康觀, 한국스포츠학회 15(3).

주동진, 이창수, 김성일, 2017, 老莊思想에 비춰본 체육.스포츠철학 : 스포츠 아마추어리즘과 관련하여, 한국스포츠학회지 15(4).

주동진, 정연택, 2011, 고대 동양 궁(弓)문화의 가치와 의의 : 논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61.

주동진, 김성일(2019), 老莊思想에서 찾아본 체육의 道-체육교육 접근법과 스포츠 플레이 자세론에 대하여, 스포츠학회지 17(1), 161-169.

최진석(2004), 노장(老莊)에게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공맹(孔孟)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연구 6, 150-173.

中国科幻研究动态和课题

李承佑
(大邱韩医大学)

一、引言

2015年和2016年是中国科幻小说史上一个转折点。中国科幻作家刘慈欣的《三体》与郝景芳的《北京折叠》分获第73届和74届“雨果奖”，该奖项被称为科幻界的“诺贝尔奖”。2015年冬天美国总统奥巴马在夏威夷度假的间隙阅读了中国科幻小说。他读的就是刘慈欣的《三体》。刘慈欣的《三体》是不论在中国，在亚洲首次获得雨果奖的作品。2017年作为美国前任总统的身份参加在北京召开的全球教育峰会放华的奥巴马见到刘慈欣，既问了他的下部作品，又在书上得到了他的签名。刘慈欣和郝景芳的获奖意味着中国科幻小说在国际舞台上得到了认可。这还改变了在中国国内对科幻小说的认识和评价。对科幻界的认可和关心鼓励科幻小说的创作，由此科幻小说也获得了蓬勃的发展。光看2019年的情况全国动销科幻图书超过3000种，全年总码洋13.3亿元，较上年增长6.40%。

对于中国而言，科幻小说可谓是纯粹的舶来品。中国最早的科幻小说是译介作品——1900年逸儒和秀玉翻译的凡尔纳的《八十日环游记》，最早的原创科幻小说，则是梁启超作于1902年的《新中国未来记》。尽管中国科幻小说肇始于晚清，但其真正获得发展是在1949年后。因此，本文着重考察1949年之后中国大陆科幻小说发展现状，并将介绍研究动态和几个焦点。

二、中国当代科幻小说的历程

中国科幻小说的发展，便是与其他文学一样政治的影响纠缠之中进行的，形成了“三个时期”。中国当代科幻小说创作的第一个时期是在20世纪五六十年代，创作者主要是以郑文光、童恩正等人为代表的第一代科幻作家。这一时期科幻小说创作的主要特点可以概括为国家提倡、科普倾向、少儿阅读。1955年9月16日，《人民日报》刊发了题为《大量创作、出版、发行少年儿童读物》的社论，社论中明确指出，“优良的少年儿童读物是向少年儿童进行共产主义教育的有力工具……中国作家协会还应当配合中华全国科学技术普及协会，组织一些科学家和作家，用合作的方法，逐年为少年儿童创作一些优美的科学文艺读物，以克服目前少年儿童科学读物枯燥乏味的现象”。社论中不仅把少儿读物定性为“共产主义教育的有力工具”，更是要求作协要创作科普读物。也就是说，此时的科幻小说，实际上是极具功利性的少儿科普读物。这一时期的科幻小说主要有郑文光的《共产主义畅想曲》、《从地球到火星》、《征服月亮的人们》，童恩正的《古峡迷雾》、《五万年以前的客人》、《我的第一个老师》，肖建亨的《布克的奇遇》等。由于意识形态的规约以及科幻小说创作技术不纯熟等原因，这一时期的科幻小说显示出情节单调且高度模式化、热情有余而思考不足和低龄化幼稚化科普化倾向。《共产主义畅想曲》写的是一个新疆观光代表团在一位老教授的带领下，游览20年后的北京，发

现北京山清水秀，经济繁荣、科技发达，并对首都和祖国的发展发出由衷赞叹的故事：《五万年以前的客人》讲述的是少先队员郭小林无意中发现一块“奇异石头”后，同科学院教授李明哲共同研究，得知此块石头是从火星而来，最终证明火星上有高级生命存在，因此激发了无数青少年的天文梦。这一写作模式的特点是虽然呆板，但却十分高效：简单的故事能够降低读者的阅读难度，丰富的科学知识成为吸引青少年的绝佳设计，充满希望的结尾正符合国家意识形态的要求。这一代科幻作家们为中国科幻小说作出了符合时代要求的责任。

中国当代科幻小说创作的第二个时期是在“文革”结束至20世纪80年代中期，作家主要是以叶永烈、郑文光、童恩正、刘兴诗等。这一时期的科幻创作同样是在国家的号召下开始的。1978年3月，中共中央召开了全国科学大会，为科学辩护、为科学技术工作者正名，在客观上无疑促进了广大知识分子的工作积极性，也为作家扫除了由于“文革”而造成的意识形态障碍。虽然依旧有科普化和少儿化倾向，但出现了对科幻小说文体独立性的自觉思考。这时期的主要科幻小说有叶永烈的《石油蛋白》、《小灵通漫游未来》、《杀人伞案件》、《乔装打扮》、《秘密纵队》等。这些小说是一系列同公安侦查紧密结合的科幻小说，大大增强了科幻小说的故事性和可读性。童恩正于1978年在《人民文学》发表了《珊瑚岛上的死光》。郑文光于1979年出版了新中国第一部长篇科幻小说《飞向人马座》，并陆续创作了《古庙奇人》、《大洋深处》等中短篇小说。刘兴诗则创作了《美洲来的哥伦布》、《陨落的生命微尘》等作品。然而1983年开展的“清除精神污染”运动中，科幻小说创作几近销声匿迹。

中国当代科幻小说创作的第三个时期是20世纪90年代至今，作家主要是以星河、王晋康、刘慈欣、韩松、吴岩等人，他们又被称作“新生代”科幻作家，他们的主要创作阵地是《科幻世界》。与以前的科幻作家相比，“新生代”作家多数受过正规的高等教育，拥有傲人的学历和专业的技术，并伴随着中国科技的崛起而成长。同时，由于中国“改革开放”的不断深化，这一代作家接触到了更多西方的文艺思潮和文艺作品，其中有大量的科幻小说。

这一切都决定了“新生代”科幻作家的作品必然与前两代作家风格迥异。在写作风格上，他们已经脱离了少儿科普的限制，都各有千秋。韩松的小说幽暗诡异，刘慈欣的小说气魄恢宏，王晋康的小说充满人性的温暖和理性的思考。在作品主题上，他们更多思考的是诸如技术与人性、科技与社会、虚拟与现实等一系列宏大却又不失深刻的问题。比如韩松的《地铁》系列小说深刻探讨了高科技如何异化人与社会的问题；刘慈欣的《三体》则集中探讨了技术是否能拯救人类的问题；王晋康的《与吾同在》探讨了人类在面临危难时，是否应该为了生存而放弃人性的道德困境问题。总的来说，“新生代”科幻作家们的作品主题是现代的，他们关注现实而不局限于现实，他们关注科技，却又想要剥开科技的外表，从中看出科技超越自身而生发出的一系列关乎伦理、道德乃至人类命运的要素，并努力预言未来社会，具有相当的未来性。

三、中国当代科幻小说研究现状

2015-2016年不仅是中国科幻小说界的转折点，中国科幻的研究史上也是一个转折点。这点我们可以从研究数量中看出来的。仅以中国知网(CNKI)为例，以“中国科幻”为关键词进行搜索，辅知知网的统计数据，可知从2012年至2021年，相关文献数量达1,088篇。其中含有硕博学位论文323篇，CSSCI来源期刊论文150篇。

年度	数量	年度	数量
2021	98	2016	72
2020	117	2015	55
2019	226	2014	25
2018	59	2013	35
2017	55	2012	17

从以上数据可以看出，对中国当代科幻小说的研究，从2015年起迅速增加，到了2019年形成一个高点。在整个文学中虽然数量还不算多，却一直保持着增长的势头，并有成为研究热点的趋势。

从研究主题来看形成以科幻小说为主，还有科幻电影为补的局势。科幻小说中刘慈欣的《三体》得到最多的关心。科幻电影中《流浪地球》得到最多的关心。

排名	主题	数量	排名	主题	数量
1	科幻小说	132	6	中国科幻小说	40
2	科幻电影	84	7	《流浪地球》	28
3	刘慈欣	58	8	中国科幻文学	20
4	科幻文学	48	9	科幻片	16
5	《三体》	42	10	科幻作品	14

早期中国科幻小说理论建构的主力军，恰恰是科幻小说的作者们。譬如，童恩正在1979年第6期《人民文学》上发文，他认为科学文艺与科普作品是有所不同的。在写作目的上，他认为“科普作品是以介绍某一项具体的科学知识为主，它之所以带有一定的文艺色彩，是为了增加趣味，深入浅出，引人入胜……而在科学文艺作品中，它的目的却不是介绍任何具体的科学知识，而与其他文艺作品一样，是宣扬作者的一种思想，一种哲理，一种实事求是的态度，一种探索真理的精神，概括起来讲，是宣扬一种科学的人生观”在写作方法上，他认为“科普作品不论是以何种文艺形式出现，都必需忠于科学，它是以逻辑思维为基础的……科学文艺则与此不同，它是通过艺术形象的塑造、故事情节的展述或某种意境的渲染，简介而又自然地表明作者的意图”在文章结构上，他认为“科普作品由于要介绍科学知识，就不能随意铺展……科学文艺则没有这种局限，它是文艺的一个品种，它所遵循的是文艺的规律，作者艺术构思的天地是异常广阔的。”另一位科幻作家肖建亨也在1980年撰文，对曾经定义模糊、手法僵硬的科幻小说创作方法表示了质疑：“无论哪一篇作品，总逃脱不了这么一关：白发苍苍的老教授，或戴着眼镜的年轻工程师，或者是一位无事不晓、无事不知的老爷爷给孩子们上起课来。于是误会——然后谜底终于揭开；奇遇——然后来个参观；或者干脆就是一个从头到尾的参观记——一个毫无知识的‘小傻瓜’，或是一位样样好奇的记者，和一位无知不晓的老教授一问一答地讲起科学来了。参观记、误会记，揭开谜底的办法，就成了我们大家都想躲开，但却无法躲开的创作套子。”从这些论述中可以看出，此时的科幻作家们，已经清晰地认识到科幻不等于科普，科幻也不等于少儿故事，并希望在故事模式上有所创新而不落入俗套。同时，他们也意识到，科学因素仅仅是科幻小说的一个因素，尽管它不可或缺，但它决不能“喧宾夺主”，将小说的文学性驱逐出去。这样的思索和实践对于科幻小说创作来说，无疑是十分有益的。吴岩于 2008 年编写出

版的《科幻文学理论和学科体系建设》从科幻小说的定义、题材、叙事和结构、人物和场景、世界科幻文学简史、科幻文学的教学等方面，详尽呈现了科幻文学的全貌。他并不局限于中国的科幻文学，而是将其纳入全球视野范围之内，用全球化的眼光来观照中国的科幻文学，可谓为今后的科幻理论建构打下了坚实的基础。他在2013年出版的《科幻文学六讲》则以比较平易近人的口吻，谈论了中国科幻文学的成就与不足、科幻文学的功能、如何研究科幻等问题。

随着科幻小说的勃兴，对科幻小说的研究也增加了。萧星寒在《关于科幻“未来主义”的思考》中，从科技观、未来观、宇宙观、读者意识、问题意识、创新意识6个方面，对吴岩提出的“科幻未来主义”作出了界定，并认为“对中国科幻而言，‘科幻未来主义’这条新路，既是挑战，也是一个巨大的机遇，一个中国科幻走上中国之路继而走向繁荣昌盛之路的可能性”。刘媛在《论中国科幻小说科学观念的本土性特征》一文中指出，中国的科幻小说若想屹立于世界之林，必须注重其自身的本土性，尤其需要注意“科学幻想/科学意识”“科学幻想/现实世界”和“科学幻想/中国风”等三方面的问题，作好平衡，做好本土书写，方能走出一条成功的道路。王德威在《史统散，科幻兴——中国科幻小说的兴起、勃发与未来》中提出了中国科幻的“幽暗意识”论，中国科幻应该以“最曲折隐秘的方法，探触和想象人性和人性以外之谜。”除此之外，汤哲声的《论中国当代科幻小说的思维和边界》、王卫英的《关于发展中国原创科幻的几点思考》等文章对中国当代科幻小说理论体系的建构也有一定的帮助。

对科幻作家的研究也陆续地出现了。马予华从郝景芳的《北京折叠》入手，认为《北京折叠》是作者借科幻之手，体现其对社会深层结构的思考，并对贫富不均进行了现实影射的作品。飞氲《超越先锋文学的脾性——漫谈刘慈欣及科幻文学》认为，刘慈欣的创作的巨大魅力在于“一种冷酷到底的理性和一种粒子风暴般扑面而来的澎湃激情的交融，以及笔下人物命运的抉择”。韩兵则认为刘慈欣的科幻小说的主要特点是“崇尚科学、普及科学传统的延续”“面向现实、寄托怀抱传统的承袭”“对中国科幻传统的纠偏和发展”。除此之外，针对韩松、吴岩、童恩正、郑文光等，亦有评论文章，兹不再赘述。

四、最近中国科幻小说研究的焦点

2020年10月17—18日，以“中国科幻研究新时代”为主题的科幻研究青年学者论坛在重庆大学A区文字斋报告厅成功举行。这次论坛由重庆大学人文社会科学高等研究院主办，清华大学中文系、四川大学文学与新闻学院协办，共包含十场专题发表和两场圆桌讨论。来自中国各地以及日本、印度、意大利等国的三十余位学者参加了论坛研讨。这次论坛中对中国科幻研究提出不少新的研究主题。主要主题为本土化、未来性、现代性、人工智能等。具体内容如下：

其一、科幻文学与其他文类的关系：本土化。王瑶以批判理论为主线，考察了1970年代以来关于“何谓科幻”的一系列讨论，侧重苏恩文的“认知性陌生化”理论和托多罗夫、J·P·泰略特等学者对“奇幻”、“科幻”、“异想”等概念的界定。王瑶认为，与1970年代欧洲批判主体和批判对象都相对明晰的情况不同，当代中国语境中，不管是科幻、奇幻还是现实主义都与20世纪中国革命的逻辑深度纠缠。面对当今中国与世界的复杂现实，我们应站在中国位置上，探索如何在历史唯物主义的意义上建构一种新的批判理论。

其二、“未来小说”与“科幻小说”之间的关系。张凡对“未来小说”的源流进行了梳理，并认为，当

代“未来小说”应当具有面向未来的先锋性、扩展性，并作为一种“反对话语”体现“现代人”对未来的强烈冲动，描绘世界的多重可能性。随着科技的高速发展、未来与现实之间界限的模糊，当前科幻小说的写作风格与叙事模式很大程度上已落后于时代。对“未来小说”这一概念的梳理与辨析有助于我们更好地认识科幻小说的特征与潜力，突破现有窠臼，不断探索新的叙事方法和审美形态，激活科幻小说乃至小说整体的未来视野。

其三、科幻小说和现代性的关系。姜振宇认为，“科学修仙”则以现代科学知识为基础，为我们提供了关于“另一种现代性”的想象。科幻作为一种文学、文化传统，已对网络文学的叙事与审美产生了深刻影响，而网络文学又反过来为中国科幻提供了新的话语资源与创作题材，将二者相结合进行研究，有助于我们更好地把握这个“未来已经到来的时代”。

其四、科幻文学中关于人工智能和人造人的想象及其社会文化意涵。黄平回应道，人工智能在未来完全有可能全面超越人类，并创造出超越“人学”的“文学”，但问题在于我们应对其有一个价值判断。人工智能的发展背后始终是资本的驱动，人与人工智能的斗争终归是人与人的斗争，而人工智能对人的全面胜利背后事实上是一部分人对另一部分人的全面压制。杨庆祥关注围绕人工智能展开的历史、政治想象与叙事，认为人工智能相关讨论不应局限于技术层面，还应触及人们对于“新人”“新物种”乃至“新世界”的想象。人工智能的出现很有可能超越当前政治议程中的“左”“右”之争，为当今时代渐趋枯竭的有关“新人”的政治想象注入新的可能性。

现在学界对中国科幻小说的本土化、未来性、现代性、人工智能的社会内涵文化意涵问题的研究只是起步阶段，许多核心概念待深入辨析。但对科幻小说的研究和目前高技术时代浪潮中人类将面临的问题有直接的关系，需要进一步的研究。

An Analysis on Study of Chinese Science Fictions

Lee Seung Woo
(Daegu Hanny Univ.)

<Abstract>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contemporary science fiction formed into creative pattern of "three periods" in the interaction with the state and society. At present , The research of contemporary science fiction in China also has a new subject of localization, future, modernity and AI. These topic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s facing humanity in the current wave of high-tech times and need further research

Key words : Science fictions, research status

문학이 바라본 팬데믹 ‘이후’

강민희
(대구한의대학교)

1. “한 개의 단백질로 둘러싸인 나쁜 소식”의 시작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메더워(Peter Brian Medawar)는 바이러스를 “한 개의 단백질로 둘러싸인 나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문장은 ‘한 개의 단백질’이라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나쁜 소식’으로 운위되는 감염증의 발발로 인한 피로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 개의 단백질’에 불과한 바이러스는 이 단순성 덕분에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숙주와의 관계를 자유로이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숙주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히 안녕한 상태”¹¹⁰⁾가 훼손되지만, 양자가 오랫동안 상호 관계를 맺고 적응하는 사이에 바이러스는 독성이 줄고 숙주는 내성이 증가하여 일종의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 동물종의 몸속에 들어가는 중간 전파가 그것이다. 바이러스와 새로운 숙주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려면 이전의 숙주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한 개의 단백질로 둘러싸인 나쁜 소식”을 견디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횡행과 무관하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후’에 대한 요구가 대중의 상상 속에서 은유(metaphor)로 존재할 수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질병 정치적 의미는 물론, 어떤 상태가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미적기준을 포함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성격을 내재한다. 요컨대 질병은 환자나 의사, 사회의 역할을 기술하고 확립하며 이러한 역할을 권리와 의무로 구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미적·윤리적으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무엇인지를 거의 필연적으로 살피게 된 것이다.

이 글은 감염병으로 대표되는 질병이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한 사실적 상태를 기술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태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면서 정치적·미적·윤리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추동한다는 전제 아래 질병이 어떻게 은유로 기능하는지 돌아보고, 감염병을 소재로 한 『SF엔솔러지 Pandemic』의 수록작품을 분석하여 ‘지금, 여기’의 문제와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¹¹¹⁾를 살펴보고자 한다. SF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애써 들춰내기 싫어하

110) 1958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정의를 시도했다. Cons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preamble), *The First then Year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W.H.O., 1958.

111) 2020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과 세계경제포럼 등의 칼럼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는 감염병의 유행 이후인지, 감염병의 종식 이후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정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post)’라는 지극히 중의적인 의미로 쓰여왔던 단어의 함의를 도출하는 게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는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보여”¹¹²⁾준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적합한 장르가 될 것이다.

2. 팬데믹의 공포와 뉴노멀의 요구

김초엽의 「최후의 라이오니」는 멸망한 행성을 탐험하는 유품정리사의 이야기다. 주인공인 ‘나’는 “보편의 인간 종보다 훨씬 담대하고 강인하며 용감”하다는 ‘로몬’이지만 평균 이하의 연약한 개체다.

‘나’는 파괴된 거주구 ‘3420ED’에 홀로 파견되어 남겨진 기계들에게 붙잡힌다. 기계들의 대장인 ‘셀’은 ‘나’를 ‘라이오니’로 오인해 기억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셀’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은 ‘나’가 ‘라이오니’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어떤 개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저 ‘3420ED’의 과거와 ‘라이오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할 뿐이다.

“이곳은 한때 불멸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라이오니는 이곳에 살던 불멸인들의 복제였고, 동시에 결합 있는 복제였어요.”

— 김초엽, 「최후의 라이오니 3」, 『SF엔솔리지 Pandemic』, 밀리의서재오리지널, 2020, 12쪽.

‘3420ED’의 주민은 “인접 문명보다 월등한 생명공학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자신들의 건강한 복제를” 생산하고 “기억과 자의식을 단절 없이 전송하는 기술”을 통해 “마침내 불멸을 획득했다.” 그러나 “불멸인들의 도시”의 이면은 “질병과 사고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도시”인 탓에 ‘감염병 D’와 “수백 년간 유예된 죽음에 대한 뒤늦은 공포”는 ‘불멸인’을 패닉에 몰아넣는다.

한편 ‘불멸인’이되 복제 과정에서 탄생한 결합 있는 개체였던 ‘라이오니’는 죽음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집단으로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기계를 구해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계획을 달성하기 전에 ‘불멸인’들은 폐허가 된 고향을 버리고 우주로 떠났다. ‘라이오니’는 ‘셀’을 포함한 기계들과 살아가고자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망가진 세상을 복구할 수 없었다. 행성은 더 이상 ‘라이오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결국 그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3420ED’를 떠났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남겨진 ‘셀’은 ‘라이오니’를 기다리며 행성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설의 말미에서 ‘나’는 ‘로몬’의 구조선 덕분에 무사히 귀환하지만 눈을 감으면 ‘라이오니’와 ‘셀’이 서로의 손을 잡고 불행하지 않게 행성의 멸망을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나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셀을 만난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도시를 지키며 소리 내어 웃고 있다. 파편들이 셀의 위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그 풍경 속에는, 내가 아닌 라이오니가 있다. 죽어가는 셀의 곁에서 라이오니는 셀의 손을 잡는다. 둘은 멸망을 맞이하고 있지만 불행하지 않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나의 원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최후이자 유일한 존재였던 라이오니의

112) SBS뉴스 미래팀, <코로나19 시대? 지금은 SF를 읽을 시간!>, 《SBS NEWS》, 2021.01.1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602)(검색일자 : 2021.11.21)

모습을.

－ 김초엽, 「최후의 라이오니 5」, 『SF엔솔리지 Pandemic』, 밀리의서재오리지널, 2020, 12쪽.

지구인은 필멸의 존재이고, ‘3420ED’의 ‘불멸인’은 말 그대로 불멸의 존재지만, 양자는 팬데믹의 공포 앞에서 표준(normal)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감염병보다 빠르게 전파되어 세계 곳곳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추동했다.

그러나 「최후의 라이오니」의 ‘감염병 D’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지금, 여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무엇인지를 고민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요컨대 우리의 인식에 자리했던 표준이 신뢰를 잃는 순간 새로운 표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셈이다.

3. 팬데믹의 공포가 바꾼 일상의 언어

감염병의 유행과 함께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간의 신체는 무엇일까? “카드모스의 집은 감염병으로 비어가고, 검은 하데스는 신음과 애곡으로 변영을 누리”¹¹³⁾던 때로부터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입’은 비말감염이라는 단어와 함께 감염병의 은유로 자리해왔다. 비말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비교적 수월한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 거센소리를 포기한다면 어떨까? 배명훈의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시작된다.

‘나’는 역사학도로 “역사학 연구자로서 선입견 없이 한 시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도서관처럼 생긴 문서고” ‘격리실습실’에서 “2020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정보만 모아놓은 근대사 아카이브”를 연구한다. ‘나’의 주제는 “2020년에 한국에서 처음 열린 걸링 리그”다. “아무도 몸사움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반정 시비도 일어나지 않으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벌어지는 지열한 승부의 세계!”를 자랑하던 이 리그는 그러나 “그 유명한 2019년 감염병의 여바”로 “블레이오브를 고압에 두고 중단되고 말았다.”

‘옛날 영상’에 등장하는 ‘근대인’에 대한 ‘나’의 불편한 감정은 소설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나’에게 “2020년 사람들의 발성은 너무 이상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전지 오래 듣고 있기가 거북”할 정도이고, “선수가! 경기 중에!” “짐을 뺐는” 야구 경기는 충격에 가깝다. “2020년이, 그 유명한 대감염병의 시대가, 근대사의 변곡점으로 다뤄지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일까?

실습실에 들어서는 안 되는 사전 지식이지만, 근대인들에게 2020년은 혐오를 재발견하는 시기였다. 혐오가 최초로 발명된 게 아니고, 잠재해 있던 혐오를 하나하나 그집어내기 시작한 시대라는 뜻이다. 감염병이 전 세계에 버지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증오하기 시작했다. 원래도 싫어했지만 이제 더는 숨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혐오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다. 말

113) 소포클레스, 강대진 옮김,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21쪽.

도 안 되게 많았다. 슬모없는 21세기인들 간으니.

— 배명훈,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3화」, 『SF엔솔리지 Pandemic』, 밀리의서재오리지널, 2020. 8쪽.

‘나’에게 2020년은 “혐오를 재발견하는 시기”였다. 2020년을 기점으로 ‘근대인’은 “2019년의 삶을 불결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2021년 사람들은 2020년의 생활 양식마저 비위생적이라 느꼈”다. ‘나’의 세계에서 시간이란 이전 시간을 부정하고, 혐오함으로서 우월감을 느끼는 시대에 불과하다.

소설의 말미에서 ‘서한지’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은 ‘나’는 “달줄같은 거 필요 없”지만, “그가 나에게 “탈출”을 권했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잡”고 만다. 이 과정에서 “서한지에게서 날아온 침이 얼굴에 닿”는 “비명을 질러야”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만 ‘나’는 “가다르시스를 느꼈”을 뿐이다. “탈출” 후 ‘나’는 “오염되었고 실습은 실패”하였음을 알았지만, 이와 동시에 ‘장문으로 막여 있었던 22세기’를 통해 “비로소 2020년을 이해하게 되었다.”

5. 결론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좇아¹¹⁴⁾ 은유(metaphor)를 “한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기”¹¹⁵⁾라고 정의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지극히 ‘의학적’인 동시에 ‘문학적’이고 ‘신화적’일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연민과 공포를 정화하여 진실의 명료한 인식과 도덕적 고양에 도달하는, 질병에서 비롯한 온갖 오염된 감정과 반지성적 신화화에서 벗어나 “병은 메타포가 아니며, 병을 대하는 가장 진실한 방법이자 병을 겪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메타포적 생각을 되도록 정화하고 그것에 가장 저항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말이다.

114)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생리혈, 정액, 대소변 등을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서사시, 비극 그리고 희극으로 대표되는 허구의 세계에 적용했다. Aristotle, *Poetics,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 ed. Vincent B. Leitch, et al., New York, W. W. Northon & Company, 2001, p.95.

115) Susan Sontag, *Illness as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Picador USA, 1978, p.93.

Literature's Perspective on the Pandemic "After"

Kang, Minhee
(Daegu hanny Univ.)

In the process of enduring "bad news surrounded by one protein," we realize that anxiety, fear, and demands for "After" may exist as metaphors in the public's imagination regardless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erms of disease and political significance, it also includes aesthetic standards in terms of what is beautiful or ugly, and in terms of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In short, disease describes and establishes the role of patients, doctors, and society, and structures these roles with rights and obligations, and almost inevitably observes what new standards are politically, aesthetically, and ethically.

This study describes the actual state of the disease caused by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COVID-19, and discusses the so-called post-corona issue by looking back on how the disease acts as a metaphor for political, aesthetic and ethical standards.

In order to increase the density of the discussion, we will analyze the works included in the *SF Anthology Pandemic* published in 2021 and look at the world of "Now" and "After." Science fiction will be a good genre for this discussion in that it shows the dark side of the story that you don't even think about or want to reveal on purpose.

晚明民间的文学生活样态实录

——综合性日用类书中的文学门类

苏 航
(成都大学)

与传统史学注重上层阶级与统治者不同，自60年代以来在欧美兴起的“新史学”更加关注下层社会与一般民众。受西方学术理论的影响，以及历史学科发展的必然要求，新时期以来，中国学界的研究着力点也开始发生变化，基于普通民众日常生活的历史叙事逐步替代以往以权力斗争及重大历史事件为中心的叙事模式。史学界的这种转变，也为文学研究提供了一种新的研究思路，即日常生活的视野。一批研究古代文人——特别是下层文人日常文学生活的著作开始出现。但遗憾的是，学者们不约而同地忽视了对古代普通民众文学生活的书写。在古代普通民众的日常生活中，文学处于什么地位，与日常生活存在怎样的互动关系？他们喜欢什么样的文学？这些文学与传统文人士大夫的文学又有怎样的区别？这些关键问题都还有待进一步厘清。

关于这些昔日的被支配阶级的行为和态度，相关资料十分稀缺，这显然是此种类型的研究所面对的一个主要障碍，在传统的文学材料中很难见到能够反映民间文学生活的内容。因此，我们必须打破思想藩篱，跳出思维局限，从那些从来不被视为文学材料的民间书籍下手，或许才能找到突破口。而在众多的民间坊刻书籍中，包罗当时民间生活方方面面的综合性日用类书（以下简称“日用类书”）是比较合适的研究对象。

不同于官修大型类书及文人学者私撰类书，日用类书乃是由民间书坊编刊，主要供下层民众日常实用、道德教育，及文化娱乐之需要，大抵以提供士农工商等普通大众随时使用为宗旨，性质如同今日俗称之家庭生活手册，也被称为“日用百科全书”。正是由于日用类书的内容广博，又贴近民间，近年来被广泛应用于社会生活史、商业史、法制史等各类相关研究中，但对于此类材料中文学门类的特性及其价值、意义等，还鲜有论述。

“文学生活”既是文学的阅读、接受和消费问题，又是美学、文学理论问题。它涉及到社会的文化生活、精神结构和人们的日常生活等诸多层面，以体量庞大、内容全面的日用类书为研究材料，探求此时期民间的文学生活，可以使研究者在更广阔的民间生活中寻求文学的定位，这是专科性日用类书或其他通俗性书籍所没有的优势。此外，日用类书作为书坊编刻的一类供民间日用的书籍，为了盈利，书坊主（编者）必定会在其书中迎合最广大受众的需求，因此书中所反映的文学观念也应是当时民间社会为绝大多数人所认同的主流文学观念。综上所述，日用类书在民间文学生活的研究方面，具有得天独厚的优势。

一、刘双松本《万宝全书》及其文学门类

该版《万宝全书》为明万历40年（1612）书林安正堂刊本。书前有福建吴航王子行的序。框高19.9x12.2厘米。上栏十六行十四字，下栏十四行十八字，四周双边，白口单鱼尾。本套书共十册，扉页题：《全补文林妙锦万宝全书》，书林安正堂刘双松重梓，目录页另题书名《新板增补天下便用文林妙锦万宝全书》。

本书共分为8集10册：金、石、丝、竹、匏、土、革、木，以八音代替书目名，这是明代出版时常用的编辑方式。8集下附有38卷（门），每集所属门类数量、卷数各不相同。一页之中，分为上下两层，内容相互独立，互不干扰。

该书内容，上至天文，下至地理，乃至人的生老病死、人情交际、精神娱乐，甚至迷信活动，但有益于当时民间日用者，皆搜罗而汇纂之。其内容之博，可从表1中窥测一二。此外，本书编者还有意识地将性质相近的门类安排在一起。比如卷五《官品门》与卷六《律法门》（政法类），卷九至卷十二《琴学门》《棋谱门》《书法门》《画谱门》（四艺），卷十三《文翰门》与卷十四《启札门》（书信类）等。

考虑《万宝全书》实际，最终选定《文翰门》《启札门》《体式门》《伉俪门》《丧祭门》《诗对门》《侑觞门》《笑谈门》和《杂览门》为本文主要研究对象。这些文学门类按其内容特性及功用差异，又可以进一步分为三类：实用写作门类、仪式文本门类与休闲娱乐门类。

二、社交活动的文字载体：实用写作门类

实用写作门类主要包括《文翰门》《启札门》及《体式门》，这些应用文写作门类包含有大量写作辅导资料，在它类书籍中少有收录，有助于我们了解晚明时期民间写作的原始状态，此外，这种来自日用类书的第一手资料也是我们了解当时民间应用文写作情况的重要线索，“这大体勾勒了民间日常生活中使用文字的主要领域，是我们今天研究民间文书系统的最佳参照。”

《文翰门》主要辑录书信相关的资料，目的是帮助读者完成各种书信写作。为了使读者更容易地找到自己需要的参考资料，其内部还下设有多个子类，其整体结构如下表所示。

上层（书信特定用语）	具礼类、称呼类
下层（各种范文）	具柬式、久别瞻仰、近别瞻仰、久近通用、未识荆瞻仰、幸识荆瞻仰、久别失候、久别不及贡书、久别得书、拜访承接、拜访不遇、承访失款、承访失迎

《文翰门》下层则是各种应用场合下的一些范文和活套。在开头处，本书先列具柬式一篇，用

以展示完整的书信格式：

如侍教生某顿首再拜奉 书

大方伯某号先生大人 钧座前

奉违斗山，晨夕瞻仰，即辰凤历春回，鸿钧气转，伏惟股肱王室，镇抚华夷，神明所相 钧候动止多福，无任欣慰，生自愧弩庸，何劳齿及，僭有稟懇上干

尊听兹者某事^云临书悚慄之至，仰后为国为民自重万惟。

台照不宣。

该式后还附有答书体式，体例一如上文。

《启札门》与《文翰门》类似，属于简札帖式一类，篇幅较小，适用于日常生活中不需要传输大量信息的召请、庆贺小柬等。《启札门》上层是一些书信专用语集合以及各种小帖的范文，下层则专收各种范文（图2），都按应用场合的不同进行了分类。

《体式门》下层为作状规范。先总说作状时所需要注意的问题，并归纳成歌诀《忌箴歌》。后按控告事项将告状范文分为“土豪类、婚姻类、户口类、钱债田产类、财本类、人命类、贼情类、官员乡宦类、吏书皂快类、地方积年类”等，部分小类附有活套。

《体式门》上层则比较庞杂。按顺序分别收录有总说诉讼、带有劝诫世人意味及组织各种状文写作套语性质的四字歌诀“三石经”。之后是按类纂辑的作状术语集合“硃语体式”“呈状体式”“乡约体式”“学关体式”“分关体式”“文契体式”。上层还以附录的形式收有“李玉英辩本、代人作十保福投状式、赛愿请神祝语、沿江祭神福祝语”。

其上层“硃语体式”十分具有代表性，读者可直接选词应用于文中，兹举土豪类为例：

巨豪激变 强横藐法 锄强勦恶 挟势凌逼……

架贼骗害 架贼抄家 木锁唬骗 捲掳抄勦……

上述术语概括力强，较为正式，是典型的法律文书用语，但生活中却不常用，此处按类归结，对民间读者而言，实为便利。

三、婚丧嫁娶的文学形态：仪式文本门类

《伉俪门》与《丧祭门》都是礼仪仪式前后所需要用到的各种应用文体的写作指导，与前述一般性应用文体相比，有共性，也有个性，故而单独列出进行分析。

《伉俪门》下层主要收录与婚礼相关的一些重要文书的写作范式。涉及婚礼双方家庭之间各种正式文书的往来。包括“请纳采日期启、纳彩书式、聘仪状式、回聘书式、回仪书式、聘定启、回聘启”等。绝大部分小类下还附有回书的范式。《伉俪门》上层所收录资料则比较庞杂，开头是委托媒人进行说和、下聘、催婚的书启文书范文，包括“托媒启、托议聘礼、托媒定聘、托媒催亲”

等条。分量最庞大的是关于婚礼进行时的一些仪式用话稿，包括“拦门致语、拦门请花红诗、拦门诗、开轿诗、下轿诗、迎新郎诗、拜天地诗、拜堂致语、夫妇交拜、饮交杯诗、索花红诗、撒帐致语、撒帐诗”等，以诗歌韵文为主。上层最后还附有一些关于婚礼的请召贺送小柬写作范式，部分小类有答柬范文。

《丧祭门》下层第一部分以示意图方式对行葬礼时各亲属应穿戴何种礼服做了说明。第二部分则以纂辑各类举行葬礼时所需要的各类文书为主，包括“讣书式、报奠式、赙奠状式、慰丧父、慰丧母、慰丧兄弟、慰丧妻、慰丧子、慰丧孙、慰丧女、慰丧妾”等。各小类后亦附有答文。

《丧祭门》上层主要分为“祭文、墓志状式、清明祭坟祝文”三类，其中绝大部分为祭文，“祭文”下又按所祭对象细分为“子祭父文、祭母文、女祭父文、女祭母文、妻祭夫文、祭亲友文”等等。

除《伉俪门》上层中辑录了部分诗歌韵文外，《伉俪门》与《丧祭门》仍以应用文文体为主，其中又以书启、书信为多，同样是应用文体，却不将其与上文所述的书信门类《文翰门》及书启门类《启札门》安排在一起，而是单独设立两各独立的门类，除有应用便利上的考量外，也说明婚礼类应用文和丧礼类应用文与一般性应用文体相比，有其独特的文体特征和语言倾向。

四、日常生活的文学调剂：休闲娱乐门类

《万宝全书》中的文学娱乐门类包括《诗对门》《侑觞门》《笑谈门》和《杂览门》，与上文两个门类主要帮助读者完成实用目的不同，休闲门类侧重于为读者提供娱乐消遣，实用性消解的背后，显示出民间对文学慰藉功能的重视，休闲门类与实用性文学门类一道，构筑起完整的民间文学生活。且《万宝全书》中的休闲娱乐门类所收录的内容在其他类型书籍中较少看到，反映出日用类书特殊的文献价值。

《诗对门》的诗歌主要分布在上层的“万家诗集”，即各类诗歌总集。其收录的诗歌与传统文人士大夫的诗歌相比，无论是选材倾向、诗歌旨趣还是语言风格等，都显示出对传统诗歌的背离和消解，从中可以看出民间特有的诗歌审美趣味和审美偏好，具体表现为以下几个方面：

(1) 比较注重娱乐性；(2) 偏好选择带有猎奇性的诗歌；(3) 语言浅近如白话。

《诗对门》下层主要收录的是各式对联，按其应用场合，又细分为“通用柱联、春联、书斋联、入学联、新婚联、挽联、迁居联、水阁联、桥梁联、酒馆联、旅馆联、相士联、书士联、僧寺联、道观联、杂联”等。《诗对门》下层也可分为上下两层，上层主要是五字、六字、七字不等的短联，下层则主要是十字、十一字不等的长联，如果还有字数更多的长联则一般附于每一类的末尾。

与上层收录的诗歌不同，这些对联普遍比价精致，崇尚典雅，文人气息较浓，体现了民间对诗歌和对联功用的不同认识。如前所述，诗歌更多是读者用来自我消遣的娱乐工具，而对联兼具消遣娱乐与装饰实用两种功能。用做张贴悬挂时，需要彰显自己高雅的品味及渊博的学识，故决不可似诗歌那般浅俗。不同文体的不同入选风格，进一步彰显了民间的文学功用观念。但是，本书编者却又将诗歌与对联安排在一个门类，表明编者注意到了诗歌与对联形式上的一致性，并以其作为门类

类划分的依据。

酒令即旧时用以在筵席上饮酒助兴、活跃气氛的一类游戏规则，在古代十分盛行，是中国酒文化的特色之处。《侑觞门》下层酒令按照主题不同，又细分为“四书类、千文类、百姓类、古文类、蒙求类、曲牌类、药名类、官名类、古人类、禽兽虫类、果名类、地名类、人物类、千家诗类、律条类、时令类、西厢曲类、席上生风类”。其体例是先出题面，后接答案，答案少则一则，多则两三则不等。

上层收录有“骰色朱窝酒令”（即骰色朱窝的行令方法）“朱窝谱式”（即各式骰色示意图，图4）、“骰子令、暗令类、江湖令类、急口令类、拆字令类”。除“骰色朱窝酒令”外，其余均是文字语言令。

《笑谈门》下层是文言笑话集，按类编排，笑话正文前有小类标题，每类下笑话数量不一。

《笑谈门》上层是首先是一些民间歇后语（书中称为“江湖奇语”），并按内容分为“杂消类、骂人类、骂光棍类、骂小人类、骂小伺类、骂娼妓类、骂说话类”。

在歇后语后，也辑录有一些文言笑话，书中为其总题名“骂说话笑谈”，体例一如下层的文言笑话。

总体来说，《笑谈门》以文言笑话为主，这些笑话被单独划分成一个门类，表明晚明民间已经承认了笑话这一文类的独立性，笑话不再仅仅存在于街头巷议或作为其他文体的附庸，且广受读者欢迎。

《杂览门》下层主要是一些杂体诗，各种类型的诗体杂陈其间，本门名为“杂览”，或许就与此有关。按其体裁分为“织锦璇玑图、玉连环、双合文、璇玑文、火焰文、珊瑚枕、锦缠枝玉连环图、拆字诗、会意诗、酒瓶诗、酒盅诗、玄机葫芦”等。所谓杂体诗，即传统正体诗外，形式和风格都别出心裁的另一类诗歌，这些诗多把诗的形式、句法、声韵加以特殊变化以成新体，十分奇特。《万宝全书》中收录的杂体诗以回文诗和图形诗为主

五、结语：民间文学生活的最大可能性

综合来看，当时民间的文学生活主要有以下几个特点：

一是儒学的普遍化与世俗化。二是士族文化下移。三是注重实用性。四是注重文学的趣味性。五是不同文体间风格差异较大。

总之，通过日用类书文学门类的内容分析，实可了解民间社会的文学生活样态提供另一途径，不应为学界所忽略。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所載) 한시와 그 의미

김미선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는 전북 익산의 선비 난곡(蘭谷) 소승규(蘇昇奎, 1844~1908)가 전북 부안의 변산(邊山)을 유람하고 쓴 기행일기이다. 소승규는 1897년 4월 16일 출발하여 변산과 인근 지역을 유람한 후 5월 1일에 집으로 돌아왔으며, 여행에는 친구인 소초(小樵) 김은학(金殷學)과 동운(桐雲) 황치경(黃致敬)이 함께하였다. <유봉래산일기>에는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인 4월 14일부터 여행에서 돌아오고 4일 뒤는 5월 5일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변산은 중국 전설의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인 ‘봉래산(蓬萊山)’이라고도 불렸다. 그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호남 지역의 산에 대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살펴보면 무등산 다음으로 많은 작품이 남아 있어,¹¹⁶⁾ 조선시대에 변산이 여행지로서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변산 기행일기는 현재까지 모두 9편이 확인되며,¹¹⁷⁾ 이중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작품이 바로 <유봉래산일기>이다. <유봉래산일기>는 날짜와 날씨가 나온 후 하루의 경험을 기록하는 정형적인 일기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을 준비하며 일기가 시작하고 여행이 마무리된 후 글을 정리하며 일기가 끝나는 완결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험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한시를 적극적으로 수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의 현황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속에는 모두 82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소승규의 시가 29수, 타인의 시가 53수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⁸⁾

116) 제목에 산 이름이 명시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조사하여 산별 기행일기 수량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무등산 기행일기는 15편, 변산 기행일기는 9편이었다.(김미선,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125쪽)

117)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변산 기행일기는 심광세(沈光世, 1577~1624)의 <유변산록(遊邊山錄)>, 이세환(李世煥, 1664~1752)의 <유변산기(遊邊山記)>, 이기경(李基敬, 1713~1787)의 <변산동유일록(邊山東遊日錄)>, 김수민(金壽民, 1734~1811)의 <유변산록(遊邊山錄)>, 박모(朴模, 1828~1900)의 <유변산기(遊邊山記)>,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변산기(邊山記)>, 소승규(蘇昇奎, 1844~1908)의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 이계서(李溪墅, 19세기)의 <남악기유(南嶽紀遊)>, 박제망(朴齊望, 19세기)의 <유변산일기(遊邊山日記)>이다. 이외 20세기 변산 기행일기 2편, 변산반도의 한 지역인 격포와 우금암에 대한 기행일기도 1편씩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선의 논문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전북학연구』 1, 전북학연구센터, 2019, 144~175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8) 이 표는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문학교육적 활용」(『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114~115쪽)의 <표 2>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표> <유봉래산일기> 소재(所載) 한시

날짜	수량	저자별 수량		형식	내용
		소승규	타인		
4. 17	5	1	4	칠언율시	벗들과 만남, 봉래산 구경 떠나는 일
4. 18	3	1	2	칠언절구	나루에서 기다리는 상황
4. 19	15	1	2	칠언절구	선은동
		1	2	칠언절구	상소산의 한가로움
		1	2	칠언절구	상소산 성황사의 모습, 풍경소리
		1	2	칠언절구	부풍의 시장
		1	2	칠언율시	개암사, 비각
4. 20	6	1	2	칠언율시	우금암
		1	2	칠언율시	봉래산 서쪽, 실상사
4. 21	13	2	3	칠언절구	직소폭포, 용소
		2	3	오언율시	월명사
		1	2	칠언율시	두견새 울음소리, 잠 못 드는 밤
4. 22	3	1	2	칠언율시	낙조
4. 23	21	1	2	칠언절구	지지도
		1		칠언절구	채석강 풍경
		1	2	칠언율시	채석강, 친구들과 노닐
		2	4	칠언절구	책바위
		2	3	칠언절구	적벽
		1	2	칠언율시	격포
4. 24	6	1	2	칠언절구	포구와 고기잡이
		1	2	칠언절구	봉화대
4. 25	3	1	2	칠언율시	내소사
4. 29	5	1	4	칠언율시	봉래산 유람 후의 이별
5. 1	1	1		칠언율시	변산 생각
5. 2~5	1	1		오언절구	봉래산 꿈을 꿈
전체	82	29	53		

소승규는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곳, 의미 있는 곳을 유람했을 때 한시를 지었으며 동행한 사람들은 그에 화운하여 한시를 지었다. 하루에 여러 곳을 유람하게 되었을 때는 지은 한시가 많아져, 지지도, 채석강, 격포 등을 유람한 4월 23일 일기에는 모두 21수에 이르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변산 여행을 생각하며 2수를 한시를 지었

으며, 이 또한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3.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의 의미

대개 한시는 문집(文集)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문집 전반부에 한시가, 후반부에 산문이 수록되며, 한시는 다시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등 형식별로 나뉘어 수록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저자가 평생 쓴 한시의 전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한시를 창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유봉래산일기>와 같이 일기 속에 한시가 수록된 경우, 한시를 창작하게 되는 과정, 일행과 화운하며 향유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아래 3수의 시는 4월 23일에 지지포에서 지은 것이다.

<소승규의 시>

共下山麓又向南 함께 산속 암자를 내려가 남쪽을 향해
遙望大海碧如藍 멀리 큰 바다를 바라보니 쪽빛같이 푸르네.
綠陰黃鳥猶知止 녹음과 황조가 멈출 것을 알아
喚友聲聲送兩三 소리 소리 친구 부르며 두세 명을 보내네.

<김은학의 시>

止浦村尋路指南 지포촌에서 길 찾아 남쪽을 가리키니
一望海色水如藍 한번 바라본 바다 물빛이 쪽빛 같구나.
江橋潮落人聲近 강 다리에 밀물 빠지자 사람 소리가 가까워져
堤上漁家見兩三 둑 위에 고기잡이집 두세 집이 보이네.

<황치경의 시>

止浦前頭地盡南 지포 앞머리 땅이 다한 남쪽에
山如活畫水如藍 산은 살아있는 그림 같고 물은 쪽빛 같구나.
江村日午烟生樹 강마을에 한낮 되자 연기가 나무에 일고
隔岸人家見兩三 언덕 너머 인가가 두세 집 보이네.¹¹⁹⁾

소승규가 먼저 ‘남(南)’, ‘람(藍)’, ‘삼(三)’을 운자로 하여 칠언절구의 한시를 지었고, 김은학과 황치경이 화운하여 차례로 한시를 지었다. 소승규는 “남지동(南止洞)의 이서당(李書堂)을 찾아 잠시 쉬고, 지지포(知止浦)에 이르러 술을 시켜 함께 마셨다. 서쪽으로 스러진 한 산줄기가 수려해, 그 아래에서 형국을 이뤘다. 그래서 물어보니 부안(扶安) 김씨(金氏) 문정공(文貞公) 구(丘)는 고려왕조 사람인데, 자신이 멈출 곳을 알고 이곳에 멈춰 살 곳을 정했으므로 이 포구 이름을 지지포(知止浦)라고 했다고 한다. 또 자신이 죽은 뒤에 묻힐 곳도 잡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절구를

119) 허경진(역), 『遊蓬萊山日記-부안 변산 기행문집』, 부안문화원, 2007, 66~67쪽.

유했다.”¹²⁰⁾라고 서술한 후 위와 같이 한시를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를 짓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고, 일행의 한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에 대한 연구로는 관광학적으로 살핀 연구, 글쓰기 방식과 문학교육적 의미를 살핀 연구가 있다.¹²¹⁾ 21일간의 일을 기록한 일기에 82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가 수록된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이는 19세기 유람 여행 중의 한시 향유 과정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고, 당시의 변산 지역 명승지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에 집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맺음말

본 발표문에서는 전북 익산의 선비 소승규가 전북 부안의 변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일기 <유봉래산일기>에 수록된 한시의 현황을 살피고, 그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유봉래산일기> 속에는 모두 82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소승규의 한시가 29수, 타인의 한시가 53수이다. 한시는 문집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시를 창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유봉래산일기>와 같이 일기 속에 한시가 수록된 경우, 한시를 창작하게 되는 과정, 일행과 화운하며 향유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는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를 본격적으로 살피고, 그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120) 허경진(역), 위의 책, 65~66쪽.

121) 김경미, 「조선후기 변산반도 유람록의 관광학적 고찰-소승규 유봉래산일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 한국관광산업학회, 2018 ;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의 유람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Sino-Korean Poems in <Yubongnaesan Ilgi> by So Seung-gyu and Their Meanings

Kim, Mi-sun

<Abstract>

<Yubongnaesan Ilgi> (Mount Bongnae Travelogue) is a travel diary written by scholar So Seung-gyu with pen name of Nangok (lit. Orchid Valley)(1844~1908) from Iksan, Jeollabuk-do, while on a tour of Byeonsan in Buan, Jeollabuk-do. A total of nine travel diaries on Byeonsan have been identified in the Joseon Dynasty, and <Yubongnaesan Ilgi> is the most quantitatively abundant and contains even Sino-Korean poems.

<Yubongnaesan Ilgi> contains a total of 82 Sino-Korean poets. Among them, there are 29 Sino-Korean poems by So Seung-gyu and 53 Sino-Korean poems by others. If Sino-Korean poems are included in the diaries like <Yubongnaesan Ilgi>, the process of creating Sino-Korean poems can be examined in detail. As a result, <Yubongnaesan Ilgi> offers a valuable resource to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enjoying Sino-Korean poems during excursions in the 19th century, as well as a meaningful resource to see the scenic spots of the Byeonsan area at the time.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Sino-Korean poetry published in <Yubongnaesan Ilgi>.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고 현
(조선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학생들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 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발맞추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으나 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덕목이나 역량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도교육청마다 또는 각 학교마다 나름으로 강조하는 인성 덕목을 정하고 그러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주 외, 2014).

인성은 성격이나 성품, 성향, 인격, 행동과 태도 등으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체계이다(Weinberg & Gould, 2011).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에서 기초 예절교육을 위주로 일부 교과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성 있게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Leming, 2000), 올바른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Davidson, Khmelkov, Baker & Lickona, 2008). 따라서 모든 교과는 인성교육을 위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낄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박소정, 김영재, 차은주, 2015).

인격 형성과 가치관이 성립되는 청소년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창의적 교육을 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인생에서의 잠재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의성을 활용하는 수업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의 교육은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 수업보다는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계적 과정의 현실적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적 현실과는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다.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는 6가지의 핵심 역량인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며 다양한 지식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주도적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교육부, 2015).

미래 사회의 학습 형태가 개인 중심보다는 팀 학습 즉 협력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생들을 자율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교수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만들고 질문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브루타 학습의 중요성이 최근 교육계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 역시 입증되고 있다.

하브루타(Havruta)는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공부 방법으로, 상대와 짝을 지어 질문과 대화 및 토론하는 교육법(이일우, 2019)으로 본래 파트너 또는 친구, 토론을 하는 상대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짝을 지어 질문하며 토론하는 교육을 일컫는 학습법의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전성수와 양동일, 2014).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식사시간 중 교육에서 시작되었듯 일반적으로 두 명이 짝지어 질문하며 토론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이 하브루타의 목표인 만큼 네 명에서 최대는 여섯 명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토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질문하고 상대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하브루타 학습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답을 내놓기 위해 반복적으로 탐색을 하게 됨과 동시에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인성에서 긍정적으로 잠재되어있는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하브루타는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의 일방적 지식 습득이 아닌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며, 이를 강조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질문중심, 친구 가르치기, 비교 하브루타를 통한 짝 토론, 조별 토론 등 학습자 간의 상호 활동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도를 토대로 서로의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명료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브루타 협력 학습에서 동료들에게 받는 긍정적 지지는 이들의 인성 발달에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하브루타 학습의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수-학생,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하브루타 학습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볼 때 하브루타는 학습자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학생의 인성 발달은 일상생활 특히 학교생활의 교수-학습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브루타 학습은 이들의 인성 발달에 좋은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해 하브루타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둘째, 하브루타 학습이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그리고 시민성의 인성 덕목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II. 하브루타 학습

하브루타는 학습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학습을 끌어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상호간의 대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나오는 다른 의견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거치면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학습의 형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혼자 습득한 학습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흐려지기 쉽지만 하브루타를 통해 학습을 거치면 타인의 견해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존보다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하브루타 교육법을 통한 수업에서는 ‘말하기’와 ‘경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창의력을 일깨워줌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즉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는 ‘메타인지 능력’(Meta cognition Ability)을 보다 능률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메타인지 능력이란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알아채고, 이를 인지적 활동에 있어서 적용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즉, 학습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접해보며 사고력을 확장해나가는 능동적 교육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하브루타의 수업 모형은 질문 중심, 논쟁 중심, 비교 중심, 친구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질문 중심 하브루타에서는 먼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가지고 짝과 함께 토론을 한 후에 가장 좋은 질문을 하나 뽑는다. 그리고 모둠을 만들어 전 단계에서 뽑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며 가장 좋은 질문을 뽑는다. 이후에 그 질문을 가지고 모둠끼리 토론을 하고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다. 모든 과정을 성실히 진행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토론을 통해 총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질문 중심 하브루타를 마무리한다(전성수, 양동일, 2014).

하브루타의 수업모형은 정형화된 것이 교과 특성, 학습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

III. 인성 발달

인성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생리적 체제로서 개인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역동적 구조이다. 인성은 개인의 특성이며,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각 분야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함수관계에 의해 형성되는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합된 전체로 발달한다(안재빈, 2017). 또한 인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특질의 총체이며 개인의 지적 능력, 정서, 태도, 가치관, 신념, 동기 등이 통합되어 있어(김동일 외, 2000)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등의 다양한 인성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정명숙, 2009).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긴장, 갈등을 느끼게 하지만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최정호, 2017). 그러므로 성숙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가 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연성이 부각되고 있다(홍순혜, 2014).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인성발달은 유아기를 거쳐 공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고 활동 범위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가족을 벗어나 교사와 또래집단의 상호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 이므로 일생의 발달단계 중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Erikson, 1990).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규범화된 사회의 행동 양식과 교우관계 등을 통해 사회로의 적응 해가는 과정에서 행동의 반복으로 형성되며, 한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성발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인성 교육의 부재나 실패는 위험한 인간, 위험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속에서 여러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특히 수업 속에서 적절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특질의 총체이며 개인의 지적 능력, 정서, 태도, 가치관, 신념, 동기 등이 통합되어 있다(김동일, 김신호, 이근재, 정일호, 정종진,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그리고 시민성의 다양한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인성 발달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G구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설계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으로 방법으로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담당하는 학반 가운데 한 반은 실험집단으로 다른 한 반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학습자 중심의 하브루타 학습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및 설명식 수업을 적용할 것이다.

2. 측정 도구(인성 발달)

중학생의 인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인성 검사지를 활용하고자 한다(현주 외, 2014). 이 검사 도구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의 10개 인성 덕목의 5점 Likert 평정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덕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성 발달의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후검사 점수의 집단 간 비교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할 것이다.

V. 예상되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예상할 것이다.

첫째, 교사-학생,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하브루타 학습은 중학생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하브루타 학습은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그리고 시민성의 인성 덕목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The Effect of Habruta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Ko Hyun
(Chosun Univ.)

Interactivity among learners such as question-centered, friend-teaching, pair discussion through comparative habruta, group discussion, etc., is based on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they become interested in each other's studies and achieve common goals by encouraging each other.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purpose, learners experience the process of exchanging feedback based on various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members, clarifying and synthesizing ideas, so positive support received from colleagues in the Habruta cooperative learning can be highlight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ir personality development.

Since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carried out in everyday life, especially in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of school life, it is expected that the Habruta learning will serve as a good catalyst for their character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Habruta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sona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located in G-gu,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pplied to the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as the most classical and typical metho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Habruta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pre-test of personality development is not large, but the covariance analysis is conducted by using the pre-test score as covaria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of post-test score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pre-test score has some effect on the post-test scor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Habruta learning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코로나 환경과 베트남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Tô Minh Tùng
(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

1. 문제제기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관계가 공식적으로 맺게 된 것은 벌써 29년이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동반자로서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노동, 의료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술이전이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한-베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3년부터 베트남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강좌가(한국학과가) 생기면서 28년을 거쳐 수십만 명의 한국학-한국어학 전공자가 배출되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일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¹²²⁾.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2018년까지 합격자수가 전세계 1.111.044명에 불과했다¹²³⁾. 그중에 베트남에서 5급이나 6급 능력을 갖춘 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016년 07월에 베트남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90명 학자가 참여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회에서 ‘문화의 세기’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역할을 제시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미래”, “한국문화와 한류드라마(영화)의 역할과 위상” 등의 발표 주제로 한국문화가 한국 정부 하에서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제가 한국문화의 발전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논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문화가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적 고찰이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2020년 12월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국제와 지역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및 연구 향상”¹²⁴⁾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회에서 제시된 주제들은 한국어 교육과 주로 코로나 영향 아래에 새로운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후예세대 한국언어 및 문화학과의 원격 한국어 교육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목표와 가까웠지만, 아직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평행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2021년 11월에 열린 “새로운 배경 속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교육 과제”라는 주제로 하는 학회에서 한국어 교육은 물론 코로나 영향 하에 원격 수업의 장단점을 의논했다. 학회에서 제시

122) 베트남 대부분 대학교 한국어-한국학의 졸업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졸업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4급으로 전공을 수행하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3) TOPIK 누리집 www.topik.go.kr

124) Dinh Thi Thu Hien, le Anh Phuong(2020), <코로나 19사태 속에 후예세대 한국 언어 및 문화 학과의 원격 한국어 교육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KF Friends Networking, 13쪽.

한 “교육의 질과 한-베 언어문화 소통 능력의 연관성”은 교육 방법과 과제의 형식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서 시작한 것은 본고와 같은 목적이다.

본고는 호치민 사범대학교, 홍방국제대학교, 호치민 기술대학교(HUTECH), 투득기술대학교, 반히엔대학교, 반랑대학교, 호치민 경제재정대학교(UEF)의 7개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31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문화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고찰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과목 도입 시기를 제안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문화 과목을 교육하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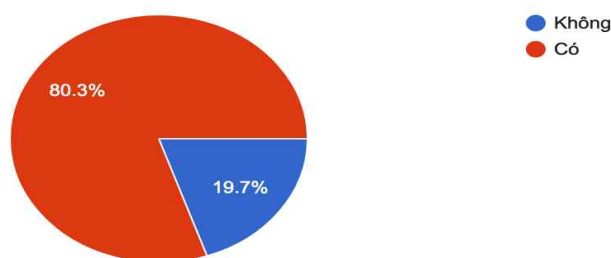
2. 베트남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현황

1993년에 한국어 강좌(한국학과)가 처음으로 생길 때부터 28년을 거쳐 한국어는 베트남 대학교에서의 전문적 학습전공이나 학원에서 보급하는 언어문화에서 벗어났다. 2016년부터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베트남 중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또 2021년 2월부터 초3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제1 외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와 같이 한국어가 제1 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¹²⁵⁾.

2021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 4년제 한국어에 관련 전공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교는 30개가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수준으로 현재 한국어 학습자 수가 약 1만 5천명이 되고 있다¹²⁶⁾.

Bạn có bắt đầu học tiếng Hàn do bị ảnh hưởng bởi các yếu tố từ Hàn Quốc?

309 responses



[표1]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 1

1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Ban hành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môn Ngoại ngữ 1 Tiếng Nga, Nhật, Pháp, Trung Quốc, 2021/07/29.

<https://moet.gov.vn/tintuc/Pages/tin-tong-hop.aspx?ItemID=7461>

126) Nguyễn Thị Nguyệt Minh, "베트남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베트남인 한국어교원양성정책 개선 방안", KF Friends Networking, 2021, 78쪽.

본고의 조사 결과 80.3% 응답자가 한국에서 온 문화의 양향으로 인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어의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학습과정을 직접적 체험한 후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어문화를 전공하는 것이 나의 취미나 관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실망해서 포기하는지도 모른다.

조사된 7개 대학교 중에 1학년부터 한국문화를 한국어 학습과 같이 중요시하는 대학교가 많지 않다¹²⁷⁾. 즉, 학습 초기에 한국문화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대부분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4가지의 기능을 위주로 한국어의 기본을 익히는 것이다. 한국문화가 전공과목으로 여겨 일반적으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부터 한글로 쓰여진 테스트를 통해 학습을 시킨다. 이를 보면 현재 호치민 대부분 대학교에서 학습자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항과 취미를 무시한 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방국제대학교와 호치민 기술대학교 98명의 학생 대상으로 다른 조사를 실시한 후 얻은 결과 ‘안녕하세요’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학생 수가 1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단순히 ‘Xin chào(hello)’나 ‘Tạm biệt(goodbye)’라는 의미밖에 모른다. 물론 ‘안녕’의 본의미를 몰라도 의사소통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국 사람의 언어, 사고방식,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베트남 대부분 대학교가 원격 방식으로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는 일부분 원격수업을 진행했었고, 2021년 하반기에 한 학기 전부를 원격수업해야 했다. 대면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의 언어학습에서 한계가 많다. 물론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속도, 개인 공간 부족, 오토바이 소음공해 등 베트남 인프라의 여건에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한걸음씩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전통방식을 벗어나갈 수 있다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한국 문화 강좌의 도입 시기 제안

학교경영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물론 학교경영자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습자의 기대와 필요를 못 채우면 원하는 경영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습자의 필요와 취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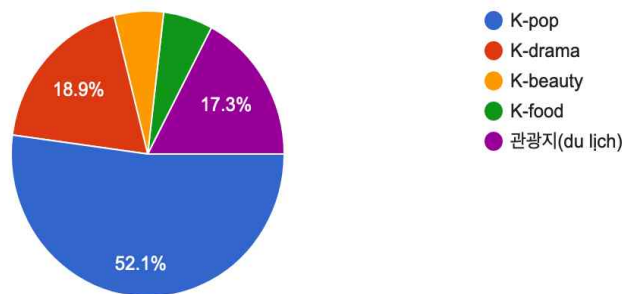
문화이해가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가령 속담 중에는 필요 없는 짓을 하여 스스로 재화(災禍)를 끌어들이를 비유할 때 ‘굶어 부스럼 (만들다)’라는 말이 있다.

127) 조사한 대학교 중에 반히엔 대학교가 일학년 1학기 때 한국학입문이라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삼아 45시간을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자음과 모음, 한국 문화를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다. 홍방대학교는 2021년 2학기부터 한국학입문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랑 대학교의 경우 1학기에 한국학입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한국어의 모음, 자음, 한국의 기본 문법을 알려주는 45시간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과목의 내용은 대부분 교수들의 판단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학습자들의 관심과 취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민속 문화에서 찾아봐야 한다. ‘부럼을 깨어 먹으면 피부병의 하나인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럼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부럼을 날로 깨어 먹으면 치아가 튼튼해지고 일 년 동안 부스럼과 종기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¹²⁸⁾. 그래서 이 말은 굶지 않았으면 부스럼도 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굶어서 걱정을 키운 경우를 이르는 속담이다. 따라서 한국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Trong các yếu tố thịnh hành đến từ Hàn Quốc, đâu là cái tác động mạnh mẽ nhất đến bạn?

307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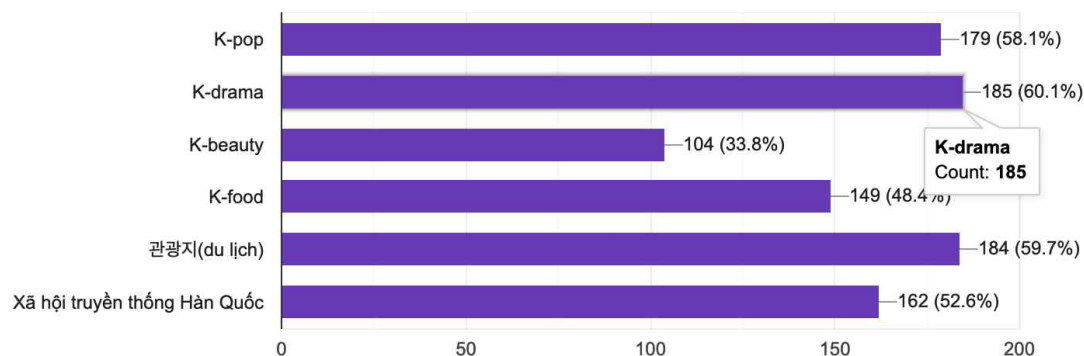
[표2] 한국어 공부 시작하는 이유2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 공부를 선택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한국 문화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면 'K-pop'이라는 응답이 절반이다. 여기서 K-pop보다 K-idol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K-pop의 산업과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매체가 생길 때부터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되었다. 시청자에게 노래와 시각적 내용 등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아이돌은 노래 부르기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은 물론 춤도 잘 추어야 하며, 심지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음악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인데 아이돌은 청소년의 본보기 또는 이상형이 되는 상품의 영역이다. 음악과 같이 K-pop 댄스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쉽게 K-pop 댄스 챌린지(challenge)를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k-pop 댄스 커뮤니티에 의해 스트리트 컬처(street culture)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를 보면 K-pop과 K-idol, k-pop dance가 베트남의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한국문화가 한국어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K-drama’와 ‘한국 관광지’가 ‘K-pop’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128) 김나경(2017), 『선생님도 놀란 초등사회 뒤집기 33 문화유산-오천 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보물』, 성우출판사, 5 쪽.

Theo bạn, chủ đề văn hoá nào sẽ giúp ích cho việc học ngôn ngữ của bạn. (có thể chọn nhiều đáp án)

308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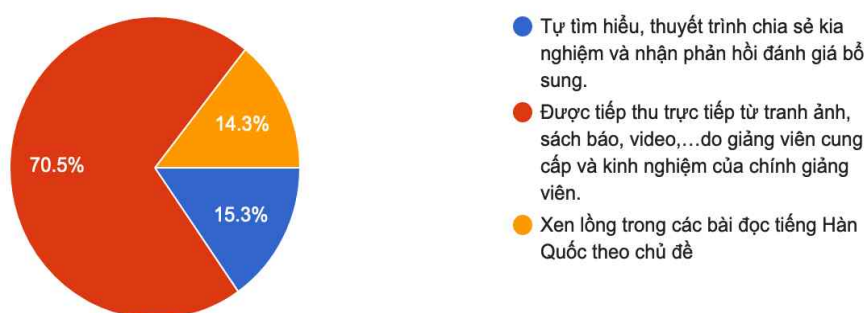


[표3] 한국어 학습자의 원하는 한국어에 관련 콘텐츠

위를 보면 현재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하거나 한국 문화 콘텐츠의 매력에 끌리게 되어 한국어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한국어와 접하는 초기부터 한국 문화, 한국의 맛을 소개하면서 언어학습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할 때 교수의 판단으로 과목의 내용을 스스로 구성하면 학습자에게 부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기대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꺼뜨릴 수 있다. 한국문화를 제시하는 과목은 학습 초기부터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며 학습 시간 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게 되면 언어 실력 향상하기에 유리하다고 본다.

Phương pháp học tập văn hoá nào bạn cảm thấy hứng thú nhất?

308 responses



[표 4] 한국문화 학습하기에 제일 흥미로운 방식

Hoạt động tìm hiểu văn hoá Hàn Quốc sẽ hiệu quả hơn nếu kết hợp bằng cách hình thức nào sau đây



307 responses



[표 5] 학습자가 원하는 한국문화를 접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 한국문화를 알아볼 때 가장 흥미로운 방식일 것이냐와 학습 내용과 같이 가장 효과적인 활동으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느냐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교수가 보여주는 신문, 영상, 사진 등과 교수의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아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보면 한국문화에 관련 과목 진행 방식이 비대면방식으로 하든 대면방식으로 하든 학습자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문화를 알아보는 것이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72.8%가 동의한 반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결합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까에 87.7%가 찬성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론 내용을 소개할 때 온라인으로 하고, 음식 만들기나 춤을 연습하기, 전통놀이 등의 문화체험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

한국문화 관련 과목은 단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과목의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취미를 기르면서 한국어 학습하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초기부터 배치하게 되면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딱딱하거나 시간적 분량이 길면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일주일 2시간 정도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것도 대다수 조사 대상자들의 소망이다. 그리고 한 학기에만 배치하면 과목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언어학습의 보조로서 학기마다 언어학습과정의 난이도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나가는 말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가 28년을 거쳐 많은 전공자를 배출했다. 그중에 전공을 이용해 일을 수행하는 자도 있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학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실은 전문적 일의 요구나 학업에서 필요한 언어수준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질과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의 발전과 보급전략과 같이 한국어를 선택해 학습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학습자의 취미를 기르며 전공에 대한 기대에

응하기 위해 언어문화 전공 학습과 같이 보조하는 역할로 하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과목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능숙할 때 한국문화 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문화에서의 전문적 용어나 한국어 테스트에 익힐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함을 잘 이용해서 초기에 일찍 도입하고 연속적으로 언어교육과 같이 평행하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한국문화 과목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학습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고는 학습자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내용과 희망사항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과목 설계하기에 다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1학기의 과목내용, 2학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 학습 난이도와 맞추는 문화주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TOPIK 누리집 www.topik.go.kr
2.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Ban hành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môn Ngoại ngữ 1 Tiếng Nga, Nhật, Pháp, Trung Quốc”, 2021/07/29.
<https://moet.gov.vn/tintuc/Pages/tin-tong-hop.aspx?ItemID=7461>
3. Nguyễn Thị Nguyệt Minh(2021), <베트남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베트남인 한국어교원양성정책 개선 방안>, KF Friends Networking, 78쪽.
4. 김나경(2017), 선생님도 놀란 초등사회 뒤집기 33 문화유산-오천 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보물』, 성우출판사, 5쪽.
5. Dinh Thi Thu Hien, le Anh Phuong(2020), <코로나 19사태 속에 후에외대 한국 언어 및 문화 학과의 원격 한국어 교육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KF Friends Networking.

<Abstract>

Korean language in Vietnam has undergone 28 years of development.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human resources have been trained to serve the development of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 terms of economy, politics, education, technology, etc. How to improve human resources fluent in Korean has always been a concern for many years of those working in the education industry. This study wants through the survey of learners' needs to propose the application of early teaching about Korean culture. Thereby, it can help prevent learners from dropping out of school, and increase their interest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Keywords: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 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한국어 선택 이유



【분과 발표】

제3분과

좌 장: 임준성 (광주여대)

발표장: 문화예술공간



제3분과		좌장: 임준성(광주여대)	장소: 문화예술공간
1	부용향(芙蓉香) 고찰	김 영 / 대구한의대	
2	노인을 위한 차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서정임 / 대구차문화원	
3	류함柳涵과 환산정環山亭 -취옹정醉翁亭과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임준성 / 광주여대	
4	광양의 보물섬 금호도 인문 기행 활성화 방안	백숙아 / 한국가사문학학술연구원	
5	밥상머리교육에서 미래를 묻다	최한선 · 홍성희 / 전남도립대학교	
6	지역 판소리와 후원문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정혜정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7	영산강 유역 짬뽕어 어로(漁撈)와 음식 문화(飲食文化)의 변화	박종오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사명: 인간중심의 4차산업혁명 -기술 인력 산실의 전문대학에서의 인문학교육의 필요성	최운선 / 연성대	
9	李群玉七言律詩韻律研究	韓家俊 · 李基豪 / 湖南科技大學	
10	THE INEVITABLE APPEARANCE OF THE CONCEPT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IN VIETNAMESE HISTORY	Bùi Thị Ánh Vân /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부용향(芙蓉香) 고찰 I

김 영
(대구한의대)

1. 현대 선향의 기원, 부용향



75114
<그림> 부용향(국립민속박물관) 129)

‘부용향’은 표준국어대사전¹³²⁾에 의하면, ‘전통 혼례식에서 잡귀를 쫓기 위하여 피웠던, 초 모양으로 된 향.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대여섯 치쯤 되는데, 향꽃이에 꽂아서 족두리하님이 신부 앞에 가면서 피운다.’고 하는 우리의 전통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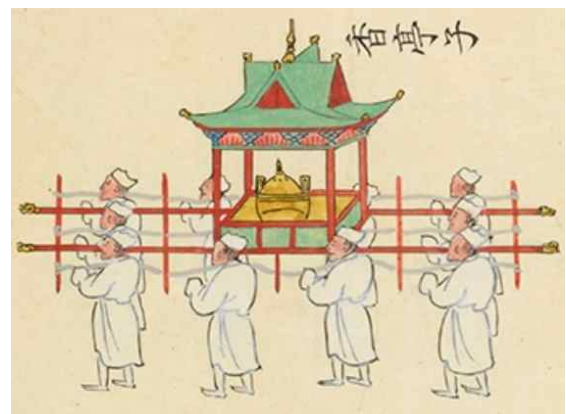
<그림1>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중인 대한제국시기의 부용향이다. 길이 19.5cm로 조선시대 형태와 유사하리라 추측된다.



<그림> 향통배¹³⁰⁾



<그림>향차비¹³¹⁾



<그림>향정자¹³³⁾

129)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제공
(<http://www.emuseum.go.kr>, 2021.11.23.검색)

130) <사도세자가레도감의케 반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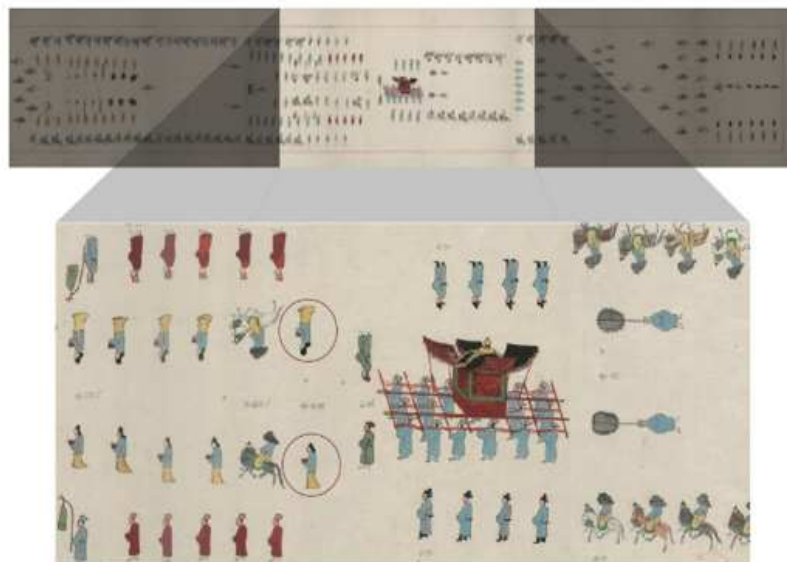
131) <영조정순왕후가레도감의케 반차도>

132)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사전검색
(<https://ko.dict.naver.com>, 2021.11.23.검색)

133) <숙종국장도감의케 반차도>

부용향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하수민(2019), 조은혜(2009)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본 논문에서는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부용향’에 관한 용례 연구, 일본과 중국에 조선왕의 하사품으로 건너간 부용향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부용향은 10가지 한약재를 가루 내어 물로 반죽한 후 손끝으로 비벼 젓가락 길이로 만들어 그늘에 말린 것이다. 따라서 부용향은 현대 선향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부용향은 어진을 봉안할 때 보존의 목적으로 함께 봉안되었고 어진 봉안시에도 선향 형태의 부용향을 함께 넣었다¹³⁴⁾.



<그림><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반차도

왕실의 통과의례인 혼례와 책봉, 관례 등의 의식에는 향이 빠지지 않는다. 실제로 위의 반차도에 보면, 부용향을 든 2명의 향차비(향을 피우며 가는 여성 관리)가 왕후가 탄 가마 앞에서 향을 태우며 가는 모습이나 향통배(향통을 담당하는 남성 관리)가 향을 말에 싣고 가는 모습, 향정자를 가마에 태우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각종 의식에서는 왕이 어좌에 오르는 순간 향연기가 피어나도록 해 향과 연기로 신성성을 연출했고 궁궐 내에 향을 만드는 장인 ‘향장’을 두고 향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기도 했다. 『내의원식례』에 연례 진상품목으로 부용향이 기록되어 있으며 향장은 연례 진상품인 부용향을 봄과 가을마다 제조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다¹³⁵⁾.

134) 조은혜(2009) 『서화유물보존에 사용된 전통 천연약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7

135) 하수민(2019) 「조선 왕실 가례의 부용향 연구-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문화재』 Vol.52 No.3, p.225

2. 내의원 소속 향장(香匠)

『경국대전』에 의하면 향장은 내의원 소속으로 4명이 지정되어 있었고 이후 상의원에 2명의 향장이 추가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향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향을 제조하는 장인인 향장이 등장하고 민간에서는 여인들이 향 제작을 담당했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하는 향의 용도는 의료, 보존, 방향, 의례 4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¹³⁶⁾, 내의원 향장은 왕실의 의료행위를 맡은 기관이었으므로 의료 목적의 향을 제작하였다. 이외 보존과 방향, 의례의 용도로 사용하는 향을 제작하여 왕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향 제조를 담당하였다. 향장은 내의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적 치료 행위가 우선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도세자 사례처럼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해 향탕이 사용된 기록이 흥미롭다.

『온궁사실』¹³⁷⁾에는 사도세자가 다리에 생긴 습창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온천으로 떠날 때, 내의원에서 부용향 1재, 소목 1근, 울금 8냥, 당작설 8냥 등을 준비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모두 목욕에 소용되는 품목인데 목욕에 온천수와 더불어 왕실의 향탕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모두 독특한 향을 가진 향물로 의서에서도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며 빈혈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여진 약재였다.

우리나라 향물이 주로 『동의보감』 『의림촬요』 『제중신편』 『의종손익』 등의 의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무엇보다 향물의 의료적 치료 목적이 가장 중요했음을 알려준다. 최한기(1803~1877)는 『기측제의』¹³⁸⁾에서 ‘코는 기가 통하는 한 몸의 풀무로 천기를 빨아들여 혈액을 고동시키고 항상 성명의 근원을 잇고’라고, 코를 기가 통하는 통로로 인식해 좋은 기운을 흡입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김정중은 『기유록』에서 ‘송원이 동로를 내어 용연향을 꽃으니 향기가 방안에 가득해 콧구멍이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말한다. 향의 효험이 목은 방술이나 속된 의원보다 낫다’고 하여 향물의 치료효과를 극찬하고 있다.

조선시대 향물은 향을 즐기기 위한 방향(芳香)의 목적보다, 심신의 기운과 후각을 통한 흡입을 중시해 향을 흡입하고 향을 끓여 목욕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목적이 우선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호품으로서의 향물의 성격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간다.

3. 문학 속 부용향

우리나라 문학작품에서 처음으로 ‘부용향’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후기 홍간(?~1304)의 한시 「난부인(嬾婦引)」이다. 허균은 홍간의 시에 대해 홍간시의 농염함과 청려함을 칭송하면서 그 중에서도 「난부인(嬾婦引)」과 「고안행(孤鴈行)」을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칭송하기도 했

136) 이경희(2011) 『조선시대 향문화와 의생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145

137) 『온궁사실』 권1, 小朝廷說

138) 『氣測體義』 神氣通 권2 鼻通 “鼻爲通氣之寶戶 一身之橐籥 而吸引天氣 鼓動血脈 常繼性命之源…”

91) 『奇遊錄』 정조 16년(1792) 1월 7일 “…食後 使家心鬱痰滯 寒咳間作 良苦良苦 松園出銅爐 插龍涎香 香烟滿室 … 少焉 使家霍然而起 語松園鼻孔開豁 … 鼻孔開豁 心竅疏朗 香之爲效 殆勝於陳方俗醫多矣”

다¹³⁹⁾ .

雲窓霧閣秋夜長(운창무각추야장) 구름 창과 안개 문에 가을밤 긴데
流蘇寶帳芙蓉香(유소보장부용향) 술 달린 비단 장막에 부용이 향기롭네
吳歌楚舞樂未央(오가초무락미양) 오나라 노래와 초나라 춤의 즐거움은 끝이 없는데
玉釵半醉留金張(옥채반취류금장) 옥비녀 꽃은 여인 반쯤 취해 김장¹⁴⁰⁾을 만류하네

‘구름 창과 안개 문에 가을밤 긴데 술 달린 비단 장막에 부용이 향기롭네 (雲窓霧閣秋夜長 流蘇寶帳芙蓉香)’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부유하고 호사로운 여인네의 모습을 그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알리오, 가난한 집 게으른 여인들 속옷이 없는 줄을/길쌈도 끝나기 전에 가을기러기 돌아간다(誰得知貧家鱗衣 紡績未成秋雁歸)’라 하여 고시(古詩)에 흔히 보이는 반전수법을 구사한다. 흥간은 위에서 권문세가의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는 여성과 가난한 집 여인들은 저녁 길쌈을 하려 해도 촛불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집 여성들의 정경을 극명한 대비적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고려시대 문학에 ‘부용향’이 등장한 유일한 사례이므로 주목할 만하다¹⁴¹⁾. 이것을 종래 해설서에서는 ‘부용이 향기롭다’ 즉, 연꽃이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다는 의미로 ‘부용=연꽃’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부용을 ‘연꽃’이라 해석했을 때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환락에 취해 비단과 보석이 달린 장막 안에서 부용(향)이 향기롭게 피어나다’로 해석한다면 어떨까¹⁴²⁾.

이와 비슷한 용례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秋夜長殊未央。繁榮明河素練光。河邊牛女政相望。用無梁。塞鴻孤向上林翔。桂子遠飄雲外芳。乍掠低鬟蹀回廊。織錦裁成君子裳。綺被盡鳳凰。羅裙綉鳶鷺。鳳被鳶裙祗添傷。却望明月懷異鄉。寄衣人未至。付書意何長。怛怛若迷方。燒盡芙蓉香。(菊磻集卷下 / 七言雜著¹⁴³⁾)

1591년에 간행된 윤현(尹鉉, 1514 ~ 1578)의 국간집(菊磻集)에 나오는 한시이다. 밑줄 친 어구 ‘燒盡芙蓉香’은 ‘부용향을 다 태우다’와 같이 해석된다. 여기서 부용향은 가늘고 긴 형태의 선향의 형태를 가진 향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시기의 졸옹집(拙翁集)¹⁴⁴⁾에는 칠언절구의 시에 「隣友李都事惠送芙蓉香」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웃친구 이도사가 ‘부용향’을 선물로 보냈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부용향은 명확하게 선물의 형태로 보내진 향이다.

139) 1989 『한국시화총편』1권, 동서문화원, p.1989

140) 김장은 한나라 장안의 김일제와 장안세를 가리키는데 두 사람의 자손이 7대를 이어가며 높은 벼슬을 한 데서 유래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141) 여기에서 부용향(芙蓉香)을 ‘부용이 향기롭다’로 해석할지 혹은 ‘부용향이 나다’로 해석할지는 향후 다른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해 검토할 계획이다.

142) 이에 관해서는 향후 동시대 문학작품 속 다른 용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세 고찰할 계획이다.

143) 한국고전종합DB

144) 조선 명종(明宗)~선조(宣祖) 때의 문신·학자인 홍성민(洪聖民)의 시문집. 10권 4책. 목판본. 1634년(인조 12) 손자 홍명구(洪命壽)가 편집·간행함. 모영(毛穎)이라는 가상의 무신을 등장시킨 〈천군견지수공수성(天君遣志帥攻愁城)〉 등의 작품이 수록됨.

封面書兼封裏香。殷勤來自錦衣郎。芙蓉好結閑中約。五柳亭邊一徜徉。(拙翁集卷之三/詩○七言絕句)

조선중기 여류가인 허난설헌(1563-1589)도 부용향을 태우며 변방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시를 짓고 있다. 조선사회에서 부용향은 남성 귀족뿐 아니라 여성 귀부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고급스런 최고의 향으로 인식되었다. 아마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고급스런 기호품이었을 것이다.

蟋蟀切切風瀟瀟(헤고절절풍소소) 매미소리 절절하고 바람마저 스산한데
芙蓉香褪永輪高(부용향퇴영륜고) 부용향은 사라지고 밝은 달이 높이 떴네
佳人手把金錯刀(가인수파금착도) 아름다운 사람이 가위를 손에 쥐고서
挑燈永夜縫征袍(도등영야봉정포)¹⁴⁵⁾ 긴 밤에 등잔불 돋우며 임의 군복을 꿰매네

남편이 전장에 출정한 후 아내의 외로움을 읊은 칠언절구의 한시다. 매미가 밤마다 애절하게 울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부용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면서 그 향기는 스러지고 차가운 달이 높게 떠있는 가을밤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芙蓉香’은 조선을 대표하는 ‘부용향’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설서에서 고유명사가 아닌 ‘연꽃향기’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부용=연꽃’이라는 오류와 함께 우리 전통향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온 결과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부용향은 혼례식이나 궁중 행사에 사용하는 향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혼란이 생겨난 것일까. ‘부용(芙蓉)’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부용(芙蓉)의 사전적 의미

중국어사전¹⁴⁶⁾에서 부용은「【芙蓉】① 見【木芙蓉】② 荷花: 出水~, 【木芙蓉】① 落葉灌木或小喬木, 葉子闊卵形, 花白色・粉紅色或紅色, 單瓣或重瓣, 結蒴果, 扁球形, 有毛.(낙엽관목 혹은 소교목, 잎은 넓고 난형이며, 꽃은 흰색의 연분홍 또는 붉은색, 홑잎이나 겹판, 물로키아, 편구형이며 털이 있다.) ② 這種植物的花. 也叫芙蓉或木蓮. (이 식물의 꽃은 부용이나 목련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어에서 ‘부용(芙蓉)’은 목부용과 하화(荷花), 두 가지 꽃 이름을 말하고 있다.

한국어사전¹⁴⁷⁾에서도 「부용(芙蓉) ① 아욱과의 낙엽관목. 중국 원산의 관상식물로 높이는 1~3m. 가지에 짧은 털이 있으며, 8~10월에 담홍색 꽃이 피. 목부용(木芙蓉). ②<연꽃>의 딴 이름.」과 같이, 목부용과 연꽃, 두 가지 꽃을 일컫는다.

한자어원사전¹⁴⁸⁾에서는 다음과 같다. 「芙(부용 부): 형성, 艸가 의미부이고, 夫가 소리부로, 식물의 일종인 부용을 말하는데, 연꽃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蓉(연꽃 용): 형성, 艸가 의미부이고, 容이 소리부로, 식물의 일종인 연꽃을 말한다.」

145) 『난설헌시집』 <칠언절구> 夜夜曲

146)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90, 334쪽, 807쪽.

147) 이기문,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 931쪽.

14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98쪽, 477쪽.

위와 같이 **부용(芙蓉)**은 두 가지 꽃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인해, 문학 텍스트 속에서도 부용향이 연꽃향기로 잘못 해석되어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욱과의 낙엽관목을 ‘부용’이라 말하고, 하화(荷花)는 곧 ‘연꽃’이라 말하며 부용이라 하지는 않는다.

5. 일본과 중국에 건너간 부용향

고대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 향과 향목은 권력의 심볼이었으며 값비싼 향을 자유롭게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의 반증이었다. 부용향은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향으로 왕실의 가장 큰 의식이었던 가례나 관례, 국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향이었다. 부용향을 태울 수 있었던 것은 왕과 왕실, 고위 귀족층뿐이었고 중국과 일본의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왕이 조선의 명품으로 하사하던 하사품이었다.

먼저 중국에 국상이 났을 때 제문(祭文)과 제폐(祭幣)를 가지고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진향사(進香使)를 파견하였는데 진향제폐 중에 부용향이 들어 있었고, 선조32년(1599)에는 중국의 사신 경리가 관왕묘에서 수록재를 올린다고 하여 부용향 6병을 요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도 조선을 대표하는 선물로 임금이 하사한 기록들이 산재한다. 현종12년(1671)에는 왜차 평성태(平成太)가 동래부에서 죽었을 때 상(喪)에 사용될 물품을 일본에 하사하는데 여기에 부용향 10개가 들어 있었다. 이에 ‘왜인은 본디 이 향을 귀하게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⁹⁾. 영조24년(1748)에는 조선통신사 통신부사로 남태기가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 와니우라(鰐浦)에서 그 배가 불에 타 물품을 전부 소실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부용향 3백10매가 불태워 없어졌다고 기록한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 조선의 부용향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 왕(쇼군)의 국상이 생기면 부용향을 가지고 조선 왕의 조의를 표하는 물품으로 사용된 것이다. 비단 국상뿐 아니라, 축하연이나 다례의식과 같은 연회에서도 부용향이 조선 왕의 하사품으로 전달되었다. 1738년 쓰시마 도주 소씨(宗氏)가 통신사 일행을 초대해 다례를 행했던 만송원다례(萬松院茶禮)에서 백화면주, 백목면과 함께 부용향 2지를 가지고 참가했다.

1763년 통신사행(通信使行) 때에 삼사신(三使臣)이 사예단(私禮單)으로 준비해 간 목록 중에 부용향 20자루가 포함되었고 이를 집정(執政) 네 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1652년에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사망하고, 쓰시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에도에 다녀왔으므로 문위행(問慰行)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예조참의가 쓰시마도주에게 부용향 10자루를 선물하였다. 1659년에는 쓰시마도주 소 요시나리가 죽고 아들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그 자리를 이었으므로 문위행을 통해 도주에게 부용향 50자루를 보냈으며, 1683년에 쇼군의 후계자가 죽어 도주가 에도에 다녀왔으므로 문위행을 파견하고 부용향 7자루를 함께 보냈다. 닛코산(日光山)에 치제(致祭)할 때에는 폐백으로 대부용향(大芙蓉香) 30자루를 준비하였다¹⁵⁰⁾.

149) 조선왕조실록 현종12년 신해(1671)12월 8일, 한국고전종합DB검색, 2020.8.11<http://db.itkc.or.kr>

부용향은 당시 고가의 침향이나 백단 등을 포함한 10여가지 한약재를 조선 고유의 레시피 비율로 독자적으로 만든 합향이다. 당시 유행하던 단향과는 다른 오묘하고 신비로운 향기를 내면서 조선 왕실과 왕을 상징하는 향으로 정착되었고 인근 외국들도 부용향을 통해 조선 전통향의 우수함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조선을 상징하는 향으로 부용향을 하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근린 외국은 조선의 부용향에 대해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부용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천년 부용향의 복원

조선왕실의 인센스 테라피- 동의보감 한방 레시피로 제작한 부용향시리즈



150)구사회(2015)『조선시대대일외교용어사전』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검색, 2020.8.11<http://waks.aks.ac.kr>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yonghyang.

Kim Young

According to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Buyonghyang is a candle-shaped scent that was smoked at a traditional wedding to chase away mischief. It is about five or six inches thick, and it is a traditional scent of ours that says, "God Jokdu-ri blooms in front of the bride by inserting it in a incense rack."

Figure 1 is a Buyonghyang during the Korean Empire, which is housed i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t is 19.5cm long and is presumed to be similar to the Joseon Dynasty.

The first appearance of Bu Yong-hyang in Korean literary works is the poem Nanbu in Honggan (?-1304) in the late Goryeo Dynasty. In "The long autumn night on the cloud windows and fog doors, the Buyong is fragrant on the silk tent with alcohol," the conventional commentary interprets it as Buyong = Lotus in the sense that Buyong is fragrant, that is, lotus flowers have a fragrant scent. I think this is an error that occurs when the appendix is interpreted as a 'lotus'. However, what if it was interpreted as "the scent blooms fragrant in the tent with silk and jewels drunk on pleasure"?

Buyonghyang was widely known not only in Joseon but also in China and Japan. When the national image of the king of China or Japan (shogun) occurred, it was used as an article to express condolences for the king of Joseon with Buyonghyang. Buyonghyang was delivered as a gift for the king of Joseon at banquets such as celebrations and tea ceremonies as well as national statues. It has a mysterious and mysterious sc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Danhyang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and it can be seen that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symbol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king, and nearby foreign countries have also recognized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Joseon through Buyonghyang.

노인을 위한 차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서 정 임
(대구차문화원 원장)

<국문 초록>

오늘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 수명은 늘었으나 사회적인 제도는 노령인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은 핵가족으로 변모한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시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차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차명상은 차를 마시며 마음의 유익한 기능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욕구 발생을 억제,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해로운 마음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차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점차 생활 전반에 걸쳐 명상이 확대되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 타인과의 생활도 순조롭게 되며 갈등과 정신적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앞으로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차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인요양시설 · 노인주간보호센터 ·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차명상 지도사 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제어: 차문화, 차명상, 노인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⁵¹⁾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사회 제도는 노령인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미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전통문화 생활 속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빠르게 변모

15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중장부처 시행계획」

한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노인에게 신체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및 삶의 만족도와 적응력을 떨어뜨려 성공적인 노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만성질환 및 노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재가 노인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¹⁵²⁾ 즉 그들은 가족들과 고립된 생활, 공동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약화와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노후 생활에 있어서 고독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시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시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운동요법, 인지각성증진요법, 물리치료 요법 등 다양한 간호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구연동화, 색종이 접기, 국악 교실, 노래 부르기 등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노인의 특성상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익숙하게 즐기던 차를 이용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거부감을 줄이고 응어리진 감정을 표출시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는 여타의 음료 혹은 물질적 대상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가 등의 전통과 만나 사상과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종교와 예술성, 사상과 철학은 물론 약리적 효능과 그 가치는 현대사회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고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¹⁵³⁾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음료 이상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차와 명상의 접목은 현대 사회의 명상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 된 것만은 아니다. 차는 이미 하나의 ‘도(道)’와 ‘정신’으로 불교 명상인 선 수행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다도(茶道)를 통하여 청정의 경지에 몰입하려는 행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다사(茶事)에 있지 않고, 불교의 선사상에서 추구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오묘함을 직접 체득하려는 정신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흔히 이러한 선사상과 다도의 접목은 ‘茶禪一如’라는 개념을 통해 전승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고는 차명상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근거로 차와 명상의 기능을 접목시켜 행동 영역이 자유로운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차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52) 유선희, 고성희 「마음챙김명상이 시설노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2016

153) 오용석, 「차명상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41집, 2020.

2. 차명상의 개념과 연구현황

명상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보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현대인에게는 명상이 건강과 웰빙 그리고 힐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스트레스 관리의 한 방법으로 널리 추천되고 있으며, 명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는 자연스럽게 명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한 잔의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는 차의 효능과 함께 오감을 자극하여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차명상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유익한 도움을 주는 차를 매개체로 하는 명상으로 차를 붓고 마시고 대접하는 일체의 행다를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각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차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듯 차명상은 차를 마시며 마음의 유익한 기능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욕구 발생을 억제,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해로운 마음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차명상을 통해서 점차 생활 전반에 걸쳐 명상이 확대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 타인과의 생활도 순조롭게 될 것이며 갈등과 정신적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3. 노인을 위한 차명상 프로그램 -행다 명상-

차는 명상을 보다 쉽고 흥미 있게 해주며, 명상에 필요한 믿음 · 집중 · 정신력 · 자각력 · 지혜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명상의 원리나 기법을 빨리 터득하게 해줄 수 있다. 행다는 차를 마실 때 행하는 모든 茶事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그 분위기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정신적 혹은 명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행다 명상은 차와 차도구를 준비하고 차를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여 본연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다. 찻물을 끓이고 다관에 차를 넣고, 차를 우려 찻잔에 따르고, 찻잔을 잡으러 가고, 탕색을 보고 차향을 맡고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고, 차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찻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을 때 공기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마저도 알아차린다. 마음집중과 알아차림은 일체의 불편하고 헛된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고, 행다명상을 하는 자는 고요함과 평온이 함께 하여 의식이 맑아지며, 모든 번뇌 망상이 제거된 ‘다선일여’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행다명상을 해가면서 접촉하는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챙기게 되고 깨어나는 의식으로 인해 대상과 일체감이 생긴다. 일체감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동요함이 없다.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¹⁵⁴⁾ 이때부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즉, 대상에 대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며 의미를 부여하고 결부시키는 마음이 멀어진다.

154) 원허, 『차와 명상』, 연꽃호수, p94, 2014.

행다명상을 할 때는 먼저 오감을 통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살핀다. 시각의 대상은 차탕의 색이며, 청각의 대상은 찻물 떨어지는 소리, 찻잔 부딪치는 소리이며, 후각의 대상은 차 향기, 미각의 대상은 차 맛이며, 촉각의 대상은 찻잔을 잡을 때의 촉감과 목으로 넘어갈 때의 묵직한 감각 등이다. 이 대상만이 아니라 이 오감의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 생각마저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나 인지가 약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행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는 스스로 차를 우려야 하는 실제 행다 명상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와 도구 없이 손동작만으로 수행하는 연상 행다 명상을 도입하기도 한다.¹⁵⁵⁾ 또는 차명상 진행자가 차를 우려서 노인이 차를 마시게 하고, 차도구를 만져보며 오감이 살아나게 유도할 수 있다. 행다 명상의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느끼고 알게 하며 일체감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차명상은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차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명상법과 비교할 때 노인들에게 적합한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를 이용한 명상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사회적 기능 · 정서적 기능 · 인지적 기능에 도움이 된다. 현대인들은 이미 건강상의 유익함과 더불어 휴식과 이완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로 심신 치유의 작용을 기대하며 차를 애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을 위한 특화된 명상이 병행되기만 한다면 노인들은 마음의 평온과 자각력을 찾을 수 있으며, 들숨과 날숨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고독감 등 노인 정신질환의 치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차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요양시설 · 노인주간보호센터 ·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차명상 지도사 양성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155) 이진수, 『차치료학』, 원광디지털대학교, 2011. p.78.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ea Medit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the advancement of medicine,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but the social system is not keeping up with the level of the elderly population. Thus, the elderly are having a hard time adapting to the modern nuclear family society and are suffering from tremendous stress. In order to having a stable and successful life in old 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solve the loneliness and relieve stress of the elderly.

The ultimate goal of Tea Meditation is to know oneself correctly and live a happy life. While drinking a tea, Tea Meditation can develop and utilize beneficial functions of the mind to remove harmful elements of the mind with the suppression and block of our desires. Knowing oneself through Tea Meditation, it will be gradually expanded into the life and the conflicts and mental pains from others can be freed with having the calm mind and understanding oneself.

In the near future, the efficient and diverse Tea Medit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vely implemented in various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structors would be actively trained to satisfy these needs and operate the programs.

Keywords: Tea Culture, Tea Meditation, The Elderly

류함柳涵과 환산정環山亭

-취옹정醉翁亭과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임준성
(광주여대)

1. 문제제기

화순군은 예부터 누정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한 곳으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200여 소¹⁵⁶⁾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누정으로는 물염정(勿染亭), 임대정(臨對亭), 영벽정(映碧亭), 부춘정(富春亭), 송석정(松石亭)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환산정(環山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환산정은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에 있다.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안양산 아래 호수처럼 생긴 저수지 한쪽 끝에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단아하게 앉아 있다.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환산정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역사적 문헌적 가치가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 둘째 환산정의 건립 동기에서 중국 북송 때 문인 구양수(歐陽修)의 취옹정(醉翁亭)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셋째 2019년 화순의 고사정(高士亭) 중건 과정에서 발견된 『백천유집(百泉遺集)』에 있다.

환산정은 현재의 누정은 후손 낙호(樂浩) 등에 의해 1896년에 중건하였고, 1933년에 또다시 보수하면서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가운데 방을 앉히고 사방에 마루를 냈다. 현재 현판 16점, 주련 5점 등 21개의 목판기록물이 남아 있다.



2. 환산정의 주인과 내력

환산정의 주인은 백천(百泉) 류함(柳涵, 1576~1661)¹⁵⁷⁾이다. 그는 경기도 풍양(豐壤, 현재

156) 1985년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존 누정 80개 소, 비현존 누정 106개소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문헌자료까지 합하면 186개 소이다.

157)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에 따르면 류함에 대한 정보는 1건 존재하며, 이는 조선중기 명종 때 인물로 환산정 주인과는 동명이인이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전주와 김제를 거쳐 화순으로 입향했다고 전한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 등과 교유하면서 이기(理氣)를 논하며 <사서설(四書說)>을 짓는 등 학문이 뛰어난 인물로 이름이 났다. 병자호란 당시 조수성(曹守誠, ?~?)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인조(仁祖)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여 강화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이후 고향에 내려와 환산정을 짓고 풍천을 생각하며 숨어지냈다고 한다. 1919년 후손들에 의해 유고집인 『백천유집(百泉遺集)』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그간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2019년 화순군 고사정(高士亭)¹⁵⁸⁾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가 남긴 시(詩)는 “낙하절창(洛下絶唱)이요, 남중독보(南中獨步)”라고 평을 받을 정도로 단아하고 진솔하다. 문(文) 역시 “소박하고 곧아서 세속의 아름답고 화려함이나, 애절하고 기교를 추구하는 자들이 발돋움하며 바랄 바가 아니다.”라는 평을 받았다.

류함에 대한 자세한 자료로는 현산정에 걸려 있는 현판 <사실(事實)>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의 휘는 함, 자는 자정, 호는 백천이다. 성은 문화 류씨이다. 만력 병자년(1576) 관동 정사에서 태어났다. 평소 성품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깊이 사색하거나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입하였으며, 의지와 기개가 단정하고 응중하였으며 도의가 법률에 부합하였다. 충효로 집안 대대로 보물로 삼았으며, 지봉 이수광, 우복 정경세 등 여러 어진 선비와 함께 도의로 사귀었으며, 이와 기를 논한 문답이 있었고, 서로 시를 주고 받았다. 화순에 살면서 사림들이 추대하여 향선생¹⁵⁹⁾으로 삼아 영재를 교육하고 성취함이 많았다. 병자년(1636)에 고을 어진 선비들과 족손 백석, 류집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여러 장사들과 함께 피를 토하며 이르기 “임진년에 큰형님이 평양에서 순절하였고, 정유년에 계매는 죽어서 정조를 지켰으니 지금 국가의 존망이 아침 저녁으로 닳았으니 내 어찌 홀로 군부의 욕됨을 차마 보고서도 구차하게 살겠는가”하고, 별빛 찬란한 밤에 급히 달려가 청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맹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남으로 돌아왔다. 세상에 뜻을 접고 서암 산중에 숨어지내며 환산정을 짓고 소요음영하여 풍천을 생각¹⁶⁰⁾하며 지냈다.¹⁶¹⁾

158) 고사정은 최후헌(崔後憲, 1594~1679)이 그의 부친 인재공(忍齋公) 최홍우(崔弘宇, 1562~1636)를 위해 건립한 누정이다. 인재공(忍齋公)은 화순(和順) 출신으로 임진란(壬辰亂) 때 의병을 일으킨 죽계공(竹溪公) 최경장(崔慶長)의 아드님이자, 삼계공(三溪公) 최경회(崔慶會)의 조카다. 그는 임진란 때 중부(仲父) 최경회와 부친 최경장을 따라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임진란이 끝난 뒤에는 은거하였다가, 인조(仁祖) 2(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태인(泰仁)까지 올라갔으나,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초야에 묻혀 평생을 마쳤다. 인조가 최홍우(崔弘宇)의 행적을 기리어 ‘남주고사(南州高士)’라는 호를 내려주자, 그의 아들 최후헌(崔後憲)이 이를 기념하여 숙종(肅宗) 4(1678)년에 고사정(高士亭)을 세웠고, 현판은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썼으며, 고사정 팔경시(八景詩)도 남아 있다.

159) 향선생은 한 고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다. 옛날 늙은 관원이 치사(致仕)한 뒤 고향으로 내려올 경우, 중대부(中大夫)로서 치사한 사람은 태사(太師)로 삼고 사(士)로서 치사한 사람은 소사(少師)로 삼아 향학(鄉學)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노선생들을 향선생이라고 한다.

160) 주(周) 나라 왕실이 쇠미해짐을 탄식한 『시경』 회풍(檜風)의 비풍(匪風)과 조풍(曹風)의 하천(下泉) 시를 슬픈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161) <事實>, 公諱涵 字子淨 號百泉 氏柳文化人 萬曆丙子生 館洞精舍 雅性沈潛 志氣端凝 以道義爲律已之符 以忠孝爲傳家之寶 與李芝峰 鄭愚伏諸賢爲道義交有理氣問答 多吟咏酬唱 寓居和順 士林推爲鄉先生 教育英

<사실>을 토대로 하면 류함의 사람됨과 환산정 건립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단정하고 응중한 성품, 충효를 중요시하는 집안 가풍, 성리학의 주요 논조인 이기(理氣)의 학문적 취향을 엿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순에서 향선생으로 추대한 것으로 인품과 덕망을 소유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큰형님을 여의고, 정유재란 때 여동생의 정조를 지키고자 죽음을 택한 비극적인 사실, 『백천유집』에 따르면 기축옥사 때 중부(仲父) 교리공의 참변 등으로 인해 그가 고향인 경기도를 떠나 화순까지 내려온 경위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류함은 충효의열(忠孝義烈)을 중시한 인물임을 알 수 있겠다. 또한 환산정을 세운 시기는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맹세를 한 굴욕적인 사건인 병자호란, 곧 1636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환산정은 건립 이후 두 번의 중건과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상은 물로 둘러싸여 있다. 사정을 알고보니 1965년 서성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했다.

서석산 아래 서암이라 부르는 고을이 있다. 여러 봉우리들이 줄서듯 하여 고리처럼 둘러섰다. 그 가운데 산자락이 숲다리미처럼 솟아 올랐다. 흰물이 감싸 흐르고, 깎아지른 붉은 절벽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그림같다. 사명산천(四明山川)에 내리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인(異人)의 굴택(屈宅)이 있었을 것이다. 오직 우리 십세조 백천공의 환산정이 바로 이것이다.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냇을 잃고 바위에 숨어지냈다. 시에 이르기를 잎사귀의 춘추로 세월을 잊었고 마음 가운데 일월은 황명을 보존하였다. 다만 이 한 구절로 그 마음 속의 대의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건물은 헐어지고 그 유허에 높이 누정을 세웠으니 이 어찌 금구금당¹⁶²⁾함이 아니겠는가. 청풍에 떨어지지 않고 고산장수의 사이에 있음과 같으니 옷깃을 여미고 누정에 오르면 마음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공손한 마음 어찌 다만 뿔앞에 느낄 뿐인가. 대략 이와 같이 기록하여 갱장의 뜻을 붙이노라.¹⁶³⁾

후손 류동영(柳東榮)이 지은 <환산정중건기(環山亭重建記)>에서 환산정의 처음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 알 수 있다. 환산정이 자리한 서암 고을은 주위에 여러 봉우리들이 외

才 多有成就 逮之丙子 與本縣諸賢 及族孫 白石楫募義 招諸壯之士 泣血書心 日壬辰伯兄殉節於平壤 丁酉季妹死烈於沙浦 方今國家存亡 迫在朝夕 吾溪獨忍見君父之辱而偷生爲也 星夜赴急 到清州 聞城下之盟 痛哭南還 絕意世事 隱居瑞巖山中構環山亭 逍遙吟咏 以寓風泉之思

162) 선조의 유업(遺業)을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 『서경』 <대고(大誥)>에 “만일 아버지가 집을 지어 이미 법을 이루었거늘, 그 자식이 기꺼이 당의 터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구축하겠는가.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63) <環山亭重建記>, 瑞石山下有洞曰瑞巖 羅列諸峯如環而周連 中有斷麓 如熨而突起 白水帶繞 丹崖屏立 隱隱如畫 不下於四明山川 此必有異人屈宅 而惟吾十世祖 百泉公環山亭是也 丙警倡義 落魄栖巖 有詩曰 葉上春秋忘甲子 心中日月保皇明 只此一句 而其胸中大義可概矣 堂毀 遺址 翼然亭起 是豈非作底法 肯堂肯構者耶 不墜清風 如存乎亭山長水間也 把衣陟亭 心敬心恭之心 豈但感桑而已哉 略 記如右 以寓羹牆萬一之意云爾. 丙申重陽十世孫 東榮 謹書

호하듯이 줄지어 섰으며, 그 가운데 다리미의 앞 부분 세모처럼 솟아오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만일 지금 저수지 물이 빠지면 <환산정중건기>에 언급했듯이 환산정은 마치 절해고도에 놓인 섬처럼 외따른 모습으로 우뚝 솟아져 보이지 않을까 싶다. 사명(四明)은 이백의 시 <대주억하감(對酒憶賀監)>에 ‘사명에 미친 나그네 있었으니(四明有狂客), 풍류 넘치는 하계진이로다(風流賀季眞). 장안에서 한 번 서로 만나서는(長安一相見), 나를 적선인이라 불렀지(呼我謫仙人)’라고 한 바와 같이 당나라 때 시인 하지장(賀知章, 659~744)을 말한다. 굴택(屈宅)은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屈原)의 집으로 환산정의 주인은 하계진처럼 풍류가 넘치고, 굴원처럼 숨어사는 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환산정과 취옹정과 의 영향관계

대부분의 누정은 그 건립과정을 기록한 양식으로써 기문(記文)이 존재한다. 환산정도 마찬가지로 <환산정기(環山亭記)>가 있다.

환산의 저(滁)에는 옛날에도 누정이 있었다. 환산 고을에 지금 누정이 있으니, 다만 구양수라는 한 노인의 지취와 우리 선조 백천공의 자취는 가히 이름난 누정과 같지 아니함으로써 다름이 있다 하겠는가. 오직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 곳 청성¹⁶⁴⁾ 밖에 여기 있다. 옛날에 지팡이와 짚신이 머문 곳이요, 한가한 날에 거문고와 책을 즐겨 바라본 자리이다. 사람은 떠나고 건물은 허물어져 속절없이 송석만 남아 거의 재택¹⁶⁵⁾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다.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은 몇몇함에도 운 또한 순환하는 것인가. 이제 병신년(1896)에 누정을 다시 높이 세웠으니 이 어찌 우연함일인가. 내가 후세에 태어났기에 그 터를 버리지 아니한 마음이 있다. 우리 선조 또한 반드시 지하에서 웃고 있으리라. 앞으로는 적벽에 광채 더하고, 벽간을 끼고 흐르니 부끄러움이 없다. 누정에 기대에 주위를 둘러보니 밝은 달이 천리를 비추도다. 일찍이 고인의 이 땅에 비추었으니 고인은 그 누구인가. 천년의 구름은 유유히 멀리 창밖을 바라보네. 이 건물을 쓸 때 붓을 잡은 선비는 누구인가. 갱장을 사모함¹⁶⁶⁾을 마다않고 옛적에 비친 천년 구름 속 달을 보고 느낌이 있으니 시험삼아 아는 것이 있음을 물어 이것으로써 환산정기로 삼노라.¹⁶⁷⁾

164) 북송(北宋) 때 재궁(齋宮)으로,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에 있었다. 금(金)나라가 쳐들어와 청성에 군대를 주둔하고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휘종과 흠종은 이곳에서 포로로 잡혀가 흑룡강 주위에 있는 오국성(五國城)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 또한 후에는 금나라의 말제(末帝)가 청성에서 원(元)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宋史 卷22 徽宗本紀, 卷23 欽宗本紀』, 『金史 卷18 哀宗下』 여기에서는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65) 금곡원(金谷園)의 별칭으로 진(晉)나라 때의 부호 석송(石崇)의 정원을 말한다.

166) 국과 담장을 보기만 하여도 사모하는 마음이 든다는 말로 돌아가신 선왕이나 현인을 경모(敬慕)하고 추념(追念)함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 권63 <이고열전(李固列傳)>에 “옛적에 요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순 임금이 3년 동안 우러러 그리워하여 앉으면 담장에서 요 임금을 보았고, 밥을 먹으면 국에서 요 임금을 보았습니다. 昔堯殂之後 舜仰慕三年 坐則見堯於牆 食則睹堯於羹”라고 한 데서 나왔다.

167) <環山亭記>, 環山之滁 古有亭焉 環山之汝 今有亭焉 歐居士只一翁之趣 吾先祖百泉公之趣 不可以亭名之不同謂乎 其有異也 惟我不睡之地 青城之外 有此區 昔年杖屨棲息之所 暇日琴書 欽娛之址 人去堂頽 空餘松石 庶作梓澤之丘墟矣 勝地有常 運亦循環 逮今丙申 亭復高出 是豈偶然 余有後不棄基之心 吾先祖亦必有含於地下矣 增采乎 前對之赤壁 無愧乎夾流之碧澗 倚亭環視 明明千里之月曾經照 古人此地 古人曾其誰 悠悠千載之雲 亦飛遠窓 筆此堂操筆之士 果其誰羹牆之慕 不己有感乎 照占千載之雲月 試問其如有知 而以是爲記焉

환산정의 위치와 환산이라 지은 내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구양수가 지은 <취옹정기>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예를 맹세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숨어지낸 자취가 쇠락하여 다시 짓는 십세손 태영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정의 이름 ‘환산’은 무슨 뜻일까. 9세손 상철(相喆)이 지은 <환산정중수기(環山亭重修記)>에서 엿볼 수 있다.

누정을 환산이라 하는데, 대개 구양수의 <취옹정기> 가운데에서 취한 것으로 숨어 지내면서 도를 가르치는 곳으로 삼은 것이다. 옛날에 우리 구세조 백천선생께서 장릉¹⁶⁸⁾ 병자호란에 의병을 모집하여 난리에 달라가다가 화친을 맺자 지조와 절개를 펼치지 못하고 이곳에 숨어 지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누정을 지었던 바라. 이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누정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라도 일찍이 슬퍼하고 주저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하물며 자손이 되는 자라 말해 뉘하겠는가. 지난 병신년(1896)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님이 개연히 생각하여 가족을 모아 상의하기를 선조께서 숨어지낸 자취가 아주 없어지게 할 수 없다 하여 각각 돈을 내어 옛터를 중건하였으니 그 지나간 옛일을 생각하여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이 과연 어떠한가. 슬프도다. 오늘날 병신년과 거리가 겨우 사십년인데 그 사이에 불가불 헐어짐에 따라 보수하였는데, 오직 이 누정 자리는 땅이 높고 메말라서 비바람을 가리기 어려웠고, 높은 창은 더럽고, 주춧돌이 허물어져 마침내 보수하고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이 해 7월 보름에 종회를 크게 열어서 새로 짓기를 도모하였으니, 이 작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이는 먼 촌수의 조카인 기수가 하고, 더불어 그 일을 감독하는 자는 성영, 기봉, 기준, 봉진, 길현이다. 슬프도다. 이 누정을 이어서 계속 썩지 아니한즉 누가 기수의 인효가 깊다고 앎겠는가. 또한 한마디 할 것이 있다. 옛 누정의 퇴락함을 후손이 새로 짓는 것은 직분이지만, 원컨대 후손들은 누정을 닦음으로써 우리 일을 마쳤다고 하지 말고 이 누정에 올라 정이 두텁고 화목하여 서로 먼저하고 시와 예에 힘써 아침저녁으로 밝게 하면 선조의 지조와 절개로 하여금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선조의 영이 또한 거의 이르기를 나의 뒤가 있어 터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 공사기간은 대개 오개월이 걸려 마쳤다. 돌이켜 보건대 불초로서 참담함을 잊고 이를 기록하려는 것은 가족과 여러 친구들의 부탁이니 능히 사양하지 못했다.¹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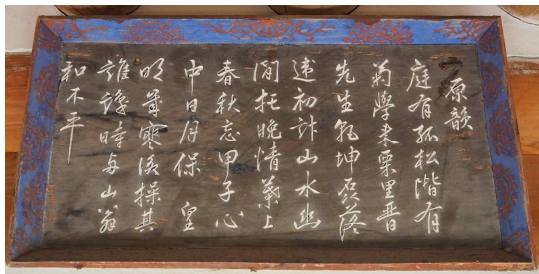
癸酉三月 日 十世孫 台榮 謹記

168)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를 모신 능이다. 사적 203호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다.

169) <環山亭重修記>, 亭以環山 蓋取諸歐陽子醉翁亭記中語 而因以爲隱居講道之所者也 昔我九世祖 百泉府君 長陵丙子之亂 募義勤王 而構議中 或志節未伸 筮遯于此此亭之所以創如也 自是厥後 星霜屢變 亭頽地荒 雖尋常過之者 未嘗不齋咨逗遛皇爲子孫乎 往在丙申 先父兄 慨然念翁 聚族相議曰 先祖之嘉遯遺蹟 不可以泯沒 迺各出義 就遺址而重建之 其追遠紹述 果何如耶 嗚呼 今距丙申纔四十 年 其間不容不隨缺隨補 而惟此亭址高燥 風雨難禦 軒窓汚矣 柱礎壞矣 竟未免保守之難 是歲七月之望 大開族會 謀所以重新之 茲役之終始 經紀族從基守實主之 而與之董其役者 聖榮 基奉 基準 奉鎮 吉鉉也 噫 斯亭也繼自今而不朽 則孰云非基守仁孝之深也歟 又有一說焉 先亭之頽落 後孫之堂構 職分耳願僉族 勿以亭之修爲吾事已了 登斯亭也 孰睦以相先 詩禮以相勉夙夜講明 使先祖之志節 不墜於地 則先祖之靈 亦庶幾日 余有後不棄基哉 工蓋五閱月而告訖 願以不肖忘僭而記事者 族中僉賢之屬 不能結辭也 時乙亥復月 上澣 九世孫 相喆 謹書

앞서 서술한 <환산정기>와 마찬가지로 환산정은 ‘누정을 환산이라 하는데, 대개 구양수의 <취옹정기>에서 취한 것으로 숨어 지내면서 도를 가르치는 곳으로 삼았다.’라 한 것으로 보아 송나라 때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취옹정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취옹정기(醉翁亭記)>는 구양수(歐陽修)가 1046년 유배살이 중 지저주(知滁州)에 있을 때 어느 승려가 저주의 낭야산(琅琊山)에 유람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누정을 세웠다. 구양수가 저주로 좌천된 경위를 살펴보면 1043년 3월에 37세 때였다. 구양수는 개봉(開封, 중국 하남성 개봉시)으로 불려와, 천자(天子)에 대하여 간언(諫言)을 행하는 간원(諫院)의 장관이 되었다. 이어 8월에는 범중엄(范仲淹, 989~1052)이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고, 부필(富弼, 1004~1083)이 군정(軍政) 담당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으며, 12월에 구양수는 지제고(知制誥)가 되었다. 1045년 정월에 구양수는 진정부(眞定府) 원수였던 전황(田況, 1003~1061)을 대신하여 지부사(知府事)가 되었다. 그런데 3월에 범중엄, 부필, 두연(杜衍, 978~1057), 한기(韓琦, 1008~1075) 등이 봉당(朋黨) 논의에 의해 파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의한 구양수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탄핵되어, 8월에 지저주로 좌천되기에 이르렀다. 구양수는 1048년 정월에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전환하여 지제고(知制誥)로 복귀하여 지양주(知楊洲, 중국 강소성 양주시)로 옮겨가기 전 약 2년 3개월을 지저주에서 지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취옹정기>를 지었다고 한다.

구양수는 산에 올라 산천 구경을 한 다음에 늘 그 누정에서 술을 마시며 글을 지었다고 하며, 자신을 ‘취옹(醉翁)’이라고 부르고 그 누정을 ‘취옹정(醉翁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



기서 취옹이라고 한 것은 취옹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수 간에 있다. 산수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마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는 술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류함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울분을 술에 취해 산수간에 노니는 것으로 풀었을까. 그가 남긴 시한 수를 읊어본다.

庭有孤松階有菊
學來栗里晉先生
乾坤磊落違初計
山水幽閒托晚情
棄上春秋忘甲子
心中日月保皇明
歲寒後操其誰識
時與山翁和不平

뜰에는 외로운 소나무, 계단에 국화 있고
울리(栗里)에 진선생(晉先生)을 배우려 왔네
하늘땅은 퇴락하여 첫 계획을 어긋나고
산수는 유한하니 늦정을 부치네
앞사귀에 춘추로 세월을 잊었고
마음 가운데 일월은 황명을 보존했네
세한 지난 지조를 그 님이 알라
때는 산옹과 더불어 불평을 화하네

뜰에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달며 언제나 변함없는 소나무가 있고, 계단에는 서리맞은 국

화가 차가운 날씨에 아랑곳없이 피었다. 시인은 동진(東晉) 때 도연명(陶淵明)이 평생을 숨어지내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와 닮고 싶어한다. 선비가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임금과 도와 백성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말았다. 뜻이 꺾인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없었는지 시인은 그저 자연 속으로 침잠하고 싶을 뿐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지조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하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뜻이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결국 부질없음을 깨달았음을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다. 바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내는 동안 시대와의 불화(不和), 곧 마지막 운(韻)인 ‘평(平)’을 ‘화평(和平)’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Ryu Ham(柳涵) and Hwansanjeong(環山亭)

Lim Jun-sung
(Kwangju women UNIV)

<Abstract>

In Hwasun County, the Nujeong culture has flourished since ancient times. It is distributed so widely that it corresponds to 200, the largest number in the country. Some of the well-known pavilions include Mulyeomjeong(勿染亭), Limaejeong(臨對亭), Yeongbyeokjeong(映碧亭), Hwansanjeong(環山亭), which is not well known among them,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Hwansanjeong(環山亭) Pavilion is located in Seoseong-ri, Dong-myeon, Hwasung-gun, Jeollanam-do. It is located under Anyangsan Mountain, which runs southeast from Mudeungsan Mountain in Honam. It sits gracefully at one end of a lake-like reservoir, like a painting. It is designated as Hwasun-gun Local Cultural Heritage No. 35.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e conversion rate has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First, although it has historical and literary value, it is not well known. Second, the mo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Hwansanjeong is that it was influenced by Chuiongyeong(醉翁亭) of Gu Yangsu(歐陽修), a writer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China. Third, it is in the 《Baekcheon Yujip(百泉遺集)》, which was discovered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osajeong(高士亭) in Hwasun in 2019.

Hwansanjeong(環山亭) Pavilion was newly built in 1896 by Nakho(樂浩), a descendant of the present. It was renovated again in 1933, with a central room and flooring on all sides. Currently, there are 21 woodblock records, including 16 signboards and 5 pillar work records.

광양의 보물섬 금호도 인문 기행 활성화 방안¹⁷⁰⁾

백숙아
(한국가사문학학술연구원)

목 차

- I. 시작하며
- II.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이전의 금호도
 - 1. 사시사철 따뜻하고 넉넉했던 해산물
 - 2. 금호도 이름 유래에 대하여
 - 3. 이주민 1세대들이 말하는 금호도 옛 이야기
- III. 마치며

I. 시작하며

예로부터 광양은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름난 곳이다. 조선시대 어사 박문수가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전라도요, 전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광양이(朝鮮之全羅道全羅之光陽)’라고 했던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축복 받은 땅 광양에 ‘보물섬’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지역 기업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잊혀져가는 옛 문화를 발굴하여 현 시대의 문화와 연계·보존·가꾸기·홍보’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관광 인프라에 집중되어 잊혀져가는 ‘광양의 보물섬 금호도’의 옛 정취와 문화에 대한 관심 부재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이성과 감정, 인간과 기계, 자연과 문명, 과학과 예술 등을 융합하는 인문 융합 시대이다. 농업, 공업, 어업, 상업 등의 융합 도시 문화가 도래된 고장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고향을 떠나 육지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금호도 이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오늘날 광양의 경제부흥과 도시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광양제철소와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광양의 보물섬인 금호도 옛 정취와 문화를 발굴·보존·가꾸기·홍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금호도의 옛날과 현재 문화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보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1983년 광양제철소가 착공된 이후 광양시 경제자립도는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 광양시의 경제자립도가 높아지고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

170)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기는 하였지만 자연환경 훼손이나 지역민의 이타적인 분위기 등 얼마간의 손실이 발생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광양제철소는 광양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세계 철강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다. 광양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최대한 구릉지나 둔덕 등 옛 금호도 자연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조경이나 주택을 건설한 것은 이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생활하며 다녔던 길들을 이용하여 도로를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금호도 전체를 걸어보거나 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면 이러한 감동이 피부로 느껴진다.

다만 금호도가 고향인 이주민들의 추억을 엿볼 수 있는 활로가 막혔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주민들은 이웃 고장인 광영동에 집단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주민 1·2세대는 금호도 이주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금호도 이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나서서 현재 금호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는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금호도 옛 역사 발굴·보존·홍보 및 광양제철소와 금호도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Ⅱ.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이전의 금호도



그림 54 금호도 옛 전경

1. 사시사철 따뜻하고 넉넉했던 해산물

광양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백운산과 지리산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어 사시사철 기온이 온화하고 센 바람을 타지 않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전 금호도 원주민들은 김 생산과 굴 양식업, 그리고 고기 잡이로 인한 경제자립도가 아주 높았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된 이후에도 금호도 경제자립도는 전라남도에서 당연 1위이다. 따라서 광양제철소 건설 전·후를 통틀어 보았을 때 금호도를 광양의 보물섬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여름이면 해풍이 불어와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이 보물섬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이 종일 비껴가지 않는 양지 바른 섬이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직전까지 겨울철이면 오밀조밀한 향아리를 장식해 놓은 듯 늘어선 섬 주변으로 김 양식장이 장관을 이루었다. 김 양식장은 섬 주민의 경제적 보고였으며 생산량도 많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살림살이의 재원 역할을 해줬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직전까지 금호도 원주민들은 겨울이면 김을 생산하고 봄가을엔 어패류 양식업을 하였으며 여름이면 고기잡이를 하며 생활을 영위하였다. 섬진강 하류에 자리하여 어패류나 김 수확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춘 덕에 ‘겨울이면 길거리에 다니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물적 자원이 풍요로운 섬이었다. 섬마을 아이들은 보리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 물론 빈부 차이가 심하여 가난한 집 아이들도 많았지만 대체로 경제자립도가 높았던 섬이라서 먹고 사는 일에 힘들지는 않았다. 태풍도 홍수도 보물섬 주민들에게겐 피해를 주지 않고 늘 가벼이 지나갔다. 겨울에도 기온이 따뜻하여 눈 쌓인 경치를 구경하려면 몇 년이 걸릴 정도이다. 아마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직한 안산과 내동마을과 대동마을을 거쳐 메산 끝까지 이어진 둔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름다운 풍광과 풍족한 바다자원은 주민들의 사계절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

금호도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금호도 이름 유래에 대하여 우도牛島(쇠섬)와 금도金島(쇠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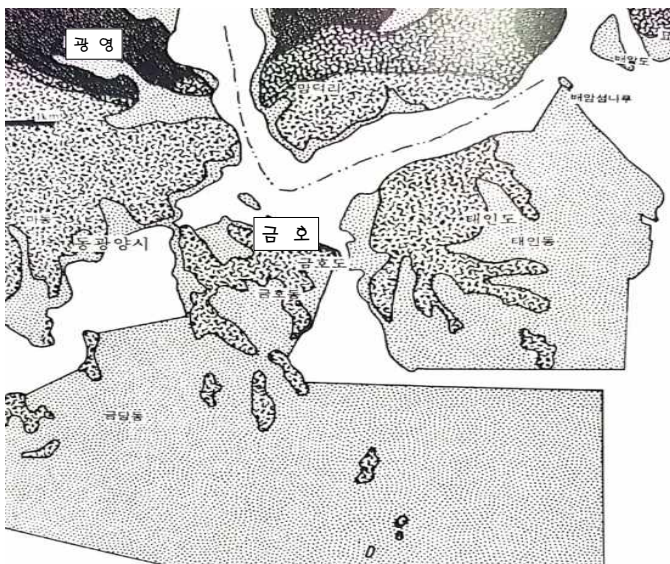


그림 55 광영동 이주단지, 그리고 금호도와 주변 섬 지도

금호도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때 기록이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없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도牛島’라는 지명으로 처음 나타났다.

1740년경에 제작되었던 『해동지도』에도 ‘우도牛島’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 제6책 <전라도편>에는 옥곡면에 속하였으며 ‘우도촌牛島村’이라는 고을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다가 1861년 『명례공수세절목』과 1872년 『광양현 지도』에는 ‘금도金島’로 기록되었다.

1899년에 편찬된 『돌산군지』 설명 편에도 ‘금도金島’ 또는 ‘금호金湖’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도牛島’가 오늘날 ‘금호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돌산군에 편입된 1896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⁷¹⁾

171) 김정호 외, 『태인도와 금호도』, 향토문화진흥원, 1994.

‘우도牛島’가 ‘금도金島’로 바뀌고, ‘금호도金湖島’로 불리게 된 유래는 그 어느 자료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다. 때문에 전해오는 말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해볼 수밖에 없다. ‘우도牛島’와 ‘금도金島’를 한자 뜻글자로 풀어 보면 ‘쇠섬’이다. 선인들은 소의 형국을 닮은 섬이라서 ‘쇠섬(牛島)’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누군가 ‘소’를 ‘쇠(牛)’라고 표현하였으며, 지역민들의 방언을 잘못 이해하여 ‘철을 뜻하는 쇠(金)’, 즉 금도로 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광양제철소가 건설된 것은 선조들의 선견지명이 작용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이 점에 대하여 전설처럼 들어왔던 말이 있다.

‘금도(金島)’가 제철소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듣게 된 것은 필자의 부친인 고故 백두석 씨로부터였다. 고인은 금호도 도촌마을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이다. 고인은 고기잡이에 매우 능숙하여 다른 사람들이 빈 배로 들어올 때에도 늘 만전을 이루었을 정도로 고기잡이 귀재로 정평이 났었다. 오죽하면 ‘송어가 잠자는 소리도 듣는 사람이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그림 56 그물 줍는 모습(故 백두석 씨)

고인은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15년여 전에 이미 광양제철소가 설립될 것을 예견했다. 필자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금호도 한자는 ‘쇠금(金), 호수 호(湖), 섬 도(島)’를 쓴단다. 그런데 예전에 이 섬의 이름은 쇠섬이었다. 도촌마을은 쇠머리에 속하고, 너희 윗대 할아버지 묘를 쓴 곳을 쇠모가지라고 부르는데 쇠섬이니까 쇠모가지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옛 어른 중 누군가 오독(誤讀: 잘못 해석)하여 ‘소(牛)’가 ‘쇠(金)’로 바뀌게 된 거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명이 바뀐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다. 쇠(牛)가 쇠(金)로 바뀐 것은 언젠가 이 섬이 분명히 쇠덩어리가 되든지 금덩어리가 될 거라는 선인들의 견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냐? 언젠가 이 섬은 언젠가 쇠덩어리나 금덩어리가 될 거야.”라고 어린 딸아이에게 가끔 예언을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은 초등학생이었던 필자가 스물을 갓 넘을 즈음 정말로 광양제철소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1년 후(1983년)에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제철소가 들어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시기에 고인은 지명으로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다.

‘우도(牛島쇠섬)’였던 본래 이름이 ‘금도(金島쇠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금호도(金湖島)’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바뀐 ‘금호도’라는 지명이 공업화된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는 고인의 예견은 쇠섬의 산업화와 맞닿는 말이다. 한편, 금호도 이주민 2세대 중에는 옛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현재의 지명이 산업화된 현실과 부합하다 할지라도 옛 지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3. 이주민 1세대들이 말하는 금호도 옛 이야기

1) 금호도 이주민 1세대인 백영기 씨 부부를 만나다

대동에 살았던 백영기 씨 부부를 만나 옛 금호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백영기 씨는 태

인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다. 금도초등학교는 2년 뒤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태인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어린 시절 고통을 겪었던 초등학교 때 일들을 환히 기억한다. “일본인들이 득세하고 금호도에는 당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때 태인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추운 겨울에도 강제로 반바지에 일본 전통 신발인 게다를 신고 다니게 하는 혹독한 고충을 당했습니다. 대동마을 끝 작은도에서 나룻배를 타고 태인초등학교(태인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음력설도 한국식 명절이라며 종일 공부를 시켰고 학교에 출석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본어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해방이 되고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말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희열이 느껴집니다. 해방 직후에는 태인도에 학교가 없어서 무허가로 설립된 갈리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선생을 했을 정도로 무지한 세상이었지요. 진상중학교와 순천사범학교를 졸업했지요.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다가 4년여 동안 이장을 그림 57 백영기 씨 부부 역임했습니다. 쇠섬 전체를 대표로 하여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마을 새마을지도자는 군수가 임명하고 리 단위 새마을지도자는 도에서 임명을 하였는데 이장직과 겸하였지요. 아내 박정순 씨도 여성새마을지도자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학력도 갖춘 인재라고 전라남도에서 특채를 권유했지만 급여가 작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 것 같아 어부로 남았습니다.”



“금호도에 맨 처음 장 씨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이후에 수원 백 씨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장 씨들은 처음 금호도에 들어와서 밭을 일구는 데 힘을 쏟았고 백 씨들은 묘 자리를 잡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백 씨 선조 묘 자리들은 섬에서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했다지요. 금호도에 처음 입성한 수원 백 씨 선조는 벼슬을 하다가 귀양을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요. 선조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대동마을에 터전을 잡았고 작은 아들은 내동마을과 도촌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큰아들은 4형제를 두었고 어난들에 묘를 썼고, 내동과 도촌에 뿌리를 내린 둘째 아들은 5형제를 두었으며 쇠모가지에 묘를 썼습니다. 쇠모가지에 묘를 쓴 선조 두 부부의 묘를 합장으로 써서 봉상이 일반인들보다 배나 컸습니다. 일제 때 할아버지(백인선)가 이장을 하셨고 돌산군 때 태금면 집강(면장)직을 역임하셨어요. 즉 할아버지가 태인면 송장도(하포 신성포 앞), 장도, 계섬, 중섬, 양개섬, 싹섬, 지신도, 금호도, 태인도 등을 포괄하여 다스렸던 거지요. 그런 다음에 금호도가 골약면으로 편입되었을 때까지 백 씨 선조들이 금호도 전체를 다스렸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면장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처가인 태인 도촌 최 씨 집안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인도는 이 씨가 먼저 입성하여 터를 잡아 살았는데 6.25 당시 최연근 씨가 광양군수를 지냈을 정도로 최 씨 가문의 위상이 높았다고 하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지연, 학연 등의 인연의 연줄로 인한 출세 수단의 문화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2) 금호도 이주대책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백윤주 씨의 말

백윤주 씨는 금호도 주민들이 광영으로 이주해서 살기까지의 과정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다. 금호도에 대하여 물으면 한나절이 지나도록 할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금호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400여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1550년경 금호도 앞 바다와 섬에는 임진왜란 여파로 사람이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제일 먼저 정착한 성 씨가 최 씨, 장 씨, 백 씨 순으로 입주하여 살았으며 그 중에서 백 씨 집안이 많은 후손을 번성시켜 토호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백 씨 집안 문흙 선조는 통운대부호 조참의 벼슬을 하였고 1880년대에는 집강(면장)이 되어 이 고장을 다스려 왔답니다. 1900경에는 내동의 백종안 선조가 금호도 전체를 다스렸고 1945년 해방 전후에는 내동 백영홍 씨가 20여 년간 금호도 전체를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1950년 후반 들어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세 개 마을로 나뉘면서 대동 남성문, 도촌 김영휘, 내동 백갑선 등이 동네 이장으로 각 마을을 이끌었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양도는 대동마을에 속했다가 1958년경에 자연마을로 나뉘게 되어 총 네 개 마을이 형성된 것입니다.”¹⁷²⁾

3) 천혜의 갯벌을 자랑했던 금호도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서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550리 물길을 따라 흘러온 섬진강은 광양만 바다와 만나면서 광양만 700만 평가량의 광활한 천혜의 갯벌을 만들었다. 갯벌은 바다의 수많은 수초와 수백 종의 어패류가 살게 하는 집이 되어주어 금을 캐는 광산과도 같은 보물단지를 만들어주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던 때에는 이웃나라 일본인들은 천혜의 해산자원의 보고인 광양만이 제철소부지로 편성된다는 뉴스를 듣고 한국인들보다 더 안타까워했다는 말이 전설처럼 어린아이들 귀에까지 들려오기도 했다. 광양만에서 생산되는 김, 굴, 재첩, 백합, 새조개 등이 일본으로 거의 수출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 강하게 표현했을지도 모른다.

백합 수출은 1961년 ‘한일통상협정’이 맺어진 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섬진강물과 광양만 바닷물이 만나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처럼 금호도 돌레를 모래와 갯벌이 떠받치고 있었다. 모래밭에서는 자연적으로 서식한 백합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거랭이라고 불리는 기구로 바다 속 땅을 끌며 바다를 한 바퀴 돌며 잡은 백합을 육지 사람들이나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곤 했다. 이 패류는 금호도 서쪽 모래등에서만 서식하였기 때문에 모래등이 없는 태인도나 인근 바닷가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산이 낮고 수면이 낮아 해조류 채취가 편이었던 금호도 사람들은 인정도 많고 품성이 온화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나서 ‘고춧가루 서 말 먹고 갯벌 십 리를 기어 다니는 여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말은 지금도 광양 여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가는 곳마다 광양 출신이라면 영락없이 갯전을 때린다. 독하다는 뜻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그만큼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기운이 솟는 말이다. 특히

172) 백윤주 씨는 금호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려면 대동마을에 거주했던 백영기 씨를 찾아가라고 추천했다. 그리고 백윤주 씨는 금호도 이주 당시 이루어졌던 보상 문제부터 이주생활에까지 이어졌던 애환이 담긴 갖가지 자료들을 주었고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다. 하지만 이 ‘광양의 보물섬 금호도 인문 기행’이라는 이번 연구와 좀 거리감이 있어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함을 밝힌다.

요즘처럼 공기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좋은 사람들 얼굴 보고 말하고 살기도 힘든 코로나19 시대엔 말이다.

4)광양시의회 전 의원 박선호 씨에게 듣는 금호도 엄마들의 삶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금호도 엄마들은 19물때를 놓지 않고 일을 했다. 김을 할 물때가 넘어서면 밤에 호롱불을 들고 짚록게(칠게)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였다. 생선이나 게를 잡아서 머리에 이고 광포 재를 넘어서 옥곡, 진상, 하동, 광양 읍, 순천 등지를 다니며 판매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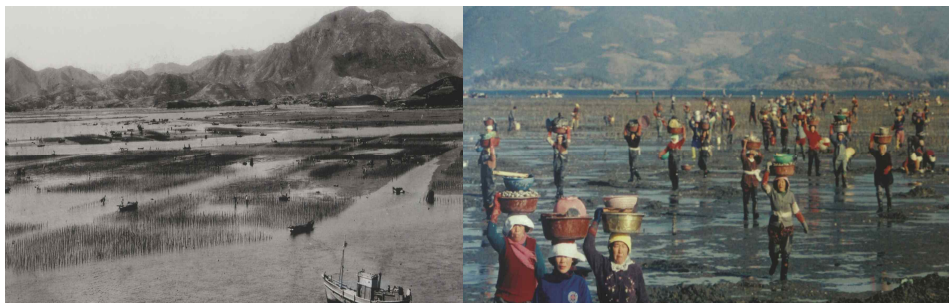


그림 5 황금 김 양식장과 조개잡이 아낙네들 모습

생계를 위하여 김을 뜯어서 머리에 이고 나르기도 했고 샘터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나르기도 했다. 그랬던 탓에 섬마을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간간이 머리카락이 빠져서 탈모가 되어 동전처럼 흉이 남기도 하였다.

그런 엄마들이 광영으로 이주해 와서 살면서 경모정과 경로당을 오가며 서로의 추억을 먹으며 늙어갔다. 금호도 내동마을에서 살다가 광영동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박선호 전 광양시의회 의원을 만나 금호도 엄마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최섬 엄마들 모두 너무나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광양이 있는 겁니다. 금호도 주민들의 희생으로 광양이 전라남도에서 경제자립도가 제일 높은 고장으로 이름이 난 거지요. 광양 시민들은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서 금호도 이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2년이나 누워서 대소변을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내신 어머니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어서 마누라에게도 한 번 시키지 않고 내가 뒤를 봐 드렸어요. 내가 자식인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제 나이 일흔을 앞두고 있는 박선호 씨는 네 아들의 아버지이다. 자식들에게 행동으로 교육을 시켰다며 다시 말을 이어가는 박선호 씨! “그런 나를 지켜본 네 아들이 다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자식들이 제 몫을 다해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일본 사람들이 광양에 제철소를 세운다니까 웃어버렸습니다. 저 좋은 청정바다에 제철소를 세운다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을 하고 양식업을 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였겠습니까? 요즘 그 많은 고기들을 잡아 활어로 판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

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년에 도시에 와서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너무 고생하고 살았기에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옛 금호도 생활을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 중 고향 친구들(내동마을 백현순 씨와 백인순 씨)이 찾아와 함께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추억 속을 여행하는 기분이라며 함께 자리를 해주어서 좋았다.

4. 섬마을 사람들의 경제활동

1)겨울철이면 길거리에 다니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해의海衣라는 이름으로 김(해의海衣·해태海苔)이 처음으로 소개된 문헌자료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다. 광양 김은 정조 22년(1798년)에 편찬한 향토지인 『광양현읍지전光陽縣邑誌全』의 <진공進貢>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여러 번에 걸쳐 임금에게 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³⁾ 임금에게 김을 바쳤다는 김여익 공이 태인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금호도 주민들 또한 김 양식이 생활양식의 주 생산 근원이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된 공장부지 대부분은 모두 김 양식장이었다. 일부 물이 깊은 곳에 그물을 쳐서 김을 수확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산죽을 이용하여 자연포자 부착 방식으로 김 양식업을 해왔다.



그림 59 금호도 김 양식장, 김 뜨는 모습, 김 너는 모습

섬진강물과 광양만 바닷물이 합쳐지는 천혜의 환경으로 인하여 인공배양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 산죽이나 대나무 등 쉼의 뿌리 부분을 날카롭게 자른 후 서너 개씩 짚으로 묶어 갯벌에 꽂아 자연적으로 김 포자를 붙게 하는 방법의 양식업이었다. 쉼은 한로寒露 사흘 전후에 갯벌에 꽂고 난 후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김 포자가 붙는다.

김 포자가 붙은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부터 김 채취를 시작하는데 15일 주기로 사리 때를 기준으로 맨손으로 뜯었다. 대부분 2월 말까지 채취하는데 추울수록 김을 상품화하는데 좋으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검은빛을 띠던 김 색깔이 누런색으로 변하여 상품성이 떨어진다. 채취한 김은 긴 장화를 신은 채 남자들은 지게로 지고, 여자들은 다라니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으로 운반하였다.

집으로 운반한 김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선창가에서 바닷물로 1차 씻는다. 그리고 집으

173) 正月朔 小海衣 五점.

로 가져와서 민물에다 적당히 행구어 칼로 썬다. 큰 물통에 물을 적당히 붓고 당그레로 저은 다음 물과 김이 잘 배합되면 김발에 고메라고 하는 나무틀을 올리고 김 되로 떠서 붓는다. 한 사람이 김을 김발에 부으면 맞은편에서 또 한 사람이 김발을 들어내어 사다리 모양의 거치대에 나란히 정리하여 물기가 빠지게 한다. 물기가 다 빠진 김발을 양지바른 언덕이나 거치대(광양 말로는 가그대)를 세워둔 곳에 널었다가 마르면 걷는다. 걷어온 김은 가지런히 정리하여 열 장씩 세어 접어서 백장을 한 속으로 결속하면 상품이 완성된다.

김을 널어서 말리는 과정부터 말린 김을 걷어다가 김발에서 떼어내는 과정까지가 가장 힘든 작업이다. 세 살짜리 어린아이 손도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일거리가 많아서 겪는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김이 마를 즈음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김발에 붙었던 김이 김발에서 낙엽처럼 떨어져 언덕으로 나뒹굴고 주으러 다니느라 혼비백산이 될 때도 있다. 좋은 상품의 김일수록 김을 생산하는 가정에서 함부로 못 먹게 하였다. 어린아이들은 김이 적당히 마르면 길가를 가다가 남의 집 김이라도 눈에 보이면 돌돌 말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다녔다. 그 김이 어찌 그리도 맛났던지 지금도 금호도 출신들이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한다.

제품이 완성되면 수협에서 김을 매입하여 수출하기도 하고 도시로 팔기도 했다. 광양에는 일찍이 김 판매를 위한 조합이 설립되어 1911년에 광영(당시에는 광포)에 수산해태전습소가 있었다. 1922년에는 진월면 망덕리에 광양해태조합이 설립되어 이 고장의 김 판매를 모두 관장했다. 사사로이 김을 팔 수 없었으며 몰래 팔다가 발각되면 제재 조치가 따랐다. 상품의 상태에 따라 특등부터 3등까지 금액의 차이를 두는데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등외로 쳐서 같은 물때에 생산한 김이라도 수입의 차이가 컸다. 옴막등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장 상품으로서의 품질이 우수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방파제 주변에서 나는 김 품질이 좋았다. 색이 검고 참기름을 바른 듯 반질거렸으며 수협에 넘길 때 거의 특등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전까지 금호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겨울철에 김 생산을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바다에서 김을 채취하는 겨울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만 했다. 손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만 생산이 가능한 김 작업이었다. 그야말로 극도의 노동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만큼 고생스러운 대가도 실로 컸다. 금호도의 겨울철엔 길거리에 다니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속설은 겨울철 김 생산 수입이 높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2)어패류도 그렇게 많았다고?

겨울철 김 생산이 끝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고기잡이와 굴 양식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졌다. 패류는 우럭, 백합, 바지락, 맛, 굴 등이 주 수확 품종이었다. 굴은 양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닷가 동네인 도촌과 양도 마을은 쪼시개랑 양푼이만 들고 나가면 지천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굴을 채취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잠시만 마을 앞에 나가도 백합, 바지락, 굴 등을 채취하여 한 끼 반찬을 챙길 수 있었다. 백합이나 바지락도 호미 하나 들고 마을 앞 물이 빠진 모래등에 나가면 어린아이들도 캐올 수 있을 정도로 흔했다. 판매를 위해

채취 작업을 하는 아낙들은 주로 짚을 지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동네 앞 모래등에 나가서 들물 때까지 3시간여 작업을 하여 광주리나 다라니에 가득 잡아 수입을 올렸다.

금호도 네 마을의 패류 관련 수입은 굴 양식업에서 비롯되었다. 굴은 돌에 핀 꽃이라고 하여 석화石花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바다의 최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많아 피부에도 좋다고 하여 비싼 값으로 팔렸다. 굴양식에 쓰이는 소나무를 3, 4월에 구입해서 끝을 뾰족하게 칼이나 낫으로 다듬어 5월에 꽃는다. 판매는 두 가지로 하는데 종패로 팔든지 아니면 완전상품을 만들어 파는 방법을 택하여야 했다. 5월에 바다에 꽃은 소나무에 굴이 붙으면 이듬해 봄에 종패로 판매를 하였다. 이는 주로 신성포나 송장도 사람들이 굴 양식을 위해 사갔다. 완전상품은 2년여 지나야 채취가 가능한데, 양식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완전상품이 되기도 전에 막무가내로 남의 양식장에서 굴을 채취해갔다. 하지만 금호도 어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싸우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동네인들 마찬가지겠지만, 금호도 사람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굶을 일도 가난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수입을 올려주는 바다가 있었고 겨울에도 따스한 기온이 뒷받침되어 온갖 수산물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호도를 광양의 보물섬이라고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도 재첩을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귀찮게 여기고 아예 재첩을 가치 있는 패류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다. 도촌마을은 마을 어귀인 돈목에서부터 송장섬(큰대섬)까지 모래등이 꽤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서 어린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 빠져 죽는 사고도 잦았다. 그래도 물이 빠지고 은빛 모래등이 드러나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모래등을 뛰거나 걸어갈라치면 발이 가려워서 걷기 힘들 정도로 재첩이 많았다. 그렇게 많은 재첩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동네 사람 누구도 그걸 채취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가뭄 때나 집안에 눈병 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 먹었는데 소쿠리에 모래를 잔뜩 담아서 바닷물에 행구면 소쿠리 절반이 재첩이었다. 큰 가마솥에 푹 삶아서 휘휘 저으면 알맹이는 아래로 빠지고 껍질을 걷어내면 어찌나 국물이 시원하던지 요즘 재첩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간혹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육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서식하여 주인이 없는 재첩을 채취해가기 위해 떼지어 와서 파가곤 하였다.

금호도의 어난들 맞은편에는 송장섬(큰대섬)과 작은 송장섬이 있었다. 송장섬은 지금도 바다 가운데 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작은 송장섬은 현재 학교단지 쪽 도로 안으로 들어와 있으며 육지가 되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송장섬에는 김성문 씨 가족이 살았는데 생활이 불편하여 금호도 도촌마을 선창가로 이사하였다. 송장섬 1세대였던 김성문 씨는 연로하여 생업을 접은 지 오래이다. 그 부인은 지금도 아들과 함께 오일장을 다니며 패류 장사를 하고 있다. 2세대인 김성문 씨 아들 김일준 씨는 어선 한 척을 마련하여 지금도 낚시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

3)지금도 굴 작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금호도 아낙네들



그림 60 송장섬에서 태어난 김일준 씨와 굴 까는 아낙네들

김일준 씨는 옛날 금호도에서 굴 까는 실력이 탁월했던 아주머니들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돈 벌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삼천포나 충무·거제 등지에서 덩어리 굴을 트럭으로 사와서 이주민 아낙들에게 일감을 주고 있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이주민 아낙들이 모여 굴을 까면 무게에 따라 품삯을 지불하고 있다.

김 씨는 그렇게 모아진 굴을 시장이나 식당으로 판매한다. 본인이나 이주민 아낙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이익 창출이 발생되니 서로가 만족하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김 씨는 현재 광영동 이주민 주택단지의 통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굴 까는 이주민 아낙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굴을 지역민들에게 맛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Ⅲ. 마치며

이 연구는 금호도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인문기행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지역 환경과 지역민의 삶에 미친 시민기업으로서 역할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연구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연구했던 자료의 일정 부분으로 대폭 축소한 아쉬움은 있다. 하루 빨리 영상자료로, 그리고 사진을 곁들인 멋진 도서로 엮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광양군지편찬위원회, 『광양군지』, 광양군지편찬위, 1983.
2. 광양시, 「광양 금호동 도시 재생 컨설팅 용역 보고서」, 2019.
3. 광양문화연구회, 『광양, 사람의 향기』, 북셀프, 2017.
4.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흥익기획, 2005.
5. 광양제철중고등학교, 교지 『光湖』 1-5호, 1986-1990.
6. 광양제철고등학교, 『졸업앨범』, 1988-1989.
7. 김승옥 외 공저, 『우리읍내』, 심미안, 2004.
8. 김정호, 『금호도와 태인도』, 향토문화진흥원, 1994.
9. 동광양문화원, 『동광양시 마을의 유래와 주민생활』, 1994, 대흥기획.
10. 마이클 티어노,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2008.
11. 박두규 외 공저, 『광양, 사람의 향기』, 북셀프, 2017.
12. 박두규, 『광양에서 희망을 만나다』, 서울; 북셀프, 2013.
13. 이동미, 『교과서 속 인물 여행』, 그리고 책, 2013.
14. 포스코교육재단, 『포철교육재단30년사』, 2001.
15.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교육재단40년사』, 2011.
16. 포스코, 『포스코 50년사 : 1968-2018』, 2018.
17. 기타 섬 탐사, 취재, 인터뷰, 개인 자료.

밥상머리교육에서 미래를 묻다

최한선 · 홍성희
(전남도립대학교)

1. 밥상머리 교육이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식사행위와 관련한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교육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으로 정의된다(교육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라는 공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와 식사예절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의 밥상머리교육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예절, 인성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네이버사전, 2020). 여기에서 ‘밥상머리’란 사람이 서로 마주 앉은 자리를 뜻하며 나아가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채우는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부모 혹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에서 밥상머리는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화해의 공간이며 삶의 철학이 대물림되는 교육의 공간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전통사회 밥상머리교육

조선 후기인 1809년(순종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에는 ‘사대부식시오관(士大夫食時五觀)’이라 하여 사대부가 식사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것을 심고 거두고 찢고, 조리하는 등 만드는데 들어간 공을 생각하라. 둘째, 아버지와 임금을 섬기고, 입신(立身)을 위하여 있는지 생각하고, 맛에 걸치레를 하지 말라. 셋째, 마음을 다스리고, 배불리 먹을 욕심을 내지 말라. 넷째, 오곡(五穀)과 오채(五菜)는 몸을 살찌우니, 먹는 것으로 의약(醫藥)을 삼아라. 다섯째, 공덕(功德)을 이룬 후에야 음식을 먹으라는 내용으로 음식을 대할 때의 철학을 담고 있다.

즉, 첫째, 음식을 만든 사람과 음식이 온 곳을 생각하라.

둘째, 밥 먹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라

셋째, 맛난 음식, 배부르게 먹고픈 마음을 절제하라

넷째,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어라

다섯째, 일하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家는 많은 인물을 배출한 한국의 대표 명문가이다. 류성룡에 이어 직계 손들 모두 벼슬길에 오르고 현재도 사회지도층과 학계, 재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류성룡家의 교육은 무척이나 단순하다. 14대 종손 류영하 옹이 밝히는 교육은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함께하고,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SBS 스페셜 제작팀, 2011). 즉, 기초적인 예절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대왕은 삼시세끼를 꼭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을 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하는데 세자가 동생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나 또한 공부를 가르쳐 준다.” (세종실록, 1438년 11월 23일)

3. 세계의 밥상머리교육

(1) 이스라엘

유대인은 밥상머리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밥상머리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최강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DNA도 밥상머리에서 진화·축적된 것이다. 안식일 식탁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들 간의 하브루타이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안식일 만찬이 그 중심에 있다. 안식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한다. 이 때 가족들이 함께 장도보고 음식도 준비한다. 안식일 오전 회당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 만찬에 온 식구가 다 함께 자리에 앉는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식사가 시작되고, 천천히 식사를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눈다. 서로 궁금한 것은 묻고 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대화의 꽃을 피운다. 특히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고, 서로 나름대로 생각을 나누며 함께 고민을 풀어간다. 이 때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는 일은 삼간다. 대화하며 식사가 끝이 나면 디저트를 먹으면서 말씀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날의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은 답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다.

대화는 뇌를 끊임없이 발달하게 하고 또한 행복함을 준다. '말' 이라는 것은, '대화' 라는 것은 그러한 힘이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한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에이, 그건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라고 면박을 주지 않는다. 부모 자신이 결론을 내리며 아이들의 말문이 막히도록 만드는 행동도 하지 않으며, 궁금증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옳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 서로의 고민들, 감사한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가족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서로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브루타, 밥상머리교육의 핵심일 것이다.

* 하브루타: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식

법으로 친구(우정)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다..[네이버 지식백과]

(2) 중국

중국 어린이들은 소황제로 불린다. 중국 정부가 1979년부터 산아 제한을 위해 실시한 ‘한가구 한 자녀 정책’하에서 태어난 외동아이를 일컫는다. 아이에게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교육 등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가장 잘해주려 노력하는 것이 마치 황제를 떠받드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부모가 맛벌이로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보상을 아끼지 않고 키우는 가정이 많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힘들게 번 월급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이 한국 부모의 헌신과 많이 닮았다. 당연히 생활비에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

중국의 밥상머리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중국 가정은 아침 식사를 집에서 잘 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간단히 밖에서 사먹고 등·하교는 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몫이다. 부부는 퇴근 후 주로 저녁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도 하교 시간이 늦어 주로 가정부가 식사를 책임진다. 부모들은 물리적으로 밤이나 주말에 겨우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된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산층 가정에서는 밥상머리교육에 많은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 1960~80년대와 비슷한 양상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 중국사회는 주부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서구 사상 유입과 사회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과 차별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주부는 남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중국은 밥상머리교육에 관한 한 아내의 의지와 영향력이 중요하다.

10여 년 전 당시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중국몽(中國夢)을 이야기하며 전통문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당시 총리는 앞으로 중국이 기술강국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문화강국이 돼야 한다면서 우수한 전통사상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과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밥상머리교육도 서서히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 유학을 장려하고, 전통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대혁명 이전의 밥상머리교육도 복원되는 추세다.

한류 드라마도 중국 밥상머리교육에 한몫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전통 유교문화가 온전히 살아있는 곳이 한국인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보이는 한국 가정의 어르신 공경 자세, 장유유서(長幼有序) 등 예의를 부러워하며 한국을 본보기로 삼자는 움직임도 있다

3)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일부 귀족층과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밥상머리 교육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의 엄격함이 남아 있는 전후 프랑스 가정에서 식사, 즉 만찬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프랑스 가정에서는 식사 중에 주로 특정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저녁 식사의 경우 미리 주제를 정해 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독서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주말에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 2~4시간까지도 만찬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중·고교생일 경우 부모와 초대받은 손님과 함께 철학이나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상당히 심도있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긴 시간 만찬을 하면서 나눌 대화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 다양한 주제와 관심사에 대해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이 같은 밥상머리 교육은 ‘엄격하지 않으면 본질을 모른다’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세련된 매너, 품위있는 식습관, 다양한 지적 능력을 겸비한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의 인간이 탄생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아이 교육이 매우 엄격해 체벌도 다반사로 이뤄졌다고 한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화장실에 몇 시간을 가둬두거나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매우 엄한 처벌을 내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10년간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경제난에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아침에 서로 바빠 가족들이 각각 시간되는 대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주말이 돼야 저녁 식탁에서 마주할 정도로 바빠 돌아간다. 자유화 바람으로 상대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소홀해지면서 탈선하는 아이들도 많아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한다. 지나친 자율성과 방종에 가까운 가정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엄격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중도적인 밥상머리 교육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4) 미국

미국 어린이들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버릇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계 어느 가정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밥상머리교육을 받고 자란다.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매우 엄격하게 아이들을 키운다. 미국 부모들은 인성교육은 부모의 몫이고 학교는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까지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의 학교참관 수업은 빼먹지 않고, 자녀의 주말 스포츠 경기는 온 가족이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자녀와 어릴 때부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족 팀워크’를 탄탄히 다지는 게 미국 밥상머리교육의 특징이다.

본격적인 밥상머리교육은 5~6세 때부터 시작된다. 기본적인 식사예절에서부터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 하기 등을 하나하나씩 익혀나간다. 미국 가정은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간단한 식탁 정리나 수저 놓기, 물컵 갖다놓기,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기 등으로 시작해 나이가 들면서 역할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주로 저녁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족이 모여 그 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웃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공중예절을 지키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교육한다.

미국 가정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녀가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은 매우 엄하게 다룬다. 체벌은 없어졌지만 구석에 서있게 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 것, 밖으로 내쫓기 등의 벌을 준다. 식사시간에 이유 없이 늦을 경우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아이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경우 부모가 생각이 달라도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자녀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며, 부모가 잘못 판단할 경우 자녀에게 분명히 사과하는 것 또한 미국의 문화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바람이나 생각이 다를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아주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부모들이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독립심이다. 부모 슬하를 떠날 때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5) 독일

독일에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족 간 유대관계가 좋다. 독일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9 to 5.’ 독일 직장인들은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한다. 그 전에 퇴근하는 직장인도 많다. 전통적으로 초·중등학교도 반일제 수업이다. 독일은 아직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부모와 보낼 수도 있다. 휴일이 되면 경찰서 외에는 관공서나 식당 등이 모두 문을 닫아 가족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어 시간적인 측면에서 독일은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점심은 푸짐하게, 저녁은 가족과 함께.’ 독일 가정도 아침은 각자 바쁜 탓에 간단하게 먹고 나간다. 하지만 저녁은 거의 매일 가족이 함께 식사할 정도로 독일 가정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통상 저녁식사는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저녁식사 자리가 가족 간 대화의 매개체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잦은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식사예절을 익힌다.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는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아이들의 장래 문제, 정치적 이슈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가족 간에 대화를 하며 지낸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요약하면 △열심히 살 것 △역경을 이겨낼 것 △직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택할 것 등이다.

부모들은 또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꾸준히 교육시킨다. 진학문제, 직장문제, 또래 집단과의 갈등 등 뭔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부모들이 적절한 조언은 하지만, 최종 선택권은 자녀에게 맡김으로써 어려서부터 자기책임 아래 자기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6) 일본

일본 밥상머리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 부모들의 밥상머

리 교육 원칙은 ‘구체적으로 예외 없이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들은 우선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매우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상황이 생기면 그 대상이 부모든 친구든 형제자매든 반드시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일본 어린이들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맞는 인사말하는 것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일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 등이다.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살짝 스치기만 해도 꼭듯이 “미안합니다”라고 인사한다.

일본도 맞벌이부부의 늦은 귀가, 자녀학업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요인으로 전통적인 밥상머리 교육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뜻하는 고식(孤食)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일본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고식이란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각자 시간에 따라 혼자 밥을 먹고 나간다는 의미다. 아침밥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도 늘어 학교에서 아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바쁜 직장인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풍경은 흔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고식을 줄이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 같이 먹자’는 슬로건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5.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 정주영 명예회장 또한 새벽 5시에 자식들을 집합시켜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등한 자본금”이라는 근면과 성실의 철학을 아침식사로 전수해주었다.

CEO 중 16세에 슈퍼마켓 점원에서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른 스타벅스 전 회장 '짐 도널드(Jim Donald)'는 저녁 식탁 자리에서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경영철학을 삼았다. 세계적인 주방장 '자크 페핀(Jacques Pepin)'은 식탁 자리에서 어머니로부터 음식, 예술, 음악에 대한 배움을 가졌다.

길거리에서 시작하여 1천억원짜리 티셔츠 회사(life is good)를 만든 제이콥 형제도 그 비결을 어머니의 밥상머리교육이라 하였다. 어머니는 힘든 형제를 위해 언제나 즐겁게 식사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식사 시작 전에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식탁 분위기를 바꾸었고 가족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식탁 자리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그들 인생의 첫 교실과 최고의 교실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밥상머리교육은 미래의 성공적인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밥상머리교육의 효과

(1) 언어 발달

콜롬비아 대학교 CASA가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A 학점을 받은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4배나 높았으며, 음주와 마리화나를 하는 경우도 2배가량 많았다.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은 보스턴의 저소득층 83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족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어휘 습득력이 월등하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를 통해 만 3세 아이가 습득하는 2,000여 개의 단어 중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140개, 반면, 가족 식사로 얻는 단어는 무려 1000여 개에 달했다. 또한 유치원 시기의 풍부한 어휘는 고등학교 시기의 이해력과 관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아키타 현의 연구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족과 이야기하는 아이의 성적이 전국 학력 평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미네소타대에서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가족 식사의 빈도는 우울증, 자살률, 흡연, 음주, 마리화나남용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성 발달

밥상머리에서는 예절, 공손, 나눔, 절제, 배려는 학습하는 작은 예절수업시간이 된다. 류성룡 집안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태도는 ‘절제’를, 같이 나누어 먹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익히는 훈련이 됐다.

캐네디 집안에서는 식사 시간을 어기면 밥을 주지 않음으로 자녀들에게 ‘약속과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식사 시간 중 신문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밥상은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속의 ‘관계’를 배우는 자리이다. 밥상머리에서 관계의 서열을 자연스럽게 익힐 뿐 아니라 감사 인사와 뒷정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또한 서로 나누어 먹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즉, 친사회적 행동을 익히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3) 신체발달

미네소타대 EAT 프로젝트 II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식사를 더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과일과 채소 등 칼슘과 섬유소, 비타민 등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들을 더 많이 섭취하고, 탄산음료나 당분이 들어간 음식의 섭취율이 낮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족들과 식사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은 잘못된 체중 조절 행동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의대 길먼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가족들과 매일 저녁을 함께 먹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과일과 채소를 한 끼분을 더 먹고, 튀긴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덜 먹고,

포화지방과 전이지방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이들의 식생태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아동은 ‘영양 불균형, 체력 저하, 건강상태 악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아동은 일본 소아학회 발표 신체 증상 관련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4) 정서발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 가족 간 강한 유대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콜럼비아 대학교 CASA 연구진은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와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7. 밥상머리 예절 및 실천

(1) 밥상머리 예절

생활 속 예절 교육은 평소 가정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몸에 배는 법이다.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 공급의 차원을 넘어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돈독히 쌓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매우 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행위다. 밥상머리 예절을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폰과 TV는 밥상에서 금지한다.

둘째, 식전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정해진 자리에 착석한다. 어릴 때부터 기본 식사 예절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정해진 자리에 착석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밥 먹는 연습을 한다.

셋째, 어른이 먼저다. 밥상은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속의 ‘관계’를 배우는 자리이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 원만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면 밥상머리에서 관계의 서열을 자연스레 익힐 필요가 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식사 시작하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찹찹 소리 내지 않기,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에는 말하지 않기, 입안에 음식물을 오래 물고 있지 않기 등 기본 밥상 예절을 몸에 익혀야 한다.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기 전까지 기다리는 식사 예절은 아이의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감사 인사와 뒷정리는 꼭 한다. 식사를 시작할 때, 혹은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는 꼭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한다. ‘잘 먹겠습니다’, 혹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도의 인사말이면 충분하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식사를 준비해 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 음식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담겨 있다. 식사 후에는 밥상 위에 흘린 음식은 스스로 줍고, 다 사용한 그릇과 식기는 싱크대에 갖다 놓는 습관을 들인다.

다섯째, 밥상에서 꾸지람은 금물이다.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 하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들이 밥상에서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밥상에서는 절대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 밥상에서는 꾸지람 대신 가족의 다정한 대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그 밖에 기본적인 밥상 예절

- 젓가락이나 손가락을 내려놓을 때 탁탁 소리를 내지 않는다.
- 입에 음식을 물고 있을 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물고 있을 때 역시 말을 걸지 않는다.
- 물 마실 때 가글하듯 우물거리지 않는다.
-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지 않는다.
- 재채기나 사레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2) 밥상머리교육 실천지침

- 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식사의 날’을 가진다.
- ②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 ③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④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 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⑥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 ⑦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 ⑧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 ⑨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 ⑩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경북도 제공>

8. 결론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 갑자기 회자된 것은 아니다. 이미 밥상머리교육은 전통 사회로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오던 귀중한 정신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훈련에 치중하여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경쟁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격성, 집단따돌림 등의 심각한 문제까지 당면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가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때문에 유아들은 부모와의 식사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은 자연스럽게 유아교육기관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는 밥상머리교육의 학부모용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지나친 학업중심 교육보다는 인성중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밥상머리교육 자료를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a, b, c). 이처럼 우리사회가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면서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1. 이영희,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 2006.
2. 교육부·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 길라잡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2. 조아라. <부모의 밥상머리교육 실행도가 영유아의 기본예절 및 편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3. SBS스페셜제작팀,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출판사: 리더스북), 2010.
4. <http://www.yeongnam.com/mnews> [밥상머리가 답이다] © 영남일보, 2015.
5. <http://www.newsshare.co.kr/> '밥상머리 교육', 아이들 건강과 안정에 효과, © NewsShare 뉴스쉐어, 2016/05/19
6. 네이버지식백과

Asking about the future in table manners education

Choi han-sun · Hong seong-hee
(Jeonnam State Univ.)

<Abstract>

Table manners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However, due to rapid social change, precious value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emphasized are being lost.

Meanwhile, in a social structure where only competition is emphasized, our children are facing serious problems such as aggression and bullying. In addition, as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creases, the time children spen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s also increasing. As a result, children spend less time eating with their parents, and home education is shifting naturally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seeking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so that our children can grow into considerate and compassionate community humans through character-centered education rather than academic-oriented education.

Accordingly, while reflecting deeply on the values that our society should fundamentally pursue,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table top education.

지역 판소리와 후원문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정혜정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 머리말

판소리는 연행예술이며, 전문적인 기량이 필요하다. 판소리 명창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보내는 후원자가 절실하다. 조선 후기 판소리 향유층은 주로 양반으로 이들의 지지와 보상을 통해 판소리 예술은 지속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판소리 창자는 18세기부터 자신의 출신지를 벗어나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로 진출하여 양반과 왕실로부터 인정받고자¹⁷⁴⁾ 하였다. 또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판소리 향유층이 등장한다. 판소리의 향유층과 후원 층이 양반과 왕실뿐만 아니라 중인층과 부호들로 그 폭이 넓어진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판소리 후원자로 신재효를 들 수 있다. 고창지역에서 판소리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후원을 하였다. 판소리 창자를 교육하고 창작하며, 비평하는 등 그의 판소리 관련 활동은 조선 후기 판소리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특히 판소리계에서 여성 창자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가 바로 신재효라 할 수 있다. 신재효의 후원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판소리사의 변화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 순천지역에서는 벽소 이영민(碧笑 李榮珉 1882~1964)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은 탄탄한 관계망을 바탕으로 판소리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순천지역 판소리 전승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¹⁷⁵⁾ 이렇듯 판소리는 후원자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 변화해 왔다.

호남은 유명한 판소리 명창들의 출생지이자 활동지이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는 89명의 창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전북 39명, 전남 12명, 전라도 3명으로 총 54명이 호남 출신이다. 이는 호남의 판소리 전승과 향유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¹⁷⁶⁾ 조선 후기부터 형성된 호남의 판소리 문화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판소리 담당층의 노력과 후원자들의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담양지역의 경우 20세기 대표적인 명창 박동실은 주로 광주와 담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후원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

174) 성기련, 「190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6, 한국전통음악학회, 2005, 418~419쪽.

175) 정혜정, 「순천지역 판소리 전승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76) 정혜정, 위의 논문, 15쪽.

이다. 박동실에게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로 담양읍의 국채웅(鞠採雄, 1871~1949)을 들 수 있다. 그는 국악을 좋아하고 서화를 즐겼던 인물이다. 우송당(又松堂)의 주인으로, 이곳에서 박동실이 소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실이 외지에 공연하러 갔다고 오면 우송당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담양읍에 사는 소리꾼 김채옥의 증언에 따르면 우송당에는 항상 10여 명의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머물면서 소리도 하고 가야금 공부를 했었으며, 그곳에 가야금 선생과 대금 선생이 머물면서 지도하였다고 한다.¹⁷⁷⁾ 이런 증언을 볼 때 국채웅이 박동실의 후원자의 역할을 했으며, 판소리와 국악 교육이 이루어진 우송당은 담양지역 판소리 전승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후원자로 박석기(朴錫驥, 1899~1952)를 들 수 있다. 그의 부친이 아전이었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박석기 집안은 향리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 박진규는 창평, 고서, 대덕, 남면 등지에 드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자녀들이 외국 유학을 보냈고, 관료를 지내기도 하였다. 박석기의 형 박석운은 최남선의 매제이며 유학 후 만주국 포루투갈 영사를 지냈다고 한다.¹⁷⁸⁾ 박석기 역시 동경제국대학에서 유학하였고, 야구선수 생활을 하였다.¹⁷⁹⁾ 한국에 귀국한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한량 생활을 하였다. 그의 한량 생활은 일종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예술의 전승에 관심을 쏟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박석기는 지실초당을 마련해 판소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대 최고의 박동실 명창을 소리 선생으로 초빙하여 많은 소리꾼을 배출하였다.¹⁸⁰⁾ 이곳은 담양지역 판소리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소리를 배우기 위해 약 30여 명이 몰려왔다고 한다. 그중 명성을 얻은 사람으로 임소향, 김소희, 한승호, 박귀희, 김동준, 박후성, 한애순, 장월중선, 김록주, 임춘앵, 박송희 등을 들 수 있다.¹⁸¹⁾ 이렇게 많은 명창을 배출했다는 것은 지실초당에서의 판소리 교육이 판소리 명창을 길러내는데 커다란 주춧돌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화순지역에서도 판소리 후원자로 오판기(吳判基), 남국일(南國逸), 박현경(朴賢景, 1883~1949), 오자섭(吳子攝)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 귀명창들의 집에서 명인 명창들이 숙식하며 소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남국일은 공창식과 임방울, 운동선수 등을 후원하였다. 박현경은 음악가·화가·운동선수 등을 후원하였고, 오자섭은 국악인 등을 후원하였다.¹⁸²⁾

박현경은 철종의 부마 박영효의 첩인 박농선의 동생으로 1905년 화순지역의 광업권을 등록하고 1908년 채탄을 시작하였다. 1910년 3월 메이지 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년 6개월간 유학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1919년 10월 경성방직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동아일보》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또 전남지주회 회원이며, 호남은행감사, 화순청년회 회장, 화순산미개량조

177) 이경엽, 「담양의 판소리」, 『담양군의 민속문화』, 목포대학교도서관문화연구소·담양군, 2004, 227~228쪽.

178) 이경엽, 위의 글, 229쪽.

179) <재동경조선기독교청년야구원정단>, 《동아일보》 1921년 7월 9일 자. 기사는 동경에 조선기독교청년회 야구부가 휴가를 이용하여 경성에서 휘문고보와 천도교청년회와 경기를 한다는 내용이다. 원정단 명단에 박석기(포수)가 있으며, 그의 형 박석운(투수)도 있다.

180) 이경엽, 앞의 글, 229~230쪽.

181) 김진영, 「왜 박동실인가?」, 『명창 박동실 학술대회 자료집』, 2003, 8쪽.

182) 노재명, 「화순 국악 명인 조사자료」, 『한국전통공연예술학』3집,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4, 364~365

합 조합장을 역임한 인물이다.¹⁸³⁾ 남국일은 화순군 읍내에 거주하며, 도림면과 청풍면의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이다.¹⁸⁴⁾ 오자섭은 화순 동북이며 포목상과 식림업을 하였다.¹⁸⁵⁾ 이들은 풍족한 경제력으로 판소리를 후원할 수 있었다.

동북 둔동마을에 거주한 오판기(오성대)는 집안의 풍류방에 전남 해남 출신 한숙구를 초청하여 생활하도록 하였고, 한주환도 이 풍류방에 자주 기거했으며, 약 30여 년간 풍류방을 운영하였다고 한다.¹⁸⁶⁾ 동북의 큰 부호 오자섭의 후원으로 그의 사랑채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명인 명창을 화순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그의 사랑채에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¹⁸⁷⁾ 또 화순 출신의 오헌창은 전남 도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¹⁸⁸⁾ 광주에 ‘광산권번’과 ‘광주권번’이 있을 당시 ‘광주권번’의 권번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¹⁸⁹⁾ 일제강점기 지역 판소리는 지역 유지들의 후원으로 전승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역 판소리 후원문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순천지역의 경우 벽소 이영민은 국악인들과 한시 평(漢詩 評)을 사진으로 찍어 <관극·시·사(觀劇·詩·寫)>라는 판소리사의 귀중한 기록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담양지역의 경우는 후원문화와 관련된 국채웅의 ‘우송당’과 박석기의 ‘지실초당’이 있다. 이 두 곳은 판소리 전승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라 하겠다. 또 이곳에서 이루어진 판소리 교육과 후원 양상은 담양지역 판소리 전승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박동실 명창은 국채웅의 후원에 힘입어 우송당에서 판소리 교육을 받았고, 박석기의 지실초당에서 판소리 교육자로서 전승을 담당했다. 박동실이 이러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채웅과 박석기라는 후원자들 덕분이다. 이들의 후원은 담양지역을 중심으로 판소리 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대 판소리사의 거목들을 길러내었다.

화순지역 역시 후원자 중 오판기가 풍류방을 약 30년간 운영하였다. 이곳은 화순지역 판소리와 국악의 전승 공간으로서 중요한 곳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곳의 후원 양상을 살피는 것은 화순지역의 판소리 전승은 물론 판소리사에도 보탬이 되는 작업이다.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판소리 명창들은 대부분 중앙무대로 나아가길 원했으며,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지역 판소리 전승 기반은 약화 될 수밖에 없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외래문화가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전통 예술인 판소리는 위기를 맞이한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역 판소리 전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판소리 후원문화 덕분이었다.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 후원과 향유는 지역 판소리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역 유지들이 권번을 설립하고 권번장을 맡아 하면서 권번이 판소리 교육기관의 역할을

18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화순군』(<http://www.grandculture.net/>)

184) <가혹한 남지주>, 《조선일보》, 1925년 4월 21일 자.

185) <재계산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793) 재계판도>, 《매일경제》, 1982년 2월 7일자.

186) 노재명, 위의 책, 364~365

187) 김세종, 위의 논문, 172쪽.

188) <당선된 도의원>, 《동아일보》, 1927년 3월 30일 자. ‘ 화순 오헌창’ : <소식>, 《동아일보》, 1933년 5월 26일 자 ‘오헌창씨 전남도회의원 당선 인사차본보화순지국내방’

189) 박선홍, 『광주 1백년』(2), 광주문화재단, 2014, 35~35쪽.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자신의 사랑방을 풍류방 삼고, 그곳에서 판소리 교육도 하는 등 전남지역 판소리 전승 문화에 보탬이 되었다. 지역의 판소리 문화는 후원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판소리 전승의 큰 역할을 한 후원문화에 관한 연구는 지역 판소리 연구에서 필요하다. 전남지역 판소리 후원자를 중심으로 판소리 후원문화를 살피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그리는 작업을 통해 전남지역의 전반적인 판소리 후원문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후원문화가 지역 판소리 전승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점차 지역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지역의 판소리 연구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판소리 전승 기반과 관련해서 후원문화에 관한 연구¹⁹⁰⁾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판소리 연구 중 후원문화에 관한 연구는 그 지역의 판소리 전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판소리는 후원자의 역할이 큰 예술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 판소리의 전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의 역할이며, 이런 후원자들의 판소리 향유와 후원문화는 전남지역 판소리 전승에서 중요하다. 이에 전남지역 20세기 전반기 판소리 문화를 읽기 위해서는 지역의 판소리 후원문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들이 판소리를 후원했던 방식을 살핌으로써 전남지역의 판소리 문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20세기 판소리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90) 정혜정, 앞의 논문, 2019, 3쪽.

A Study on Local Pansori and Patronage Culture : Focused in Jeonnam region

Jung, Hye-Jung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ansori Patronage culture, focusing on the Jeonnam region. The purpose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mpact of sponsorship culture on the transmission of local pansori through the pattern of pansori Patronage and enjoyment method.

A total of five regions in Damyang, Hwasun, Naju, Mokpo, and Gwangju in Jeollanam-do will be divided by region to examine the Pansori Patronage culture in detail.

Pansori takes a lot of time to polish its skills with professional performance art. For this reason, it is an art that desperately needs sponsors who provide material and mental support until they are recognized as master singers.

Looking at the Patronage pattern of pansori and the way of enjoying pansori, we can comprehensively shed light on how the Patronage culture influenced the transmission of local pansori. I think this is a study that should precede reading the 20th century pansori culture in Jeollanam-do.

(Keyword) : Patronage culture, Local Pansori, Damyang, Hwasun, Naju, Mokpo, Gwangju, Pungryubang, Prestigious person, Gwonbeon

영산강 유역 쟁뚱어 어로(漁撈)와 음식 문화(飲食文化)의 변화

박종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 연구 목적

철목어 속명【장뚱어】

큰놈은 0.5~0.6척이다. 형상은 대두어와 유사하지만, 색이 흑색이다. 눈이 볼록하며 물에서 놀지 못한다. 갯벌에서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며 물이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凸目魚【俗名長同魚】大者五六寸 狀類大頭魚而色黑 目凸 不能游水 好於鹵泥跳躍 掠水而行) -<(凸目魚)>, 卷一 鱗類, 『茲山魚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어업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안과 강가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신



<쟁뚱어>

석기인데,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창이나 작살로 물고기를 찍어서 잡는 자돌어업(刺突漁業)을 행했고, 흙으로 만든 어망추와 뼈바늘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망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¹⁹¹⁾ 고려 시대에 어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은 기록이 보이는데,¹⁹²⁾ 실제 연근해를 벗어나 멀리까지 나가서 중선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중선배가 등장해서 중선망으로 어획량을 획

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¹⁹³⁾

그러나 이렇게 잡은 물고기들이 모두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유통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라도의 흥어처럼 특정 지역에서 주로 먹던 어족이 있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먹기는 하지만 요리법이 다르고, 전국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어족도 있다.¹⁹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뚱어”는 후자에 속하는 어족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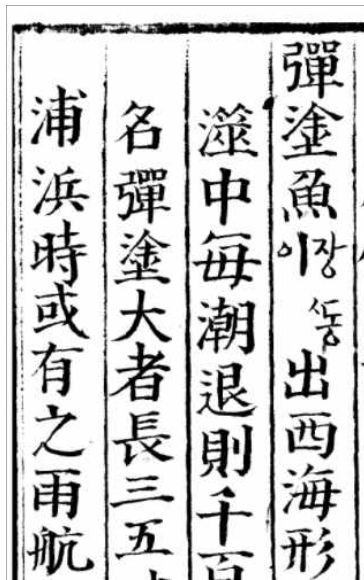
191) 김건수·이순엽, 『麗水 거문도와 손죽도의 신석기시대 패총』, 『순천대박물관지』 1, 순천대학교박물관, 1999, 5쪽.

192) “고기잡이는 썰물이 질 때 배를 섬에 대고 고기를 잡되, 그물은 잘 만들지 못하여 다만 성긴 천으로 고기를 거르므로 힘을 쓰기는 하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적다.”(海人 每至潮落 訂舟島嶼而捕魚 然不善結網 但以疏布漉之 用力多 而見功寡.),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二十三, 雜俗, 漁.

193) 주강현, 『신이 내린 황금그물 돌살』, 들녘, 2006, 180쪽.

194) 윤형숙, 『지구화, 지역 토속 음식의 생산과 소비』, 『도서문화』 제32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8, 217쪽.

정약전(丁若銓 ; 1760~1816)은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눈이 튀어나온 짱뚱어의 모양을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의 짱뚱어 기록

보고 ‘철목어(凸目魚)’라는 기록하였다. 1820년 조선의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 1764~1845)가 저술한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 「어명고(魚名攷)」에는 짱뚱어를 ‘탄도어(彈塗魚)’라 하고 속명(俗名)으로 ‘장뚱이’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수가 물러갈 때마다 수천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등지 느러미를 세우고 뛰어올라 진흙 속에 몸을 던지는 까닭에 탄도어(彈塗魚)라고 한다.”¹⁹⁵⁾라고 하여 그 명칭 유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짱뚱어는 망둑어류(망둑어과)의 한 종이다. 망둑어류는 대부분 해수역에 생활하지만, 기수역(염수와 담수가 섞이는 수역)이나 담수역에도 살아 우리에게 친근한 어종 중 하나이다.¹⁹⁶⁾ 짱뚱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 갯벌에 많이 서식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짱뚱어를 탕이나 구, 회 등으로 즐겨 먹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먹는다. 최근 음식에 대한 인식이 식품의 영양학적 조리학적 중요성만을 강조해

온 종래 경향에서 벗어나 문화의 한 갈래로 보려는 경향이 짙다.¹⁹⁷⁾ 음식문화는 다른 문화 요소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호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 발전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문화 요소이기 때문이다.¹⁹⁸⁾ 그런 점에서 음식은 인간이 만든 것의 모든 것과 연계되어 있다. 즉, 음식의 생산과 소비는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와 연망을 포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음식에 관한 관심은 음식 그 자체보다는 음식을 생산·소비하는 “인간에 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분리되어 문화에 상응하면서 사회화된 결정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활용을 넘어서, 그 음식과 연관된 문화적인 활용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문화의 계승·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¹⁹⁹⁾.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갯벌 어종 중에서 낙지와 함께 음식 소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짱뚱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어로 방식, 소비와 유통의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어로 활동이 사라진 영산강 일대의 어로 방식과 어로 방식이 현행 되는 남해안 갯벌 어로 방식을 살펴보고, 조금은 낯선 짱뚱어 소비문화의 ‘지금’의 모습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195) “每潮退，則千百爲群，揚鬣跳擲于塗泥中，故名彈塗。”

196) 다키타도오루·아시마츠 어츠시 저, 이경선 역,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 씨아이알, 2018, 3~4쪽.

197) 선영란·김준·심운정,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어족자원과 음식문화』, 영산강연구센터 2010년도 연구사업 보고서, 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2010, 111쪽.

198) 박종오, 「토속음식의 상품화와 어민들의 대응 - 물매기를 대상으로-」, 『인문과학연구』, 30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6쪽.

199) 한경란, 「연행록에 나타나는 음식 표상과 자기이해 양상」, 『한국어와 문화』,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6, 195쪽.

2. 짱뚱어 어로

짱뚱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갯벌에 많이 서식한다. 짱뚱어는 간조 시에 벌을 살금살금 기어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만조 시에는 굴을 파고 숨는다. 공기호흡을 할 수 있어서 육지와 바다 생활이 모두 가능하며,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겨울철이면 굴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며 활동을 멈추는 습성이 있다.²⁰⁰⁾

짱뚱어는 흘치기납시로 잡기도 하고, 손으로 잡거나 들망으로도 잡는다. 이 중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납시를 이용해 잡는 것이다. 짱뚱어 납시는 4~6개의 바늘을 묶은 바늘로 만든다. 바늘을 여러 개 묶은 납싯바늘을 납싯대에 매달아 사용하는 일종의 ‘흘치기’방식이다. 미끼 없이 납싯바늘만 짱뚱어가 있는 갯벌 위에 던져 슬슬 움직이다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재빨리 잡아채어 몸 일부가 납시에 걸리게 하여 잡는다.

영산강 하류의 무안 갈산마을에서는 영산강 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납시를 이용해서 짱뚱어를 잡았다. 이곳 사람들은 직접 만든 바늘을 이용해 흘치기 기법으로 짱뚱어 납시를 하는데, 6개의 바늘을 하나로 묶은 납싯바늘을 사용한다. 짱뚱어용 납싯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대나무 한 토막을 두 조각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구멍을 뚫고 다시 합친다. 그런 다음 우산의 덮개 부분을 얇게 벗겨 받치는 우산살 3개를 준비한다. 우산살 3개가 서로 겹치



<갈산마을에서 사용한 짱뚱어 납시용 상자 ©선영란>



<갈산마을에서 사용한 짱뚱어 납싯바늘 ©선영란>

도록 대나무 통 안에 넣는다. 이렇게 넣은 살을 위로 구부리면 6개의 바늘이 된다. 그 안에는 납을 녹여 붓고, 부은 납이 식으면서 바늘을 고정하게 된다. 납을 녹여 고정한 납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납시가 만들어진 후에는 칼로 납을 깎아 자신의 손에 맞는 무게만큼 조정한다. 이때 펄을 다니기 위해 나무판자로 만든 작은 궤를 이용한다. 납시할 때는 이 궤짝에 앉아서 납싯대를 던지고, 널배처럼 밀고 이동도 하며, 잡은 짱뚱어를 담기도 하였다.

현행 되는 서남해안 갯벌 지역의 짱뚱어 납시는 납싯대와 납싯바늘을 직접 만드는 대신 시중에서 판매하는 납싯대와 바늘을 개량해 사용한다. 나무로 만들었던 작은 궤 대신 널배나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한다.

짱뚱어는 힘이 세고 생명력이 강하여 예로부터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 짱뚱어는 회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탕으로 끓이는 것이다.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의서 『의휘(宜彙)』에는 짱뚱어에 대해 “오랫동안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기혈을 강하게 보하는 약제이다. 남성의 음허(陰虛), 음위(陰痿), 허

200)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96(5판), 496~497쪽.

로(虛勞)에 더욱 효과가 좋다. 살아있는 것을 구하지 못하면 신선한 것을 말려 가루로 만들고 환으로 복용하여도 좋다.”²⁰¹⁾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서남해 지역에서 짱뚱어는 음식 재료로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도구만 약간 달라졌을 뿐 짱뚱어를 잡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를 음식 재료로 활용한 음식문화는 서남해 지역에서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3.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짱뚱어 어로 방식과 음식 문화 적응 모습과 전승지식의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



〈순천만 짱뚱어잡이 어부〉

고자 한다. 민속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생활 혹은 사람들의 환경 적응 과정’에 관go 연구하는 학문이다. 달리 말해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 혹은 관계의 유형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짱뚱어잡이 어로 방식은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음식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짱뚱어잡이 어로 방식의 변화

짱뚱어는 갯벌에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서식하는 갯벌 물고기이다. 간조 시에는 갯벌 위에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 따라서 손이나 기타 도구로는 쉽게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이다. 짱뚱어를 잡는 주된 방법은 흘치기낚시이다.

흘치기는 여러 개의 바늘을 하나로 묶어 만든 걸림 바늘로 물고기의 몸을 걸쳐서 낚는 낚시법이다. 짱뚱어는 움직임이 바른 물고기이기 때문에 낚시를 갯벌 위에 던져 놓았다가 짱뚱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끌면서 낚아챈다. 낚아챈 때는 재빨리 잡아채야 낚싯바늘에 짱뚱어의 몸이 걸려 잡을 수 있다.

짱뚱어 낚싯바늘은 사람에 따라 3개에서 많게는 6개를 한데 묶어 사용한다. 또한 바늘의 무게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 환경에 맞게 도구를 맞춘 결과이다. 또한 낚시에 걸린 짱뚱어를 빼내는 시간이 짧아야 짱뚱어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짱뚱어잡이 어로 방식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 짱뚱어를 이용한 음식 문화

201) “久食，能起死回生。大補氣血之劑。男子陰虛，陰痿，虛勞，尤效。生者如不得，則鮮乾作末，丸服，亦可。”

짱뚱어는 주로 탕이나 전골, 구이로 먹는다.



<해남지역 짱뚱어 회>

짱뚱어는 기름기가 많아 말리면 갯내가 나서 먹기 불편하다. 따라서 대개 살아 있을 때 탕으로 끓여 먹었다. 특히 갯벌에서 햇볕을 많이 쬔 자란 짱뚱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탕을 끓이기에 좋다. 탕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짱뚱어의 간인 ‘애’이다. 겨우 엄지손톱만 한 크기지만 홍어탕에 홍어 애가 들어가야 제맛이듯 짱뚱어탕도 마찬가지다. 전골은 짱뚱어를 통째로 넣는다.

짱뚱어구이는 입에 나무젓가락을 꽂아 넣고 소금을 살짝 뿌리고 숯불에 굽는 것인데, 모양이 다소 괴기스럽다. 짱뚱어는 회로도 먹는데, 씹히는 맛이 제법이다. 짱뚱어 한 마리당 두 점씩만 나오기 때문에 감질나는 맛도 있다. 냄비에 굵은 소금을 깔고 짱뚱어를 올려 소금구이로 해 먹거나 갯잎에 말아 튀겨 먹기도 한다.

짱뚱어라는 이름이 ‘잠통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정도로 10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긴 겨울잠을 잔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잡는다. 따라서 짱뚱어는 ‘갯벌 위의 쇠고기’라 불리는 여름철 보양식이다. 지역에 따라 짱뚱어가 어떤 음식 재료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fishing method and food culture of jjang-ddung-eo(*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in Korea.

Park, Jong-O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Honam Stun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how the method and food culture of catching jjang-ddung-eo(*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are changing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jjang-ddung-eo is a fish species that lives a lot in the tidal flats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e jjang-ddung-eo can do aerial respiration, so it can live both on land and in the sea. It is famous for walking using the pectoral fins.

The Jang-ddung-eo is a fish that digs a hole in the tidal mudflat. The movement is so fast that it cannot be easily caught. The main way to catch Jang-ddung-eo is hoolchigi fishing. Hoolchigi is a method of tying several needles in one place, then throwing them into the fish's trunk, and then catching the fish.

The jjang-ddung-eo is mainly eaten with soup, Jeongol(stew), or gui(grilled fish). jjang-ddung-eo is recognized and consumed as a summer health food.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method of catching jjang-ddung-eo and food culture from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present. In 1981, the estuary of the Yeongsangang River was completed, and jjang-ddung-eo fishing has no longer been carried out in the Yeongsangang River. We will look at how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have changed as the environment changes.

(Keyword) : jjang-ddung-eo(*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tidal mudflat, Fishing Method, Traditional Consumption, Traditional Knowledge.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사명: 인간중심의 4차산업혁명 -기술 인력 산실의 전문대학에서의 인문학교육의 필요성

최윤선
(연성대학교)

1.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교

한국의 전문대학은 1979년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수업연한도 2년으로 확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지난 30여년간 400만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은 유일한 직업교육기관이 되고 있다. 산업위주의 발전을 바탕으로 3만불 소득 수준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을 앞세운 기술보국을 기치로 40년동안 다른국가들이 이룬 100년의 국가 성장을 앞당기며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요사이 산업계는 전문대 수준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조기에 직업세계로 나아가려는 실무인력에 대해 대학교육에 대하여 교과목 일치도 60%, 교과 수업 충실도 48점, 직무역량 부서장 만족도 72점, 현장실습내용 적절성 46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 교육과 산업계 요구와의 불일치 현상은 산업 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현장실습 및 실험실습, 의사소통능력, 정보화능력, 문제해결능력, 국제화능력, 대인관계능력, 인성, 창의력, 자기관리능력, 전공기초능력, 교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2003)에서는 기획.문서작성, 기업실무, 프리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기법, 국제화능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비즈니스예절, 올바른 가치관, 경영철학, 창의적 사고력, 자기관리법, 전공이론, 전공현장실습, 경영학기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유연하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능력형 국제화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양은 단지 짧은기간내에 빠른 전공 기술능력의 습득이 아닌 완벽한 소통형 인재에 기술의 전문성까지 갖춘 고급형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전공 위주의 짧은기간내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전문대 교육 시스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며 학령인구감소로 대학평가를 주도하는 교육부의 취업률평가 잣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다.

2.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안에서의 전문대교육의 현실:

입학률, 유지충원율, 취업률로 평가 되는 현실

오늘날 모든 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 원인으로 대학입학인구가 고등학교의 졸업학령인구를 초과하는 과잉고등교육의 영향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기관평가인증 등 다양한 평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방법 측면에서 대학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치중한 획일적인 평가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형 인재양성을 하는 현장직무형 기술 교육기관이다. 1980년, 1990년대의 경제 성장의 황금기였던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비교우위의 산업구조로 재편을 통해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 했으며, 1980년도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기계공업을 육성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IT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3차 서비스산업으로 돌입했으며, 2000년대 들어선 4차산업시대로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시대가 개막 되면서 이제는 대중화, 보편화, 일반화 되는 모든 일자리가 기계와 로봇에 빼앗기는 시대로 돌입했다.

전문대학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가장 밀접한 교육기관으로 내부적으로 4년제 대학 하위의 학령인구 범위내에서 입학률 경쟁을 해야하며 산업체의 멀티플레어형의 취업요구에 의해 기술을 겸비한 소통이 되는 인재육성에 주력하며 취업률을 목표로 학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체가 가장 중시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인성 바른 인재의 양성은 국가가 정한 NCS 기술교육 체계의 범위 밖의 교육으로 간주되어 비정규과정이나 특강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이러한 소통형 인재교육은 NCS의 직무모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무위주의 전문대학교육에서는 교육의 불균형 폐해로 이어져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인 전문대학현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고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이중부담을 전가하며 생계생활에까지 부담을 주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레이블	합계 : 학과수_전체	합계 : 입학정원	합계 : 지원자_전체	합계 : 취업률	구분	계열	취업률	진학률
강원	252	3807	17085		고등교육기관 전체	계	67.1	6.5
전문대학과정	252	3807	17085			인문계열	56.2	8.1
공학계열	52	690	1938			사회계열	63.4	4.0
교육계열	11	146	507			교육계열	62.7	4.1
사회계열	76	856	2285			공학계열	69.9	7.5
예체능계열	43	592	1638			자연계열	63.8	12.9
의약계열	38	1157	9662			의약계열	83.7	3.0
인문계열	5	0	0			예체능계열	64.5	7.3
자연계열	27	366	1055		전문대학	계	70.9	6.5
경기	1786	49674	426819			인문계열	56.7	10.6
전문대학과정	1786	49674	426819			사회계열	65.6	7.3
공학계열	522	13263	84706			교육계열	82.4	6.1
교육계열	83	2117	18281			공학계열	69.7	5.4
사회계열	485	13139	105085			자연계열	66.9	6.1
예체능계열	398	11054	111475			의약계열	82.0	3.7
의약계열	97	4733	64733			예체능계열	66.7	10.0
인문계열	61	1228	7543		대학	계	63.3	6.8
자연계열	140	4140	34996			인문계열	55.6	7.8
경남	308	7812	44645			사회계열	61.4	2.5
전문대학과정	308	7812	44645			교육계열	47.3	3.7
공학계열	147	3148	11006			공학계열	67.0	9.1
교육계열	12	246	1201			자연계열	59.7	16.2
사회계열	59	1015	4562			의약계열	84.4	2.0
예체능계열	31	551	2103			예체능계열	62.5	5.9
의약계열	37	2240	23349		교육대학	계	63.8	0.9
인문계열	5	90	348			교육계열	63.8	0.9
자연계열	17	522	2076			계	71.5	1.2
경북	530	12095	55150			인문계열	56.1	1.8
전문대학과정	530	12095	55150					
공학계열	133	2319	7002					
교육계열	28	516	1552					
사회계열	158	3262	9005					
예체능계열	73	1399	4394					
의약계열	82	3531	30041					
인문계열	8	227	387					
자연계열	48	841	2769					

구분	계열	취업률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계	67.1	6.5
	인문계열	56.2	8.1
	사회계열	63.4	4.0
	교육계열	62.7	4.1
	공학계열	69.9	7.5
	자연계열	63.8	12.9
	의약계열	83.7	3.0
	예체능계열	64.5	7.3
	인문계열	56.7	10.6
전문대학	계	70.9	6.5
	인문계열	56.7	10.6
	사회계열	65.6	7.3
	교육계열	82.4	6.1
	공학계열	69.7	5.4
	자연계열	66.9	6.1
	의약계열	82.0	3.7
	예체능계열	66.7	10.0
	인문계열	56.7	10.6
대학	계	63.3	6.8
	인문계열	55.6	7.8
	사회계열	61.4	2.5
	교육계열	47.3	3.7
	공학계열	67.0	9.1
	자연계열	59.7	16.2
	의약계열	84.4	2.0
	예체능계열	62.5	5.9
	인문계열	56.1	1.8

구분	계열	취업률	진학률	입학자
전문대학	계	70.9	6.5	183,004
	인문계열	56.7	10.6	4,262
	사회계열	65.6	7.3	39,278
	교육계열	82.4	6.1	8,125
	공학계열	69.7	5.4	46,744
	자연계열	66.9	6.1	14,442
	의약계열	82.0	3.7	36,248
	예체능계열	66.7	10.0	33,905

2019.12.31. [KEDI 교육통계참조]

위표를 보면 전문대학의 인문계열의 개설학과와 입학정원,지원률은 현저하게 낮아도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짧은 기간 기술을 익힌 기계화 된 인재가 아닌 쌍방향소통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는 맥락과 같을 것이다. 현재의 획일적 정량적 대학평가의 잣대는 대한민국의 仁을 중심으로 禮를 갖추는 한국전통의 인간존중사회의 국가관을 훼손하는 로 봇보다 못한 인재를 양성하는 질 낮은 고등교육으로 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학평가는 강제적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으로 단기적 대학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은 百年之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AI로 대체 되는 기술교육의 산실에서의 해답은 독일의 노동4.0 정책에 있다.

-인간중심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선부른 판단조차 지금으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일, 직업, 노동’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계와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전문대학으로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해 주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협업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더욱 더 중시되는 시대로 진입되었고, 매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어디서든 업무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와이파이가 작동한다면, 누구와도 문제없이 소통과 융통성 있게 생활하며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 세상이 펼쳐졌다. 그러나 지난2년간 코로나로 온라인교육을 받은 직무형 인재산실의 전문대학의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다. 실습위주의 학과들은 온라인에서의 실습교육들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충원유지율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부적응으로 이어졌으며 온라인으로 소통이 한계인 학생들은 현실의 막막함을 도피로 표현되어 사회진출에 자신감을 잃고 쉬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에서는 비대면의 기계와의 생활로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또 기계가가 할 수 없는 서비스, 문화, 예술, 예체능 쪽의 인재들만이 사회 진출에 용이해지고 있다.

이는 대중화, 일반화, 보편화, 대량화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고, 특수화, 감각화, 특별함은 사람을 찾는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며 기계와 다르게 유연성으로 창의력과 인지력을 겸비한 소통적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인 것이다.

기계에게 설 자리를 잃은 직무위주의 기술교육 산실인 전문대학의 해답은 제조업강국인 독일이 부르짖는 ‘노동4.0’의 인간중심의 디지털시대로 상호작용과 소통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종합기술인을 육성하는 고급직무형 인재교육기관으로 거듭 변신해야한다.

바로 인문학인 것이다.

<참고문헌>

최미숙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12

최진철. <인간중심의 4차 산업혁명 논의의 필요성 연구-독일의 ‘노동 4.0’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21.9

李群玉七言律詩韻律研究

韓家俊 · 李基豪
(湖南科技大學)

<目次>

- | | |
|-----------------|----------|
| I. 緒論 | IV. 特殊現象 |
| II. 李群玉七言律詩的平仄 | V. 結語 |
| III. 李群玉七言律詩的押韻 | |

<中國語抄錄>

李群玉是晚唐詩壇中少有的享有盛譽的湖湘詩人，其詩在當時有一定的影響。故其詩歌以及韻律皆具有一定程度上的價值；更為重要的是，研究李群玉的詩歌還涉及到湖湘文化和漢語語音的演變。本文以晚唐詩人李群玉的47首七言律詩為考察對象，通過運用定量分析法，對全詩平仄、變格、對黏、拗句和拗體、拗救、首句入韻和押韻進行全面的分析，歸納總結出李群玉七言律詩韻律的一般規律和特殊情況。其變格上慣用仄平腳變格及仄仄腳特定變格，少用平仄腳變格，不用平平腳變格。對黏極其工整，未見失對與失黏之處。拗句處共拗30句，小拗多見，大拗極少；另並無拗體。拗救方面，出句自救處無，對句相救中慣用小拗可救與小拗和孤平拗救並用，其中小拗一般不救。押韻方面，首句入韻占絕大多數，全詩押韻極少見出韻之處，慣用支、東、先等韻。另有幾首有特殊情況之句，通過分析佐證了晚唐湖南入聲韻尾[-k]、[-t]的弱化和消失、晚唐湖南詩人陽聲韻相混、晚唐近體詩押韻可以出現借韻與出韻之處。

關鍵詞：李群玉，七言律詩，押韻，詩律

I. 緒論

李群玉，字文山，唐代澧州（今湖南省常德市澧縣）人，生於唐憲宗元和三年（西元808年），卒於唐懿宗鹹通三年（西元862年），享年五十五歲。與詩人杜牧、宰相裴休、令狐綯等交往甚密，唐宣宗大中八年（西元854年）由裴休援引入仕，因其不喜官場且壯志難酬，淡泊名利且追求自由，於大中十二年（西元858年）辭官南歸，其死後追賜進士及第。¹⁾作為晚唐

詩壇中少有的享有盛譽的湖湘詩人，李群玉既接受了湖湘傳統文化的薰陶，又在末世晚唐的官場中飄搖浮沉。從他的詩歌中不僅能讀到他個人的淡泊心境，還能體會到“山雨欲來風滿樓”、“大廈將傾”之末世的淒苦；不僅能感受到他雋秀清奇的文風，而且能發覺他詩歌中湖湘傳統文化的底蘊與湖湘文人一脈相承的地域品性。關於李群玉的生平、詩歌內容、詩歌感情等問題，包括對於晚唐詩人的系統研究，已經有了相當豐富的研究成果，而關於專人詩詞韻律方面的內容問題、李群玉詩歌用韻問題，還有很大的探討空間。本文以李群玉的七言律詩為研究對象，對其進行韻律的研究，對了解李群玉七律寫作格律、認識其詩歌創作價值、晚唐湖南詩歌用韻特點以及近年來大盛的湖湘文化底蘊研究應有一定的意義。本文以李群玉的全部47首七言律詩為研究對象，²⁾通過定量分析法統計押韻組合和律詩格律，通過與《切韻》系、今音系韻書作對比研究，探求平仄情況以及規律，旨在通曉晚唐詩人李群玉七律中的韻律特點以及詩詞格律。

關於李群玉的生平、詩歌內容、詩歌情感等問題，包括對晚唐詩人的系統研究已經有了相當豐富的研究成果，如周媛的《湘籍詩人李群玉的屈騷情結研究》通過對李群玉與屈原宋玉等人的作品進行比對研究³⁾，系統分析了李群玉的詩歌寫作手法和敘述手段；胡婷的《李群玉詩歌三題》中詳細分析了李群玉詩歌的藝術風格；⁴⁾王可瑞的《李群玉及其詩歌研究》中不僅對李群玉詩歌的藝術風格進行了一個比較系統的全面分析⁵⁾，而且還與之將晚唐詩歌進行了比對，批評了各種李群玉詩歌版本的選本；羅禎婷的《李商隱七律研究》從多個角度系統地對李商隱的七言律詩進行研究，⁶⁾為後來者研究專人七言律詩作了一個優秀的示範和參考；鄭豔華的《唐代湖南詩人用韻研究》通過研究一千餘首晚唐湖南籍詩人的詩歌⁷⁾，得出了一個系統的湖南詩人韻系。本文從詩歌最基礎的韻律角度對李群玉全部47首七言律詩的韻律現象進行研究，以探尋李群玉七律的韻律規律。

II. 李群玉七言律詩的平仄

七言律詩中的平仄格式一般有首句平起平收式、首句平起仄收式、首句仄起平收式、首句仄起仄收式。七律中的平仄格式可與首句是否入韻掛鉤系聯。根據考察，李群玉的七言律詩絕大多數屬於首句平起平收式與首句仄起平收式，首句平起平收式共有28首，首句仄起平收式共有17首，僅有2首屬於首句平起仄收式，沒有任何一首七律屬於首句仄起仄收式（見表1）。

表1 李群玉七律平仄格式統計

平仄格式	詩題
首句平起平收式 (28首)	《九日》《黃陵廟》《玉真觀》《金塘路中》《秣陵懷古》《望月懷友》《獻王中丞》《潯陽觀水》《哭小女癡兒》《留別馬使君》《醉後贈馮姬》《重經巴丘追感》《寄長沙許侍禦》《哭郴州王使君》、《送陶少府赴選》《送隱者歸羅浮》《長沙陪裴大夫夜宴》

1) 卢燕新.李群玉生平及李群玉诗集初探[D].西安:西北大学,2005.

2) 彭定求.全唐诗[M].北京:中华书局,1960:6650-6659.

3) 周媛.湘籍诗人李群玉的屈骚情结研究[D].岳阳:湖南理工学院,2018.

4) 胡婷.李群玉诗歌三题[D].长沙:长沙理工大学,2016.

5) 王可瑞.李群玉及其诗歌研究[D].兰州:兰州大学,2012.

6) 罗桢婷.李商隐七律研究[D].北京:北京大学,2011.

7) 郑艳华.唐代湖南诗人用韵研究[D].广州:华南师范大学,2007.

	辱綿州於中丞書信》《送唐侍禦福建省兄》《送秦煉師歸岑公山》《長沙春望寄洺陽故人》《九日巴丘楊公臺上宴集》《涼公從叔春祭廣利王廟》《送於少監自廣州還紫邏》《送蕭十二校書赴郢州婚姻》《送崔使君蕭山禱雨甘澤遽降》《奉和張舍人送秦煉師歸岑公山》《石門韋明府爲致東陽潭石鯽鮓》
首句平起仄收式 (2首)	《規公業在淨名得甚深義僕近獲顧長康月宮真影對戴安道所畫文殊走筆此篇以屈瞻禮》《同鄭相並歌姬小飲戲贈》
首句仄起平收式 (17首)	《白遣》《寶劍》《寄張祐》《送人隱居》《仙明洲口號》《李遠獲貴妃襪》《九子坡聞鷓鴣》《薛侍禦處乞靴》《湖寺清明夜遣懷》《和吳中丞悼笙妓》《謫仙吟贈趙道士》《請告南歸留別同館》《湘陰江亭卻寄友人》《長沙紫極宮雨夜愁坐》《江樓閑望懷關中親故》《廣州陪涼公從叔越臺宴集》《將爲南行陪尚書崔公宴海榴堂》
首句仄起仄收式	無

III. 李群玉七言律詩的押韻

李群玉七言律詩所押韻部基本情況如下：押東韻5首、押支韻6首、押微韻1首、押魚韻2首、押虞韻1首、押齊韻1首、押灰韻4首、押真韻2首、押文韻1首、押元韻1首、押寒韻3首、押先韻5首、押歌韻2首、押陽韻2首、押庚韻3首、押青韻1首、押尤韻3首、押侵韻4首。

IV. 特殊現象

《請告南歸留別同館》押侵韻，屬於仄起平收式，而首句爲“一點燈前獨坐身”，而“身”字屬臻攝真韻，而侵韻屬深攝，王力中古音擬音系統中的真韻爲[-iĕn]，而侵韻爲[-iĕm]，臻攝和深攝關係相當近，兩攝之間僅有韻尾差別。鄭豔華《唐代湖南詩人用韻研究》中提到湖南詩人普遍存在陽聲韻尾混用的特色⁸⁾；當時作者所處的湖南方言中，[-m]尾和[-n]尾已經混同，印證了漢語語音發展中閉口韻的消失。由此可以推測閉口韻的消失可能在晚唐時期的南方就已經開始了，這是一個值得繼續深究的問題。

《九日》押哈韻，頸聯對句韻腳字爲“懷”字，屬於皆韻。此處可能有幾個原因：一是晚唐不那麼注重近體詩首句之外押韻不可借韻或出韻的規則，張立榮《北宋前期七言律詩研究》中曾指出北宋早期近體詩首聯之外也有借韻與出韻的情況；⁹⁾二是皆灰兩韻本屬鄰韻。首聯韻腳字“開”和“臺”與頸聯尾字“來”是哈韻，頸聯韻腳字“懷”是皆韻。“開”“臺”“來”“懷”在《中原音韻》中歸爲“皆來”韻，王力《漢語史稿》中提到絕大部分蟹攝一二等字都變爲了[-ai]。李群玉寫作時可能是受當時語音系統的影響，將“懷”字處理爲押韻的韻腳字。也可以假設推測：在晚唐的語音系統中蟹攝一二等字已經開始逐步轉變爲[-ai]。

8) 郑艳华.唐代湖南诗人用韵研究[D].广州:华南师范大学,2007.

9) 张立荣.北宋前期七言律诗研究[D].南京:南京师范大学,2006.

A study on the versification of Li Qunyu's seven character rhythms poetry

Han, Jiajun · Li, Jihao
(Hun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Abstract >

Li Qunyu (李群玉) is one of the few famous poets in the late Tang Dynasty, whose poems had a certain influence at that time. Therefore, his poems and rhymes are valuable to a certain extent; more importantly, the study of Li Qunyu's poems also involves the evolution of Hunan culture and Chinese phonetics. In this paper, 47 seven character rhythms of Li Qunyu, a poet of the late Tang Dynasty, ar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research, phonology, Chinese history, middle ancient phonology and other linguistic perspectives. Through the use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author m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whole poem's prosody, variation, stickiness, obstinate sentences and obstinate styles, obstinate saving, first sentence entering into rhyme and rhyme, and sums up the results Li Qunyu's seven character rhythms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ange, we usually use the level foot change and the level foot specific change, and use less level foot change instead of the level foot change. It is customary to use the rhymes of Zhi (支), Dong (東), Xian (先), etc. There are several other sentences with special circumstances, which prove the weakening and disappearance of the ending [-k] and [-t] of Hunan entering voice in the late Tang Dynasty, the mixing of Yang rhyme and Yang rhyme of Hunan poet in the late Tang Dynasty, and the rhyme of modern style poetry in the late Tang Dynasty.

Key Words : Li Qunyu; seven character verse; rhyme ; versification

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的角色与使命

项久雨

(武汉大学思想政治教育研究院执行院长)

摘 要：传承优秀文化、社会批判与建构、教化民众、匡时济世是文人在中国古代的重要使命担当，在中国历史进程推进中起了重要作用，为后世文人担当使命提供了借鉴。在后新冠时代，人文学者则承担着传播主流价值观念、重建公众理性认知、建言献策、构建和谐世界等角色，但人文学者履行职责过程中依然面临着诸多挑战，主要表现为部分人文学者德行修养淡化，批判精神弱化、问题意识和反思能力弱化、世界性冲突对立、人文学科日渐式微等。人文学者需要认清自身在后新冠时代的角色定位，在继承历史经验的基础上，通过进一步强化自身德行修养、强化问题意识和反思能力、坚持批判精神、坚持胸怀天下等路径，担当起人文学者在推进人类社会发展中

关键词：后新冠时代；人文学者；角色定位；能力建设

人文学者自古以来在社会上承担着重要使命，对社会的发展及人类的发展进程产生重要作用。2020年春天爆发的新冠肺炎疫情是一次公共卫生领域中的重大突发事件，已经波及全球几乎每一个角落，至今仍未结束，给世界社会秩序、人民群众生命安全和身体健康等造成威胁，也给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的作用发挥和能力建设带来了一些新的思考。后新冠时代，作为人文学者，有怎样的角色定位以及应当如何强化自身的能力建设，践行自己的使命？

1. 一、文人在中国历史进程中的使命

今天的人文学者，在中国古代，则被称为“士”或“士人”，他们是一批具有自觉责任感和明确使命感的人。自孔子起，以孔孟为代表的中国文人将明道救世视为自己的使命与责任，促进了社会历史的进步。具体表现在：

1. 1、传承优秀文化

中国古代士人传承文化为己任，勇担传承优秀文化的使命。孔子曾在《中庸》中云：“仲尼祖述尧舜，宪章文武，上律天时，下袭水土”，他认为要遵循尧舜之道，效法周文王、周武王之制，继承和弘扬传世经典和先哲的精神和文化。他整理删定六经，充分肯定了传统典籍的社会价值，对儒学乃至中国传统文化的发展起了重要作用。后来，孔弟子及孟子、荀子对上古和孔子学说进行整理、阐释和传播，这一优良传统被

后世文人所继承和发扬，“为往圣继绝学”成为了古代文人的重要使命、并致力于继往开来。这种薪火相传的事业就算是在中国社会动荡的年代也没有被中断，当时秦始皇“焚书”使古代文化典籍遭到严重破坏，再到后来项羽火烧咸阳，使在民间已经消失的诗、书百家语之类的书，在这场大火中彻底亡失。上古典籍得以流传至今，全赖汉初一批年事已高的儒者口述，汉武帝时期，伏生（原为秦朝博士）向晁错口授《尚书》便是重要体现。宋代以来，书院逐在民间兴起，私人讲学在社会盛行，大规模刻印书籍出现，更加凸显了文化传承的实绩。中国文化之所以经历劫难而从未中断，同中国士人以传承文化为己任的责任感是密不可分的。

4. 2、社会批判与建构

作为社会基本价值与社会准则的自觉维护者，中国古代优秀士人从未放弃社会批判和建构的责任，兴利除弊，协调社会矛盾，促进社会稳定。面对各种社会现实问题，他们主张以策论兴天下，或是作文劝诫统治者，陈说利害，提出建设性意见；或慷慨陈词，对社会现实问题给予猛烈抨击，以期引起震动。不管是把持朝政的外戚、宦官、佞臣等邪恶势力，还是为恶一方的豪强和虎狼之吏，都是他们抨击的对象。比如孟子在《孟子·滕文公章句下》中说“世衰道微，邪说暴行有作”，批判当时世道衰微，邪恶的言论和残暴的行为层出不穷；荀子在《荀子·尧问》中说“上无贤主，下遇暴秦，礼仪不行，教化不成……当是时也，知者不得虑，能者不得治，贤者不得使。”批判当时的社会，上面没有贤良的君主，下面遇上暴虐的秦国，礼制道义、教化不能施行，有智慧的人不能参与谋划政事，有能力的人难以施展自己的才能，有德才的人得不到任用等。在批判的同时，他们把百姓安居乐业、天下太平作为他们的最高理想，针对性地提出一些理想社会的建构设想。比如在政治上，孟子的“民为贵”与“仁政”的民本思想，孔子的“仁者爱人”主张，荀子的“法后王，统礼仪，一制度”等等，旨在劝谏统治者以民为本，轻徭薄赋，爱惜民力，建立稳定和谐的社会秩序。中国古代社会之所以能屡屡摆脱社会危机，实现由乱而治，同一代代士人持续不断的社会批判与建构是有密切相关的。

4. 3、教化民众

中国古代士人在作社会批判的同时又自觉承担教化民众的职责。中国自古就重视对民众的教化，且从中央到地方均有专人掌管教化工作。后世更在民间设立乡学及社学，旨在民间传播普及文化，导民德、善民俗，主事者和施行者主要是乡里士人。荀子曾在《荀子·儒效》中说：“儒者在本朝则美政，在下位则美俗”，来表达对儒者的赞扬，意思是说，儒者在朝内做官就会使政治美善，如果生活在民间就会使民风淳美。后世也有士人提出“上士贞其身，移风易俗”之说，倡导建立制定“乡约”，比如北宋理学家吕大防、吕大钧兄弟发起制订的《蓝田吕氏乡约》，提倡：“德业相劝，过失相规，礼俗相交，患难相恤”，对淳化风俗，提升民德、建立社会和谐、安定社会秩序曾起了重要作

用。此外，中国士人多重家教，他们曾制订各种家训、家规，如《颜氏家训》、朱伯庐的《治家格言》、曾国藩的家训等等，不仅影响一家、一族，甚至影响后世。在明清，不少士人留下清言集，如洪应明的《菜根谭》、吕坤的《呻吟语》等，其中多是有深刻哲理的警句、格言，对于人们陶冶情操、为人处世、安身立命有重要启迪作用。宋元以来，戏剧、小说、说唱等艺术逐渐兴起，虽主要是为娱乐，但又蕴含明显的“觉世”、“醒世”、“警世”作用，这些作品的创作，都是士人担任教化使命，做教化工作的重要体现。

2. 4、匡时济世

中国古代士人的使命感、家国情怀在社会出现危难的时刻表现得更为强烈。在中国历史上，由于封建制度本身存在的一些弊端，社会上时常出现或大或小的社会动荡。士人们具有深刻的忧患意识、对社会现实具有敏锐的洞察力，加上熟知历史经验教训，他们往往最早觉察社会危机并敲起警钟。比如在近代，在鸦片战争即将爆发的前夜，当时的社会危机日益深重，民族危机也已经出现端倪，以魏源为代表的一批主张经世致用的士人便开始呼吁清朝政府要尽快主动进行自我改革。再到后来我们所熟知的康有为、梁启超等人所提出的维新变法主张，等等，在中国古代历史上的几次重大社会变革中，士人们都是在危机爆发之前就率先觉察到危机并呼吁和推进社会变革。当危机真正出现和真正爆发的时候，优秀士人则是作为领头者，不顾个人安危，敢勇当先、率领众人扶危扶颠，比如明朝魏忠贤时期由读书人组成的“东林党”人与宦官集团的斗争、清初江南士人的抗清斗争及近代的康有为率同梁启超等数千名举人联名“公车上书”光绪皇帝等都是重要体现。为了匡时救世、扶危扶颠，许多优秀士人不惜冒杀身灭族的风险，以身报国，他们的使命感、担当精神为后人所钦佩。

2. 二、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的角色定位及挑战

2. 1、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的角色与职责

新冠肺炎疫情面前，没有看客。每个群体在社会中所处的各种角色与职责，会因为疫情变得更加明确和清晰。后新冠时代，人文学者虽然不像医务工作者那样，战斗在与病魔较量的最前线，但他们也有着更加清晰的角色定位，以自己的方式为国家分忧、为社会尽责，为人民解难。

（1）传播主流价值观念。后新冠时代，主流价值观念的引领是一个核心的重大问题。人文学者是知识的先锋，担负价值引领的重要使命。“文章合时而著”，后新冠时代，人文学者要通过学术研究成果中所蕴含和传递的主流价值观念来引导公众树立正确的世界观、人生观、价值观，助力后新冠时代正确价值取向的确立和完善价值体系的建构。比如，对于文学来说，它承担着后新冠时代提升国民教养与国民风度的重

任，文学学者可通过塑造人物形象、编撰故事情节、抒发内心情感来表征意义，充当理想和信仰的催化剂，向公众传达社会主流价值取向；对于历史学来说，历史学主要承担着回溯传统，建立民族、国家认同的重要职责，历史学者可通过对历史事件、历史人物和历史运动的考究和评价来向社会公众宣扬某种正确的价值取向，“以人为鉴，可以知得失，以史为鉴，可以知兴替”就是给人们最好的告诫；哲学承担着培育国民信仰的职责，哲学学者可从反思生命活动中揭示人类活动现象背后的实质的抽象和规律，阐释并向社会公众传达某种正确的价值取向，等等。后新冠时代，人文学者要通过学术研究向社会提供和传达主流的先进的价值观念，不断巩固人民信仰。

（2）重建理性认知。理性的社会认知是社会稳定的重要条件，也是取得抗击新冠肺炎一切胜利的重要社会基础。从疫情中可以看出，新冠肺炎疫情在对人民生命健康造成威胁的同时，更给社会带来了深层的精神危机。社会个体的命运叠加新冠疫情中人类社会的处境，很多人在时代情绪中丧失自我，出现虚无主义和颓废主义，理性认知出现偏差。人文学者主要是研究的是作为“类”存在的人，所关注的多是人的生存环境，尤其是人的精神生活环境。矫治社会精神危机，重建公众理性认知是后新冠时代人文学者的重要角色和使命担当。人文学者要秉持理性的现实判断力，直面后新冠时代人类心智秩序的破碎与重建，从人文学研究角度对民众存在的的精神危机问题进行分析 and 思考，揭示其复杂性，对其作出有效阐释和判断，并进行正确的理论思考与建构，以理性排附和，给人以精神上的修养与理性的再塑，进而让民众对人类正在经历的这一切有更深刻的理性的认知，重新理性规划自身行为，而不仅仅是在时代情绪之河中随波逐流。

（3）建言献策。新冠肺炎疫情给世界全球化带来挑战，全球经济低迷，政治秩序重构。如何恢复国际合作秩序、更好地恢复和改善社会民生，是后新冠时代国际社会面临的重大难题。面对这种态势，不论是批评还是赞许都不是当下的重点，察实情、看本质、建真言，才是作为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不可推卸的重要职责。人文学者要站在时代问题的发现者和改造社会探索者的立场，发挥学科优势和专业特长，秉承求真务实的精神，关注后新冠时代的社会变化，体察疫情动态，将人文学术研究与后新冠时代社会重大理论与实践问题深度勾连，深入问题背后，思考应当采取怎样的解决措施，加强经验总结和理论提炼，发表自己的真知灼见，为社会提供理性务实、切实有效的政策咨询与针对性的措施建议。比如，通过总结和归纳地方抗击新冠肺炎疫情的成就与经验，为地方的战略决策提供咨询；或是调研后新冠时代基本国情，深入了解中央应对疫情重大决策实施和反馈情况，为党中央、国务院的战略决策服务等等。走在政策前面，通过针对性的学术研究为国家乃至世界应对后新冠时代提供理论支撑和智力保障，才是后新冠时代人文学者不可推诿的重要社会责任。

（4）构建和谐世界。新冠疫情的全球爆发使世界陷入一种综合性危机，国际关系、社群关系甚至人与人之间的关系存在不同程度的被撕裂的情况，国际秩序受到严重冲击。在此种态势下，人文学者有责任担起历史使命，为建构和谐世界做贡献。和

谐世界的建立是以人为主体的来展开的，人是社会生活的主体。作为人文学者，同样也是新冠肺炎疫情的参与者和见证者，在亲身亲历了这一场新冠肺炎疫情，也真切感受到了抗击新冠肺炎疫情过程中人与人之间关系的变化之后，不应当坐等别人形成各种各样的文献，供我们来进行分析和研究，而是发挥发挥人文精神，发挥人的主观能动性，主动对当前我们所处的时代重大问题进行真实地记录。不是新闻报道、也不是官方发言、更不是流言蜚语或者某种意识形态影响下的狭隘偏见，仅仅是真实记录关于后新冠时代人与人、人与社会、人与自然环境、人与国家、人与世界之间的真实关系，记录世界上的一个个具体的人是在新冠肺炎疫情影响下的这个已经变化了的世界中定位自己、重新确认和调整自己与他人、与世界之间的关系，形成第一手资料。进而在后新冠时代展开对于构建和谐世界的研究，探寻如何妥善协调和正确处理人与人之间、人与社群之间的各种利益关系，如何促进人与人之间、价值追求相异的文明与文明之间的共生共在等等，从中以求世界的和谐发展之道。

4. 2、后新冠时代人文学者履行使命面临的挑战

从文人在中国历史上的作用及后新冠时代人文学者的角色定位就可以看出，人文学者往往承担着不断完善人民、完善社会、完善国家的重要使命，在历史的发展进程中起了重要作用。但是现阶段社会环境发生了巨大变化，人文学者在后新冠时代承担社会责任、履行使命担当中也遇到了一些挑战。

（1）德行修养淡化给人文学者传播主流价值观念带来的挑战。部分人文学者学术信仰不坚定，淡漠学术研究的社会价值，把名和利作为自己的理想追求，在物质诱惑面前忽视了自身德行修养的发展。主要表现在：科研责任意识缺失，投机取巧，重复和模仿别人的东西，造假浮夸，虚报科研成果，或借学说之名误导公众以满足其名利私欲，等等，这些行为虽属于个别现象，但如不加以改进，将会影响学术环境，阻碍学术进步，给社会主流价值观念的传播带来挑战。

（2）批判精神弱化给人文学者重建公众理性认知带来的挑战。新冠肺炎疫情爆发以来，以疫情为主题的研究有着更加明显的增长数量，使得人们每日都暴露在海量冗杂、真假相掺的信息当中，不少人迷失在信息汪洋中，随波逐流。其中批判精神弱化就是重要原因，主要表现在：部分研究者在学术研究中不加甄别和审视，就断章取义、以偏概全，或片面地将表面现象的价值评判夸大、扩大，或热衷于大而无当、内容空洞的自我理论建构和概念制造，容易冲击公共理性，导致一些价值偏差。

（3）问题意识和反思能力弱化给人文学者建言献策带来的挑战。真正的学术研究应是关心社会发展，致力于解决社会发展中的实际问题。后新冠时代，很多人文学者没有主动提高对时代及人类社会发展进程的关注度，缺乏主动发现问题、揭示问题、解决问题的自主性思考和研究，仅仅满足于扮演具体政策诠释者的角色。学术研究多是对历史和既有理论进行分析和解读，多是教条主义和循环论证，所作学问存在脱离

实际的情况，这给人文学者建言献策带来了挑战。

(4) 世界性冲突与对立给人文学者构建和谐世界带来的挑战。受疫情影响，在后新冠时代，社会关系、国际关系变得日益复杂，世界发展中的一些深层次矛盾和问题日益凸显，比如包括生活习惯、价值观念、信仰、行为等在内的文化冲突和地区冲突等，使人与人、人群与人群之间，不同社群、族群、地域、立场、利益的人之间的紧张与对立，给和谐世界的构建带来了挑战。

(5) 人文学科日渐式微给人文学者发挥使命担当带来的挑战。科技的快速发展使得社会越来越技术化，自然科学受到广泛重视，人们也越来越崇拜科技。而对于人文学，许多人认为它是阳春白雪、是高谈阔论，不像自然科学和社会科学那样直接产生经济效益，缺少一定的实用性与功用化，不能为改造世界所运用，因此为社会所轻视，有式微趋势，这给人文学者履行使命担当带来了挑战。

3. 三、后新冠时代促进人文学者能力建设的路径

习近平同志指出：“只有立足于时代去解决特定的时代问题，才能推动这个时代的社会进步；只有立足于时代去听时代的声音，才能促进社会和谐的时代号角。”¹⁰⁾在新冠肺炎严重影响下的后新冠时代，人文学者立足于时代，与时俱进，勇承使命，加强自身能力建设，不断化解新冠肺炎疫情带来的消极后果，助力国家的长治久安和世界秩序的有序运行。

1. 强化自身德行修养，提升人文学者传播主流价值观念的水平

德行修养既是社会的灵魂，也是知识的灵魂。后新冠时代，人文学者传播主流价值观念，其必备素养是要有过硬的学术水平。拥有过硬的学术水平，前提要有过硬的德行修养。孔子在《论语·阳货》中曾经说过，仁者必须要做到五点，那就是：“恭、宽、信、敏、惠”。恭则不悔，宽则得众，信者人任焉，敏则有功，惠则足以使人。人文学者是社会中的人，同样具有一切独立人、社会人的特性，“庄重、宽厚、诚实、勤敏、慈惠”这五种德行修养应是包括人文学者在内的众人所应当具备的德行修养。《礼记·大学》中有说：“修身、齐家、治国、平天下”，其中修身就是完善自己，行为有规范，意思是说养德修身是做人为官的基础，强点了个人德行修养的重要性。《菜根潭》中说：“德者事业之基，未有基不固而栋宇坚久矣”。意思是说高尚的德行是人生事业的基础，就如同修建高楼大厦一样，假如事先不把地基筑得稳固，就无法保证房屋的坚固耐久。康德曾在《实践理性批判》中说过：“有两种东西，我们逾时常、逾反复加以思维，他们就给人心灌注了时时翻新、有加无己的赞叹和敬畏：头上的星空和内心的道德法则。”¹¹⁾人文学者要在人文学浩瀚的星空下，始终坚守学术道德及学术信仰的“道德法

10) 习近平.《问题就是时代的口号》，2006年11月24日。

11) 康德.《实践理性批判》[M]. 商务印书馆，1960：164.

则”，自觉抵制学术造假和诋骗研究经费等不恭不诚不敏的学术行为，不为世俗名利所诱惑，把加强德行修养作为一生承诺，作为一生的实践，作为一生的追求，在不断完善本身的德行修养中，追求学术研究的更高点，更好地向社会传播先进主流价值观念。

1.2、要坚持批判精神，强化人文学者重建公众理性认知的能力

批判精神，就是指个人在认识外部世界和自我时所持的质疑、分析、理性思考的行为倾向，是站在一个更高的层面上，对历史或现实做甄别和审视，以期解决问题，实现更好的发展。新冠肺炎的全球疫情空前凸显了社会危机应对中批判精神的重要性。后新冠时代，批判必然是人文学者的重要责任与担当。人文学者要在精神上突出批判锋芒，一是及时进行批判。错误思想与思潮一旦在社会上流行，极易对人的思想造成重要影响，冲击社会理性认知。人文学者要及时对疫情引发的错误思想与思潮进行批判，尤其是在科学技术高度发达，信息传播方式更加多样、传播速度更加快捷的今天，一旦疏于应付，后果不堪设想。二是全面进行批判。人文学者不能仅满足于摆出一副批判姿态，要真正地批判，在批判他人的同时也要进行自我批判，避免出现政治立场正确的炫耀与道义道德感的自我满足、一味维护自己的观点和理念、漠视真理的情况，而是以一种开放的心态，反复推敲和琢磨，将自己的观点理念不断向真理演化。三是要科学批判。科学的批判，才会令人信服，科学的批判是我们打开世界认知本质和通往理性认知的金钥匙。人文学者要用自己的知识积累和理性思维，从源头上入手，抓住核心人物或核心观点，对社会话题进行理性地批判，但不是任意挑选论据或随意开口，应是持之有故，言之有理，全面而不失偏颇，尤其是要建设性地批判，取其精华，去其糟粕，在批判的同时实现对事物的“表象→事实→观点→信念”的建构，真正给社会舆论纠偏，助力社会理性认知的重建。

1.3、要强化问题意识和反思能力，提升人文学者建言献策的能力

强化问题意识和反思能力是提高问题解决能力的重要手段。后新冠时代，疫情遗留的各种社会问题层出不穷。要求人文学者要以利国利民为自我要求，基于理论，面向现实，主动反思时代变化，对接实际需求，促进人文学研究成为改变现实，塑造未来的重要力量。一是以问题为导向，强化问题意识。“坚持问题导向是马克思主义的鲜明特点”¹²⁾，问题是时代的声音，是事物矛盾的表现形式。增强问题意识就是承认矛盾的普遍性和客观性，并善于去认识和化解矛盾。要求人文学者不能只满足于做书斋里的学问，而是要顺应时代发展进程，摆脱教条和惯性，扎根后新冠时代世界现状，树立鲜明的问题意识，通过宏观层面的对时代的敏锐观察及微观层面的对社会现象的真实感受，去关注后新冠时代的各种矛盾、各种问题，在问题中发现学术研究课题。二是要强化反思能力。纵观有思想记载以来的人类文明历程，人类文明之所以能够克服

12) 习近平.《在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上的讲话》，2016年5月17日。

种种危机，流传不息，最关键的一点是能够及时地反思，以不断调适的态度走出困难险阻。同样，后新冠时代，社会良好持续的发展离不开反思作用。思考越深入，决策就越趋向于科学。尤其是当我们对新冠疫情中的各种现象和情况有了更准确的认识，积累了更详实的资料的背景下，作为人文学者，要站在国家公共政策的高度，以人文学者的素养、眼光和胆识深刻反思蕴藏在人类现代化进程中的问题与危机及其现象背后的实质，洞悉各个问题间的相互影响、相互作用的机制。认真检讨应对新冠肺炎疫情的政策框架和制度平台，总结经验与教训，有针对性地展开相关的实践反思性研究和对策性研究，进而为人民发声、为国家建言、为世界献策。

叶. 4、要有广阔的人文情怀，提升人文学者构建和谐世界的水平

所谓人文情怀，它指的是一种普遍的人类自我关怀。弘扬人文情怀对于促进许多全球性和地区性问题的解决，促进世界朝着和谐有序的方向发展具有重要作用。后新冠时代，人文学者要怀有关心人民、关心国家、关心人类命运的广阔的人文情怀。一是坚持以人为本的理念，人文情怀最核心的要素是对人类生命的关怀，对生命的敬畏和对关怀应是人文学者学术研究的第一要义，人文学者学术研究要将人民放在核心位置，树立人民至上、生命至上的价值观念，自愿充当人民群众生活的真正代言人，让研究更接地气，为现实服务，直指人心。二是要有坚定的家国情怀。家国情怀，不仅以前需要，后新冠时代更需要。人文学者要以强烈的使命感和责任感，围绕后新冠时代国家中心工作和重点工作，自觉把学术研究与国家进步紧紧联系在一起，努力推出高质量的学术研究成果，书写当代人文学者与国家同呼吸、与民族共命运的家国大义。三是要树立“全球人文”理念，坚持胸怀天下。后新冠时代，全球化依然是人类文明历史发展中不可逆的基本趋势和核心主线。人文学者要立足于全球化趋势，打破狭隘孤立的民族主义的“自我欣赏”和“自我满足”态度，超越国家中心，将人文学研究目的升华为为大众、为全人类，从整体出发去思考当前世界社会现实，探讨和研究一些关乎人类生存和社会发展的一些具有普世意义的理论话题和现实话题，比如人文学者需要研究的是怎样建构人类命运共同体，其政治、经济、文化、观念的基础、最大公约数在哪里？如何去进行协调？等等，为构建和谐世界和人类文明进步贡献智慧和力量。

叶. 5、重视与发展人文学，夯实人文学者担当使命的平台根基

人文学所要探索的是人的生存意义或人的价值，及各种事实性存在的性质和规律，不论对于个人还是国家与世界来说，人文学都是非常重要的。要采取措施不断促进人文学的进步与发展，为人文学者进行学术研究、发挥角色力量提供有力的平台，为消除后新冠时代的危机奠定基础。一是国家要加强对人文学的重视。国家应当充分意识到，要真正击退新冠肺炎疫情，实现国家和世界的有序稳定发展，除了需要自然科学对疫情的科学研究与防治，除了需要自然科学对生产力的促进作用，还要充分重视人文学的重要作用。因为国家政策的制定、社会制度的调适、突发事件的有效应对

都离不开人文学者们的献计献策。尤其在后新冠时代，人文学对于构想和实现美好社会生活至关重要，人文学者知道如何更好地处理危机，以及如何从历史中汲取经验教训，推动人类社会发展进程中变得更加强大。二是人文学者自身要致力于促进人文学科的发展。费希勒说“不是说每个学者都应当使自己的学科真的有所发展；要是做不到这一点，他就应当尽力而为，发展他的学科；在他未能使自己的学科有所进展以前，他不应当认为他已经完成了他自己的职责……学者要忘了他刚刚做了什么，要经常想到他还应当做些什么。”¹³⁾同样，人文学科的发展离不开人文学者孜孜不倦的努力和研究。作为人文学者，尤其是在后新冠时代的背景下，要时刻牢记自己的学科使命和职责担当，密切把握时代的脉搏，积极介入社会现实，深入大众领域，紧密跟随社会变迁，在科研行动上精益求精，不断促进人文学的发展，助力推进人文学摆脱式微困境。

13)费希特. 《论学者的使命》 [M] . 梁志学, 沈真译. 商务印书馆, 2003.

THE INEVITABLE APPEARANCE OF THE CONCEPT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IN VIETNAMESE HISTORY

(Sự xuất hiện tất yếu của tư tưởng “Tam giáo đồng nguyên”
trong lịch sử Việt Nam)

Dr. Bùi Thị Ánh Vân¹⁴⁾

<

Tóm tắt: Trong lịch sử, Nho giáo, Phật giáo và Đạo giáo có ảnh hưởng khá quan trọng đến đời sống tư tưởng của người Việt Nam. Ba tôn giáo này vô hình trung đã tạo nên thể chân kiềng, hình thành tinh thần Tam giáo đồng nguyên (三教同源) trong đời sống chính trị, tôn giáo và văn học của Đại Việt, đặc biệt ở hai triều đại Lý - Trần. Nhiều yếu tố đã khiến cho Nho giáo, Đạo giáo và Phật giáo hòa hợp trên mảnh đất của người Việt, như: Bối cảnh lịch sử; sự ảnh hưởng của các yếu tố văn hóa văn địa; sự cởi mở của người Việt với tôn giáo ngoại sinh; những yêu cầu của lịch sử về thống nhất sức mạnh vật chất và tinh thần; vai trò của chính các tôn giáo này trong đời sống tư tưởng của người Việt. Những diễn biến đương thời cho thấy, tinh thần Tam giáo đồng nguyên xuất hiện là một tất yếu của lịch sử Việt Nam.

Historically, the main production of Vietnamese residents was rice farming. Therefore, their lives always depended on nature (such as heaven, earth, water, sun, rain...). Those living conditions formed in their awareness a way of thinking that is integrated, relational, affectionate and biased towards experience, intuition, feeling and spirituality. In the community organization, the Vietnamese work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pect, tolerance and flexibility. The dialectical synthesis thinking and the principle of respect led to flexible and appropriate behaviors for each specific situation. Therefore, the achievements of Chinese and Indian civilizations to Vietnam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other foreign religions) were accepted by the native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ir introduction.

Any culture of any country has a need to adapt to foreign cultures. The result of that exchange process is the appearance of new cultural elements. On

14) Dr. Bui Thi Anh Van,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iet 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Tel: 0979 201 872; Mail: anhvanbui6328@gmail.com)

the basis of an agricultural culture, the ancient Vietnamese residents received and changed many elements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to suit their thoughts. In different ways, this religion gradually ingrained, rooted and affirmed its place in the spiritual life of Vietnamese people. Not only did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integrate with the cultural traditions of local residents, they also combined and unified each other and formed the same form of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In reality, history proved that in the general development trend of human civilization, if any nation persists in a pattern, it would be eliminated. On the contrary, the nation which has ideological and cultural tolerance, open in contact would receive many positive factors. Pioneering in innovative thought were feudal intellectuals and progressive thinkers. The research of Nguyen Tai Dong indicated: “The real innovators in Vietnamese history were not only people who read widely, but also people who had ability to integrate different ideas, even the opposite.”¹⁵⁾. In Ly Dynasty, Zen master Vien Chieu (999-1090) in his work repeatedly mentioned the reciprocity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the ideological life of Vietnamese people¹⁶⁾. In Tran Dynasty, King Tran Thai Tong (1218-1277) also shared this view when he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of saving the life of Buddha or Confucianism was still the same. He wrote: “The Sixth Patriarch said: ‘The great sage and the great master of the previous life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That is enough to know the great teachings of the Buddha, but passing it on to the world relies on the saints”¹⁷⁾. In another article, after comparing the Three Teachings on cultivation methods and pointing out the similarities, the king said: “Three sages of the ancient Three Teachings achieved their achievements through meditation”¹⁸⁾. The view “Three religions are one and the same” was also supported by many intellectuals and Buddhist monks, such as: Zen Master Huong Hai (1631 - 1718)¹⁹⁾, scholar Le Quy Don (1726 - 1784), Ngo Thi Nham (1746 - 1803), Phan Huy Ich (1750 - 1822), Trinh Tue (18th century)²⁰⁾, Zen Master Toan Nhat (1750? - 1832?)²¹⁾, Bhikkhu Giac Lam (nineteenth century) ... Despite being a Confucian, Le Quy Don often criticized the people who knew only Confucianism but did not know other ideas.²²⁾ At the same time as Le Quy Don, Ngo Thi Si (1726 - 1780) expressed his

15) Nguyễn Tài Đông, 2013, p. 40.

16) Viện Văn học, 1977, p. 266.

17) Viện Văn học, 1989, p. 26-27; Trần Văn Giáp, 1990, p. 56.

18) Viện Văn học, 1989, p. 88.

19) Lê Quý Đôn, 1977, p. 409 -410; Nguyễn Đăng Thục, 1971, p. 26.

20) Viện Triết học, 1984, p. 145.

21) Lê Mạnh Thát, 1979, p. 22.

opinion about the Tam Giao in an inscription engraved in 1760 at Tam Giao pagoda (Kim Bang, Ha Nam). He affirmed: "I think there is only one morality. Freedom, wisdom and no division between religion²³⁾. With the efforts of feudal intellectuals and monks, the thought of the Three Teachings of the same age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feudal period in Vietnam, when it was in power as well as when those dynasties were in decline.

The issue of consolidating and building an independent, unified and powerful nation was always the top concern of Vietnamese feudal dynasties. In life, they were not only worried about dealing with natural disasters but also had to fight foreign invaders. Therefore, they desperately needed to unify their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and their thoughts. The fusion between exogenous cultural factors and local culture and the fusion between localized exogenous cultural factors were inevitable. In the contemporary context,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were already typical factors which had influenced the contemporary social and spiritual life in general and political thought in particular. These religions had well performed the historical task when participating in consolidating and promoting national consciousness, patriotism, solidarity and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Over time,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have become typical spiritual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spiritual life as well as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Vietnamese people. As a result, the concept of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was formed in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and the "Three Religions" harmony took place very naturally. Discussing the Three Teachings of the same origin, Trinh Tue in the article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stated his opinion: The Three Religions were all of the same origin and were all united in terms of their ultimate goals²⁴⁾. When learning about traditional Vietnamese society, we will find this statement very convincing. Intellectuals and many monks clearly affirmed the role of the three religions in the spiritual life of the Vietnamese²⁵⁾.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were independent relig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Vietnamese concept, the names of these religions were just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same concep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but complement and support each other: Confucianism towards a very organized social organization; Taoism takes care of the human body to be healthy; Buddhism liberates people's worries to escape suffering.

22) Lê Quý Đôn, 1977, p. 363.

23) Cao Xuân Huy – Thạc Can, 1978, p. 31.

24) Followed by: Nguyễn Tài Đông, 2013, p. 37.

25) Viện Văn học, 1977, p. 274.

Therefore, indigenous people need all three religions to be compatible with each stage of human life. When they were young, they learned Confucianism to help the country; when they were suffering, they prayed to the Buddha for help, and when they were sick, old and weak, they invited Taoists to cure diseases, exorcise evil spirits or practice sedating oxygen. Although the cultivation methods of the three religions were different in life, they were all on the purpose of bringing light to life (enlightenment), leading people to Truth, Compassion, and Beauty. This point of view was affirmed by Lê Quý Đôn in “Kiến Văn Tiểu Lục”²⁶). This has been compared to the day needing sunlight (golden crow: yellow crow), night needing moonlight (jade rabbit: jade rabbit). In summary, Vietnamese cultural ideology in traditional society was previously strongly dominated by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hese three religions had an important position and harmonized with each other - which the Vietnamese still call the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The smooth and fusion between them created a brilliant and quintessential Vietnamese civilization. It was a combination of folklore colors with royal scholarly culture and the harmony between politics and the spiritual, religious life of the land of thousands of years of civilization.

<REFERENCES>

1. Lê Quý Đôn toàn tập, Tập II - Kiến văn tiểu lục (1977),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2. Nguyễn Tài Đông (2013), “Tam giáo đồng nguyên và tính đa nguyên trong truyền thống văn hóa Việt Nam”, Tạp chí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số 5 (66)/ 2013, Hà Nội.
3. Trần Văn Giáp (1990), Tìm hiểu kho sách Hán Nôm. Tập II.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4. Cao Xuân Huy - Thạch Can (Chủ biên/1978), Tuyển tập thơ văn Ngô Thì Nhậm, Tập I.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5. Lê Mạnh Thát (1979), Toàn Nhật Thiên sư toàn tập. Tập I (ronéo), Viện Phật học Vạn Hạnh, TP. Hồ Chí Minh.
6. Nguyễn Đăng Thục (1971), “Vạn Hạnh với quốc học”, Tư tưởng, số 1, năm thứ Tư. Viện đại học Vạn Hạnh, Sài Gòn.
7. Viện Triết học (1984), Một số vấn đề lý luận về lịch sử tư tưởng Việt Nam,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26) See: Nguyễn Tài Thư, 1993, p. 416.

8. Viện Văn học (1977), Thơ văn Lý - Trần. Tập I.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9. Viện Văn học (1989), Thơ văn Lý - Trần, Tập II,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Abstract>

In history,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had quit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ideological life of Vietnamese people. These three religions accidentally formed the foothold, the concept: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三教同源) in the political, religious and literary life of the Vietnamese, especially in Ly and Tran dynasties. Many factors created the harmony between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in the land of the Vietnamese, such as: Historical context; the influence of indigenous cultural factors; Vietnamese people’s openness to foreign religions; historical requirements for the unification of material and spiritual strength; the role of these religions themselves in the ideological life of Vietnamese people. Contemporary developments have shown that concept -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 appeared as an inevitable part of Vietnamese history.

Keywords: The three teachings harmonize as one,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Vietnam, Of course.

